

# 성경 바로 보기

지은이 / 라킨(C. Larkin), 젤러(G. Zeller)

옮긴이 / 정동수 외 다수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he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 성경 바로 보기

지은이 / 라킨(Clarence Larkin), 젤러(George Zeller)  
옮긴이 / 정동수 외 다수

1판 1쇄 / 2009년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하며)  
2판 1쇄 / 2011년 3월 1일, 3판 1쇄 / 2014년 8월 25일,  
4판 1쇄 / 2022년 6월 10일, 4판 2쇄 / 2023년 3월 31일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웹사이트: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mailto:webmaster@KeepBible.com)

ISBN 978-89-92485-11-1 03230

정가 : 18,000원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Rightly Dividing The Word  
and  
Shedding Light on Dispensationalism*

— C. LARKIN and G. Zeller —

◆ **일러두기**

본서에 있는 성경 구절은 2021년도에 우리말로 출간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마케스티 에디션>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에서 모두 인용했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어젯밤 대장간 문 옆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모루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낡은 망치들이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두들긴 탓에 망가져 버린 낡은 망치들을.

그때 나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루를 사용하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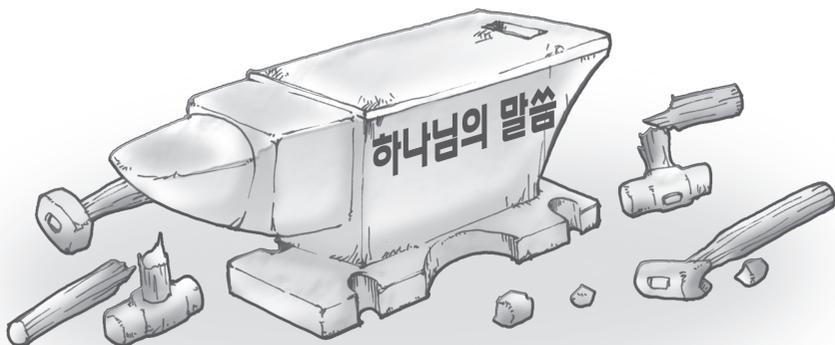
“이 모든 망치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닳아 못쓰게 됐으니 말입니다.”

“오직 하나뿐이네요.” 이렇게 대답하며 그는 반짝이는 눈동자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루가 이 망치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루와 같구나! 수 세기 동안  
회의와 의심의 망치질은 거세게 말씀의 모루를 내리쳤지만,  
두들기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모루는 지금도 변함없이 건재하며  
그 많던 망치들은 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구나!” 하고 말입니다.



# 목 차



## 1부 성경 바로 보기

저자 서문 .....	8
역자 서문 .....	10
제1장 성경을 바로 보자 .....	19
제2장 시대와 경륜 .....	29
제3장 유대인과 이방인 .....	44
제4장 교회와 왕국 .....	56
제5장 네 복음 .....	69
제6장 초림과 재림 .....	72
제7장 영의 세계 .....	86
제8장 사탄 .....	96
제9장 사탄의 삼위일체 .....	102
제10장 두 신비 .....	106
제11장 그리스도의 부활 .....	121
제12장 성경의 부활 .....	127
제13장 성경의 심판 .....	134
제14장 두 아담 .....	146
제15장 속죄와 구속 .....	159
제16장 죄와 구원 .....	166
제17장 율법과 은혜 .....	174
제18장 믿음과 행위 .....	180
제19장 두 본성 .....	185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상태 .....	193
제21장 새로 태어나는 것과 침례 .....	198
제22장 선택과 자유 의지 .....	207
제23장 그리스도와 신자의 내주 관계 .....	213
제24장 그리스도의 세 사역 .....	222
제25장 유월절 어린양 그리스도 .....	232
제26장 천국과 지옥 .....	242
제27장 유대교와 기독교 .....	257
제28장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들 .....	269

## 2부 세대주의 바로 알기

제1장 세대주의 바로 알기 .....	279
제2장 세대주의는 무엇인가? .....	297
제3장 세대주의자는 누구인가? .....	315
제4장 무죄 경륜 .....	325
제5장 양심 경륜 .....	331
제6장 인간 정부 경륜 .....	339
제7장 약속 경륜 .....	347
제8장 율법 경륜 .....	355
제9장 율법의 역할과 목적 .....	363
제10장 은혜 경륜 .....	371
제11장 교회 .....	381
제12장 환난기 .....	393
제13장 왕국 경륜 .....	402
제14장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	413
제15장 세대주의 요약 .....	422

## 부 록

성경 연대기 .....	426
구원의 원리 .....	430

## 선도 목록

1. 예언의 날들 .....	26
2. 때와 시기 .....	27
3. 시대와 경륜 .....	33
4. 심판의 경륜 .....	43
5. 유대인 .....	45
6. 다섯 가지 세상 왕국 .....	53
7. 이방인 .....	55
8. 교회 .....	57
9. 교회와 왕국 .....	65
10.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교회 .....	67
11. 네 복음 .....	71
12.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	74
13. 예언의 산봉우리 .....	75
14. 다니엘의 칠십 이레 .....	77
15. 성막 .....	89
16. 사람의 세 요소 .....	91

17. 지하 세계: 지옥 .....	93
18. 사탄: 이 세상의 신 .....	99
19. 사탄의 삼위일체 .....	103
20.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	107
21. 처녀 탄생 .....	111
22. 적그리스도 .....	117
23. 적그리스도와 이방인들의 때 .....	119
24. 성경의 부활 .....	131
25. 성경의 심판 .....	135
26. 성도들에 대한 두 심판 .....	138
27. 보상의 심판 .....	139
28. 두 아담 .....	147
29. 율법과 은혜 .....	175
30. 두 본성 .....	189
31.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상태 .....	195
32. 사람의 상태 .....	199
33. 그리스도와 신자의 상호 내주 관계 .....	215
34. 그리스도의 세 사역 .....	223
35. 창조부터 그리스도까지 .....	231
36.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	237
37. 성경의 하늘들 .....	245
38. 유대교와 기독교 .....	259
39. 그리스도와의 친밀도를 보여 주는 원들 .....	271
40. 만물의 회복 .....	425
41. 구원의 원리 .....	433
42.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보존 .....	434

이 책에 있는 선도들을 포함하여 1300여 개의 컬러 지도 및 선도를 담은 <에스라 성경 지도 선도> PDF 파일을 옆의 QR 코드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수 목사의 설교 및 강해 노트 6,000여 쪽 PDF 파일과 MP3 설교 등도 옆의 QR 코드 링크에서 역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자 서문

저(Clarence Larkin)<sup>1)</sup>는 원래 기계 공학 및 건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사업을 그만두고 신학 교육도 받지 않은 채 서른네 살에 복음 선포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제 기계 및 설계 제도 기사로서의 모든 기술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도기 세트만을 제외하고는 전공 관련 서적과 도구를 모두 처분했습니다. 처음 15년 동안 저는 조그만 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명을 받아 목사가 되었을 때만 해도 저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전천년설'(Premillennialism)을 믿지 않았으나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 손에 들어온 책들의 도움을 받아 '전천년설'이 성경적으로 맞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고 그 뒤부터 설교를 할 때나 가르칠 때에 그것을 채택했습니다.



클라렌스 라킨  
(1850-1924)

저는 강단에서 사용하기 위해 예언의 진리에 대해 길러진 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두 개의 성경 학교에 초청을 받아 목회 외에 가르치는 일도 맡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저는 예언에 관한 여러 선도들을 그려 출간했고 이 선도들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15년에 주님께서서는 제 마음속에 「경륜에 따른 진리」(*Dispensational Truth*) 혹은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라는 책을 선도들과 더불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안의 선도들과 선도들을 설명하는 글을 저술하는 데 무려 3년이나 걸렸습니다. 이 책은 예언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을 꾸준히 주의 깊게 30년 이상 연구한 결과를 모은 것이며,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진리'에 대한 표준이 되는 책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책을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 사람들이 보여 준 호응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불과 열 달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첫 판은 동이 났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사실 첫 판은 이런 책이 팔릴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으며 따라서 값싼 형태로 인쇄해서 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책을 원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이 책을 수정하고 확대하여 좀 더 널리 사용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끝내기도 전에 주문이 쇠도해서 첫 판과 같은 형식으로 둘째 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셋째 판은 이전의 두 판에 비해 선도와 설명을 두 배로 늘렸고 마치 지도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기 편하게 했습니다.

만일 제가 훌륭한 제도사를 고용해서 이 책의 선도들을 그리게 했다면 책값이 엄청나게

1) 위키백과 Clarence Larkin 참조. [https://en.wikipedia.org/wiki/Clarence\\_Larkin](https://en.wikipedia.org/wiki/Clarence_Larkin)

비쌌을 것입니다. 또한 제도사들은 이런 선도들을 그릴 수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제가 갖고 있던 성경 지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선도들은 성령님의 지도와 감독하에 주의 깊게 생각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한 번에 이 모든 선도를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아마도 저는 큰 혼동에 빠졌을 것입니다. 대신 제가 한 개를 마무리하면 또 그분께서 다른 선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령님께서 밤에 혹은 아침에 깬 때에 해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진리'에 대해 글을 쓰는 저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하거나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부당하게 제시하는 것을 보고는 슬픔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도하면서 성심을 다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했고 단순히 성령님께서 제게 보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설명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어떤 종교나 교파의 교리에 영향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마음을 열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로 했으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독자께서 성경과 비교하여 제 글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저는 이 책의 출간에 복을 허락해 주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이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책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 성령님의 손에서 쓰이는 좋은 도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920년 3월 25일  
필라델피아에서  
라킨(Clarence Larkin)

## 역사 서문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른 교리의 정립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진리의 말씀을 힘써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교리 같은 것은 성도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또한 교리란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정확하며 이성적인 분이시므로 그분의 자녀인 우리 또한 맹목적으로 무지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정립된 성경적 교리 위에 서서 올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건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쫓아 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 낸 이야기들로 돌아설 때가 올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이미 경고해 주었습니다(딤후4:3-4).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로마 카톨릭교회를 중심으로 종교 통합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빈야드 운동, 브라운스빌 부흥 및 펜사콜라 부흥 등의 거짓 부흥 운동이 기독교계를 강타하고 있으며 또한 프라미스 키퍼(아버지 학교), 알파 코스, G12 등의 기독교 운동이 심리학을 동원하여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하고 또 산불처럼 번지면서 성도들을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다미 선교회 같은 사이비 종교 집단에 의해 소위 ‘휴거 파동’이 생긴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 성경적으로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 취급을 받는 묘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짓이 활개 칠 수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성경 말씀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가려운 귀를 긁어 주는 거짓 선생들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본서의 저자인 클라렌스 라킨은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활약한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는 원래 성공회를 다녔고 세상의 학문으로는 기계 공학을 전공했으며 특히 제도를 담당하던 기계 공학도였습니다. 그는 서른 살쯤에 복음 사역에 뛰어들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신앙인이 되어 철저한 ‘성경 신자’(Bible Believer)가 되었고, 그 뒤로 자신이 갖고 있던 제도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성경 속에 있는 진리들을 수백 개에 이르는 훌륭한 선도들로 만들어서 후대 사람들에게 값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가 지은 책 중에 「경륜에 따른 진리」(*Dispensational Truth*)라는 책은 무려 40판 이상이나 출간되어 지금까지 미국과 전 세계의 수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읽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번역하여 출간한 책은 「경륜에 따른 진리」를

요약한 것으로 원 제목은 「말씀을 바르게 나누며」(*Rightly Dividing The Word*)입니다. 이 책 역시 전 세계로 퍼져 나가 많은 이들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게 해 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는 먼저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려 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감리교에 다녔고 라킨 목사님처럼 기계 공학을 전공했으며 주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1982년부터 1992년까지 캐나다와 미국에서 학생으로 또 교수로 지내며 미국의 기독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은 기독교 서적들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와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코 미국 찬양론자가 아닙니다. 단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근본주의적 크리스천들이 훨씬 더 성경에 가깝게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뿐입니다.

알다시피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보수적인 침례교회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뉴에이지 인본주의의 길로 내닫고 자유주의 신자들이 여러 가지 배도 운동을 전개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그 힘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해 가가호호 전도하러 다니는 근본주의 신앙의 소유자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방송을 틀어 보면 어느 곳에서나 설교자들의 90% 이상이 근본적인 침례교 목사들입니다. 물론 저는 결코 침례교만 좋고 나머지 다른 교단은 나쁘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바는 이런 침례교 목사들의 대부분이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해석하는 데 반해 한국 크리스천들의 다수는 성경 말씀을 비유적으로 믿고 해석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 및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거기에 순종하며 살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사람마다 자기 뜻에 맞게 아전인수식으로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교리에 혼란이 오면 믿는 이들이 갈팡질팡하게 되며 소망이 흔들리게 되고 각종 이단이 성행하게 됩니다. 또한 믿는 바가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에게 자기의 믿는 바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회에 다니던 라킨 목사님이 그 교회가 가르쳐 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문맥에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그의 가슴속에는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뜨거운 열정이 솟아났습니다. 그 결과 그가 저술한 여러 권의 책들은 전 세계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심금을 울린 명저가 되었습니다.

역자 역시 지금부터 25년 전에 라킨 목사님의 책을 접하고는 성경 해석의 어려움으로 답답해하던 차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책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감탄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말씀을 비교해가는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다수의 한국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하루 만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므두셀라는 문자 그대로 969세를 살았으며, 문자 그대로 노아의 대홍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으며,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나셨고 죽은 지 삼 일 만에 부활했으며,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요 교회는 교회이며, 천년 왕국 역시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천년 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환난기 전에 교회가 휴거를

받아 공중으로 채여 올라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확신의 시대를 살면서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따돌림을 받게 되므로 다수의 사람들이 -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 자기가 믿는 바를 밝히지 못하지만, 저는 사람의 말이나 교단의 가르침에 상관없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저는 그분께서 성경 말씀대로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유적 해석 방법과 문자적 해석 방법이 어떻게 다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리이까? 하니 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10 그대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할 것이요... 12 불법이 성행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5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16 그대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19 그 날들에는 아이 뱀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도다 20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21 그대에 큰 환난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30 그대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대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비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위의 말씀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모두 이루어졌다고 가르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3절에 따라 주후 70년에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끝이 왔어야만 합니다. 땅의 모든 지파들이 예수님이 구름들 가운데서 오신 것을 보았어야만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끝이 죽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그 끝은 세상의 끝입니다. 3절의 ‘세상 끝’과 13절의 ‘끝까지’의 끝과 14절의 ‘끝이 오리라’의 끝은 다 같은 끝입니다.

또한 이들은 산속으로 도망하는 것은 교회로 피신하는 것이고(16절), 아이를 가진 자들, 즉 임신한 자들은 아직까지 전도의 열매를 내지 못한 자들이며(19절), 겨울이란 믿음이 식은 때고 안식일은 주일이라고 주장합니다(20절). 또한 여기에 나오는 ‘너희’가 곧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큰 환난을 겪으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충성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환난 통과설’을 주장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주장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읽으면 해석이 더없이 간단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위의 말씀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며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물론 유대인들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온 세상에 선포될 복음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왕국의 복음입니다. 세상 끝에 144,000명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다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계7, 14장).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누군가가 보려면 반드시 유대 땅에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곳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성전이니 결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만 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해야만 하며 성전을 지어야만 합니다. 앞의 두 일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일은 성전을 짓는 것뿐이며 이것을 위해 유대인들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바로 성전 건립을 위한 장소 때문에 지금까지 그토록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건립되어야 비로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4절에 기록된 다음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상천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위의 말씀이 성립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므로 문자 그대로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분명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고 말하며 분명한 장소를 언급합니다. 유대 땅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따라서 큰 환난이 유대 땅에 임하게 될 때 유대인들은 산속으로 피신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산으로 피신하려면 임신하여 아이를 가진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화를 받게 됩니다. 또한 그날이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여행할 수 없으므로 잡혀서 죽게 되고 역시 겨울에는 추워서 움직이기 어려우므로 도망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때에 도망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위의 말씀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유대 땅은 북반구에 있으므로 그곳이 겨울이면 호주는 여름이 되므로 아마도 주님께서 호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날이 여름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 이미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어린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환난 전 휴거’라 부르며 성경은 ‘복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딤후2:13). 세상의 창건 이래로 없었던 무서운 환난을 다 겪은 뒤에 휴거를 받는다면 과연 그것이 복된 소망입니까?

독자께서는 유명한 작가의 글을 읽을 때 비유로 읽습니까? 아니면 문자 그대로 읽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의 친서를 주시면서 거기에 적힌 그대로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읽고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게 기록되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전통을 따라 교회가 가르쳐 주는 대로 신학교에서 가르쳐 준대로 억지로 짜 맞추려고 하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경륜주의’(Dispensationalism) 혹은 ‘세대주의’라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에 대해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지금까지 몇 세대가 있었고 앞으로도 몇 세대가 있을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하는 체계이며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는 신자라면 자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비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문자적 해석에 근간을 둔 세대주의라는 말을 썼을 뿐입니다.

한국에서 세대주의가 오해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수의 신학교와 교회들이 비유 해석을 증시하는 언약주의 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디 독자들께서는 마음을 여시고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기서 제시되는 논거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을 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만 저와 여러분의 최종 권위입니다.

1992년부터 몇 년간 이 책을 출간해야겠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미루고 미루다가 마침내 이준승, 구정민 형제님의 도움으로 완역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이 본문의 여러 부분을 초역해 주었고 이것을 기초로 제가 완역을 하고 모든 선도를 다시 컴퓨터로 제작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보낸 많은 시간을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두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라킨의 책 「Rightly Dividing The Word」는 1998년 3월에 「다시 보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 당시 흔쾌히 본서의 출간을 허락하고 꼼꼼히 교정을 봐 준 두루마리 출판사의 정종철 형제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보는 성경」은 출판사 사정으로 절판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이 완역되어 출간되었고 또 여러 독자들이 세대주의에 대한 총괄적인 입문서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라킨의 책이 세대주의에 대해 2장에서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좀 더 분명하게 이 진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2부에 「세대주의 바로 알기」라는 제목의 젤러(Gorge Zeller)의 글을 실었습니다. 또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곳에 각주를 넣어 설명을 했습니다.

본서에서 1부의 선도들은 이승철 형제님이, 책 표지와 2부의 삽화들은 김재욱 형제님이 그려 주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이경선 자매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를 꼼꼼히 보며 교정해 주었습니다. 이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책의 출간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흑백 선도는 본문의 필요한 곳에 넣었습니다.

결국 라킨과 젤러 그리고 여러 참고 문헌의 글을 하나로 묶어 「성경 바로 보기」라는 제목으로 출간하는 본서는 21세기를 맞으며 말씀의 기근을 만난 성도 여러분의 영적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 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신 부모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화평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10월 31일  
인천에서  
정동수

- 
- 2023년도 미디어 선교의 일환으로 사랑침례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헌신적으로 교정 및 교열을 해서 책을 빛나게 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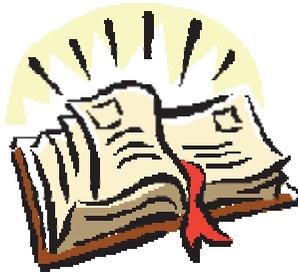




제1부  
성경 바로 보기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Study to shew thyself approved unto God,  
a workman that needeth not to be ashamed,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2 Tim. 2:15).





## 제1장

# 성경을 바로 보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심정으로 아무 지식도 없이 무조건 간절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아는 것이 참으로 큰 힘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믿음 생활을 해도 궁극적으로 어리석은 종교인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합니다(요17:3). 그런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뒤에도 성도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권능을 가진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일까요?

### 1. 성경

성경을 가리키는 영어 ‘Bible’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책’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Biblos’에서 유래하였으며 5세기 이후부터는 영어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책으로서, 여러 책을 모은 전집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일관된 이야기이며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 즉 그분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sup>1)</sup>을 담은 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신학이나 역사, 과학 또는 어떤 다른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구와 인류에 관해 시대들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 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씩 주어졌습니다(히1:1). 주전 1492년에서 주후 100년까지 약 1,6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그분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들(단어들)을 대언<sup>2)</sup>했습니다. 성경은 약 40명의 서로 다른 인간 기록자들이 기록한 총 66권의 책(구약 39권,

---

1) 말씀들은 영어로 ‘words’인데 성경에서 ‘words’는 항상 하나님이 친히 숨을 불어넣어 주신 단어들을 가리킨다.

2)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영어에서 ‘prophecy’ 혹은 ‘prophet’의 1차적 의미는 ‘남의 말을 대신 전하다’ 또는 ‘남의 말을 대신 전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언하다’ 혹은 ‘선지자’로 번역해서는 안 되며 ‘대언하다’와 ‘대언자’로 번역해야 한다. 일례로 개역성경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예언’은 모두 ‘대언’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기록 자체가 하나님의 대언이며 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중 일부가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 기록자들 중에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도 있고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은 정치가와 에스라와 같은 제사장도 있으며 모세와 같이 이집트의 지혜를 배운 사람, 마태와 같은 세금 징수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어부, 누가와 같은 의사 그리고 이사야, 에스겔, 스가라와 같은 위대한 대언자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다양한 문화와 배경과 경험과 학식을 가진 여러 명의 인간 기록자들에게 의해 기록되었지만 이것은 ‘한 책’(One book)입니다.

또한 아시아에서 기록되긴 했지만 성경은 결코 동양에 대한 서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의 각 페이지는 여러 지역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내 광야와 아라비아의 절벽들, 팔레스타인 지역의 언덕과 마을들, 성전의 뜰, 베엘과 예리고의 대언자 학교, 페르시아의 수산궁, 로마의 지하 감옥 그리고 에게해(海)의 외로운 밤모섬 같은 곳이 그런 장소 중 일부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언급할 때 ‘성경기록’(마21:42; 벰후1:20), ‘거룩한 성경기록들’(롬1:2), ‘율법’(요12:34),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눅24:44),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마5:17), ‘옛 상속 언약’(고후3:14) 등으로 부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서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때 사이에는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으며 이때에 나온 외경<sup>3)</sup>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대언자들을 통해, 신약 시대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히1:1-2).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기록자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 주는 증인입니다(신6:17; 시119:89; 잠30:5-6; 렘23:29; 마5:17-19; 딤후3:15-17; 벰전1:23-25; 벰후1:20-21; 계22:18-19).

## 1. 성경의 구성

성경은 66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39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된 구약 성경과 27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된 신약 성경으로 구분됩니다. 성경은 1,189장(구약 929장, 신약 260장), 31,102절(구약 23,145절, 신약 7,957절), 788,258개 영어 단어(구약 609,247개, 신약 179,0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과 절은 시편 119편과 에스더기 8장 9절이고 가장 짧은 장과 절은 시편 117편과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성경의 중간 장은 시편 117편이며 성경의 중간 절은 시편 103편 1-2절인데 그 가운데 1절은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라.”입니다. 구약 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된 일부(스4:8-6:18; 7:12-26; 렘10:11; 단2:4-7:28 등)를 제외하고는 모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며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율법: 모세 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 (2) 대언서: (a) 전기 대언서(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b) 후기 대언서(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열두 개의 소 대언서)
- (3) 거룩한 기록들: (a) 진리(시편, 잠언, 욥기), (b) 다섯 개의 두루마리(아가,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 (c)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3) 외경(Apocrypha)은 ‘숨겨진 글’을 뜻한다.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성경의 일부로 여기지만 역사를 통해 성경 신자들은 한 번도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외경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책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니라 사람의 말들을 담고 있다.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으며 역사를 다루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사도들의 서신서 그리고 미래 일을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성경에는 지금과 같이 장과 절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몇 부분으로 나누었으며 주후 9세기경에 절을 표시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을 장으로 나눈 것은 주후 13세기경에 휴고 등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주후 1551년에 스테파누스(스테판)는 신약 성경에 절을 붙였으며 그 뒤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었습니다.

## 2. 성경의 주제와 내용

성경은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들어오기 전의 ‘과거의 영원’과 주전 4004년에 시작된 하나님의 특별 창조부터 현 세상의 멸망 그리고 앞으로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미래의 영원’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합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을 구속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요20:30-31; 요일5:20).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예표와 그림자로서 만물의 기원과 사람의 창조와 타락, 죄, 이스라엘, 희생 제도를 보여 줍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 성경의 성취와 교회의 설립, 천년 왕국과 그 이후의 미래의 일을 담고 있으며 구약 성경의 실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 역사, 문학, 철학, 시, 예언 등에서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100% 진리만을 담은 완전한 하나님의 책이며(롬3:4) 또한 시, 역사, 드라마, 사랑 이야기, 중요 이야기, 전쟁 이야기, 철학, 논증 등을 담은 문학책입니다. 성경은 편견이 없는 책으로서 사람의 죄와 실수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며 하나님, 사탄, 사람, 죄, 구원,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등을 권위 있게 선포합니다. 사람은 이런 권위로 편견 없이 이와 같은 책을 지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성경은 초자연적인 책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 거룩함을 보여 주는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요, 예수님은 ‘살아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요14:1-9).

## 3. 성경기록의 계시와 영감과 보존과 번역과 해석

### o 계시(Revelation)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알 수 없습니다. 계시에는 창조를 통한 일반 계시와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객관적인 기록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계시를 문자 기록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의 계시에는 세 측면이 있습니다.

- (1) 망원경적인 측면: 성경은 멀리 셋째 하늘에서부터 땅 속의 지옥까지 또 만물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여 줍니다.
- (2) 현미경적인 측면: 성경은 하나님, 사람, 마귀, 죄, 구원, 미래의 일 등을 자세히 보여 줍니다.
- (3) 입체 사진경적인 측면: 성경은 그 안의 모든 것이 하나의 모순도 없이 연결되는 것을 사망에서 입체로 보여 줍니다.

### o 영감(Inspiration)

영감은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기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원하고도 절대 무오한 기록을 필요로 하며 영감이야말로 이 같은 필요를 만족시킨다.”는 말은 참으로 합당합니다.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말씀(단어)에 숨을 불어넣는 것을 뜻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모든 성경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딤후3:16). 성경 신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단어’(every word)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총체적 축자 영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상이나 개념에 영감을 주시지 않았고 모든 단어에 영감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성경의 모든 단어를 살아 있는 말씀으로 대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 ‘모든 단어’(every word) - 으로 살 것이라.”(마4:4)고 말씀하셨습니다.

### o 보존(Preservation)

보존은 하나님의 성경기록을 하나님의 섭리로 완전히 보존하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말씀을 보존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 결코 소멸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말씀의 보존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자신의 말씀에 영감을 주신 것이 의미가 없게 되며 하나님의 속성은 결코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를 통해 치밀하게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으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시12:6-7).

### o 번역(Translation)

번역은 진리를 다른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들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작업이 필요치 않았으며 신약 시대에도 2세기까지는 그리스어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나라의 성도들을 위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번역해야만 했습니다.

### o 해석(Interpretation)

해석은 진리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성경의 각 구절이 오직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떤 신비주의적이며 비유적인 해석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신자들은 문법적이며 역사적인 해석을 취합니다. 문법적 해석이란 문맥에 맞추어 문자 그대로의 정상적인 의미를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역사적 해석이란 역사적 시대, 수신자, 목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뜻합니다.

## 4. 성경기록의 정경

정경은 측량하는 막대기로서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대비하는 표준을 말합니다. 하나님

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책들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각각의 책을 진리를 담은 전체 성경의 일부로 만들었는데 바로 이런 책들이 사람의 행위나 믿음과 실행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표준 잣대’인 정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성경의 39권과 신약 성경의 27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으며 천주교회의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정경의 본문 형태는 항상 다수 본문의 근간이 된 전통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과 그리스어 비잔틴 사본에서 나왔습니다. 정경은 사람이 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성경의 영감은 정경을 요구하며 어떤 책이 정경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책에 영감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공회 등의 기구를 통해 정경을 인정할 뿐이지 정경을 정하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그 사본들을 간수했으며 정경화 작업은 서기관 에스라 시대와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대에 끝이 났습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 주후 397년에 열린 카르타고 공회에서 일반적 동의에 이르게 되었고 교회들이 최종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 5. 성경의 확산과 보편적 성경

처음으로 세상에 잘 알려진 영어 신약 성경은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인 1370년경에 나온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그 뒤 인쇄술이 발명되고 1526년에 처음으로 틴데일의 신약 성경이 인쇄되어 나왔으며 1535년에 커버데일은 처음으로 신구약을 포함한 성경전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 뒤 커버데일과 다른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메리 여왕의 압제를 피해 제네바에 거하면서 1560년에 제네바 성경을 출간하였고 그 뒤 1611년에 제임스 왕에 의해 일반 사람들을 위한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어 지난 400여 년간 온 세상에 복음을 알리는 표준 성경이 되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가 최고조에 이른 때에 당대의 석학 50여 명이 원어에서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으로 한 번의 수정 없이, 단 하나의 오류 없이 당당하게 세월의 풍파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으며 문학적으로도 영문학의 백미로 꼽힙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히브리어 전통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번역하면서 전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표현하여 말 그대로 모든 성경의 표준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신국제역(*NIV*) 같은 현대 역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것들은 대개 부패된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비평 본문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수천 군데에 오류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현대역본들은 독자적, 형식적 일치 번역이 아닌 동적 일치 번역<sup>4)</sup>이므로 하나님의 말씀들(단어들)을 온전히 담고 있지 않습니다.

## 6. 성경의 영향

성경은 인류 역사를 통해 가장 많이 읽히고 번역되고 팔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실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경만큼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정경인 성경은 지금까지 2,0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세계 어디서나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문화인이라 불리기 힘들 정도로 폭넓은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4) 동적 일치 번역은 원어 성경의 단어를 일 대 일로 수용 언어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구절의 뜻이나 사상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동적 일치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찾기가 어렵다.

영향을 미친 이런 경전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그 안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파괴하려고 시도했으나 그들의 시도는 모두 허사로 드러났습니다. 볼테르 같은 인본주의 불신자들의 성경 무용론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성경은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지식을 값없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생명의 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땅이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영원한 미래가 올 때까지 성경은 믿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의 지옥 심판의 경고를 주며 믿는 이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진리를 줄 것입니다(막9:42-50; 눅12:4-5; 요3:16; 5:24; 17:17; 20:30-31).

## II.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

성경은 결코 고대 역사, 신화, 전설, 종교적인 명상들과 계시 문학을 잡다하게 혼합해서 만든 책이 아닙니다. 이 책에는 계시와 교리의 진보가 있습니다. 재판관들(사사들)은 족장들보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더 많이 알았으며 재판관들보다는 대언자들(선지자들)이, 대언자들보다는 사도들이 더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따로따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가 없이는 구약의 레위기를 이해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없이는 구약의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록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이긴 하지만 이 책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거나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의 언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기원이 초자연적이라는 사실은 이 책이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번역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 1. 문자적 해석이 핵심이다

성경은 문학 면에서 다음과 같이 세 종류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1. 비유적 언어
2. 상징적 언어
3. 문자적 언어

비유적 언어는 앞뒤 문맥을 통해 그 뜻을 알 수 있으며 상징적 언어는 그 부분의 내용에서 또는 성경의 다른 곳을 참조하여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다른 책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 의미를 우화적으로 해석하거나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2. 말씀의 대상이 중요하다

성경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의 일부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일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일부는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실 신약 시대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셋으로 분류됩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고전10:32)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교회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으나 그 안의 모든 내용이 교회에 관한 것 혹은 교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한 민족, 즉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약 성경의 약속들을 문맥 밖에서 취해 교회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에게만 주어진 배타적인 약속들을 빼앗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이 대언자 이사야의 대언을 취해 신약 시대의 교회에 적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사(사1:1).

또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과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원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록되었으므로 유대교의 색채가 짙습니다.<sup>5)</sup> 야고보서는 ‘교회’가 아니라 ‘널리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즉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인사하노라(약1:1).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떨어져 나가면’(히6:4-6)이라는 말과 ‘고의로 죄를 지으면’(히10:26)이라는 말에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런 구절들은 결코 다시 태어난 적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공언하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구절들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 메시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실제로 다시 그분을 십자가에서 처형시킨 것이나 다름없으며, 따라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들의 형제들만큼이나 악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므로(딤후3:16)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와 교훈이 됩니다(고전10:11). 하지만 우리는 결코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을 교회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

5)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 등은 교회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은 명백히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히 12:22-24). 신약 성경의 기독교회는 처음 형성될 때 100%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었고 오순절 사건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고넬료 사건(행 10장)을 통해 이방인들도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기 사도들은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고 바울은 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갈2:7-10). 따라서 베드로, 야고보 등이 기록한 교회 시대 초기의 글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기에 유대교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교리를 강조하기보다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회심을 크게 갈망하였다(롬9:1-5).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예표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 줌으로써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설 것을 바라며 히브리서를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로마서’라고 할 수 있다. 제목이 의미하듯이 이 글은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내용은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이 모두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 예언의 날들

그리스도의 날  
골 1:6-10

그리스도의 심판석  
성도들과 심판받은  
자 갠 갠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교회를 만남

첫째 교회의 갠

평상 교회의 갠

둘째 교회의 갠

셋째 교회의 갠

주 의 날  
골 2:1-11;  
숙 14:1-21; 말 4:5-6;  
마 24; 행 2:19-20

그리스도의 날  
7년 환난기

의 의 날  
천년 왕국  
(계 20:6)

첫째 박해의 갠

후지 교인 갠

구원의 날  
교회

회 왕좌 심판  
(계 20:11-15)

사악한 자들의 둘째 부활

세 하늘  
세 에루살렘

세 명

적 임들의 갠

불에 의한  
지구의 정화

불 호수

영원  
끝이 없는 시대  
(고전 15:24-28)

하늘의 날

무덤

무덤

# 때와 시기

(행1:7; 17:26)

## 지나간 때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히1:1)

### 무지하던 때

(행17:29-30)

에 덴

모 세

율법 밖에 있었음  
(롬2:12)

BC 1491

BC 606

## 마지막 날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들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히1:2)

지 상  
1:7-10  
강 령

### 이방인들의 때

(눅21:24)



(단2:1-45)



올리브 산 천년왕국  
(슌14:4) (사35:1-10)

부활의 때  
부활케 하는 때  
(행3:19)

(엡1:10)

새 하늘과 새 땅  
(계21:1)

(행3:21)

그분께서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 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행17:26)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며 사람들을 혼란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 3.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면서 우리는 또한 대언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세 사역> 선도를 주의 깊게 연구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 사역의 직분을 동시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의미를 갖는 날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앞에 있는 <예언의 날들> 선도를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Times)와 ‘시기’(Seasons)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던 ‘지나간 때’와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날들’(히1:1-2)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때’에는 ‘무지하던 때’(행17:30), ‘이방인들의 때’(눅21:24), ‘새롭게 하는 때’(행3:19),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행3:21) 그리고 ‘때가 충만히 찬 경륜’(엡1:10) 등이 있습니다. <때와 시기> 선도를 보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의 때’라는 말에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권세를 차지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권세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때’가 진행되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서는 교회가 결코 지배하는 권세, 즉 왕국의 권세를 차지할 수 없음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여 놓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처럼 하나님께서 붙여 놓으신 것을 나누지 말아야 하며, 침례와 다시 태어남(증생), 율법과 은혜, 교회와 왕국처럼 그분께서 나누어 놓으신 것을 붙여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만으로 성경을 나누는 것은 충분치 않으며 우리는 시간과 영원에 관해서 그리고 시간 속에 등장하는 여러 시대와 경륜, 즉 하나님의 시대 경영 통치 체계에 관해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 제2장

# 시대와 경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특별히 연대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연대(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연대는 창세기의 창조 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변합니다. 진화론자들은 대개 우주가 100-200억 년 전에 대폭발(Big bang)에 의해 생성되었고 지구는 50억 년 전에 생성되었으며, 사람과 원숭이의 공통 조상은 5천만 년 전에 그리고 사람은 100만 년 전에 이 땅에 존재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기독교 서클 내에서는 창조의 연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1. 문자 그대로의 6일 창조
2. 날 - 시대 이론
3. 재창조 이론
4. 유신론적 진화론

문자 그대로의 6일 창조를 주장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과 동일한 24시간의 하루를 여섯 번 사용하셔서 우주와 그 안의 모든 천체와 땅과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성경기록을 믿으면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의 이름과 수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역으로 이것을 추정할 때 성경의 연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태어나 고대 유대인들의 역사와 전쟁사를 기록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당시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들 때부터 대대로 랍비들에게서 물려받은 문서와 지식에 근거하여 구약 성경의 창조 연대가 주전 4000년경임을 밝혀 놓았습니다.<sup>1)</sup> 또한 이와 같은 식으로 성경의 연대를 정한 유명한 성경학자는 어셔였습니다.<sup>2)</sup> 어셔에 따르면 아담은 주전 4004년에 창조되었고 따라서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는 약 6,000년이 됩니다.

‘날 - 시대’ 이론은 창세기의 창조 당시 하루가 실제로 몇 십억 년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믿고 있는 약 200억 년의 우주 생성 연대와 성경의 창조 연대를 맞추기 위해 일부 인본적인 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자의적 해석을 하곤 하지만 이런 것은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약화할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어느 것이 최종 권위가 될지 아무도 모르며 따라서 성경 해석에 관한 혼동이 생기므로 성경 신자들은 이런 해석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

1) Flavius Josephus(주후 37-100년), 「유대 고대사」(*Antiquities of the Jews*)

2) Bishop James Ussher(주후 1581-1656), 아일랜드의 성공회 주교, 「어셔의 연대기」(*Ussher's Chronology*)

재창조 이론(혹은 간극 이론, Gap theory)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루시퍼의 반란<sup>3)</sup>으로 인한 '원래 지구의 멸망'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파멸된 지구가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1850년경부터 진화론이 급속도로 파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불안을 느낀 크리스천들이 순수한 의도로 성경과 진화론의 연대를 맞추기 위해 개발한 임시방편 이론입니다.<sup>4)</sup>

그 뒤 약 100년이 지나서 1960년경부터 전 세계의 창조 과학자들이 지구와 우주의 생성 연대가 채 만 년이 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과학적/역사적 데이터를 제시하기까지 재창조 이론은 진화론의 공격에서 성도들을 지켜 주는 보호막이 되었고 지난 1세기 동안 서구의 보수적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이들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창조 과학자들의 연구와 노력에 의해 지구와 우주의 생성 연대가 문자 그대로의 성경의 연대와 비슷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또 재창조 이론의 여러 중대한 문제점들이 크리스천 학자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제기되어서 현재 대부분의 보수적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이론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 이론이 나오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은 19세기 말의 영적 혼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신술(점신술 혹은 신지학)과 같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많았고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마귀들이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마귀들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는 이유를 연구하던 펌버<sup>5)</sup> 같은 신학자는 원래 지구에서 살던 '아담 이전의 사람과 같은 어떤 존재들'(Pre-Adamic race)이 관능주의에 빠져 마귀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 결과 이때에 몸을 잃어버렸으며 그래서 새롭게 다시 창조된 지구에서 사람의 몸으로 들어와 사람의 몸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고 기록합니다(롬5:12). 성경이 기록한 대로 창세기의 아담 이전에는 죄와 사망이 결코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재창조 이론은 성경의 핵심 교리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원래 완전한 사람을 만들지 않았고 유인원 같은 존재를 만들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존재가 진화하여 지금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 역시 인본적인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결국 문자 그대로의 6일 창조를 제외하면 나머지 이론들은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우주와 지구 생성의 긴 연대와 성경의 연대를 맞추기 위해 임의로 고안된 것들입니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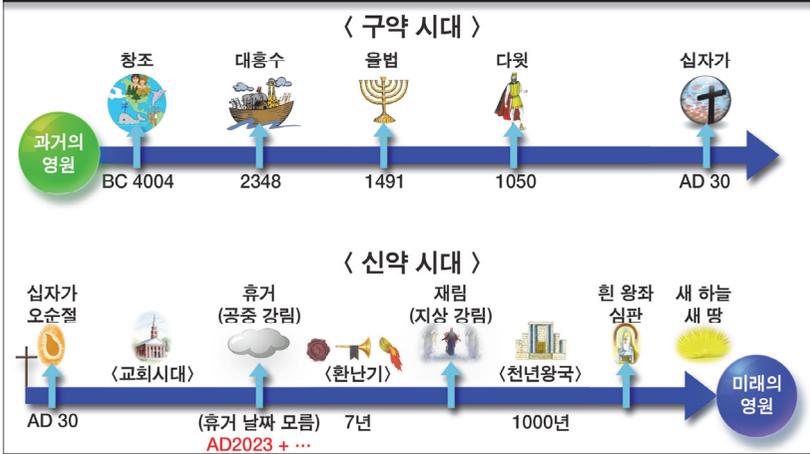
3)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의 루시퍼(사탄)의 반역 기사 참조

4) 재창조론의 원조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유명한 목사 중 하나인 홀머스(Thomas Chalmers, 주후 1780-1847)로 알려져 있다.

5) George Hawkins Pember(주후 1837-1910), 「초기 지구의 연대와 현대 점신술의 관련성」(*Earth Earliest's Ages, and Their Connection with Modern Spiritualism and Theosophy*, 1876)

6) 본서의 저자 라킨 역시 과학적 창조 데이터가 부족한 시대를 살며 진화론의 거센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창조론을 수용하였으나 역자는 그가 기록한, 1쪽 분량의 재창조 부분은 번역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인해 이 책의 다른 부분들이 평가 절하될까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 인류역사 타임라인



정통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Bible believers)은 진화론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까지 지구와 우주와 사람의 창조가 성경기록대로 주전 4000년경에 문자 그대로의 6일 동안에 이루어졌음을 믿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며 죽었던 예수님을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시킬 수 있었고 또 앞으로 순식간에 휴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변화시켜 공중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권능의 소유자시라면 6일 동안 이 땅과 우주와 그 안의 수많은 천체들과 사람들과 동식물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6일 창조는 크리스천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부활과 휴거는 믿는데 하나님의 특별 6일 창조는 믿을 수 없다면 그 믿음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자신이 원하시는 기간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권능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지구와 우주와 사람의 생성 연대에 대해 무어라 말하든 상관없이 성경기록에 의거하여 성경의 역사는 주전 40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6,000년 정도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인물들의 연대를 알아 두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류 역사 타임라인 선도가 보여 주듯이 구약 성경의 연대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약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약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약 1,000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노아의 대홍수가 생긴 연대인 주전 2350년과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때인 주전 1491년을 알아 두면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총 4,000년 가운데 처음 2,000년의 역사는 전체 구약 성경의 1%가 채 안 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말라기를 거쳐 마태복음까지 약 2,000년의 구약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류 역사 타임라인을 기억해 두면 지금부터 논의할 ‘시대와 경륜’<sup>7)</sup>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와 경륜> 선도를 보면 성경의 시간 개념이 ‘과거의 영원’(Eternity past)과 ‘시간’(Time) 그리고 ‘미래의 영원’(Eternity to come)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도는 또한 시간 밖에 있는 두 개의 시대를 보여 줍니다. 시간 이전에는 알파 시대, 즉 창조의 시대가 있었고 시간 이후에는 오메가 시대, 즉 ‘시대들의 시대’<sup>8)</sup>가 있습니다. 창조 이후로 인류의 역사가 펼쳐지는 시간 안에는 세 시대와 여덟 경륜(세대)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대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홍수 이전 시대
2. 현시대
3. 시대들의 시대

이 시대들 중 셋째 시대는 천년 왕국 시대와 완벽한 시대의 두 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경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sup>9)</sup>

1. 무죄(에덴) 경륜
2. 홍수 이전(양심) 경륜
3. 홍수 이후(정부) 경륜
4. 족장(약속) 경륜
5. 율법 경륜
6. 교회(은혜) 경륜
7. 메시아(왕국) 경륜
8. 충만한 때의 경륜

시대와 경륜(세대)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대는 땅의 표면에 두 개의 큰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 사이의 기간을 말하며 경륜은 세상 역사의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종류의 경영 통치 체계가 지속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현시대는 노아의 홍수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돌아오시게 될 때 끝이 납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기후적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사람의 수명이 약 1,000세에서 100세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다시 원상 복구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이 변하게 되고(슥14:4-10; 겔47:1-12) 사람들은 다시 1,000세까지 살게 될 것입니다(사65:20). 경륜(세대)이란 하나님의 경영 통치 검증 기간을 의미하지만 각 경륜(세대)에서의 통치 방법

---

7) 영어로는 ‘ages and dispensations’이다. 여기서 ‘dispensation’은 2부에서 설명되었듯이 하나님의 경영 통치가 이루어지는 체계 혹은 그 체계가 지속되는 기간을 말한다. 보통 세대주의 (Dispensationalism)에서는 시간의 개념으로 ‘dispensation’을 이해하여 이것을 대개 세대라고 번역하지만 ‘dispensation’의 원래 개념은 경영 체계를 가리키므로 이 책에서는 경륜으로 번역하고 종종 경륜(세대)이라고 표기하였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대라는 단어가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부모의 일을 계승할 때까지의 기간(보통 30년)을 나타내는 ‘generation’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8) 영어로는 ‘ages of the ages’이고 한국말로로는 대개 ‘만세’로 번역되었다.

9) 여기 나오는 여덟 개의 경륜과 경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2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2부를 참고하기 바란다.



혹은 집행 방법은 다르며 경륜이 바뀌면서 점점 진보합니다.<sup>10)</sup> 예를 들어 율법 경륜의 경영 방법은 ‘율법’이며 현시대 교회 경륜의 경영 방법은 ‘은혜’입니다. 또한 메시아가 다스리는 천년 왕국 경륜에서는 경영 방법이 ‘의’(義)가 됩니다.

## 1. 창조 시대

성경은 다음과 같은 엄청난 선언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창1:1).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주 공간과 지구를 만드셨는데 1장 2절이 보여 주듯이 창조될 때의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31절에 기록되어 있는 6일간의 창조 작업은 이처럼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지구를 하나님께서 동식물과 물고기와 사람으로 채우시고 우주 공간을 천체들로 채우시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창1:2-5)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빛은 태양 빛이 아닙니다. 태양 빛은 넷째 날에야 나옵니다. 그 빛은 아마도 원초적/근원적인 빛으로 전기적 빛이었을 것입니다. 그 빛이 우주 공간의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둘째 날의 일은 지구의 필요에 따라 대기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창1:6-8).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날의 일을 끝내시고는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으나 이 날에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통해 우리는 사탄을 통치자로 두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으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지구의 대기권이 형성되자마자 이 같은 사악한 권세자들이 그 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이 날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날의 일은 둘로 구분됩니다. 즉 바다에서부터 땅이 드러났고 식물체가 출현하였습니다(창1:9-13). 하나님은 씨를 먼저 만들지 않고 씨가 들어 있는 과일나무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예로부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두고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성숙한 개체가 먼저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넷째 날의 일은 하나님께서 비어 있던 우주 공간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들어 배치한 것입니다(창1:14-19). 바로 이때부터 이것들은 지구의 계절과 날과 달과 해를 표시하는 일에 지정을 받았습니니다.

다섯째 날의 일은 물고기와 날짐승을 창조한 것입니다(창1:20-23). 여기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고기들과 새들’이 이날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고래와 같이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들이 바로 이날 창조되었습니다.<sup>11)</sup> 진화론자들은 육지에 살던 소나 말 같은 포유동물이 바다로 들어가 고래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섯째 날에 고래를 만드셔서 말세에 나타날 조롱하는 자들의 시도를 미리 허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10)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경륜(세대)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바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가르친다. 창조물인 사람의 행위가 창조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이단 교리이다. 이 점은 2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1) 개역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고래로 번역한 히브리어를 바다짐승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성경에서 고래는 대단히 중요한 짐승이므로(욘1:17; 마12:40) 하나님께서는 창조 기사에서 다른 짐승의 경우와는 달리 직접 고래라는 이름을 주셨다(창1:21; 2:19).

여섯째 날의 창조 작업은 둘로 나눌 수 있으며 바로 이날, 땅에 짐승들과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창1:24-28). 이 구절들에서는 이런 짐승들이 각각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표현이 적어도 다섯 번이나 나오는데 이 사실은 이것들이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진화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다양한 종류의 짐승들이 모두 처음부터 각각 달리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동물을 교배시켜 태어난 동물들이 새끼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증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말과 나귀를 교배하면 노새가 나오는데 노새는 결코 새끼를 낳지 못합니다.

만일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식물과 동물이 진화했다면 우리는 화석에서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를 발견해야만 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진화 과정으로 인해 좀 더 발달된 형태의 동물이나 식물이 생기고 있음을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동물과 식물은 인류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처음부터 그것들이 존재했던 그 형태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새들은 그것들이 항상 그리했던 것처럼 동지를 틀고 새끼를 키웁니다. 수달은 물에다 자기 집을 짓고 벌은 늘 그래 왔듯이 벌집을 짓습니다. 단지 사람만 자신의 건축물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쟁기나 호미 혹은 키 같은 농사 도구가 복잡한 배양기, 모내는 기계, 수확하고 묶고 타작하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콤팩트 같은 농기구로 변한 것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농사에 쓰이던 아주 오래된 도구들을 통해 농사의 변천 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식물이나 동물계에서 이런 과정을 추적해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진화론이 옳다면 그것은 사람이나 짐승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끼리 결혼하게 하여 어떤 슈퍼맨 같은 존재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될 수 없음을 보여 줍니다.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원숭이로부터 나오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 결코 원숭이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은 야생 짐승에게서 나오지 않고 땅의 흙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같은 방법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나왔습니다(창2:21-23). 그들은 결코 자기들보다 더 낮은 상태의 창조물에서 진화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창1:27).

이 같은 창조 주간의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습니다(창2:2-3). 안식하신 이유는 자신의 일이 모두 끝났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정당한 이유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안식하신 것은 모든 것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좋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작업이 사람의 타락으로 인한 죄 때문에 손상을 받게 되자 그분의 안식이 깨어졌고 이에 그분께서는 사람의 구속(救贖)을 위해, 즉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고후5:17).

## II. 홍수 이전 시대

이 시대는 지구의 창조부터 노아의 홍수로 인해 지구가 혼돈에 빠지게 될 때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시대는 두 개의 경륜으로 나뉩니다.

## 1. 에덴 경륜

이 경륜(세대)은 아담이 창조된 때부터 에덴동산에서 쫓겨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기간은 매우 짧았을 것이며 이 경륜은 아담과 이브가 무죄 상태에 있었으므로 '무죄 경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는 '두 아담'이라는 제목의 14장을 보기 바랍니다.

## 2. 홍수 이전 경륜

이 경륜은 사람의 타락부터 노아의 대홍수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경륜은 사람이 자기 양심의 인도를 따라 무엇인가를 했으므로 '양심 경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타락 이전에는 아담과 이브에게 양심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양심이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눈이 열리기 전까지 이 같은 양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창2:17). 양심은 두려움과 후회를 가져다줄 수는 있지만 사람이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 자체가 어떤 능력을 부여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타락하기 전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녀를 낳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명백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창1:28).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뒤 얼마 만에 그들에게 아이가 태어났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마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첫째 아이는 가인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벨이 둘째 아이였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여러 명의 아들딸이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가인과 아벨은 성경에서 '사악한 자들의 계보'와 아담으로부터 오는 '의로운 자들의 계보'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내리신 저주 속에는 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창3:16)

여기서 '수태를 크게 늘린다'는 말은 아기를 자주 낳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한 번에 여러 명을 낳을 수 있음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당시와 홍수 이후의 얼마 동안 인류가 급속도로 불어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홍수 이전까지는 같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들은 이미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100세 이상의 어른이었을 것입니다.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며 자기 아버지의 양이 아니라 자기의 양을 돌보았습니다. 가인은 농부였으며 많은 땅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음을 알고 있습니다(창5:3). 이 사실은 아벨이 죽었을 때 그의 나이가 100세 이상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아벨의 죽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의 형태에 대해 가인과 아벨 사이에 발생했던 종교적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아벨은 피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가인은 하나님께

서 저주를 내리신 땅에서 취한 헌물, 즉 행위에 의한 헌물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에 대해 시험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헌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헌물은 거절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때에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헌물을 태운 것 같은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일로 인해 가인은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바로 그날 아벨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시며 죄를 속죄받기 위해 아직도 피의 헌물을 드릴 시간이 남아 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죄가 문에 얽혀 있다’는 창세기 4장 7절의 표현은 ‘죄 헌물이 문에서 기다리고 있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대신에 오랫동안 자신의 분노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들에서 아벨과 더불어 들이 있게 되었을 때 가인은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은 가인이 아벨과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인의 분노는 견잡을 수 없게 되었고 그는 앉아 있다가 땅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벨을 죽이려는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을 통해 약속된 씨가 오리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아벨의 죽음을 조장한 장본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가인 종교’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유다는 이것을 ‘가인의 길’이라고 했습니다(유11).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피를 무시하고 행위를 존중하는 모든 종교들의 기원을 보게 됩니다.

이 일 뒤에 가인은 놋 땅으로 옮겨가 도시를 건축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악한 자들로 가득한 도시가 건축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는 악기를 발명한 유발과 놋과 쇠를 다루는 자들을 지도한 두발가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머리를 이용하여 ‘불경건한 문화’를 세우고 향상시켰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70세에 죽지 않았고 거의 1,000세까지 살았음을 기억해 볼 때, 지식과 경험과 기술이 엄청나게 축적되어 과학과 예술이 발전하였고 고도의 문명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도구들이 발명되고 제조되었으며 그 발전 속도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빨랐을 것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 같은 큰 배를 건조하는 것이 그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웠다는 사실에서 고도의 문명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도 피라미드가 완성되었는데 피라미드를 지으려면 현 세상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수학과 천문학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찬란하지만 경건하지 못한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인구가 신속히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6장 1절은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문화가 발전되는 와중에 매우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으니라(창6:2).

이처럼 일부다처주의 형태의 기괴한 결혼은 결코 ‘경건한 셋의 아들들’과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 즉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과의 연합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셋의 딸들뿐만 아니라 가인의 딸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인류와는 다른 어떤 존재들을 의미함이 틀림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의 의미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의 의미와 매우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칭호가 새로 태어남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요1:12; 롬8:14-16; 갈4:6; 요일3:1-2).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이 칭호가 천사들을 의미하며 단지 그런 식으로만 다섯 번 쓰였습니다. 이 중의 두 번은 창세기 6장 2-4절에 있으며 나머지 세 번은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엘로힘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의해 생겨난 존재를 의미합니다. 바로 천사들이 그러했고 아담이 그러했으며 따라서 아담은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반면에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창5:1) 그의 후손들은 창세기 5장 3절에 있듯이 아담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이 백삼십 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창5:3)

그러므로 아담과 그의 후손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출생하게 된 사람들은 '사람들의 아들들'이며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요3:3-7).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창세기 6장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아들들이 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셋의 아들들은 새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인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들, 즉 천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떤 이들은 천사들은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다고 말하며 반대를 표명합니다(눅20:27-36). 즉 천사들은 중성이거나 성이 없으며 따라서 자기들끼리 혹은 인간들과 함께 동거할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창조된 창조물로서 죽지 않으므로 자기들의 멸종을 막기 위해 결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결코 그들이 성이 없거나 생식할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남자들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창18:1-8). 이 구절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남자들로서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을 통해 간단히 해결됩니다.

이것을 확인하려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보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4-9절에는 죄지은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며 유다서 6-7절에는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나 영존하는 사슬로 묶인 채 어둠 아래 갇힌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들은 큰 날의 심판, 즉 흰 왕좌 심판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어둠에 갇혀 있는 천사들은 사탄의 천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천사들은 지금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다서의 천사들은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특별한 부류의 천사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들의 죄가 행음이며 특히 '낯선 육체'(Strange flesh)를 따라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유7). 또한 이들이 죄를 지은 것은 홍수 이전이었습니다(벤험2:4-5). 이 사실은 의심의 여지없이 창세기 6장 2-4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증해 주는 확실한 단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여 생긴 후손들이 거인들(Giants)이며 옛적의 강력한 자들이요 유명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창6:4). 경건한 사람들의 후손이 경건치 못한 여자들과 결혼한다 해도 그들의 후손은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거인들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결합은 '낯선 육체'라는 구절이 명백히 보여

주듯이 비정상적인 형태의 결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사람의 결합으로 인해 생긴 거인 종족<sup>12)</sup>이 땅에 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으며 공중의 세력자들이 땅에 침투하여 극도의 사악함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 땅에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이 홍수에 의해 홍수 이전의 땅의 형태와 고도 등이 모두 바뀌었고 그리하여 에덴동산도 없어졌으며 땅 위에 있는 인간의 수명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취급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우리는 이 시대가 '무지하던 때'라 불리면서 지금의 때와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무지하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율법 경륜에서는 간과하실 수 없는 것들을 눈감아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앞에 나온 <때와 시기> 선도를 보기 바랍니다.

### III. 현시대

현시대는 노아의 대홍수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 재림의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안에는 네 개의 경륜이 있습니다.

#### 1. 홍수 이후 경륜

이 경륜은 '인간 정부 경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정부를 세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노아는 600세가 넘는 노인이었다고 지혜와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의 가족들 모두 성숙한 사람들이었고 - 그때 썸의 나이는 98세였음 - 스스로 정부를 세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큰 경고를 준 대홍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부터 그들에게 이르는 동안에 축적된 지식이 있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제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렸다는 사실은 그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 땅을 채우려 하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홍수부터 약 325년이 지난 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고 이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의 교만하고 반역적인 모습을 보여 줍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으로 이들을 흩어 버리셨습니다(창11:1-9).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민족들과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언어들 기원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경륜은 그전 경륜과 마찬가지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 2. 족장 경륜

이 경륜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까지로서

---

12) 개역성경은 이들을 네피림이라고 음역하였는데 네피림은 서로 다른 계보에 의해 생겨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엠 족속(Emims, 영어로는 에미스, 창14:5, 신2:10-11), 수스 족속(Zuzims, 영어로는 주짐스, 창14:5), 아낙 족속(Anakims, 영어로는 아나킴스, 신2:10-11, 수11:21-22 등), 르바 족속(Rephaims, 영어로는 르파임스, 창14:5; 15:20), 삼숨 족속(Zamzummims, 영어로는 잠쥘밈스, 신2:20) 등. 거인 종족들의 경우 묘하게도 영어 이름에서 네피림(nephilim)이나 그것의 복수인 '네피림스'의 끝에 있는 '임'(im) 혹은 '임스'(ims)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다. 더 자세한 것은 「천사와 UFO 바로 알기」(그리스도 예수안에)를 참조하기 바란다.

약 430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 경륜은 ‘가족 경륜’ 혹은 ‘약속 경륜’이라 부를 수 있으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 3. 율법 경륜

이 경륜은 이집트 탈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를 포함하며 ‘율법 경륜’이라는 말 그대로 율법이 지배한 기간을 가리킵니다.<sup>13)</sup> 이집트 탈출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분께서는 한 곳에 거하시며 율법과 규정과 눈에 보이는 예배의 형태 등과 더불어 자신의 백성들의 공영권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때의 정부는 신정 정치 형태였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임명하신 모세, 여호수아, 재판관들(사사들)을 통해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같은 정부 형태를 싫어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륜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시내산에서 주신 ‘기록된 율법’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다루셨습니다. 이 당시의 시민법과 의식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으며 결코 다른 민족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 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지키려면 성전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륜에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민을 대신하여 기적적인 방법으로 간섭하는 일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위해 그분께서는 친히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이들을 먹이셨으며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무사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요르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셨으며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몇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내려다보시고 보호해 주셨으나 이들은 그분의 독생자를 거절함으로써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경륜은 그전 경륜과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들의 감사할 줄 모르며 불순종하려는 본질을 드러내 보이며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 4. 교회 경륜

이 경륜은 ‘은혜 경륜’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시는 때, 즉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오순절부터 성도들을 위한 휴거의 때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경륜은 괄호 속에 들어 있는 경륜, 즉 예전에 알려지지 않은 경륜으로 교회가 형성된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흩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이 경륜의 목적은 소위 교회라 불리는 무리, 즉 ‘그분의 이름을 위한 한 백성’을 불러내는 것입니다(행15:14). 이 경륜에서 우리는 다윗의 언약 아래에 놓이게 되는데 이 언약의 표적은 ‘아들’, 즉 예수님입니다. 이 경륜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경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총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

13)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율법을 모두 성취하시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며 동시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신약 시대를 여셨다(갈4:4-5; 롬10:4; 15:8).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의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후부터이다(마26:26-29; 히9:16-17).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라(롬11:25).

이 경륜에서는 몇몇 유대인들과 더불어 이방인들의 충분한 수가 새로운 몸인 교회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몸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롬6:1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아버지 왕좌에 자신의 자리를 놓으시면서 그것을 ‘공의의 왕좌’에서 ‘은혜의 왕좌’로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륜에서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을 호의와 오래 참으심으로 대하고 있습니다(벧후3:9). 우리는 이 경륜이 배도를 통해 끝날 것이라고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눅18:8).

교회 경륜과 천년 왕국 경륜 사이에는 또 하나의 ‘말호 안에 들어 있는 경륜’이 있는데 이것은 심판의 경륜(7년 환난기)입니다. <심판의 경륜> 선도를 보기 바랍니다. 이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심판의 경륜이 시작됨과 더불어 하늘로 채여 올라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각 자기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고후5:10). 반면에 유대인들은 땅 위에서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7년 환난기 동안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구약 성경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렘30:4-17; 단12:1). 끝으로 이방인들(민족들)은 환난기가 끝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강림하사 자신의 영광의 왕좌에 앉으실 때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는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모이게 되며 ‘양 민족들’은 환난 기간 중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육적 형제들, 즉 유대인들을 선하게 대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염소 민족들’은 파멸될 것입니다(마25:31-46).

#### IV. 시대의 시대

이 시대는 ‘천년 왕국 시대’와 ‘완벽한 시대’를 포함하는 이중 시대입니다. 이 두 시대 사이에서 지구는 불로써 정화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의 둘째 단계, 즉 그분께서 친히 올리브산에 나타나심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 1. 천년 왕국 시대

이것은 시대일 뿐만 아니라 경륜, 즉 ‘메시아 경륜’이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서 친히 통치하십니다. 많은 작가들과 시인들이 ‘황금시대’, 즉 의와 평화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시대에 대해 기술하거나 노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조 이후에 있을 일곱째 천 년이 ‘안식의 천 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 시대의 일들은 구약 성경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무저갱, 즉 바다없는 구덩이에 갇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친히 치리하실 1,000년이라는 기간은 요한계시록 20장 1-7절에서 무려 여섯 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천년 왕국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하나로, 즉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전체로 다루실 것입니다. 이때에는 땅 위에 교회가 없을 것이며 단지 천년 왕국의 행정부에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줄 사람들만 있게 됩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들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신28:13). 이때에 그들이 부분적으로 의식법을 지키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새 언약’ 밑에 놓이게 됩니다(렘31:31-37; 히8:7-13).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치리하시는 원리는 율법이나 은혜나 심판이 아니라 ‘의’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철권 정부가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철장, 즉 쇠막대기로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시2:9; 사11:1, 4; 계2:27;

19:15). 그러나 그분께서는 사랑에 기초하여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때에는 사탄이 감금되어 있으므로 메시아 통치 경륜의 특징은 그전 경륜들의 특징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며 따라서 이 경륜은 그전 경륜들처럼 분류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국을 다루는 4장에서 천년 왕국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지 천년 왕국 끝에 사탄이 풀려날 때에 사람들이 또다시 주님께 반역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첫 사람 아담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반역하려는 본성을 가진 존재이며 불신의 사악한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륜 역시 그전 경륜들과 마찬가지로 배도와 함께 끝나기 때문입니다(계20:7-10).

### o 불로써 땅이 정화됨

천년 왕국 시대와 완벽한 시대 사이의 기간에 이 지구는 불로써 정화됩니다. 이 같은 정화는 베드로후서 3장 7-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행성인 지구 자체가 멸망되지는 않고 독성을 갖고 있어 좋지 못한 식물과 식물계를 먹어 치우는 질병이나 병균들(이것들은 다 죄 때문에 생긴 것들임)을 멸절시키기 위해 지구의 외부 표면만 불로 태워질 것입니다. 또 하늘들(지구의 대기권)은 가스 폭발과 비슷하게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대기(새 하늘)가 옛 하늘을 대신하게 되며 이 대기 안에는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나 악한 영들과 파괴시키는 인자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 2. 완벽한 시대

그리스도께서는 이 완벽한 시대 혹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고전15:28). 왜냐하면 천년 왕국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또 그 시대 역시 배도하며 끝나므로 완전한 시대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불에 의해 정화되기 전까지는 ‘완벽한 시대’가 있을 여지가 없으므로 이 시대는 지구의 정화 이후에 오게 됩니다. 이 완벽한 시대 역시 경륜이기도 하며 ‘때가 충만히 찬 경륜’이라 할 수 있습니다(엡1:10). 천년 왕국과 완전한 왕국은 ‘사람의 아들의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 V. 시대들의 시대

창조의 시대가 알파(A) 시대이므로 ‘시대들의 시대’는 오메가(Ω)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왕국을 넘겨드리게 되면 소위 우리가 시간이라 부르는 것이 끝나게 되고 ‘시대들의 시대’라 불리는 영원한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가오는 시대’라 불렀던 시대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마귀와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영원무궁토록’이라는 말이 뜻하는 시대가 바로 ‘시대들의 시대’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통치하게 됩니다(계22:5).

이 ‘시대들의 시대’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무엇을 보여 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때까지 살아서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과 시대에 관한 한(즉 시간적 측면에서) ‘영원’이 아직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 심판의 경륜 (7년 환난기)

더 나은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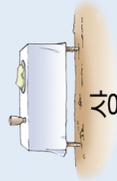
## 교회 경륜



교회



길보리



상

## 심판의 경륜

1

교회

그리스도의 심판석  
(롬14:10; 고후5:10)

지상 강림

2

적그리스도 통치하의  
유대인들  
(렘30:4-7; 겔20:34-38;  
겔22:19-22; 단12: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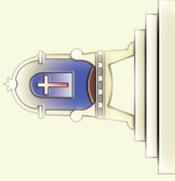
이방인들  
그리스도의  
영광의 왕좌  
(마25:31-46)

올리브산

7년 환난기

## 앞국 경륜

천년왕국



왕좌

## 유대인과 이방인

신약 성경에는 ‘유대인’<sup>1)</sup>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고전10:32).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닌 하나의 ‘새로운 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모두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연대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들은 이집트 탈출 때에 다른 민족과 확연히 구분된 독립 민족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반면에 교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자체의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되었고 연대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공중 강림)에 끝이 날 것입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탈선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하늘로 들려 올라가 휴거(携擧)를 받을 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다시 자신들의 본토로 돌아와 세상 모든 민족들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민족적으로는 이방인들이 현재 이 땅을 통치하고 있으며 성경은 이때를 ‘이방인들의 때’라고 부릅니다(눅21:24).

### 1. 유대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셈족에 속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했던 때, 즉 노아 홍수 이후에 전개된 인류 역사의 태동기부터 시작됩니다(창12:1-3).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 번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현현’(Theophany)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들은 무조건적인 약속들이었으며(창13:14-17; 15:1-5, 18-21) 이것들은 뒤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창26:1-4) 그의 손자인 야곱에게(창28:10-15)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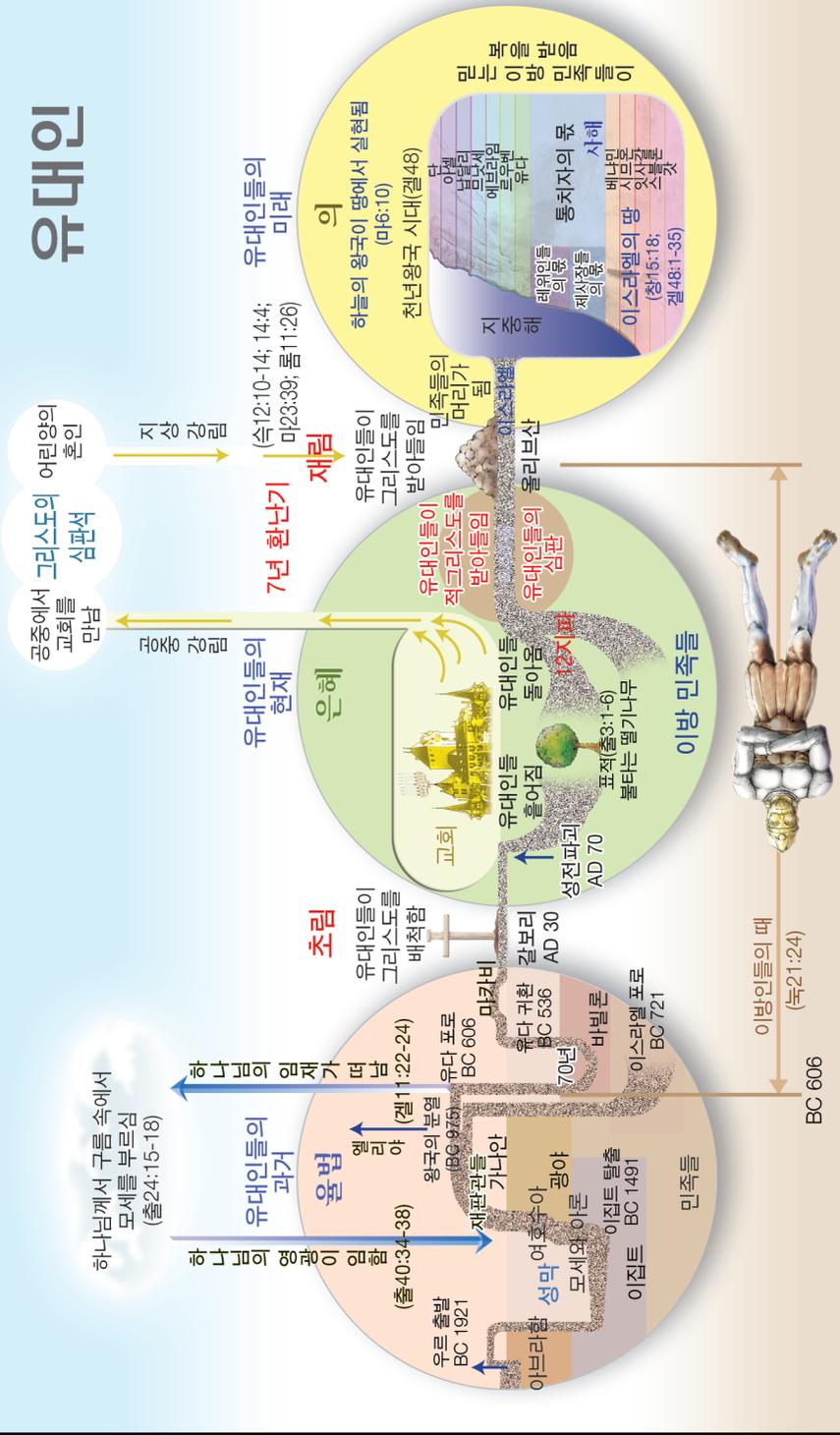
유대인들의 민족 역사는 인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합니다. 유대인들은 억압받고 짓밟히고 포로가 되어 다른 땅으로 끌려가 여러 민족들 가운데 널리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모든 정복자들을 이기고 살아남아 민족들 가운데서 당당하게 활보하였습니다. 다른 민족이라면 아마 타 민족에게 완전히 흡수되거나 민족의 주체성이나 특성들의 대부분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보존된 것은 역사의 기적입니다.

유대인들의 상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 주신 표적, 즉 ‘불타면서도 소멸되지

---

1) 원래 유대인(Jews)은 ‘유대 지방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유대인’으로 쓰는 것이 맞지만 이미 우리말 성경에서 이 단어가 유대인으로 고정되었으므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 유대인



〈유대인〉

않는 떨기나무'입니다. 인류 역사상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하게 눈으로 본 민족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홍해의 물이 갈라져서 벽이 되었고 요르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음식을 먹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양뿔 나팔을 불자 그들이 포위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고(수6:1-27) 그들이 적을 섬멸할 때까지 태양과 달이 중천에 머물러 서기도 했습니다(수10:12-14). 또 주의 천사가 그들 주위에서 진을 치고 그들을 보호했으며 185,000명이 나 되는 아시리아 병사들을 죽이고 그들을 구해 내기도 했습니다(왕하19:35).

그리고 유대인들만큼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민족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겸 입법자, 이집트의 요셉이나 바빌론의 다니엘과 같은 정치가,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 지혜의 사람 솔로몬 등이 구체적인 예들입니다. 어느 민족도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같은 훌륭한 대언자들을 배출한 적이 없으며 특히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난 '갈릴리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해 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주후 1세기에 사도 바울보다 더 빛났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1세기 현대에서 역사를 만들어 왔고, 역사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놀라게 보존되어 온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셨고 지금도 수행하게 하신다는 전제만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된 첫째 이유는 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며 전수하도록 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습니다(롬3:1-2). 모든 성경기록이 유대인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기록을 보존하고 그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간수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셋째, 그들이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넷째, 그들이 세워진 또 다른 이유는 이 세상을 도덕적 부패로부터 구해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난다."(요4:22)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로부터 구원자 예수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셨을까요?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마5:13)고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세상의 도덕적 부패를 막는 도구가 되어야 하며, 그들이 더 이상 하나의 민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될 때가 곧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라는 것을 의미하셨을까요? 전자도 분명히 일리가 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후자도 의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여러 민족들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원받는 것과 땅에 있는 인류가 보존되는 것은 유대인이 하나의 확실한 민족으로 보존되고 존속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지금과 같이 타락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유대인들이 소금으로서의 성질, 즉 자신들의 짠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맛을 회복할 때까지 세상의 타락은 계속되어 극에 달하게 될 것이며 결국 세상 민족들의 부패로 인한 악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실 것이고 이때에 유대인들은 회심하여 소금으로서 제 맛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상사를 주도하는 으뜸 민족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는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없습니다. 또한 예전처럼 희생 제단이나 희생 제물 그리고 제사장도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들은 비록 유월절은 지키지만 유월절 어린양을 잡지는 않습니다. 속죄일은 지키지만 속죄를

위한 피는 흘리지 않습니다. 모든 희생 예물과 헌물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도 없고 재판관도 없으며 영감을 받은 성경 기록자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림과 둠뫼도 하나님의 상징이 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귀중하지만 ‘열린 환상 계시’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위대한 대언자는 ‘갈릴리 사람’ 예수님이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요셉을 배척하고 그를 붙잡아 온 20개를 받고 팔아 넘겼으나 그는 그들의 시야 속에서 사라져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왕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신들의 요셉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분을 붙잡아 온 30개를 받고 팔아 넘겼으나 지금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 속에서 사라져 자기 아버지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이방인들에 의해 민족적으로 밀려났습니까? 혹은 교회라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밀려났습니까?<sup>2)</sup> 과연 유대인들이 다시는 자신들의 땅과 왕과 수도를 얻지 못할까요? 또 국가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할까요?

오늘날<sup>3)</sup> 그들이 처한 상황은 호세아서 3장 4-5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아닌가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예뻛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구하며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은 반드시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야 하지 않겠습니까?(눅21:24).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총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워 버리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롬11:25-27).

이러한 성경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나 혹은 교회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밀려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때가 오면 그들이 다시 이 땅에 하나의 나라를 구성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래를 예견하려 할 때 우리는 쓸데없이 억측을 부리지 말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것을 모두 모아서 논리정연한 순서로 배열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법은 매우 단순하며 그 결과 역시

2) 주후 313년 이후 천주교회와 또 천주교회에서 나온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특정 교파들은 한결같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였다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가르치고 믿어 왔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향한 미래가 있음을 보여 준다.

3) 라킨이 이 글을 쓴 때는 1920년대였다. 그는 1948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독립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으나 성경을 면밀히 상고함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얼마나 놀라운가? 그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하였다.

확실합니다.

## 유대인들의 회복

### 1. 그 사실에 관하여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 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을을 세우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내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땅에서 그들이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네 하나님이 말하노라(암9:14-15).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뒤에도 그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그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땅에서 쫓겨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미래에 있을 완전한 회복을 가리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되돌아오는 것은 첫째 회복이었고 지금 이 성경 구절은 둘째 회복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천년 왕국이 오는 때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 곧 남겨질 자들을 되찾으시되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해 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땅의 사방에서부터 함께 모으시리라(사11:11-12).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한 번밖에 회복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회복은 바빌론에서 되돌아 온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가나안까지 진군한 것은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전에 가나안을 소유한 적이 없었으므로 그 어떤 것도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 그 땅을 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왔을 때는 동쪽에서 나왔지만 이제 미래에 돌아올 때에는 북쪽과 모든 나라들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오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과 또 그분에 의해 그들이 쫓겨나서 *머물던* 모든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고 말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리라(렘16:14-15).

이 말씀과 더불어 다음의 말씀도 참조하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네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끝들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를 창조하였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사43:5-7).

## 2. 그 때에 관하여

이방인들의 때가 성취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눅21:24).

## 3. 그 방법에 관하여

### (a)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옴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그때에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새 마음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며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내 법규들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리라(겔36:24-27).

### (b) 회심하기 전에 심판을 받음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강력한 손과 뾰은 팔과 쏟아붓는 격노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또 강력한 손과 뾰은 팔과 쏟아붓는 격노로 너희를 백성들에게서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거하*는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으고 백성들의 광야로 너희를 데려가 거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변론하되 내가 이집트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과 변론한 것같이 그렇게 너희와 변론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결박 속으로 들어가게 하며 반역자들과 내게 범법하는 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이 체류하는 나라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로써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겔20:33-38).

이 일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으니, 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모으리라. 그들이 은과 놋과 쇠와 납과 주석을 모아 용광로 한가운데 넣고 그 위에 불을 내뿜어 녹이는 것같이 그렇게 나도 친히 분노하고 격노하는 가운데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참으로 내가 너희를 모아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너희 위에 *불*을 내뿜으면 너희가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되 은이 용광로 한가운데서 녹는 것같이 그렇게 너희도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으리니 이로써 나 주가 내 격노를 너희에게 부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겔22:19-22).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상천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오리라. 그러나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리니(말3:1-3)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의 삼분의 이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삼분의 일만 그 안에 남을 것인데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제하듯 그들을 정제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니이다*, 하리라(속13:8-9).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위에서 기록된 것과 같은 시련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4-7절과 다니엘서 12장 1절은 이 환난 기간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친히 이것을 ‘큰 환난’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한편 예수님과 스가랴 대언자는 이 기간을 주님의 재림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마24:21-31; 속14:1-11).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결과 유대인들은 비참한 가운데 주님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찢은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그 날에 맛깃돈 골짜기의 하딧몬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속 12:10-11).

이렇게 된 뒤에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속14:4).

이때에야 비로소 유대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단 하루 만에 태어날 것(즉 회심할 것)입니다.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열매를 내기 위해 하루에 만들어지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자기 아이들을 낳았도다(사66:8).

이스라엘(야곱)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의 재물을 취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본토로 돌아올 때에 그들은 이방인들의 재물을 취할 것입니다(사60:9; 61:6). 이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본토로 다시 돌아갈 때에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왕가의 땅’은 ‘이집트의 강’ 곧 나일강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테스강까지입니다(창15:18). 대언자 에스겔에 따르면 이곳은 다마스쿠스의 북동쪽 하맛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가데스까지입니다(겔48:1-29).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에스겔서 40-48장 참조) 주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며 희생 예물이 다시 드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재수립되고 땅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속8:20-23).

## II. 이방인

인류 역사상 세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방 국가들은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메대-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방인들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 그리고 바빌론 같은 국가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덮쳐 그들을 정복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잘 때까지 그들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어 두셨습니다. 그 뒤에 그들을 풀어놓으시고 세상의 권능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일은 주전 606년경에 일어났으며 이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말씀하신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때’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정하신 어떤 한정된 연대의 기간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오는 것’과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오는 것’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은 이방인들이 충만히 차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부분적으로 눈먼 것’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를 받을 때가 오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오는 것’은 오순절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방인들의 때’가 완료되기 7년 전에 그들의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때’에 관해서는 다니엘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느부갓네살이 꿈과 다니엘이 본 네 ‘환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의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즉위 제2년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단2:31-45). 그는 꿈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 신상은 세상 왕국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왕국들의 통일성과 역사적 계승을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역사를 통한 이방인들의 통치가 거대한 ‘금속들 형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섯 가지 세상 왕국> 선도를 보기 바랍니다. 신상에 사용된 금속의 질적 가치가 점점 하락하는 것은 세상 왕국들의 쇠퇴를 보여 줍니다. 신상의 무게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상은 머리 부분이 가장 무겁습니다. 신상을 구성하고 있는 네 금속은 연이어 일어난 네 개의 세상 왕국을 의미합니다(단2:37-40). 이것은 곧 느부갓네살 왕의 때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네 왕국, 즉 바빌론, 메대-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왕국이 세상의 정부로 계승되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왕국들의 개수뿐만 아니라 그 이름들까지도 계승하는 순서대로 밝혀져 있습니다(단2:38-40; 8:20-21; 9:26).

신상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들의 특성 속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신상의 구조상 쇠퇴는 그 정부들의 특성을 예언의 형태로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정부들은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절대 군주제로 시작하여, 신상의 발을 구성하고 있는 철과 진흙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종국에 가서는 독재적 민주정치 정부 형태로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단2:41-43).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방인들의 통치가 몸의 모든 기관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으뜸 기관인 머리에서부터 머리가 명령한 곳으로 몸을 옮겨 주는 구실만 하는 발로 점차적으로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은 ‘산에서 깎아 낸 돌’에 의해 발에 일격을 맞고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여기서 이 돌은 점진적으로 땅에 가득 차서 신상을 밀어내지 않고 일격에 그것을 부수고 맙니다. 돌이 신상을 친 것은 심판이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돌은 기독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란 하나의 과정인 반면에 이 돌이 신상을 친 것은 갑작스러운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상의 멸망의 때는 발가락이 형성된 이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상의 두 다리는 주후 364년에 가서야 나타났고<sup>4)</sup> 열 발가락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돌이 신상 위에 떨어지는 때는 이 왕들의 시대(단2:44) 곧 장차 있을 열 발가락이 대표하는 왕들의 시대로서 이것은 다니엘의 해석 속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단7:23-24).

여기에 나오는 돌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네 금속으로 표현된 네 왕국은 문자 그대로 실질적인 왕국들입니다. 그러므로 뒤따르게 되는 ‘돌 왕국’ 또한 문자 그대로의 실질적인 왕국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돌 왕국’이 이 세상 왕국들을 파괴하고 대신하여 온 땅을 정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 왕국’은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며 신상이 상징하는 ‘이방인들의 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야 비로소 끝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에 관한 꿈을 꾸지 약 48년이 지난 뒤에 다니엘은 네 짐승에 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단7:1-8, 15-27). 이 짐승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것들은 짐승의 왕인 사자에서부터 철로 된 이와 놋으로 된 발톱과 머리에 열 뿔을 가진 짐승, 즉 말로 묘사할 수 없는 기이한 괴물로 격하됩니다.

다니엘은 이 짐승들이 이전에 보았던 신상의 네 금속과 일치하며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짐승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다니엘은 넷째 짐승의 머리 위에 있는 열 뿔 가운데서 하나의 작은 뿔이 솟아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단7:8). 이것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열 발가락 가운데서 작은 발가락이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여 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또 하나의 계시를 자신에게 보여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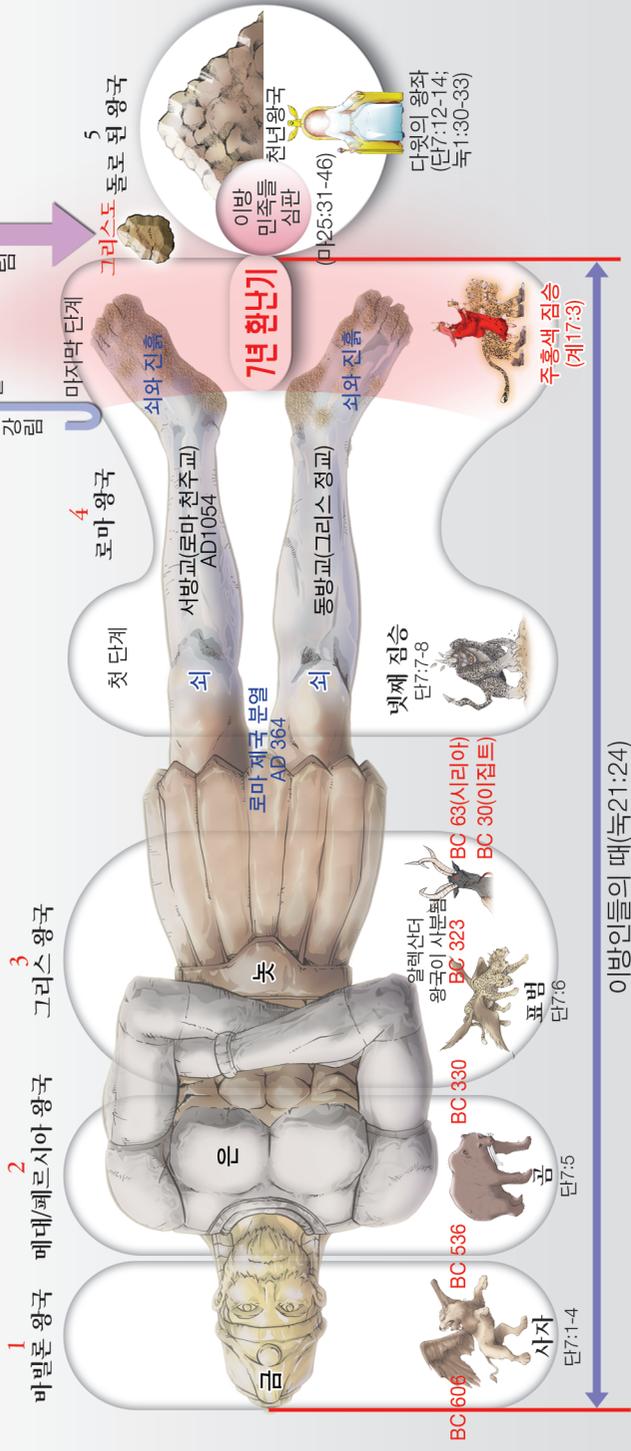
또한 다니엘은 넷째 짐승의 열 뿔 가운데서 일어난 그 작은 뿔로 인해 그 열 뿔 가운데 세 개가 그 앞에서 뿌리째 뽑히고 그 작은 뿔이 사람의 눈과 입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세상 왕국이 계승되는 순서대로 다니엘에게 계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은 뿔의 환상을 통해 이방인들의 마지막 왕 곧 적그리스도도 그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이 네 왕국이 처음에는 금 머리를 가진 금속 신상으로 나타나고 다음에는 일련의 짐승들로 나타나는 이유는 세상 왕국들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네 왕국 속에서 부와 위엄과 권력이 집중된 모습을 보는 반면에 하나님은 서로 삼키고 싸우는 데 급급한 욕심 많은 일련의 짐승들로 이 왕국들을 보십니다.

이 네 개의 세상 왕국은 이미 이름이 밝혀진 대로 차례차례 서로를 계승해야 했지만 시간상으로 끊어지지 않으면서 연속적으로 서로를 계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계시되었습니다(단8:1-27).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으로 인해 숫염소의 큰 뿔인 그리스 왕국이 네 개의 소왕국들 곧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로 분열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주전 323년에서 주전 3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주전 30년에 로마는 네 번째 세계 대제국이 되었고 주후 364년까지 지속되다가 동서로마로 분열되었습니다. 비록 로마 제국이 주후 364년에 이처럼 동서로마

4)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된 시기를 말한다.

# 다섯 가지 세상 왕국

## 누가그네살의 형상



〈다섯 가지 세상 왕국〉

로 분열되어 사라졌지만 법이나 종교적 영향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신상의 열 발가락과 다니엘이 본 넷째 짐승의 열 뿔이 보여 주듯이 이것은 끝 날에 재건될, '열 개의 왕국으로 된 하나의 세계 권력'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의 때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때'(Times)란 예언적 시간이고 예언적 '때'는 360일로 된 1년이며 하루가 1년을 의미하므로 '한 때'(Time)는 360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들은 레위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곱 배(7 times)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예언했으며(레26:18-21, 24-28)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때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에도 이 일곱 배(혹은 일곱 때, 7 times)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sup>5)</sup> 그러므로 그들은 '한 때'가 360년이라면 '일곱 때'는 2,520년이 될 것이며, 이방인들의 때가 주전 606년경에 시작되었으므로 주후 1914년에 끝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날이 이미 지나갔지만 이방인들의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한 달은 30일이고(창7:11-24; 8:3-4) 1년은 360일입니다. 그러나 주전 606년부터 주후 1914년까지는 365.25일을 1년으로 하는 율리우스력(구태양력)으로 2,520년에 해당하며 이것을 360일로 된 유다력으로 환산한다면 2,520년보다도 36.75년 더 많은 2,556.75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의 때는 주후 1877년에 끝났어야 합니다.

사실 레위기의 '일곱 배'(혹은 일곱 때)는 '예언적인 때'(Prophetic times)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확히 일곱 번 노예와 포로로 넘겨져 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은 노예 상태도 포로도 아니므로 여기에 이것을 더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가 주전 606년에 시작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둘 왕국', 즉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에 끝이 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sup>6)</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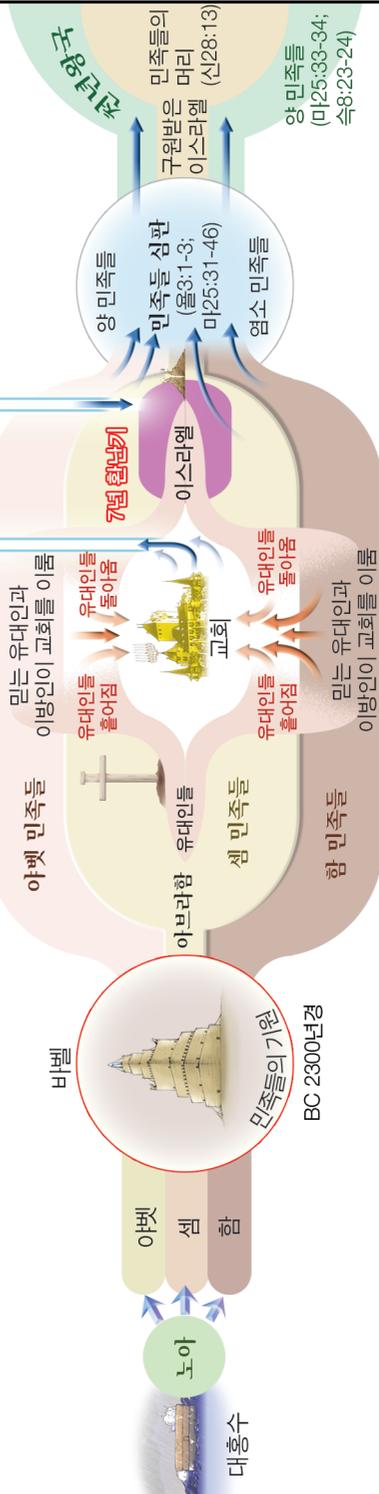
5) 영어로 'times'는 '때'도 되고 '배'도 되므로 레위기의 '7 times'를 '일곱 때'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6) 여기서 저자가 '둘 왕국'이라고 한 것은 다니엘서 2장 44-45절에서 신상을 단번에 산산조각 내고 영원한 왕국을 이루는 돌, 즉 '사람의 손으로 깎아 내지 않은 돌'을 언급하기 위한 것이다.

# 이방인

## 그리스도의 십판서

지상승천을 위한  
 지상승천을 위한



<이방인>

## 교회와 왕국

교회<sup>1)</sup>는 유대인들의 경륜 속의 어떤 모임이나 단체를 계승한 것이 아니며 교회의 예배당 또한 유대인들의 회당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종교 단체들은 기독교인들의 교회를 자기들이 ‘유대 교회’ 혹은 ‘구약 교회’라 부르는 교회가 변천된 형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을 강조하여 희생 제단, 예복 그리고 성전 같은 건물을 갖추고 제사장직을 계속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회의 규례들을 ‘희생 제사’와 ‘성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회를 머리로 하는 ‘국가 교회’를 옹호하고 구약 성경에 약속된 부와 영광이 유대인들로부터 교회로 옮겨졌다고 주장합니다.<sup>2)</sup>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왕국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집(딤후3:15), 전(고전3:16-17), 몸(고전12:27-31)으로 비유되지만 결코 왕국으로 비유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나(엡1:22; 4:15; 골1:18) 교회의 왕으로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신비이며 처음으로 바울에게 충만하게 계시되었습니다(엡3:1-11). 그러나 왕국은 신비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그것을 점진적인 개념들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즉 그분의 십자가와 왕관 사이에 존재하는 교회였습니다(벧전1:9-12).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결코 신비가 아니었습니다(롬9:24-30). 신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교회라 불리는 기관, 즉 전적으로 새로운 기관을 형성하려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경륜(세대)의 목적은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최초의 교회 공회에서 사도 야고보가 연설하면서 요약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잘 드러납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한 한 백성을 이방인들로부터 불러내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오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현대 경륜의 목적은 왕국의 도래나 세상의 회심이 아니라 선택된 몸, 즉 교회를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부르심을 받은 몸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만으로 구성된 ‘배타적이며 민족적인 몸’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민족적인 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느 한 민족의 백성들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혈족, 백성, 종족 그리고 민족의 개개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선도를 보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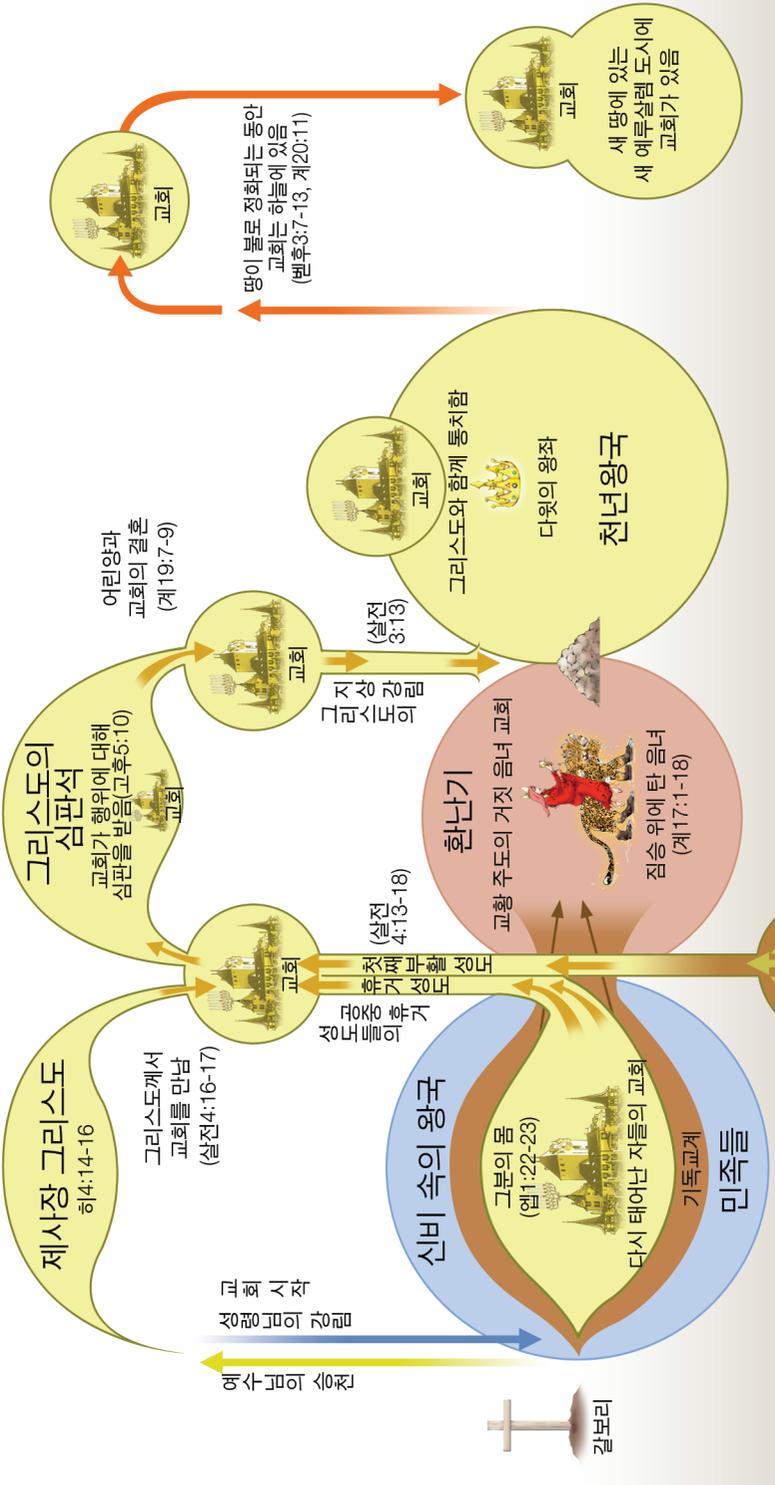
## 1. 교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2-23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1)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2) 주로 천주교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통해 이렇게 주장한다.

# 교회



땅이 불로 정화되는 동안 교회는 하늘에 있음 (벧후3:7-13, 계20:11)

새 땅에 있는 세 예루살렘 도시에 교회가 있음

[아버지께서]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이 같은 ‘머리 되심’이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 아버지 오른쪽에 앉으시기 전까지 가능하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엡1:20-21). 교회는 머리가 있기 전에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머리 없는 것들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13절에서 우리는 이 몸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일 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침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침례가 주어진 오순절까지는 어떤 교회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살아 있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한 몸’이라는 사실은 교회가 근본적으로 조직체(organization)가 아니라 유기체(organism)임을 보여 줍니다. 사람의 몸이 한 인격을 표현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분의 인격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현재 교회는 정혼한 한 처녀입니다(고후11:2).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신부가 될 수는 없으며 신부는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두 명의 신부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부(아내)가 있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신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신부(아내)는 하나님의 신부(아내)인 이스라엘이며 신약 성경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이스라엘)를 만든 자가 네 남편이기 때문이라. 군대들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그는 네 구속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서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사54:5).

이스라엘은 자신의 행음으로 인해 쫓겨난 아내이지만 그녀의 남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음행을 멈출 때 그녀를 되찾아 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렘3:1-18; 겔16:1-63; 호2:1-23; 3:1-5). 그녀는 한 처녀가 아니라 한 아내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양 그리스도께서 결혼하시는 대상은 한 처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내’는 신약의 ‘신부’(처녀)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내’인 이스라엘은 천년 왕국 동안 지상의 예루살렘에 거주할 것이며 ‘신부’인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 거주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인 교회는 이브가 아담의 신부가 되기 전에 아담의 몸의 일부였던 사실을 통해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 누가 교회에 속하는가?

만일 교회가 오순절에 시작되었고 성도들의 휴거로 끝난다면(살전4:14-17) 이 두 사건 사이에 구원받은 자들만 교회에 속합니다. 구약 시대 성도들은 '신랑의 친구들'이지 결코 '신부'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우리는 다음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신부는 자기의 결혼식에 부름을 받지(즉 초대받지) 않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에서 신부로서 자신이 차지할 독특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 즉 초대받은 자들은 손님들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손님들이 될 것이며 큰 환난에서 나오는 '피로 씻긴 무리들'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의 휴거 이후에야 비로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계7:9-17).

천사들과 하늘의 존재들은 구경꾼들이 될 것이며 손님들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예의 자리는 어린양의 피로 구속(救贖)받은 자들만을 위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 교회의 임무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교회는 근본적으로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편이나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 유지되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육적인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오락의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면죄부나 또는 다른 상품들을 파는 상점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의 육신을 구제하기 위한 감호소도 아닙니다. 모든 형태의 사회봉사 활동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개선시키는 것 역시 권장할 만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교회의 임무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에도 온 세상은 오늘날에도 도처에 만연하고 있는 사회의 악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사도들도 결코 어떤 사회 개선 기관을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위대한 박애 교화 기관들은 기독교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든 사람들 위를 지나가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환자들을 길거리에 눕혀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베드로가 병든 자들 위에 그림자를 지나가게 하는 데에만 자기의 온 시간을 보내고 죄인들의 혼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사도로서의 사역을 게을리 하였다면 그의 그림자는 능력을 상실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죄이며 사람의 마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만 그 죄를 근절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복음을 주셨고 교회의 임무는 바로 이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회 봉사'가 아닌 '복음 선포'가 바로 교회의 임무입니다(막16:15-16).

지금까지 교회가 범해 오고 있는 중대한 실수는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약속한 '땅에서의 승리와 영광에 대한 약속들'을 현재 경륜(세대의) 교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의 연합을 피하며 대부분 불경건한 사람들로 구성된 국회, 의회, 입법부, 연합체 그리고 개혁단체들의 도움을 추구하면서부터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대해서도 무기력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휴거의 단계, 즉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는 단계에서 끝이 날 것입니다(살전4:13-17). 휴거 이후에 교회,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 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행위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교회의 결혼식

예수님께서서는 왕의 아들의 결혼식(마22:1-14) 비유를 들어 이미 예언적으로 교회의 결혼식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7-9절에 있는 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여기서 신부의 결혼식이라 하지 않고 ‘어린양의 혼인 만찬’이라고 말하고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이 위대한 사건은 신부의 소망이 완성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위해 세상의 창건 이전에 마련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기도 합니다(엡 1:4). ‘어린양의 혼인 만찬’은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완성되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혼인 만찬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본성들은 연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인간 본성을 지니신 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늘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딤후2:5).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가 선택되었지만 결혼식은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서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결혼식이 있어 왔지만 그리스도의 결혼식은 기간 면에서 가장 긴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부를 거의 1,900년 이상이나 기다리셨습니다.<sup>3)</sup> 그렇지만 그분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곧 하늘로부터 다음과 같은 외침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계19:7).

## II. 왕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땅 위에 가시적인 왕국을 건설하려 하셨으며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창1:26-28).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통치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었고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 되었습니다(마4:8-10; 요14:30).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땅에서 하나의 가시적인 왕국 건설을 향한 첫째 단계를 실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볼 때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유다 국가 공영권’ 안에서 존재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주전 606년경의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존재를 상실해 버림으로써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때’ 속에서 6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3) 저자는 1920년 3월 25일에 이 글을 기록하였다.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왕의 출생을 알리게 한 것입니다(눅1:26-33). 그때부터 삼십 년 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였고(마3:1-2) 왕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셨을 때도 그와 동일한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께서는 열두 제자를 보내시고(마10:7) 다시 칠십 명을 보내셔서(눅10:1-9) 동일한 것, 즉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자신의 백성에 의해 배척당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이로써 왕국의 건설은 연기되었습니다(마23:37-39).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려 했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채 신비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국 연기설’이라 불리는 이것을 반박하면서 예수님께서 말한 ‘눈앞에 가까이 온 왕국’은 가시적이고 외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그들은 그 왕국이 연기되지 않았고 오늘날 새로 태어난 신자들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왕국이 연기되었다는 것에 반대를 표명합니다. 그들은 땅에 세워질 가시적인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뒤 그 왕국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건설될 수 없었으므로 그 당시에 그분께서 제안하신 외적이고 가시적인 지상 왕국은 실제 왕국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즉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이란 외적이고 가시적인 지상 왕국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을 살펴봅시다. 첫째, 구약 성경은 사람의 아들이 통치할 가시적인 지상의 왕국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단7:13-14; 2:34-35, 44-45; 렘23:5; 스4:19).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안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기대가 넘쳐났고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눅2:25-38). 또한 지혜자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을 한 것과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왕이신 그분께 경배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2:1-11).

예수님께서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3:2)라고 선포하면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예수님께서 30세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사40:3; 마3:3). 그런데 그는 무엇을 위해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왕국’을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요한이 말한 ‘하늘의 왕국’이 가시적이고 외적인 지상의 왕국을 의미하지 않았다면 메시아 왕국의 건설을 고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의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리이까?”라고 묻게 한 데서 명백히 드러납니다(마11:3). 예수님께서서는 수많은 병 고침의 기적들을 보여 주심으로써 요한의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이 병 고침의 기적들은 메시아 왕국의 표적들이었으며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라 불린 것은 그것이 하늘에 있는 왕국 혹은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은 그분께서 사람들로부터 그

왕국을 받지 않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왕국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의 왕국이라 불렸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자신의 두 제자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요1:29) 그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오신 이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이미 요한에게 그것이 계시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전에 그분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성격을 무효화하거나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뒤 예수님께서서는 즉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광야로 이끌려 가셨습니다(마4:1-11).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이 지난 뒤의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이튿날’ 혹은 ‘다음 날’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그다음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요한에게 그가 그리스도인지 엘리야인지 물었던 바로 그다음 날을 가리킵니다(요1:19-28).

요한복음 1장 32-34절에서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기까지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양’임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내려오심을 보고 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침례자 요한은 자신의 사역 초기에는 그리스도의 회생 사역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며 따라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가 선포한 것은 영적인 왕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눈 뒤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요1:49)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칭호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분의 메시지는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와 똑같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4:17)였습니다. 즉 그분께서는 육적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기 전까지는 메시아 왕국이 설립될 수 없음을 명백하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왕국의 복음’은 병 고침의 표적들을 동반했지만 이 복음이 직접적으로 개인 영혼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 ‘왕국의 복음’은 교회의 휴거가 일어난 이후 왕국의 건설을 위한 때가 왔다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해 또다시 땅끝까지 선포될 것입니다(마24:14).<sup>4)</sup>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왕국의 복음’은 엄밀히 말해 영혼 구원과 관계가 없고 단순히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4)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끝부분에서 분명하게 왕국이 연기됨을 보여 주셨고 24장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을 알려 달라고 할 때 연기된 왕국이 마지막 때에 다시 선포될 것을 보여 주셨다(마24:14).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병든 자들을 고쳐 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마귀들을 내쫓되...(마10:5-8)

그들이 실행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왕국의 표적들이었으며 그것들은 혼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들은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의 복음’은 전 세계를 위한 것이지만 제자들은 이스라엘 집(민족) 이외에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만 선포했음을 보여 줍니다.

땅에 가지적으로 세워질 왕국의 건설을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왕국에서 한 명은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한 명은 그분의 왼쪽에 앉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막10:35-41). 만일 땅에 왕국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영광의 자리는 자신이 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땅에 왕국이 세워질 것을 확실히 보여 주었습니다(마20:23).

빵과 물고기의 기적, 즉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뒤에 군중들은 강제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요6:15). 이 사실은 그들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설교를 잘 이해했음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신하심으로써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가지적인 지상 왕국의 통치권을 거절하셨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사람들로부터 왕국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땅의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그 왕국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단7:13-14).

예수님께서 외적이고 가지적인 지상 왕국에 대한 통치권을 부인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종려 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스가랴서 9장 9절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성취로 군중들이 외치던 호산나를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요12:12-15).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것도 ‘유대인들의 왕’으로 처형된 것입니다(마27:37).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회피하셨지만, 자신이 왕이며 이것을 위해 태어나셨다고 시인하셨고 자신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 왕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그분에게 주실 것이었습니다(요18:33-37).

어떤 사람들은 “만일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땅에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졌을 것인가?”라고 묻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었을 것이지만 즉시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구약 성경의 확실한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시기 전에 인류의 구속을 위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물론 로마 정부가 그 일을 수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로잡아 침탈자로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처형하였을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69번째 이레’가 끝나고 곧바로 ‘70번째 이레’가 시작되면서 그 이레의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셔서 자신의 지상 왕국을 건설하셨을 것입니다(단9:25-27).

그렇다면 이렇게 묻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만일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었다면(엡 1:4) 다니엘의 ‘69번째 이레’와 ‘70번째 이레’ 사이에 어떤 중단도 혹은 간격도 없이 어떻게 교회가 형성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지상 왕국을 주시겠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같은 질문은 가설로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알고 계신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추측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설교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어떤 죄인이 그 말씀을 믿어야 할 이유는 다 알고 있으나 믿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설교자가 그에게 제시한 영적 구원의 복음이 진실하고 참된 제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그 당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는 사실 자체가 그 왕국 선포의 진실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대들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그분의 미리 아심(예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왕을 거절함으로써 그 왕국을 거절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측하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이 현시대가 아닌 다른 어떤 때에 교회를 형성하실 것을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자신의 귀중한 피로 사야만 하므로(행20:28; 벰전1:18-21) 예수님께서서는 반드시 그분 자신의 민족에 의해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찢었던 그분을 볼 것이라고 대언자 스가랴가 예언했기 때문입니다(슥12:10).

가롯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사실 자체는 결코 유다가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을 배척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사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유대인들의 회개에 의해 넘쳐나게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일 것을 거부하리라는 사실과 교회가 형성되어 세상으로부터 들려 휴거를 받을 때까지는 민족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미리 아셨을 뿐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속한 어떤 것을 취해 현재에 끼워 넣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예가 바로 왕국입니다. ‘과거의 경륜’과 ‘앞으로 올 경륜’은 왕국과 관련이 있지만 현재의 경륜은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으며 하늘에 속한 영적인 유기체로서 끝에 휴거를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살전4:16-17). 반면에 왕국은 외적이고 가시적이며 땅에 속한 정치적인 조직체로 땅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단2:44). 왕국은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즉 ‘세상의 창건 때부터’(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예비되었습니다(마25:34). 반면에 교회는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그분 안에서 선택되었습니다(엡1:4). 한마디로 교회는 결코 왕국이 아닙니다. <교회와 왕국> 선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그리고 교회를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교회> 선도를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시간과 영원 그리고 하늘과 땅을 포함한 그분의 모든 창조물에 대해 우주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서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지 않습니다(눅17:20-21). 그것은 새로운 출생(요3:5)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으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



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롬14:17).

하늘의 왕국은 신약 시대의 용어로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32번 언급됩니다.<sup>5)</sup> 하늘의 왕국의 특징은 마태복음 13:1-50; 18:23-35; 20:1-16; 22:1-14; 25:1-30에 있고 열두 가지 하늘의 왕국 비유에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왕국이 시간과 범위 면에서 제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왕국의 전체 기간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이며 그 범위는 우리가 기독교계<sup>6)</sup>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하늘의 왕국에는 선과 악,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서로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서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가시적 왕국에 대한 소망이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바로 직전에 그들은 그분께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하나님의 왕국 혹은 하늘의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행1:6)<sup>7)</sup>

이에 대한 그분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행1:7)

예수님께서서는 지상의 가시적인 왕국이 세워질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단지 제자들에게 그것이 언제 세워질 것인지는 그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단순히 지금의 교회 경륜(세대)에서 영적인 왕국을 세우시려고 오셨다면,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그 엄숙한 순간에 그들의 잘못된 소망을 바로잡아 주셨어야만 합니다. 또한 자신이 세우려고 온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지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고 알기 쉽게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언젠가 이 땅에 가시적 왕국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왕이 자기 백성에 의해 거절당했기 때문에 왕국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제 그 왕국은 마태복음의 하늘의 왕국 비유에서 묘사된 것과 같이 '신비 속의 왕국'이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사람들에게 비유를 써서 말씀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마13:10-11). 그 뒤 35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대언자가 언급한 다음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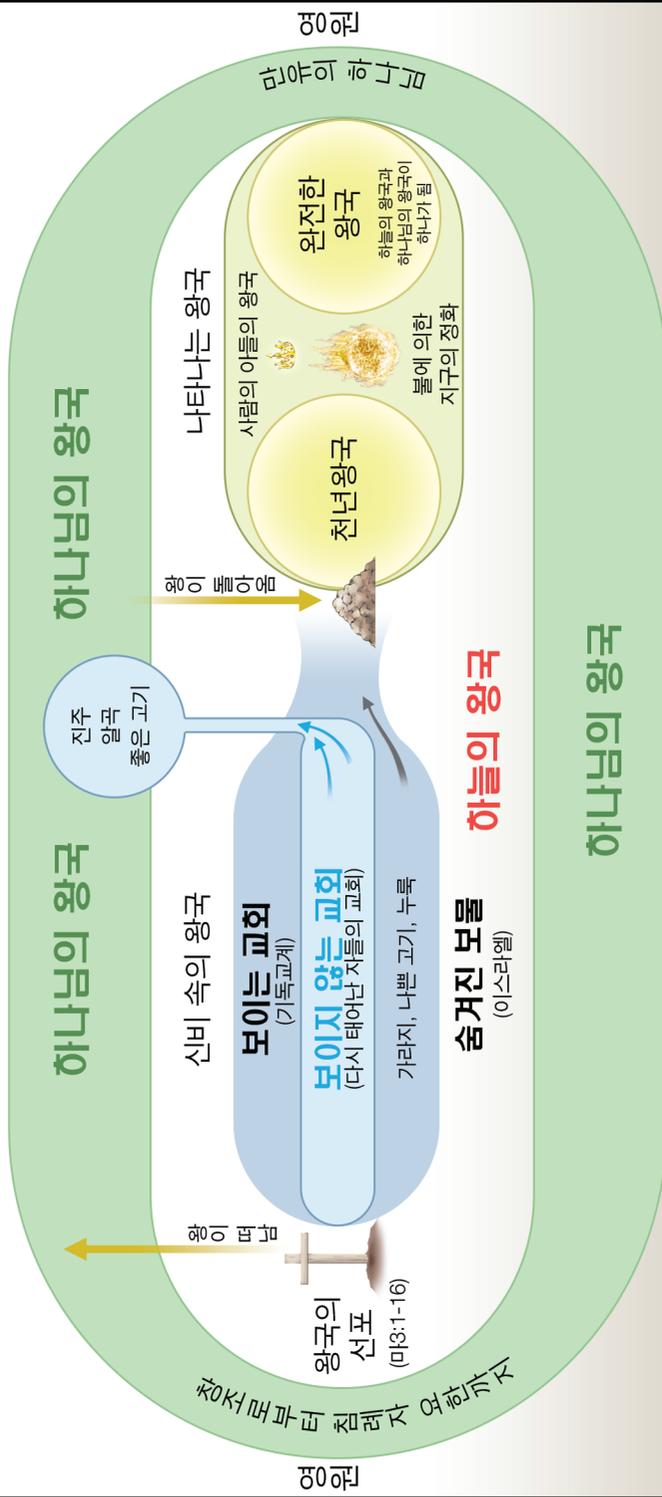
---

5) 한글개역성경은 ‘하늘의 왕국’(kingdom of heaven)을 ‘천국’으로 번역하여 이것을 마치 신자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 묘사해 놓았으나 실제로 신자가 죽어서 가는 곳은 하늘(heaven)이며 하늘의 왕국이 아니다.

6) 기독교계(Christendom)는 천주교를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반면에 기독교(Christianity)는 성경에 있는 대로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기독교계는 기독교보다 크며 그 안에는 실제로 성경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많다.

7) 여기서도 한글개역성경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나이까?”라고 오역을 하여 예수님께서서 왕국을 세우려 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교회



내가 비유들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이~~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의 비유들은 천년 왕국을 묘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국은 결코 구약의 대언자들에게 비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또한 영적인 왕국을 묘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사용한 대상들은 모두 땅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유들은 왕이 없는 동안에 있을 현재 경륜(세대)의 특징 중 땅에 속한 부분을 묘사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 출현된 왕국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왕권을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난 어떤 귀족입니다(눅19:12). 그분께서는 돌아오실 때 자신의 종들, 즉 유대인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그들이 마땅히 맡아야 할 도시들에 대한 권위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직 그 왕국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대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중보 사역을 끝마쳐야 합니다.

끝으로 대언자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 13-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께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 그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다.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니라, 하니라.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시는 정부의 형태는 신정 국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이라 불리는 한 왕 또는 군주를 통해서 통치하실 것이고(렘30:9; 겔34:24; 37:24; 호3:5) 그분의 왕좌는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아론의 제사장 직무가 다시 제정될 것입니다(겔44:15-31). 그때에는 팔레스타인 땅에 부흥이 있을 것이고(을3:18) 사람의 수명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사65:20-22; 숙8:4).

## 제5장

# 네 복음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단어로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단어가 늘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왕국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 영존하는 복음 등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복음들이 모두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I. 왕국의 복음(마24:14)

이 복음은 누가복음 1장 32-33절에 예언된 것으로,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하실 지상 왕국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려 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에서 이 복음이 선포된 것은 두 번 나옵니다. 처음에 침례자 요한의 사역과 함께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왕국의 복음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 7년 환난기에 다시 선포될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네 복음> 선도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세상의 끝)이 오리라(마24:14).

이 말씀은 현재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고 있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고 있는 것은 구원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지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의 복음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증언을 위한 것으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복음은 대환난 때에 선두 주자인 엘리야와(말4:5-6) 또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전할 것을 위임받은 다른 사람들이 선포할 것이며 그것의 주목적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 II.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행20:24)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복음의 원천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요3:16). 이 복음의 성격은 은혜이고(행20:24)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롬1:16; 고후10:14).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또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 복음이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의 혼에 화평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엡6:15).

### III. 영광스러운 복음(고후4:4; 딤후1:11)

영광스러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서 특별히 영광 중에 계시고 영화롭게 되셨으며 많은 아들들에게 영광을 가져다주실 주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는 복음입니다(히 2:10). 이 복음은 그분의 재림과 관계가 있으며 특별히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고후4:4)이 주님의 '전(前) 천년 재림', 즉 천년 왕국 이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입니다(고후4:3-4).

### IV. 영존하는 복음(계14:6)

이 복음은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금병의 심판이 있기 바로 전에 한 천사가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천사에게 맡겨진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왕국의 복음도, 은혜의 복음도 아닙니다. 이 복음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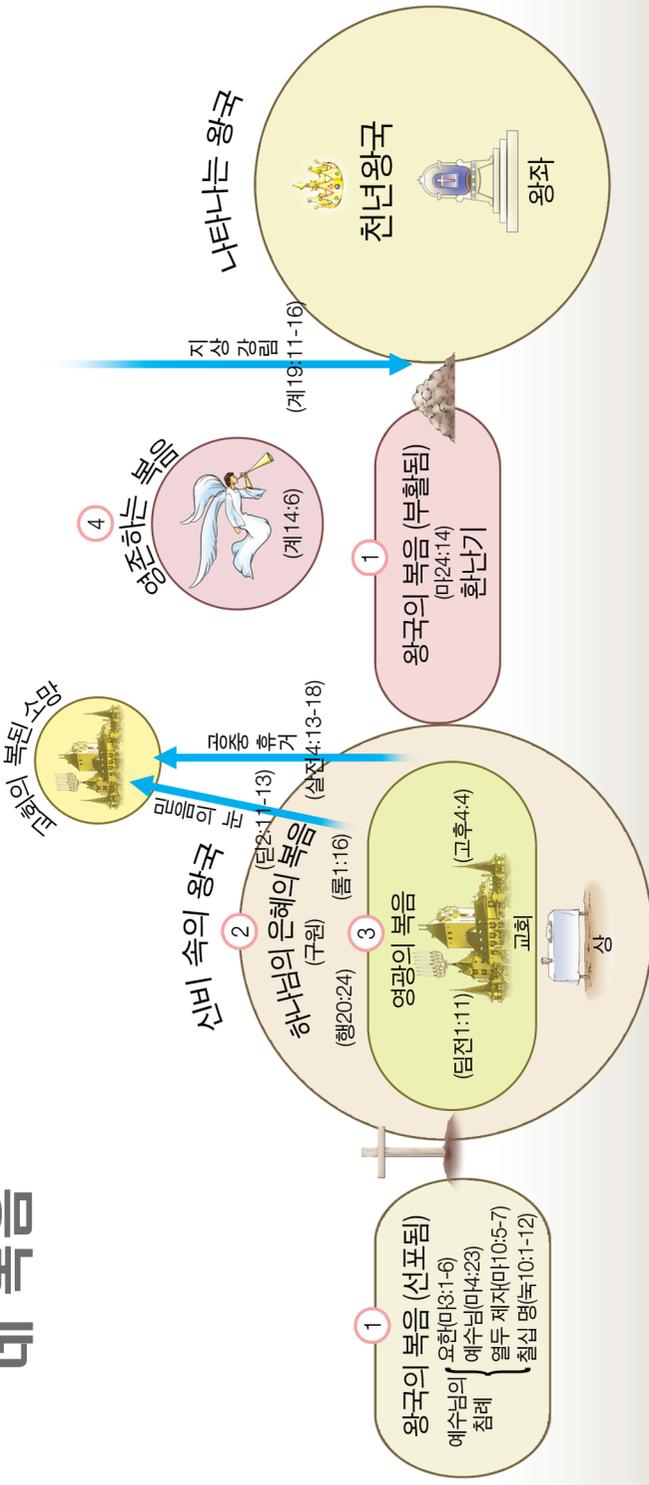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계14:7).

이 복음은 7년 환난기를 통과하는 이스라엘과 심판의 불을 통과하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통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의 심판과 멸망으로 끝이 날 것을 이 복음이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자로서의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족장들과 대언자들이 에덴동산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복음을 선포해 왔습니다. 이 복음은 영생을 주기 위해 사람들 모두를 구원한다는 의미에서의 영원한 복음이 아닙니다. 또한 이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 혹은 “이것을 해라.” 또는 “저것을 해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단지 이 복음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여러 복음이 주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적용되는 각각의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에는 혼란과 잘못된 가르침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복음'(갈1:6-12; 고후11:4)이 있는데, 이것은 위의 네 복음 이외의 다른 형태의 복음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왜곡한 것으로 여러 가지 유혹하는 형태를 취하며 주로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르기에는 부족하고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짓 복음입니다(골2:18-23; 히6:1-2). 그러나 이 가르침은 비성경적인 것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9절에서 이것을 가르치는 설교자들과 교사들을 강하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 네 복음



## 제6장

# 초림과 재림

구약 성경을 신중히 읽어 본 독자라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 두 계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그분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합니다.

### 고난받는 종

1. 메시아의 초림 시기(단9:25)
2. 메시아의 탄생 장소(미5:2; 눅2:4)
3. 메시아의 처녀 탄생(사7:14; 마1:18)
4. 메시아가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사61:1; 요1:32-34)
5. 메시아가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며 고통을 앓(사53:3; 마26:36-39)
6. 메시아가 은 30개에 팔림(슌11:12; 마26:15)
7. 메시아가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당함(시41:9; 마26:49-50)
8.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버림받음(슌13:7; 막14:27)
9. 메시아가 거짓 증인들에 의해 고소당함(시35:11; 마26:59-60)
10. 메시아가 치욕과 침 뱉음을 당함(사50:6; 막14:65)
11.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힘(시22:16; 눅23:33)
12.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희롱을 당함(시22:7-8; 마27:39-40)
13. 메시아가 극심한 고통을 겪음(시22:14; 눅22:44)
14. 메시아가 강도와 함께 못 박힘(사53:12; 막15:27-28)
15. 메시아가 부자처럼 매장됨(사53:9; 마27:57-60)

메시아 예언의 둘째 계통은 그분을 ‘영광받는 왕’으로 묘사합니다.

### 영광받는 왕

1. 메시아는 한 의로운 가지가 될 것임(렘23:5-8)
2. 메시아는 왕국을 갖게 될 것임(단2:44; 7:13-14)
3. 메시아는 다윗의 왕좌에서 다스릴 것임(삼상7:16; 사9:6,7)
4. 메시아는 쇠막대기(철장)로 민족들을 다스릴 것임(시2:6-9)
5. 메시아의 통치는 영광스러울 것임(시72:1-20; 사2:1-4; 32:1-4, 15-20; 슌14:16-21)

위에 인용된 것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약 시대 대언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잘 구별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벰전1:10-11).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초림)와 왕관(재림)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 즉 지금의 교회 시대를 나타내는 기간이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성취된 많은 예언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으며 그 나머지 예언의 말씀들을 그분의 재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림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교리적으로 볼 때 오직 이것만이 성경의 핵심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이 성경의 모든 교리들을 포함하는 원의 중심이 아니라 타원의 두 개 초점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타원의 다른 초점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선도를 보면 그리스도의 초림은 십자가로 나타나 있고 재림은 왕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만찬의 상이 있으며 이 상은 뒤로는 십자가를, 앞으로는 왕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지금의 교회 시대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것들은 스스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재림은 반드시 초림을 필요로 하고 초림은 재림을 필요로 합니다. 이 두 사건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재림은 우리의 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몸의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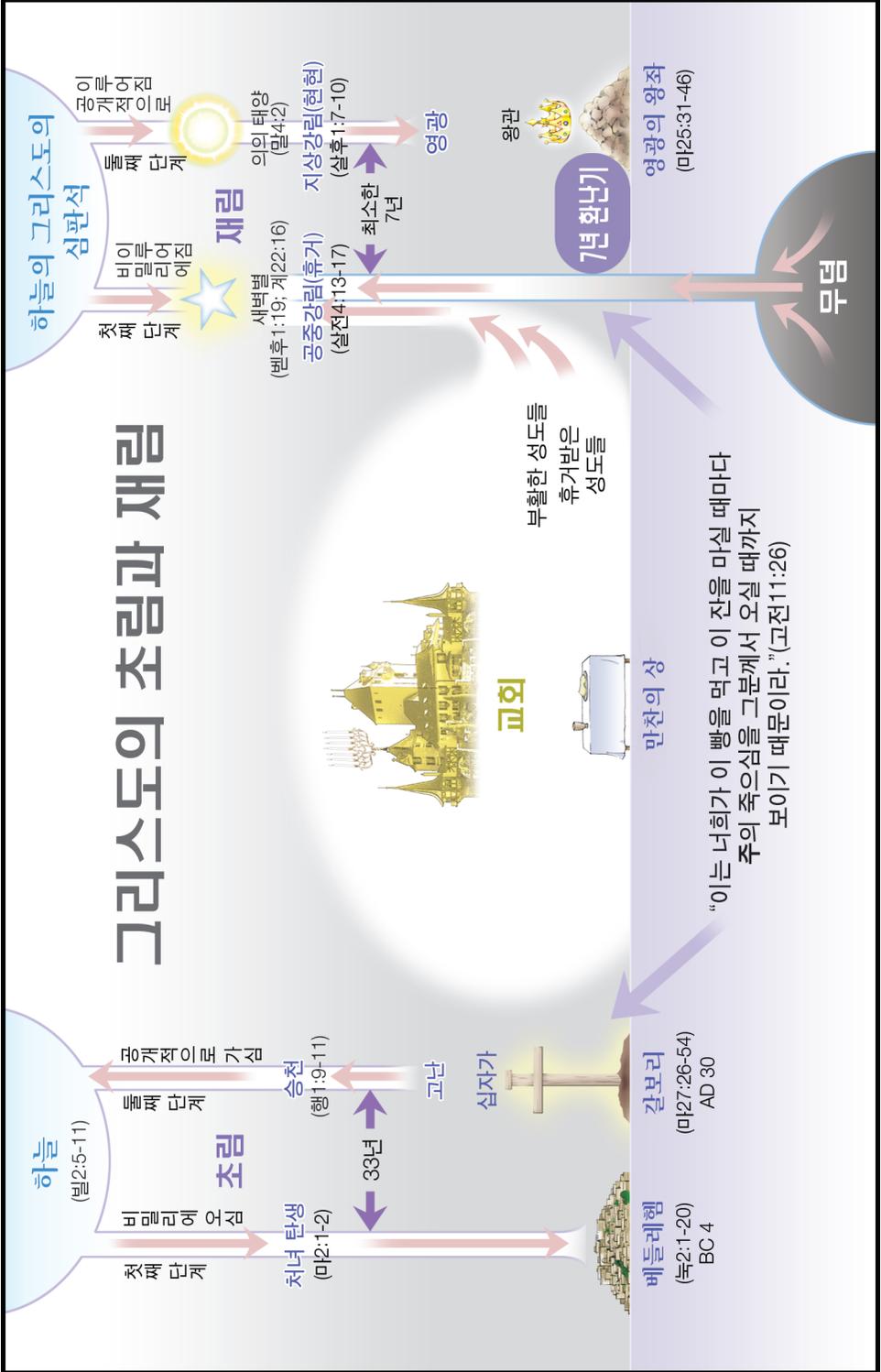
<예언의 산봉우리> 선도는 구약 시대 대언자들이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한 이유를 보여 줍니다. 대언자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출생, 십자가에 달림, 성령님의 강림, 적그리스도, 의의 태양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오심, 왕국 등을 모두 큰 산의 여러 봉우리로 보았습니다. [역자 주: 멀리서 보면 모두 한 봉우리로 보임.] 그들은 첫째 봉우리 옆에 서 있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 즉 이 봉우리들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산에 속해 있으며 교회라는 계곡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재림에도 두 단계가 있습니다.<sup>1)</sup> 첫째 단계에서 그분께서는 지구의 대기권 안으로 비밀리에 오실 것이며 이때 교회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살전4:16-17). 우리는 미래에 있을 이 사건을 흔히 ‘휴거’(rapture)라고 부릅니다. 이 신비는 구약 시대 대언자들에게는 계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단계에서 그분께서는 공개적으로 땅에까지 내려오실 것이며, 스가랴 대언자가 예언하고(슌14:1-4)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함께 서 있던 두 사람(모세와 엘리야)이 예언한 것처럼(행1:9-11), 땅에 내려오셔서 부활하신 뒤 승천하신 장소인 올리브산에 서실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것을 지상 강림 혹은 현현(rev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공중 휴거와 지상 강림 사이의 시간 간격은 하나님께서 감하지 않는 한 적어도 7년 정도 될 것이나(마24:22)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휴거가 ‘다니엘의 칠십 이레’의 마지막 한 이레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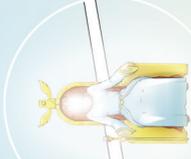
1) 예수님의 초림은 약 33년 동안에 이루어졌다. 그분의 초림에는 그분께서 비밀리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것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뒤에 공개적으로 승천하신 것이 모두 포함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단 한 순간이 아니라 약 7년 정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재림 안에 휴거와 지상 강림이 모두 포함된다.

#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세 에루살렘  
세 하늘  
(사65:17; 66:22; 계21:1)



천년 왕국  
(사2:1-3;  
단7:13-14)

(말4:1-6)

올리브 산  
(눅14:4;  
행1:9-12)

적그리스도  
(단7:19-27;  
실후2:3-4;  
계13:1-8)



오순절  
(골2:28-29)

완전한 회생의  
어린양



베들레헴  
차녀 탄생  
(민24:17; 사53:1-12;  
사7:14; 요1:29;  
시9:6; 고후5:21;  
미5:2; 히9:28)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본 것



이의 땅이 가뭄

성령의 가뭄

성수의 탁함

완전한 시대의 계곡  
다가오는 영원

천년 왕국의 계곡  
(사11: 65:17-26; 단2:44;  
미4:1-7; 계20:2-7)

교회의 계곡

(구약시대 대언자들은 보지 못함)

신약시대 성도들의 관점

신약시대 성도들은 현재 양 옆에 있는 산봉우리와 계곡을 볼 수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바르게 나눌 수 있음(엡3:2-6).

구약시대의 계곡  
구약시대 대언자들의 관점  
(렘1:10-12)

# 예언의 산봉우리

<다니엘의 칠십 이레> 선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내려오실 때에는 밝은 새벽별이 되실 것입니다(벧후1:19; 계22:16).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나타내시며 땅에 강림하실 때에는 의로운 태양이 되실 것입니다(말4:2).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들이 모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그분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도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이 재림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 1. 재림의 사실

### 1. 예수님 자신의 증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2-3).

### 2. 하늘에 속한 존재들의 증언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더니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행1:10-11).

이 구절은 하늘로 올라가신 동일한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보여 줍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재림은 개개인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있던 두 사람은 아마도 모세와 엘리야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찾으러 무덤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났음을 증언한 흰옷 입은 두 사람도 이들이었을 것입니다(눅24:4-5). 또한 모세와 엘리야는 7년 환난기에 주님을 증언할 두 증인이 될 것입니다(계11:3-12).

### 3. 사도들의 증언

**바울:**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빌 3:20-21).

**야고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며 너희 마음을 굳게 세우라.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느니라(약5:7-8).

**베드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려 줄 때에 우리는 교묘히 꾸며 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었노라(벧후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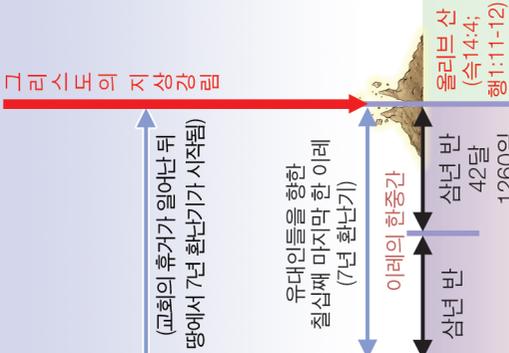
# 다니엘의 칠십 이레

(단9:24-27)

##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향한 칠십 이레’

24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  
 26 육십이 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25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있을 것이며



유대인들을 향한 육십구 이레

BC 445 일곱 이레

육십이 이레

통치자 메시아까지 434년

(단9:25-26; 스9:9; 마21:1-11)

AD 30

예루살렘의 멸망

AD 70

육십구째 이레와 칠십째 이레 사이의 기간

BC 606

(단2:21-45)

이방인들의 때

(눅21:24)

27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화생물과 불원물을 그치게 하고 기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변화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형입니다(마17:1-5). 모세는 부활하는 성도들의 모형이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화되어 휴거되는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요한: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계1:7).

#### 4. 주의 만찬의 증언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고전11:26).

주의 만찬은 우리가 영원히 지킬 규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없어질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님께서 돌아오시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뒤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앞으로는 그분의 재림을 바라봅니다.

### 재림에 관한 다섯 이론

믿음을 고백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제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재림에 관한 이론으로는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 1. 그분의 재림은 초림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이며 이미 오순절에 이루어졌다

오순절에 오신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만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요16:7)

만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이 두 분은 동일한 존재가 되어 삼위일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신약 성경은 모두 오순절 이후에 기록되었으며 무려 150번씩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미래의 일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살아 있는 성도들의 휴거, 사탄의 결박 등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것인데 이러한 사건들 중 어느 것도 오순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니다.

#### 2. 죄인의 회심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죄인이 회심할 때는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회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의 사역이지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닙니다. 물론 신자 안에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분의 초림처럼 외적이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 3. 죽음이 주님의 재림이다

장례식에서 가장 빈번히 낭송되는 구절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구절이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실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이유 때문입니다.

1. 매초 한 영혼이 죽고 있으며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계셔야만 함을 요구합니다.
2.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임무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죽어 가는 영혼을 위해 그 임무를 저버리고 지상으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사실 믿는 자가 죽으면 그리스도께로 가며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항상 떠나가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으며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고후5:6-8).

만일 자신의 재림이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셨다면 그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게로 너희를 데려오기 위해 죽음을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분명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시더라. 그때에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더라(요21:21-23).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죽음이라는 이 두 사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죽음은 원수입니다(고전15:26, 55). 죽음은 우리를 무덤에 가두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빼앗아 갑니다. 죽음은 죄의 샅이며(롬6:23)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람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께서 계신 곳에는 죽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그분이 오실 때에 도망가고 맙니다. 그분께서 땅에 계셨을 때 그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죽은 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재림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기에 그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썩을 몸을 자신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빌3:20-21).

#### 4. 주후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이 주님의 재림이다

위의 진술과 달리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을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변화들(겔47:1-12; 스후14:4-11), 죽은 자들의 부활, 살아 있는 성도들의 휴거, 육체적 변화 등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그곳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되어 있고 그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들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눅21:24-28).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나서 약 26년이 지난 뒤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미래의 일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 5. 기독교의 확산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이것 또한 결코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확산은 점진적인 데 반해 그리스도의 재림은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날 순간적인 사건이라고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마24:27, 36, 42, 44; 살전5:2; 계3:3). 또한 기독교의 확산은 과정인 데 반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재림이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확산은 악인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지만 주님의 재림은 악인에게 구원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멸망을 가져다줍니다(살전5:2-3; 살후1:7-10).

## II.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막13:32).

부활 뒤 승천하시기 전에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행1:7)

비록 우리가 그분의 재림의 날이나 시간은 모른다 해도 그리스도 재림의 시기가 천년 왕국 이전이라는 것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sup>2)</sup>

‘전천년설’은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 20장 1-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1,000년 동안 지속되는 천년 왕국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들은 이 1,000년의 기간을 왕국의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대언자들은 이 기간이 온 우주가 의의 통치를 받으며 온 땅이 복을 받는 때라고 묘사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6절은 명백하게 그 기간이 1,000년이 될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구조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 이전에 재림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우선 다음의 몇

2) 이것은 보통 간략하게 ‘전천년설’(Premillennialism)이라 불린다.

가지 이유를 살펴봅시다.

1.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천년 왕국 이전에 부활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간 통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천년 왕국이 있을 수 없습니다(계20:5-6).

2.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십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의가 존재하므로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알곡과 가라지는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천년 왕국이 있을 수 없습니다(마13:40-43).

3.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탄이 결박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천년 왕국 동안에 결박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천년 왕국이 있을 수 없습니다(계20:1-3).

4.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적그리스도가 멸망될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멸망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천년 왕국이 있을 수 없습니다(살후2:8; 계19:20).

5.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모두 자기들의 본토, 즉 팔레스타인 땅으로 회복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는 시기는 천년 왕국 이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천년 왕국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겔36:24-28; 속12:10; 계1:7).

6.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일이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몰래 우리를 데려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는 당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 이후에 오신다면 아직 1,000년이란 기간이 남아 있는 사건을 위해 왜 훨씬 전부터 우리가 깨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 III. 재림의 방법

예수님께서서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행1:11). 그분께서는 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승천하셨으므로 그와 똑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으므로 오실 때도 구름 속에서 오실 것입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계1:7).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올라가셨을 때는 혼자 가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서 천사의 무리를 수행원으로 삼아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보답해 주리라(마16:27).

그분의 재림은 초림과 마찬가지로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비밀리에 지구의 대기권 내로 들어오시는데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 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부활한 성도들과 휴거 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 행한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보상을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서 그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뒤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이끄시고 땅에 오셔서 자신이 승천하셨던 올리브산에 자신의 발을 내리실 것입니다(슌14:4).

그분의 재림의 첫째 단계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는 것, 즉 휴거이며 둘째 단계는 완전한 지상 강림입니다. 이 두 단계 사이의 기간은 적어도 7년이 되며 이 기간 중에 하늘에서는 믿는 자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고 땅에서는 7년 환난기가 있게 됩니다.

## 휴거

휴거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살전4:15).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휴거라는 사건이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둘째는 살아 있는 성도들이 채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마르다에게 휴거의 두 가지 특성에 대해 잘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요11:25-26)

사도 바울도 불멸의 부활 장에서 이와 같은 휴거의 이중적 특성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고전15:51-57).

마지막 두 문장은 죽지 않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은 사람만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후서에서 자신과 또 당시 살아 있던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죽음에 의해 옷이 벗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영생으로 옷입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잘 보여 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별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우리가 벗으려 함이 아니요, 입으려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고후5:1-4).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에도 바울의 이러한 소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며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르러 하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꾀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빌3:11-14).

다시 말해, 바울은 첫째 부활 때에 죽음에서 부활하여 변화된 사람들과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도 귀하게 여겼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다가 휴거 받는 것을 보상으로 더욱 귀하게 여겼습니다.

### 휴거는 갑자기 일어난다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의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살전5:1-2; 마24:42-44 참조).

위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마치 집에 도둑이 들 때처럼 갑자기 오십니다. 도둑은 자신이 오는 시각을 미리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들이닥칩니다. 도둑은 집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털어 가지 않습니다. 금은 같은 보석과 값나가는 옷처럼 귀중한 것들만 훔쳐 갑니다. 도둑은 그 집에 머무르려고 오지 않으며 귀중한 물건들을 다 챙기면 즉시 떠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공중 강림 하실 때, 즉 휴거 때에 성도들만 데려가십니다. 도둑이 어떤 집을 털 때 그가 가지고 가는 것은 남겨 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는 집과 가구와 그 외 집안 도구들은 다 두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공중 강림 하실 때에 이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무신론자들과 이교도들과 악인들은 모두 남겨 놓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적은 수의 귀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십니다.

### 휴거는 놀랄 만한 사건이다

휴거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남편과 아내를, 형제들과 자매들을, 친구들과 친구들을 모두 분리할 것입니다. 또한 휴거는 이 시대에서 가장 놀랄 만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휴거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땅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이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 있는 성도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야기를 나누셨을 때 곁에 섰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렛소리로 들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요12:28-29).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무덤을 손상하지 않고 몸만 슬쩍 빠져나온다면 첫째 부활은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변화되어 휴거 받게 될 살아 있는 성도들의 경우는 이와 다를 것입니다. 만약 한밤중에 휴거가 발생한다면 그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간밤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낮에 휴거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특히 날씨가 좋은 계절에 보트나 관광버스 혹은 공원이 사람들로 가득 찰 때 휴거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로 놀랄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중에 특히 한참 일할 대낮에는 가게마다 사람들로 만원을 이룰 것이고 공장은 일하는 사람들로 붐빌 것이며 거리에는 남녀노소가 사업을 위해 혹은 휴식을 취하려고 오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갑자기 거대한 우렛소리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들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급히 문이나 창문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거리나 들판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위를 쳐다볼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두렵고 놀랍기만 한 소리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주님의 음성입니다.

얼마 뒤 놀라고 겁에 질렸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고 또 그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에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 들어 보았거나 글을 읽은 적이 있는 어떤 이가 금방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상황을 설명해 주기까지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그저 신비로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일어난 놀라운 일들 중 하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 사라진 반면에 목사나 또는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며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해 온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땅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 며칠 동안 이 사건에 따른 충격이 극도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완악해지고 사악해질 것이며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의 소금이었던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을 떠나면 세상에는 남아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부패를 방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 온갖 형태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죄가 늘어날 것이고 그 결과 결국 적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뒤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이 세상은 심판을 향해 무르익게 될 것입니다.

### 그리스도의 현현(지상 강림)

그리스도의 재림의 둘째 단계인 지상 강림 때에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육체로 자신의 참모습을 변장했습니다. 사실 성육신은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초림 때에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것처럼 아주 가끔씩 영광의 광채가 몸 밖으로 표출된 것 외에는 그분의 영광이 직접 나타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두 번째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 둘러싸인 그분을 직접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 직접 나타나시는 것은 휴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뜻밖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사고팔고 짓고 심고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등에 몰두해 있을 것입니다. 정치가들은 더 나은 미래의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새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쾌락을 좇는 이들은 새로운 쾌락거리를 찾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나 천국, 지옥, 심판 따위는 없을 것이라며 자신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저 멀리 하늘에는 태양보다 더 찬란한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빛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지상으로 내려올 때 그것은 찬란한 구름의 형태를 띠 것이며 그 구름 속에서 눈부신 빛들과 번뜩이는 섬광들이 갈라져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회오리바람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급속히 내려올 것입니다. 그 빛이 목적지인 이스라엘의 올리브산에 도착하면 겁에 질린 눈으로 보고 있는 만민들 앞에 그 모습을 확연히 드러낼 것입니다. 목격자들은 구름처럼 둘러싸인 무리 가운데 흰말 위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계19:11-16).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하신 말씀이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마24:30).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 때에 땅에서는 민족들의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며 그 뒤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왕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마25:31-46). 그리고 그분은 땅에서 문자 그대로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 영의 세계

성경은 초자연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시대에 팽배한 물질주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 영의 세계에 대해 보여 주는 것을 제대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가는 데는 단 하나의 계단이 있습니다. 이 두 세계를 나누고 있는 베일은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하늘에는 모두 영적 존재만 있으며 그들은 두 종류, 즉 좋은 존재와 악한 존재로 나뉩니다. 그들은 스랍, 그룹, 천사들(좋은 천사와 나쁜 천사), 권력들, 권능들, 어둠의 치리자들, 사악한 영들(엡6:12), 왕좌들, 통치들(골 1:16), 타락한 천사들(벧후2:4), 옥에 있는 영들(벧전3:18-20), 마귀들, 유혹하는 영들(딤후 4:1) 등으로 구분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있듯이 천사들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들은 매우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전능하지는 못합니다(살후1:7). 그들은 힘이 매우 강해서 천사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군사 185,000명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천사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셨던 무덤에서 큰 돌을 굴러 냈고 장래에는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사탄을 결박해서 바다없는 구덩이(무저갱) 속으로 던져 넣을 것입니다. 이들은 다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며(눅9:26)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에게는 섬기는 영들이며(히1:13-14), 사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수행하는 존재들입니다(살후1:7-8). 장래에 이 천사들은 세상의 사망에서 이스라엘의 선택된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며(마24:31) 하나님의 백성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 줄 것입니다(왕상19:4-8; 마4:11).

영적 세계의 권력들과 권능들 가운데는 뛰어난 존재들이 셋 있습니다.

### 1. 미가엘

미가엘은 다니엘서에서 세 번 언급되고 있으며(단10:13, 21; 12:1)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통치자로 불립니다. 그는 또한 유다서 9절에서 천사장으로 불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그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군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주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사탄의 권능으로부터 구출하며 하늘에서부터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땅으로 추방하는 것입니다(계12:7-9). 그는 또한 죽은 자들의 부활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니엘서 12장 1-2절에서 언급된 부활과 연관되어 있고, 마귀와 더불어 모세의 부활에 대해 경합을 벌였으며(유9),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울려 퍼질 천사장의 음성이 바로 미가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천사장이 미가엘이라는 것은 그가 성경에서 언급된 유일한 천사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확실합니다.

## 2.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성경에 이름과 함께 네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니엘서에 두 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두 번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과 9장 21-27절에서 그는 다니엘에게 나타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를 알려 주었고, 초림의 때가 되자 사가라에게 나타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침례자 요한의 출생을 알려 주었고,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출생을 알려 주었습니다(눅1:19, 26-27). 그가 사가라에게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하늘에서 그의 지위가 매우 높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 3. 사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탄을 언급한다고 해서 그가 결코 이 셋 중 가장 지위가 낮지는 않습니다. 그는 여러 면에서 매우 큰 자입니다. 다만 그의 사악한 성품 때문에 맨 마지막에 언급할 뿐입니다. 그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무정부 상태나 반역의 근원입니다. 사탄에 관해서는 다음 장을 보기 바랍니다.

### 영의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 두 개의 세계, 즉 물질세계와 영의 세계를 인식하도록 지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살전5:23).

그는 또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히 4:12)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삼중적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사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은 밖에 있는 뜰에 의해 둘러싸였고 이 뜰은 막으로 된 펜스로 둘러싸였습니다. <성막> 선도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고 하나의 길이는 다른 하나의 길이의 두 배이며 그 사이에 베일, 즉 커튼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방 중 큰 것은 거룩한 곳, 즉 성소라 불렸으며 밖에서 거기로 들어가려면 커튼이 쳐져 있는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안에는 보여 주는 빵을 두는 상과 분향 제단 그리고 일곱 개의 가지로 된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성소로부터 지성소, 즉 두 방 중 작은 방에 들어가려면 두 방을 나누는 커튼인 베일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궤의 뚜껑 위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 ‘세카이나 영광’ 중에 자신의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이 방은 가장 거룩한 곳, 즉 지성소라 불렸습니다. 성막 안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었으며 그 안에 들어가는 단 하나의 출입구는 성소에

이르는 문, 즉 커튼으로 닫힌 문뿐이었습니다.

이 같은 성막과 그 주변의 뜰은 사람의 세 요소를 보여 주는 예표입니다. 뜰은 몸을 나타내고 성소는 혼을 나타내며 지성소는 영을 나타냅니다. 성소를 통하지 않고는 뜰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듯이 사람의 경우에도 오직 혼을 통해서만 영과 몸이 통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뒤에도 하나님의 영께서 지성소에 자신의 거처를 정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완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사람의 본질 중의 영의 방을 소유하시기 전까지 그는 영적으로 새롭게 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새로 태어나는 것, 즉 다시 태어남이 일어날 때에야 비로소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세 요소> 선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원은 사람의 몸을 나타내고 중간의 원은 혼을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원은 사람의 영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적인 것(고전3:1-3), 본성적인 것(고전2:14) 그리고 영적인 것(고전3:1)이라고 표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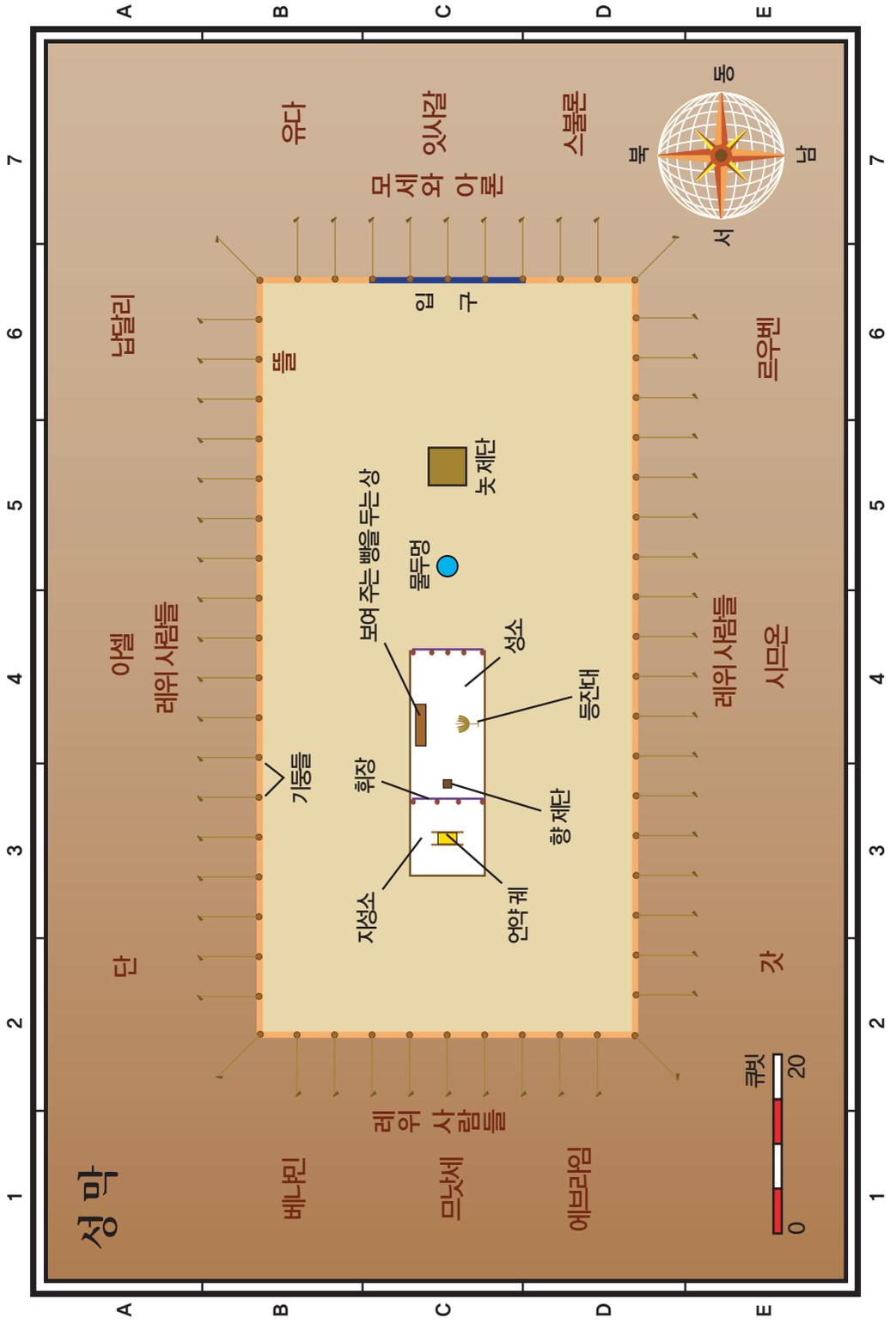
가장자리에 있는 원을 보면 몸이 다섯 가지 감각, 즉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만지는 것 등을 통해 물질세계와 접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혼에 이르는 문에는 상상, 양심, 기억, 이성, 애정 등이 있습니다. 영은 혼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영이 갖고 있는 영적 기능은 믿음, 소망, 경외심, 기도, 경배 등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의 영이 하늘로부터 조명을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을 때 죄가 영의 창문을 막아 버렸고 커튼을 내림으로써 영의 방은 죽음의 방이 되고 말았습니다.<sup>1)</sup>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상태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생명과 빛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이 영의 방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의 능력, 즉 생명과 빛을 주시는 능력으로 채우실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성에 속한 자연인이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연인은 그의 영적 상태가 새롭게 될 때까지 결코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연인의 영은 어둠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의지가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의 혼과 영은 몸으로부터 분리되고 몸은 무덤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영은 결코 몸이 없는 그런 상태로 있지 않고 ‘혼적인 몸’(soulish body)이라 불리는 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혼적인 몸은 듣거나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느낄 수 있으므로 만질 수 있는 형태를 취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몸은 형체가 없는 유령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몸은 완전치 못하여 어떤 제약이 있긴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 부활 때에 자신이 원래 소유했던 육적인 몸을 다시 얻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혼적인 몸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가복음 16장 19-31절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비유가 아니며 예수님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시대에 다른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묘사한 실제 사건입니다.

1) 이것은 자연인의 영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다. 산 사람 중에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만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어 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



<성막>

이 기사에서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몸은 땅속에 있었습니다. 지하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들의 육적인 몸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그들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부자는 나사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나사로가 몸이 없었다면 그 일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그 몸이 육적인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육적인 몸은 땅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곳에서의 그의 몸은 ‘혼적인 몸’(soulish body)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 ‘혼적인 몸’이 단순히 어떤 형태를 지닌 몸이 아니라 밖으로 보이는 형태나 모습 면에서 그 몸의 소유주가 땅에서 갖고 있던 육적인 몸과 똑같은 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그 세상에서 그를 알아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부자는 여전히 보고 느끼고 목말라하고 말하고 기억할 수 있었는데 이 사실은 그가 감각을 갖고 있었고 또 자신의 인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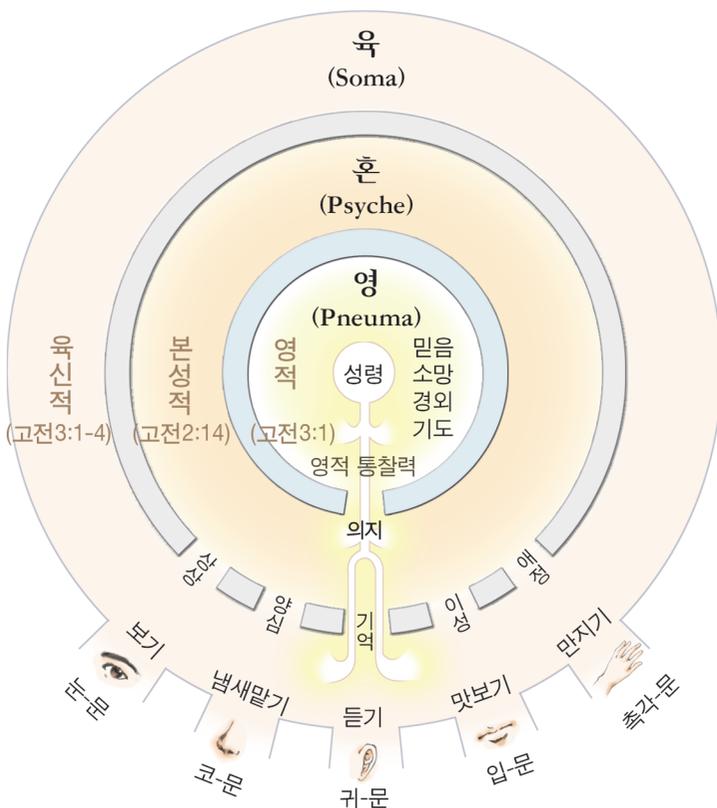
또한 이 사실은 이 땅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옮겨갈 때에 제칠일 안식교인들이 주장하는 것, 즉 ‘혼이 잠자는 것’ 등과 같은 어떤 불연속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 줍니다. 성경에서 ‘잠자다’라는 표현이 쓰일 때 그것은 항상 몸을 가리키며 결코 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잠잔다.”는 표현은 항상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적용됩니다.

자, 이제부터 영과 혼이 몸을 떠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우리는 지하 세계에 대한 묘사를 보게 됩니다. <지하 세계> 선도를 보기 바랍니다. 지하 세계는 낙원과 지옥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둘 사이에는 사람이 서로 오갈 수 없는, 깊이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sup>2)</sup> 이같이 깊이 갈라진 틈의 밑에는 바닥없는 구덩이(무저갱) 혹은 아부쑈스(아비쓰)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사악한 영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 구덩이를 다스리는 왕이 있으며 그의 이름은 아폴리온입니다(계9:11). 이 구덩이는 현재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으며 후에 자신이 원할 때에 천사를 시켜 그것을 여실 것입니다(계9:1-16; 17:8; 20:1-3).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의로운 사람의 영과 혼이 지하 세계의 낙원 부분으로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뒤에 바로 그 낙원에서, ‘회개한 강도’를 만나셨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시던 날 그리스도의 영과 혼은 지하 세계로부터 되돌아왔

2) 원래 지옥, 즉 ‘Hell’은 넓은 의미로 ‘죽은 자가 가는 그늘진 곳’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의 구약 시대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으면 다 땅에 있는 지하 세계, 즉 ‘넓은 의미의 지옥’으로 갔다(삼상28:14, 19).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 사람들, 즉 구약 사람들이므로 둘 다 죽어서 넓은 의미의 이 지옥, 즉 지하 세계로 갔다. 물론 거기에는 누가복음 16장이 기록하듯이 의인들을 위한 ‘안식하는 부분’(아브라함의 품)과 악인들을 위한 ‘형벌받는 부분’이 있었고 이 둘 사이에는 깊은 구렁텅이가 있었다. 예수님과 십자가 처형 시의 한 강도도 죽은 뒤 이 넓은 의미의 지옥의 낙원 부분으로 내려갔다(행2:27, 3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지하 세계의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은 그 거주민들과 함께 하늘로 옮겨져서 지금의 지하 세계에는 ‘좁은 의미의 지옥’, 즉 형벌 받는 장소만 남아 있다. 따라서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접하면 일단 지하 세계로 생각하되 그것이 십자가 사건 전의 넓은 의미의 지옥인지 십자가 사건 후의 좁은 의미의 지옥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의 지옥은 최후의 지옥, 즉 게헨나라 불리는 불 호수(계20:14)가 아니다.

# 사람의 세 요소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살전5:23).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히4:12)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사람 역시 하나님처럼 영과 혼과 육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삼위일체적 존재이다. 다만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각각 개별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인 것과는 달리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은 개별적으로 각각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몸은 세상을 의식하고 혼은 자기를 의식하며 영은 하나님을 의식한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서 오는 믿음을 받아 자기의 의지의 문을 열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들일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마귀는 주로 보는 것을 통해 사람의 혼에 접근하며(창3:6; 수7:21; 삿14:2; 삼하11:2; 요일2:16) 하나님은 주로 듣는 것을 통해 사람의 혼에 접근하신다(롬10:17).

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께서는 혼자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분께서는 낙원에 있던 자들을 다 데리고 나오시며 그곳을 달아 버렸고(엡4:7-10) 그래서 이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계1:18).

그리스도와 함께 나온 사람들 중 몇몇은 자기 몸을 받아 그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마27:52-53). 그 나머지는 사도 바울이 들려 올라갔던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고후12:1-4).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죽은 의로운 자들의 혼은 바로 이곳으로 직접 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고후5:8; 빌1:23). 바로 이곳에서 의로운 자들의 혼은 그들의 몸이 부활하는 때가 올 때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에서 자신의 교회를 만나러 오실 때에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부터 의로운 자들의 혼을 다시 데리고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잠든 자들’을 그분께서 자신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살전4:14). 그들은 땅에까지 와서 무덤에서 자기 몸을 받아 휴거 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지하 세계> 선도를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악한 자들의 혼은 지금도 여전히 지하 세계의 지옥에 갇혀 있으며 둘째 부활의 때까지 그곳에 머무를 것입니다. 이 둘째 부활 때에 이들은 땅으로 돌아가 자기의 몸을 받고 곧장 흰 왕좌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이 심판 뒤에 그들은 둘째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몸을 잃는다는 의미에서 두 번째 죽는 것을 뜻합니다. 또 그들은 육적인 몸이 없는 영들로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최종 지옥인 계헨나, 즉 불 호수 속으로 던져져서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영과 혼은 불 속에서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사악한 자들이 둘째 사망에 의해 그 몸을 다시 잃는 뒤에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막9:43-48).<sup>3)</sup>

현재 우리는 영적 강신술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은 산 자들이 죽은 자들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강신술 혹은 심령술은 사실 마귀를 숭배하는 것으로 성경은 이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레20:6, 27; 신18:10-11; 사8:19).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리는 영들’(familiar spirits) 혹은 ‘익숙한 영들’은 신약 시대의 마귀들이며 유혹하는 영들입니다.

## 심령술

우리는 신약 성경의 경고를 통해 마지막 시대에 심령술이 부흥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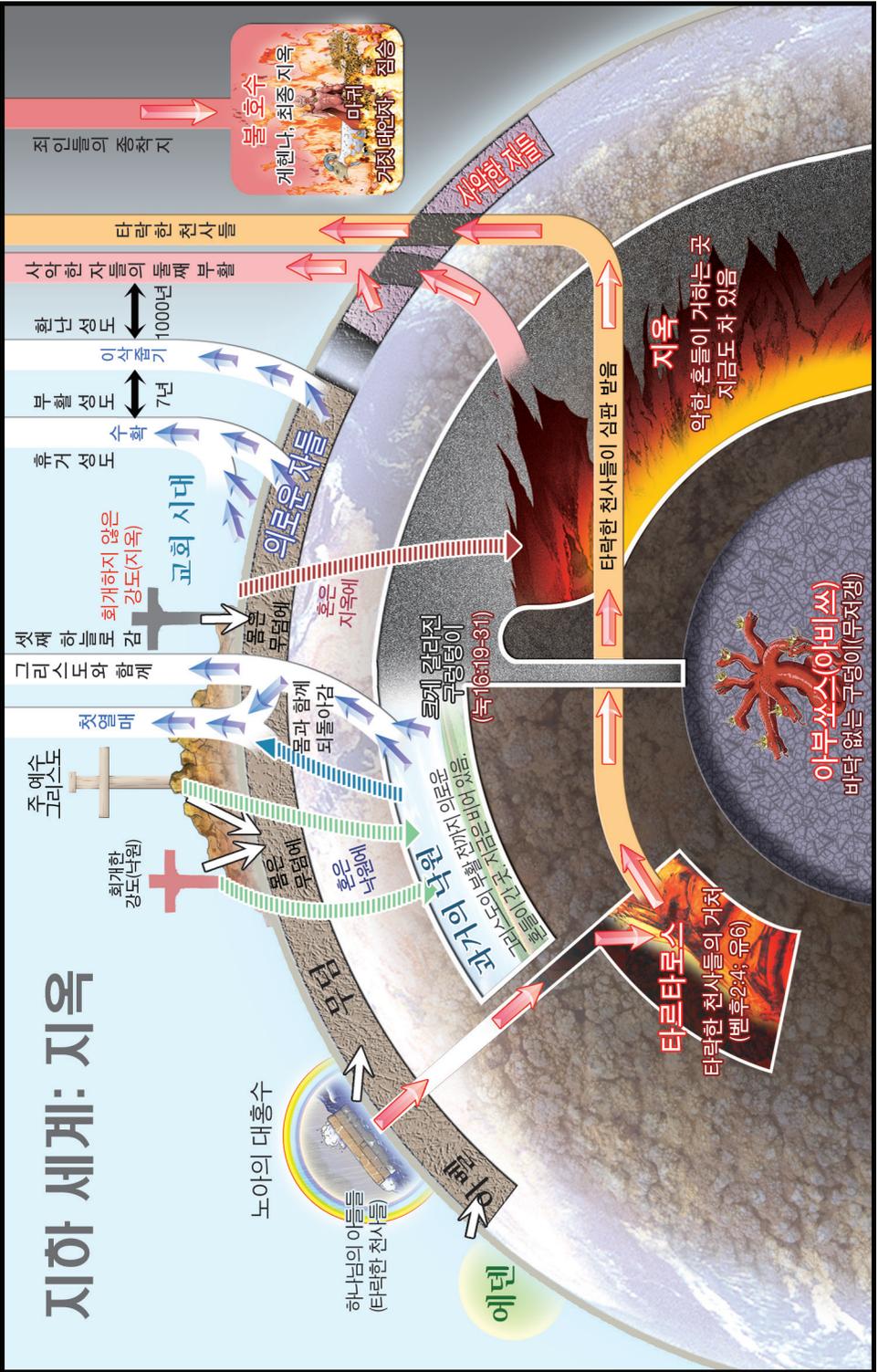
한편 상형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라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딤후 4:1-3).

‘혼인을 금하고’라는 말은 독신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관계의 폐기나

---

3) 역자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자들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소멸되지 않는 몸을 영원히 유지한다고 믿는다. 물론 이것은 육적인 몸은 아니고 흰 왕좌 심판을 받을 때 입는 몸이다(255쪽 각주 참조).

# 지하 세계: 지옥



(지하 세계: 지옥)

자유 결혼(혹은 연애) 등을 의미합니다. ‘음식물을 삼가라’는 말은 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만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식을 하게 되면 육식을 하는 경우보다 영적인 힘에 더 민감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sup>4)</sup> 사도 바울의 이 같은 경교가 7절에 있는 말씀, 곧 “속된 것들 즉 늙은 부녀들이 꾸며 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는 말씀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무슨 무슨 주의’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 사이언스야말로 늙은 부녀가 꾸며 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크리스천 사이언스<sup>5)</sup>의 주창자였던 에디 부인은 여러 번 결혼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늙은 부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마녀들과 성경에 나오는 영매들 그리고 현시대의 영매들이 여자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아담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브를 통해서 인류를 파멸시키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여인들의 노심초사하는 성격이나 남에게 쉽게 영향을 받는 성격이 마귀들의 계략에 조금 더 쉽게 이용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령술 혹은 마귀 승배의 부활은 이 시대의 표적들 중 하나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어둠의 권능들에 속해 있습니다. 마귀들은 숫자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큰 군대를 이루고 있고 사탄을 위한 일에 능숙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중앙 정부는 바다없는 구덩이에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서부터 나아갑니다(계9:1-11). 마귀들이 인격과 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눅8:26-33). 물론 이 마귀들은 보통 사람 이상의 지능을 소유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자기들이 궁극적으로는 고통의 장소에 갇힐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8:29).

### 인간의 몸에 대한 마귀들의 권능

마귀들은 사람이 말을 못하게 하거나(마9:32-33) 못 보게 할 수 있습니다(마12:22). 또 이들은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고(눅8:26-35) 자살하게 할 수 있으며(막9:22) 사람의 신체에 해를 입힐 수 있고(막9:18) 사람에게 어떤 초능력을 부여할 수 있으며(눅8:29) 몸의 변형이나 불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눅13:11-17).

마귀들의 포악한 성격은 자기들의 피해자들을 다루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희생자들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며(롬6:13), 마귀들의 교리를 선포하는 데 사용하고(딤후4:1), 저주받을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데 사용합니다(벧후2:1). 피해자들

4) 힌두교도들과 승려들 그리고 뉴에이지 추종자들은 채식만을 강조한다. 육식을 하면 진동 에너지가 나와 마귀와의 접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마귀는 사람이 몽롱한 가운데 자아를 잃게 만들고 그 몸에 들어가 각종 신비한 일을 행한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육의 건강을 위해 적당한 양의 고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딤후4:3).

5) 미국의 종교가 M. B. 에디 부인이 1866년에 창시하였다. 미국·영국 두 나라에 신봉자가 많다. 그들은 교의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고 있으나 이것은 단순하고 속신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즉 그들은 인간 정신·신·그리스도는 일체이며 이것이 존재하면 인간은 건강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보낼 수가 있다고 주장하며 또 병이란 잘못된 주관적인 상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잘못을 제거하면 병이 낫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이를 실행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를 본받으면 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이 같은 이론과 오늘날의 심리 요법 비슷한 방법으로써 신자를 늘려 나갔다(두산백과사전에서).

이같이 악용하는 것은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결과 사악하고 비인간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 들린 남녀들의 행동은 마귀들이 그들을 소유하여 육적이며 성적인 만족을 위해 사용하려 함을 보여 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는 영들에 순응하려는 경향이 점점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의 복장이 건전치 못하며 사람들이 광란적으로 춤을 춘다는 것은 다 위의 사실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종종 남편과 아내를 나누어 놓고 자유연애의 교리를 선포함으로써 가정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귀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희생자를 제어하며 또 그 희생자의 마음과 몸을 파괴시키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희생자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서고 이로써 마귀로부터 해방되지 않는다면 그는 혼과 몸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귀 들리는 것과 질병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간질은 당사자가 경련을 일으키게 하며 입에서 거품을 토하게 하고 이빨을 부득부득 갈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간질과 마귀 들리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마4:24).

고린도전서 10장 20-2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것을 말하노라. 즉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 이교도들의 숭배 의식의 배후에 마귀 숭배가 있음을 보여 주며 이들의 축제가 난장판이 되며 이들의 숭배 형식이 탐욕적이며 관능적인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16장 19-31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미 죽은 자들의 영과 교통하는 것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음을 보여 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 즉 거룩한 성경기록이 있어서 그것이 죽은 자들의 상태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든지 부자든지 죽은 이후에 땅으로 다시 가서 부자의 형제들에게 경고를 해 주는 것은 결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선한 자의 영이든 악한 자의 영이든 일단 죽으면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령술 혹은 강신술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말세에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들을 방황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도구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심령술에 빠지는 사람은 지각이 어둡게 되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마귀들의 권능과 제어 밀도로 들어가게 됩니다(엡4:17-19).

## 사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단순한 악의 원리일 뿐이고, 이러한 악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과 같은 실체 없는 존재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일종의 말라리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견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단순한 악의 원리가 아니라 한 인격체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5:8)

그는 두루 다니며 울부짖고 또한 나중에 사슬에 갇히게 됩니다(계20:1-3). 이런 일들은 악의 원리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사탄, 마귀, 바알세불, 벨리알, 대적자, 용, 뱀 등과 같은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는 이 이름들 중 하나로 174회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천상의 실력자입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이며(엡2:2) 이 세상의 신(고후4:4)입니다.

### 1. 사탄의 기원

사탄의 기원은 다소 신비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창조된 존재이고 극도로 높여졌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 사탄은 기름 부음을 받은 '뉘는 그릇'이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왕좌의 근위병이었습니다. 사탄은 그가 창조된 날부터 불법이 그에게서 발견되기 전까지 모든 길에서 완전했습니다. 그에게는 지혜의 충만함과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이 아름다움이 교만을 일으켜서 그의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그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보석들로 덮여 있었고 모두 금으로 뜯은 옷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거주했습니다. 이곳은 지상의 에덴을 말하지 않고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에스겔서 28장 11-19절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대언자 에스겔은 두로 왕이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묘사된 것과 같은 두로 왕은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sup>1)</sup>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이므로 대언자 에스겔은 여기서 타락하기 전에

---

1) 그러므로 앞뒤 문맥상 여기의 두로 왕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마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탄이 가졌던 원래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타락 원인은 이사야서 14장 12-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탄은 아침의 아들인 루시퍼<sup>2)</sup>로 불리는데 이것은 그가 창조되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새벽별들, 즉 그와 더불어 영광스럽게 창조된 '다른 다스리는 존재들'(천사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천사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습니다(욥38:7).

여기에서 루시퍼, 즉 아침의 아들이라 불린 인물이 다시 4절에서는 바빌론 왕이라 불리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묘사된 인물과 같은 바빌론 왕은 이제까지 없었으므로 이 구절은 바빌론의 미래 왕을 묘사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재건된 바빌론을 자신의 본거지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가 적그리스도를 미리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루시퍼 또는 사탄이 적그리스도 안에 내주할 것이며 그때에 그는 바빌론의 왕이 될 것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사탄의 타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이르기를,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그곳의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의 포로들을 둔 집을 열지 아니한 자냐? 하리라(사14:12-17).

이 구절들은 사탄의 오만(13-14절), 세상의 불행에 대한 그의 책임(17절), 그리고 그의 파멸(15-16절)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사탄은 이 땅을 통치하기 원하며 실제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권능과 영광은 그에게 넘겨졌습니다(눅4:6).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이 자신에게 속해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월성을 인정하기만 하면(마4:8-9) 이 세상의 왕국들을 그분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사탄이 이 땅을 자신의 소유로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 II. 사탄의 현재 위치

사탄의 현재 위치에 대해 거론할 때 대개 많은 사람들은 그가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지옥에 감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에 묘사된 천사들은 자기들의 처음 위치를 떠나 암흑 속에서 영원한

---

2) 역사적으로 볼 때 이사야서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루시퍼에 대한 유일한 일대기로서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불법의 신비'(살후2:7)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 말씀은 사탄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확실히 보여 주므로 지금까지 사탄의 증오의 대상이자 저항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결과 개역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은 한결같이 '루시퍼'란 이름을 제거했고 이로써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타락 전 사탄의 이름을 보여 주는 부분은 본문에서 삭제되어 성도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부패되지 않은 채 말씀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루시퍼의 일대기를 보여 주고 있다.

쇠사슬에 묶인 채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운행하고 있는 사탄의 천사들을 가리키지 않고 자기들의 죄로 인해 노아의 홍수를 불러온 특별한 계층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베드로전서 3장 18-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감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현재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자유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 1-2장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천사들)이 자기들이 맡은 일을 보고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 욥이 살던 때의 관행이었다는 것과 사탄도 언제나 그들과 함께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을 때 그는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욥1:7; 2:2). 사탄은 욥이 살던 때, 즉 주전 2000년경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아직 하늘에서 완전히 추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는 하늘에서 추방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탄은 여전히 하늘의 영역에서와 땅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움직이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탄> 선도를 보기 바랍니다.

### III. 사탄의 왕국

사탄은 왕으로서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된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된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면 그가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되었나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마 12:25-26)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엡6:12).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사탄의 왕국이 권력들, 권능들,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그리고 높은 곳들에 있는 사악한 영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들은 대언자 다니엘이 살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어떤 민족들을 주관하는 통치자들에게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사자를 다니엘에게 보내었으나 사탄이 지배하는 페르시아 왕국의 영적인 존재인 통치자가 3주 동안 그를 방해했고 결국 천사장 미가엘이 그를 구하기 위해 옵니다(단10:10-14).

### IV. 사탄의 방법

#### 1. 그는 세상을 속이는 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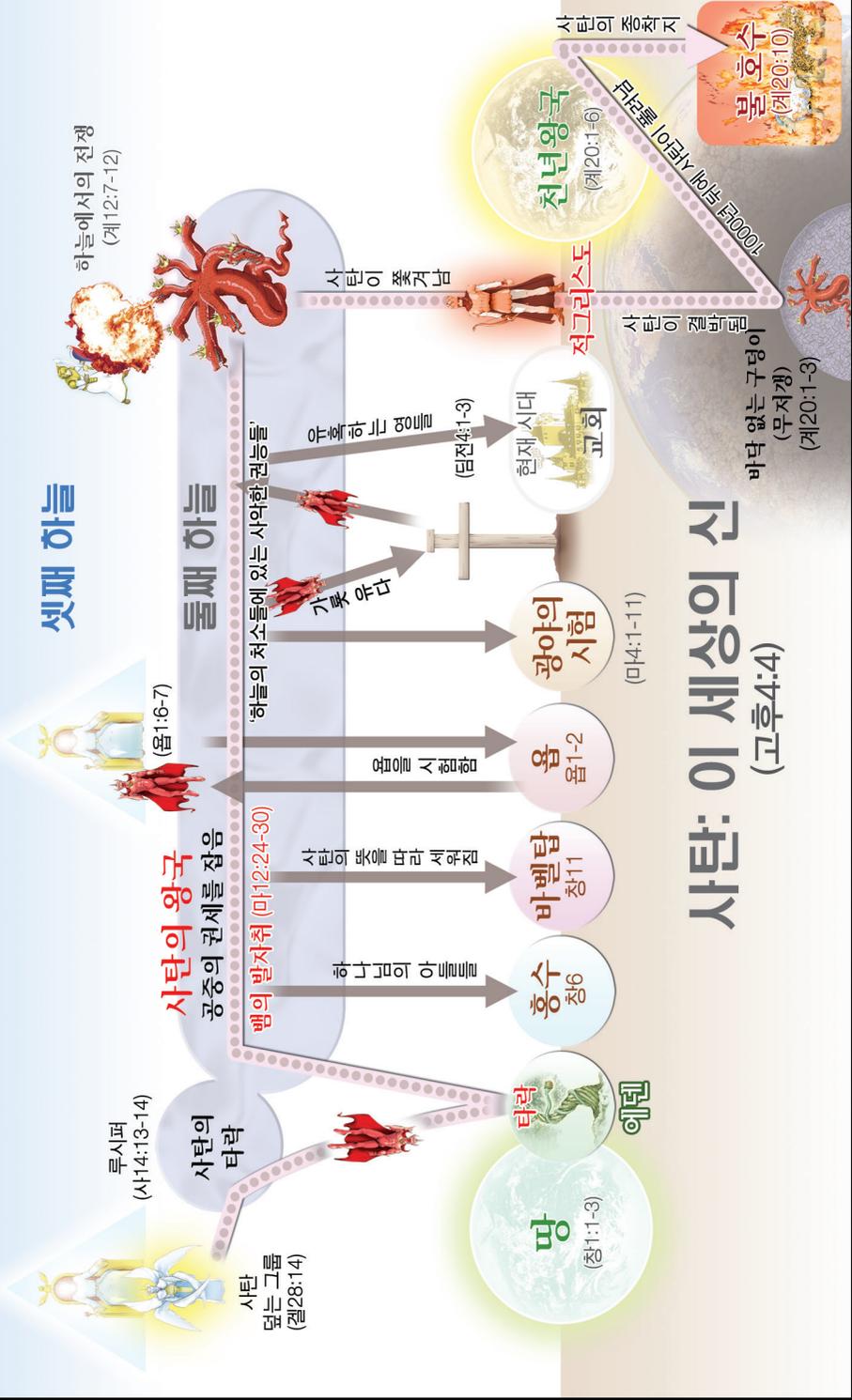
세상이란 사탄의 체제에 속하는 모든 사람과 사탄의 올가미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며(요일5:19)

사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눈을 가림으로써 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고후4:3-4).

# 셋째 하늘



하늘에서의 전쟁  
(계12:7-12)

사탄의 왕국  
공중의 권세를 잡음  
(욘1:6-7)

사람의 타락  
사람의 타락  
(사14:13-14)

사람의 왕국  
공중의 권세를 잡음  
(마12:24-30)

사람의 구속  
사람의 구속  
(골2:14)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사악한 권능들'  
기독교의 시작  
안락함의 영성  
(딤후4:1-3)

사람의 영광  
사람의 영광  
(마4:1-11)

사람의 타락  
사람의 타락  
(계20:1-3)

사람이 쫓겨남

천년왕국  
(계20:1-6)

적그리스도  
현재 시대  
교회

광야의 시험  
(마4:1-11)

움  
욘1:2

바벨탑  
창11

홍수  
창6

사람의 영광  
불호수  
(계20:10)

사람의 영광  
바다 없는 구렁이  
(무저갱)  
(계20:1-3)

사람의 영광  
사람의 영광  
(고후4:4)

<사탄: 이 세상의 신>

이 목적을 위해 사탄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설교자들을 두고 있습니다(갈1:6-9). 이런 복음은 마귀들의 교리입니다(딤후4:1). 그는 엄청난 배도의 선동자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베후2:1-2).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도처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 그리스도의 신성, 몸의 부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前) 천년 재림’(Premillennial coming)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교활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는 선택받은 자들조차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온 인류의 관심을 일으킬 만한 위대한 성경 주제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지혜롭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공개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교리로 더럽히는 방법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재림에 대해 수많은 거짓 가르침을 세우고 재림의 시기를 정하고 공포함으로써 교회로부터 주님의 재림에 대한 복된 소망을 강탈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인류가 치유받으려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크리스천 사이언스와 ‘새로운 사도’ 등과 같은 거짓 체계들을 개발해 냈습니다. 또한 사탄은 영의 세계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는 인간의 마음의 강렬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비주의나 강신술을 개발해 냈습니다.

또 사탄은 폭력과 박해로는 교회를 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전술을 바꾸어서 지금은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도록 유혹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작정하신 이 세상을 좀 더 발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웅대한 문명을 건설하려 하고 있으며 교회를 미혹에 빠뜨려서 사회 개선을 통해 그리스도 없는 천년 왕국의 도래를 믿도록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망은 사회봉사를 통한 행위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을 대체하는 데 있습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부차적인 것들에 돌리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구원이라는 원초적 사역을 게을리하게 하여 세상의 복음화를 지연하고 주님의 재림을 연기시켜서 바닥없는 구덩이 속에 갇힐 자신의 멸망을 늦추는 데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 2.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수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사이에 기록된 것처럼 선과 악 사이의 전쟁은 참으로 흥미 있는 읽을거리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따라 이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녀와 함께 아담도 먹었습니다. 이로써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된 씨, 즉 메시아의 탄생을 막기 위해 사탄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도록 합니다.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기 위해 그 뒤 사탄은 바벨탑의 건축을 제안합니다. 이로써 언어의 혼잡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탄의 이 같은 대립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 보면, 우리는 사탄이 인류의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꺾기 위해 갖은 술책을 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가 왔을 때 헤롯을 시켜 두 살 아래의 베들레헴에 사는

사내아이를 모두 죽이게 한 자도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금식으로 인해 약해진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이기려 하고, 성전 꼭대기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직접 뛰어내리라고 제안한 자도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나사렛 언덕 꼭대기에서 성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밑으로 던져 버리려고 시도한 것과 갈릴리 바다에서 두 번이나 폭풍이 일어난 것도 그리스도를 멸하려는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사탄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한 싸움을 다시 시작했고 마침내 가롯 유다가 자기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도록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다음 겟세마네의 어둠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직전에 육체적 연약함을 통해 그분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은 마침내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자 사탄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마귀들)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막으려 했습니다. 사실 기독교회의 역사는 사탄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의 길고 긴 이야기입니다.

## V. 사탄의 운명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사탄은 여전히 자신의 처소를 하늘에 속한 곳에 두고 있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늘에 속한 곳으로부터 쫓겨나 땅에 거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계12:9-12). 그리고 그 이후에 사탄은 자신의 때가 단지 3년 반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며 그의 분노로 말미암아 지구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그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계13:2-8). 환난기의 끝에 이르러서 그의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산 채로 불 호수에 던져질 것이며,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천사가 사탄을 사로잡아 이미 만들어진 거대한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끝없이 깊은 구렁이 속에 던져 버릴 것입니다(계20:1-3).

천 년이 다 찰 즈음에 사탄은 잠시 동안 풀려날 것이지만 그는 곧 그의 천사들과 함께 그를 위해 오래전에 예비된 불 호수에 영원히 던져질 것입니다(마25:41; 계20:7-10).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시대들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 사탄의 삼위일체

사도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고 그것을 묘사한 뒤에 다시 땅속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을 보았습니다(계13:11-17). 비록 요한이 그 둘째 짐승을 어린양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짐승은 마치 어린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어린양처럼 생긴 짐승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둘째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흉내 내기 때문입니다. 어린양(그리스도)은 요한계시록에서 2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묘사되어 있는 어린양은 일곱 뿔을 가진 어린양이지 결코 두 뿔을 가진 어린양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예수님과 다른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사실 이 짐승은 어린양처럼 생겼지만 마치 용처럼 말을 합니다. <사탄의 삼위일체> 선도를 보기 바랍니다.

이 둘째 짐승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 세 번이나 거짓 대언자라고 불렀습니다(계16:13; 19:20; 20:10). 세 번 중에서 그는 적그리스도인 첫째 짐승과 두 번 함께 나오며 한 번은 사탄인 용 그리고 첫째 짐승과 함께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인격체인 것처럼 거짓 대언자도 인격체입니다. 그가 거짓 대언자라고 불린 것으로 보아 그는 적그리스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마24:24).

여기에서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동일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짐승이 땅속에서 올라온다는 사실은 그가 부활한 인격체라는 것을 강력히 보여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기에 두 증인, 즉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사역에 대항하여 사탄도 지하 세계로부터 두 인격체를 올려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 짐승(적그리스도)과 둘째 짐승(거짓 대언자)이 둘 다 산 채로 불 호수에 던져진다는 사실은 이들이 보통 사람 이상의 존재들이며, 특히 첫째 짐승은 다시 세워질 로마 제국을 통치할 마지막 황제 이상의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사실 그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초인간,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대언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 낸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용은 아버지 곧 사탄이고 짐승은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용에게서 나와 이 세상에서 죽고 부활하여 자기 아버지인 용으로부터 왕좌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는 용-아버지와 용-아들에게서 나와 용처럼 말하는 대적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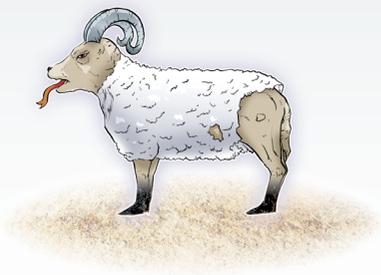
미가엘  
(단12:1;  
계12:7)



용  
대적하는 신  
(계12:7-17)

## 사탄의 삼위일체

거짓 대언자  
대적하는 영  
(계13:11-17)



짐승  
대적하는 그리스도  
(계13:1-10)

영입니다. 용은 대적하는 신이고 짐승은 대적하는 그리스도이며 거짓 대언자는 대적하는 영으로서 이 셋이 모두 불 호수에 산 채로 던져진다는 사실(계20:10)은 이들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왕국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는 사탄이 그리스도께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이 세상의 왕국을 받아들일 것입니다(마4:8-10). 그는 또한 자기를 높이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살후2:4). 그러나 거짓 대언자는 왕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와 첫째 짐승과의 관계는 성령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그는 땅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첫째 짐승을 숭배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 점에서 성령님을 흉내 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 안에서 봉인된 것처럼(엡4:30)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멸망의 날까지 거짓 대언자에 의해 봉인될 것입니다(계13:16-17).

거짓 대언자는 이적을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적을 행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행10:38). 거짓 대언자가 행하는 이적 가운데는 아마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 기록된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마도 갈멜산에서 거짓 대언자들과 엘리야 사이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불 시험이 재현되어 주님께서 참 하나님인지, 적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인지 가려내게 될 것입니다(왕상18:17-40). 거짓 대언자에게 이 같은 능력을 부여하는 사탄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욥기 1장 16절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욥의 모든 소유물에 손을 대도 좋다는 허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사탄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욥의 양과 종들을 태워 버렸습니다.

또한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형상을 만들도록 사람들에게 명령할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 주는 더 명확한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최대의 취약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예로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가 시내산으로 들어가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게 되자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고 아론은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출32:1-6). 마찬가지로 거짓 대언자도 사람들에게 경배의 목적으로 짐승의 형상을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그 뒤 거짓 대언자는 그 짐승의 형상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것이 말을 하게 만들 것이고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이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형상은 살아 있어 말을 하는 인조인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우상은 우리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도록 명령하여 바빌론 지방에 있는 두라 평원에 세운 금 신상을 상기시켜 줍니다(단3:1-30). 사람들은 명령을 받아 음악에 맞춰 신상에게 절을 해야 했으며 이에 복종하지 않으면 타오르는 풀무 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적그리스도의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 히브리 소년들, 즉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타오르는 불 속으로 던져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며, 이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할 것입니다(계13:16-17). 이 표는 바로 지옥의 도장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이때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여러 종류의 신용 기관과 금융 연합체들이 하나의 신용 기관 연합체로 합병될 것이며 이 연합체의 우두머리는 금융계의 나폴레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신용 기관 연합체는 온 세계로 퍼져 나갈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그것의 우두머리로 앉게 될 것입니다. 생산자나 소비자는 모두 이 악독한 문어의 발에 달린 흡입관 속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됩니다. 아마도 이 표는 불로 낙인될 것이며 짐승의 숫자 곧 666이 될 것입니다. 이 666은 어떤 한 사람의 숫자로 완전한 7에서 조금 모자란 숫자입니다. 사람은 창조의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사탄의 예표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누른 골리앗은 그 키가 6큐빗이었으며 6개로 된 갑옷을 입었고 그의 창 무게는 600세겔이었습니다(삼상17:4-7). 짐승의 형상을 예표로 보여 주는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은 높이가 60큐빗, 너비가 6큐빗이었고 6개의 악기가 경배하는 자들을 소집했습니다(단3:1-7).

환난기에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이마나 오른손 안에 그 표를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야 수표를 쓰며 서명을 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공공장소에는 짐승의 표가 없이 물건을 사거나 파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표는 또한 남녀에게 모두 적용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형이라는 형벌하에서 감히 이 표가 없는 사람에게서 사거나 팔지 못할 것입니다.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참으로 무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표가 없이 사거나 팔 수 없다면 그들은 구걸을 하든지 굶든지 혹은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때의 사형 도구는 목을 자르는 단두대가 될 것입니다(계20:4). 일간 신문에는 두려움을 갖게 하여 사람들을 법에 복종하게 하려고 전날 목이 잘린 사람들의 명단이 실릴 것입니다.

사탄의 삼위일체의 끝은 다음과 같습니다. 7년 환난기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이 있고 이와 동시에 사탄, 즉 대적하는 신은 바닥없는 구덩이 속으로 떨어져 1,000년 동안 거기서 지낼 것이고(계20:1-3), 짐승 곧 대적하는 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즉 대적하는 영은 산 채로 불 호수에 던져질 것입니다(계19:20). 에녹과 엘리야 이 두 명의 선한 사람들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지만 짐승과 거짓 대언자라 불리는 이 두 명의 악한 자들은 죽지 않고 불 호수로 던져질 것입니다.

## 제10장

# 두 신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신비들 중에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와 ‘불법의 신비’가 있는데 이것들은 각각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 1.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상형*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딤후3:16).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대개 그분의 육신의 날에 해당하는 지상 생애에 대해서만 연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분의 대속 사역은 우주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 영원히 지속될 그분의 사역 중 단지 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생애와 사역은 갈보리라는 중심과 영원이라는 원주를 가진 하나의 원으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 대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며 [또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계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선도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셨으며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즉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10:30)라는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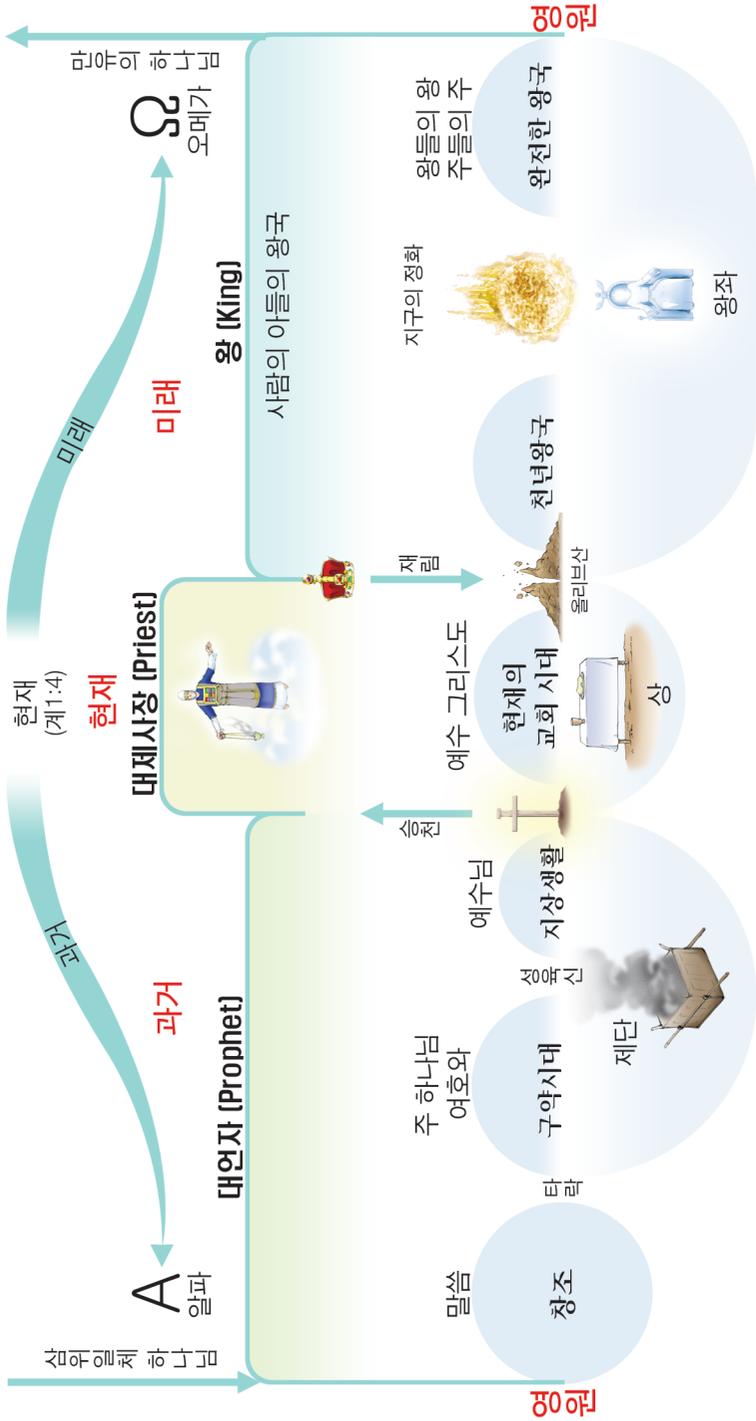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겻세마네로 가시기 전 예수님께서서는 다락방에서 기도하시며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요17:5)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세상이 있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영원한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심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에게 한 남자로 나타나셨을 때에는 -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와 같은 경우(창18:1-8; 32:24-32) - 자신의 신성을 상실하거나 영광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죄의 저주로부터 구속할 때가 왔을 때에 그분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한 남자가 되셨습

#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니다. 이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빌2:5-7)

그리스도께서 한 남자가 되셨을 때 어떤 점에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을까요? 그분께서는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형체를 비우심으로 무명한 자가 되셨습니다. 이 형체는 그분의 공생애 기간에 하나님의 신성이 영광스럽게 몸을 가진 채 나타난 것으로 변화산에서 단 한 순간만 드러났습니다(마17:1-2). 그분께서 겻세마네로 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도 바로 이 영광의 회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요17:5). 이렇게 자신을 비우심은 천사들이 있는 하늘에서 일어났습니다.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왕좌로부터 내려오셔서 왕권과 왕위를 포기하시고 왕관과 금의를 버리셨으며 자신 위에 종의 옷을 입었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신을 종의 모양으로 복종시켰습니다.

자기를 종의 형체로 만들어 자기를 무명한 자가 되게 하신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에서 위대한 날들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상 그분께서 자신을 비우신 일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날과 부활의 날 그리고 다른 모든 위대한 날이 있을 수 없었기에 아마도 이날이야말로 그분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통 사람의 출생으로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출생하는 것은 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인물이 출생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선택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 말하듯이 처녀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사무엘이나 다니엘과 같은 어떤 위대한 사람으로 육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육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다윗의 씨로부터 나시고 처녀로부터 나신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처녀 탄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처녀 마리아는 자신의 본성 가운데 유전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자손을 낳을 수 없다.”라고 반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 안에 수태된 분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네 위에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눅1:35).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 처녀의 태 속에 심긴 태아는 어떠한 흠도 없었고 마리아의 태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육체를 형성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네 번에 걸쳐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게 난 아들(only begotten Son), 즉 독생자<sup>1)</sup>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원하신 기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

1)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beget이다. beget은 강조하기 위한 be와 무엇을 얻는다는 뜻의 get이 결합된 말로서 ‘특별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다. 성경에는 남자가 남자를 낳는 것(beget)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남자는 남자를 낳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어쩔

그분은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과 공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처녀 탄생<sup>2)</sup>을 언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결코 다른 아들을 낳은 적이 없습니다.<sup>3)</sup>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낳은 아들,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4-15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결코 예수님이 단순히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다음 구절이 예수님을 모든 것의 창조자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녀를 통해 사람으로 태어나사 육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되셨을 때 그분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셨으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처음 난 자, 즉 으뜸이 되셨습니다(고전15:45; 고후5:17). 사실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새로운 창조의 머리가 되십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본래 아버지라는 주장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녀와 단절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꿈에서 그녀가 성령님에 의해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와 결혼하여 그녀의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않았습니다(마1:18-25). 사실 성경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이루기 위해 그 이상의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요셉의 조상의 계보를 통해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그의 계보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조상의 계보를 통해 아담까지 이르는 그녀의 계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녀 탄생> 선도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 두 계보에 유사한 이름들이 있는 것은 긴 혈통의 계열을 쫓아가다 보면 늘 생기는 일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는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과 “요셉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헬리의 아들이었다.”라는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도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동시에 야곱과 헬리의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누가복음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라는 말을 사용했고 아들(son)이라는 단어를 이탈리아어로 표기했다는 사실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이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삽입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사실 달리 삽입할 수 있는 단어는 사위(son-in-law)이며, 그렇게 되면 이 구절은 ‘헬리의 사위였던 요셉’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있는 계보가 마리아의 계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명백히 다른 두 계보가 모두 요셉의 계보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sup>4)</sup>

수 없이 우리말로 beget을 ‘낳다’로 번역했지만 실제로 이것은 ‘특별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항상 아들로 존재해 왔으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유일한 아들’로 그분과 특별 관계에 들어갔기에 ‘유일하게 낳은 아들’, 즉 독생자로 불리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실제로 낳지 않았음에 유의해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요1:12) 이 경우에는 양자로 입양이 되는 것이다.

2) 하나님께서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단 한 방울의 피도 받지 못하게 하고 태아 안에서 피가 형성되도록 하심으로써 처녀 탄생의 신비가 가능하게 하셨다.

3) 1번 각주 beget 참조

4) 킹제임스 성경에서 요셉을 헬리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확한 것이다. 첫째, 마리아의 족보는 ‘의 아들’이라는 말로써 통일성을 갖고 있다. 둘째, 요셉의 실제 부친은 야곱이었으나(마1:16) 그가 헬리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헬리가 그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인 것 같다. 이로써 요셉은 헬리의 아들로 불리게 되었고 공적인 등록 명부에 그의 아들로 올랐다. 여기에서

한편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처녀 탄생> 선도에는 두 개의 선이 있는데 이 두 선은 솔로몬을 통해 다윗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요셉의 계보와 나단을 통해 다윗에 이르는 마리아의 계보를 보여 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었지만 나단은 솔로몬보다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관해 논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나단이 그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권리에는 늘 나단이 형이라는 주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좌에 대한 예수님의 권리에 관해 어떤 의심도 있을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왕좌의 법적 계승자인 나단을 통해 다윗의 직접적인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도 다윗의 왕좌에 이르는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솔로몬의 자손을 통한 왕의 계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왕좌에 이르는 예수님의 권리는 어떻게 성립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결혼을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이룩하신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sup>5)</sup>

그분께서는 마리아가 임신한 뒤에, 자기 조상들의 죄와 범법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버지가 될 수 없는 한 남자와 결혼하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요셉이 솔로몬의 왕가의 계열을 통한 다윗의 직계 자손이기는 하지만 이 계열에는 예레미야 22장 24-30절에서 고니야라고 불린 여고니야가 들어 있습니다(마1:11-12).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 없는 자, 자기 날들에 번영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하라. 이는 그의 씨 중에서 번영하여 다윗의 왕좌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렘22:30).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이 예수님의 자연적인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니야(여고니야)의 자손 중 누구도 다윗의 왕좌에 앉을 수 없고 형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버지라는 주장을 완전히 잠재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더욱 확고히 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하여 예수님께서 양자로서 요셉의 법적 계승자가 되셨습니다. 고니야에게 선포된 저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채 그 권리는 이렇게 예수님께로 전달되었으며 이분 안에서 나단과 솔로몬 양쪽을 통해 다윗의 왕좌에 이르는 정당성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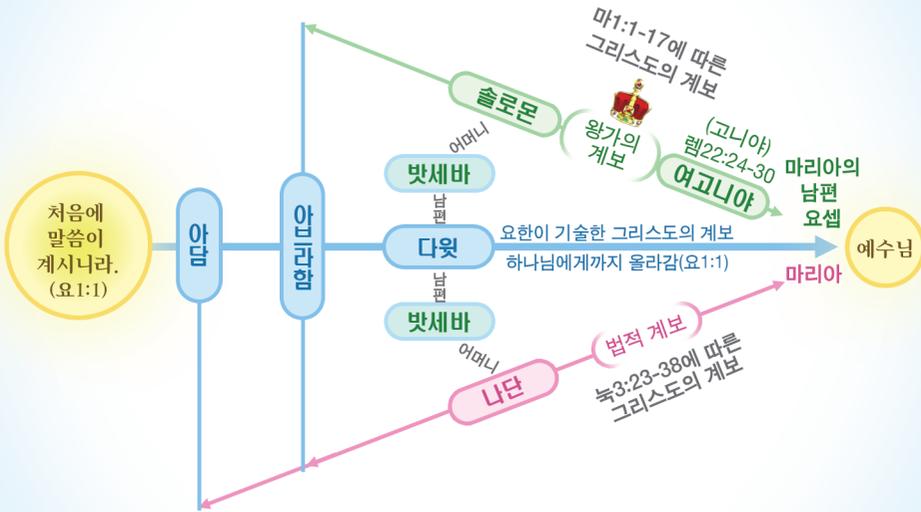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람들이 조세 명부 등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등록부에 없었다면 그들은 등록할 수

---

마리아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여자의 이름이 계보에 올라가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실제로는 사위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헬리의 계보에 삽입되었다.

5) 대상3:5에는 밧세바에게서 난 네 아들 곧 시므아와 소밧과 나단과 솔로몬이 나온다. 저자는 이것을 토대로 나단이 솔로몬의 형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다수의 주석가들은 나단을 솔로몬의 동생으로 본다. 하지만 나단이 동생이든 형이든 저자가 설명하려는 처녀 탄생의 신비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 처녀 탄생: 예수님의 계보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마1:23).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완전무결한 희생물이 필요하지만 창조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으므로 아들 하나님은 스스로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빌2:5-7).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는 필연적으로 피를 타고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했다. 그분은 아담의 자손이면서도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피는 정자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서 태아가 형성되기 시작한 후에 형성되며 산모의 자궁에서 자라나고 있는 태아에게는 모체로부터 단 한 방울의 피도 주어질 필요가 없다. **태아의 피는 정자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서 태아가 형성된 이후에 형성된다.** 산모는 자기의 자궁 내에서 자라나고 있는 태아가 몸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지만 태아의 모든 피는 태아 자신에게서 생성된 것이다. **즉 수태될 때부터 태아의 출생 때까지 단 한 방울의 피도 산모로부터 태아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령님에 의해 수태된 예수님은(눅1:35) 죄인인 마리아의 피를 단 한 방울도 받지 않았고 따라서 이담의 죄를 나누어 갖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부른다(행20:28).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의 후손인 요셉을 양 아버지로 둠으로써 왕가의 계보를 물려받았고 역시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나단의 후손인 마리아를 어머니로 둠으로써 법적인 계보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그분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대로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처녀 탄생의 신비이다.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등록했다는 것은 그때에 그들이 다윗 왕까지 이르는 자신들의 족보를 추적할 수 있었음을 입증합니다(눅2:1-5). 의심의 여지없이 이 등록부로부터 마태와 누가는 이들의 계보를 얻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다윗의 왕조를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는 주장, 즉 사실에 입각한 완전한 주장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유대인들이 그분을 불법자요 위선자로 비난했을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던 시점까지는 유대인들의 계보 기록이 모두 성전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후 70년에 타이투스(혹은 티투스)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시켰을 때 이 기록들도 파괴됐으며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족보 기록만 유일하게 남아 다윗 왕으로부터 나오신 예수님의 혈통을 보여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직접적으로 그리고 논쟁의 여지없이 다윗 왕으로부터의 확실한 계보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뿐입니다(답전2:5).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람이셨다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요8:40; 행2:22; 답전2:5) 또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두 본성은 한 인격체 안에서 꼭 필요하면서도 분리될 수 없는 연합 속에서 합쳐졌습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육체와 더불어 육체의 모든 기능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분은 배고파하셨고 목말라하셨으며, 주무셨고 사랑하셨으며, 두려워하셨고 신음하셨으며, 우셨고 기도하셨으며, 연민과 고통을 느끼셨으며 또한 그분의 몸은 죽음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때에 이 두 본성의 연합이 일어났지만 이 사실은 자신의 출생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서 이 같은 연합을 완전히 의식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더라(눅2:52).

아마도 열두 살이 되어 그분께서 처음으로 성전을 방문했을 때 성령님께서서는 그분이 자기 아버지의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분에게 보여 주었을 것입니다(눅2:49). 그분께서 침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마치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거하셨고 아마도 그때에 그분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완전히 의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 한계는 종이 되시면서 그분께서 스스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종이 많이 안다 할지라도 자기 주인만큼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은 그분이 죄를 짓지 못하게 했고 지적인 오류들로부터 그분을 보호했습니다. 반면에 그분의 인성은 그분이 육체의 연약함과 한계들을 느끼게 했습니다. 몸과 연합된 사람의 영이 몸과 더불어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도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셨고 겟세마네와 갈보리의 고통을 실제적으로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을 아버지께 위탁했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서는 육체가 없는 형태로 하늘로 올라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부활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분, 즉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the man Christ Jesus)이 계십니다(답전2:5). 사람은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할 수 있으나 사람과 말 사이를 중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사람이면서 말의 본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과 사람의 본성을 다 가질 때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지닌 채 하늘로 가셨습니다.

비록 처녀 탄생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지만 이것은 결코 처녀 탄생의 사실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글을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에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처녀 탄생에 대해 언급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60년이 지나서야 기록되었고 그때에는 이미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잘 알려진 상태였으므로 요한은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이것을 언급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이 구절은 예수님의 인간적 혈통을 부인하고 그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는 것을 선언하기 때문에 처녀 탄생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잘 알려진 처녀 탄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함으로써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빌2:7)

또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그는 “때가 충만히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씨에 대한 예언적 진술에 관하여 언급한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죄인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님의 도움 없이 그리스도와 같은 죄 없는 사람을 낳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처녀 탄생보다 더 큰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태어나셨다면 그분은 죄인이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굴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분에게 어떠한 것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복종시켰고 자신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언제 공개적으로 알려졌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분께서 땅에 계신 동안에는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비밀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엘리사벳이 죽고 나서도 마리아는 마음속에 그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둠과 지진의 발생 및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 등을 통해 증명이 되었고 그 뒤에 무덤이 열리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은 그분의 처녀 탄생을 초자연적이었음을 말해 줍니다.

누가가 처녀 탄생에 대해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고 그가 의사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마리아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에 기적적인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릴 때가 왔음을 느끼고 어느 날 누가에게 모든 것을 말하였고 누가는 그것을 기록했으며 또한 마태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자신이 기록한 처녀 탄생을 기사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은 빛과 같이 명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어떤 혼란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심오한 진리를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관여했던 일과 사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떠나신 뒤에 일어날 일들과 자신이 어느 것에 관여하실지 예언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온갖 지혜가 그분 안에 집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다른 모든 주제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끝내셨고 그분의 비유들은 더 이상 향상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결코 추측하거나 추론하지 않았고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을 하지 않았으며 단지 자신이 의도했던 것으로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질문하셨을 뿐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특성을 간파하셨고 그들의 생각을 읽으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리 하시지 않았습시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허물이 없었고 완전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자신을 질책하시거나 자신이 행하고 말씀하신 어떤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지 결코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메시아이고 죄 용서의 권세가 있으며 안식을 줄 수 있다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분은 첫째 자리를 요구하셨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생명의 빵이라.”라고 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생명수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 중 가장 큰 사기꾼이요, 신성 모독자요, 따라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결코 수술하기 위해 칼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처방전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케 하셨으며 눈먼 자가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집필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분께서는 단 한 줄의 글만 쓰셨습니다. 물론 그 글도 모래 위에 썼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 다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선포한 복음은 제자들의 마음을 극도로 감동시켜서 그들이 글을 쓰게 하였고 이 글은 수 세기가 지나며 전해 내려와 지금도 가장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연설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아니했으나 보통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종류의 연설의 대가였으며 어느 누구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연설을 능가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그분은 시인이 아니었지만 그분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시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우리에게도 훌륭한 찬송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음악가가 아니었으나 세상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이 그분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이 없었다면 위대한 미술 작품들이 화폭 위에 그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겸손한 갈릴리 목수로 나무를 깎고 도끼자루를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술적인 건물들이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그분에게 봉헌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단지 기독교계에 크리스마스 와 부활절 축제의 계절을 주러 오신 분입니까? 미치광이입니까? 몽유병 환자입니까? 아니면 몽상가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그와 같은 분은 결코 없었습니다. 어떤 작가도 그러한 인물을 만들어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외부인이었고 이 세상이 낳은 사람이 아니었으며 다른 영역으로부터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친족으로 삼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본성을 지닌 채 자신의 나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초림 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오셨으므로 재림 때에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주장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즉 육체에 나타난 하나님이었습시다.

## II. 불법의 신비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이 구절이 말하는 앞으로 올 다른 자는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무시무시하고 신비로운 인물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 인물은 여러 가지 이름과 별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구약 성경에서 아시리아 사람(사30:27-33), 루시퍼(사14:12), 작은 빨(단7:8; 8:9), 무서운 용모를 지닌 왕(단8:23), 장차 올 통치자(단9:26), 자기 뜻대로 하는 왕(단11:36) 등으로 불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신비, 사악한 자(살후2:3-8), 적그리스도(요일2:18), 짐승(계13:1-8) 등으로 불립니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사이의 차이점은 다음의 대조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 그리스도는 위에서 내려오셨다(요6:38).  
적그리스도는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서 올라온다(계11:7).
2. 그리스도는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요5:43).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온다(요5:43).
3.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셨다(빌2:8).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높인다(살후2:4).
4.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다(사53:3).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다(계13:3-4).
5.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여졌다(빌2:9).  
적그리스도는 낮은 곳에 있는 지옥으로 던져진다(사14:14-15; 계19:20).
6. 그리스도는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요6:38).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뜻을 행한다(단11:36).
7. 그리스도는 구원하려고 오셨다(눅19:10).  
적그리스도는 멸망시키려고 온다(단8:24).
8.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시다(요10:14-15).  
적그리스도는 삯꾼 목자이다(숙11:16-17).
9.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시다(요15:1).  
적그리스도는 땅의 포도나무이다(계14:18).
10.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요14:6).  
적그리스도는 거짓이다(살후2:11).

11.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시다(막1:24).  
적그리스도는 사악한 자이다(살후2:8).
12. 그리스도는 고통을 당한 사람이시다(사53:3).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이다(살후2:3).
13.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눅1:35).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이다(살후2:3).
14.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로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다(딤후3:16).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로서 육체로 나타난 사탄이다(살후2:7).

데살로니가후서 2장 3-10절에서 바울은 적그리스도에 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너희가 알고 있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막되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살후2:3-10).

위의 성경 구절에서 바울은 적그리스도에게 네 가지 다른 이름, 즉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신비 그리고 사악한 자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바울이 적그리스도에게 부여한 이름 중의 하나인 멸망의 아들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신비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로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분께서 육체 가운데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에 의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반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불법의 신비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와 대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시라면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여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므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분신인 멸망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으므로 적그리스도 역시 사탄에 의해 한 여인(반드시 한 처녀일 필요는 없음)에게서 태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왔고 성경에 이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뱀(사탄)에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여자의 씨는 그리스도이므로

# 적그리스도



## 넷째 짐승

(단7:7-8, 19-20)



## 숫염소의 작은 뿔

(단8:8-12, 23-25)



## 자기 뜻대로 하는 왕

(단11:36-39)



## 죄의 사람

(살후2:2-12)



##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계13:1-7)

뱀의 씨는 적그리스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의 그리스어 원문에는 ‘거짓말’ 앞에 정관사 ‘the’가 있어 특정한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둔 채 마지막 부분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 거짓말을 할 때 그는 자기의 (자식)을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 거짓말(즉 마귀의 자식)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살후 2:11)

여기서 거짓말은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구절에서도 원문에는 ‘거짓말’ 앞에 정관사 ‘the’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거짓말’, 즉 ‘멸망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불법의 신비의 특징은 이미 다니엘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작은 뿔이, 사람의 눈과 같은 눈과 큰일들을 말하는 입을 가진 넷째 짐승의 머리 위의 열 개의 뿔들 가운데서 솟아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단7:7-8). 다니엘은 이 작은 뿔이 앞으로 일어나야 할 왕이고 큰일들을 말하는 입을 가졌으며 놀라운 지혜와 대단한 웅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담하고 오만하며 교활한 박해자로서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백성들 - 다니엘의 백성, 즉 유대인들 - 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곧 3년 반(42달)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그 뒤에 그는 그 권세를 빼앗길 것입니다(단7:23-26).

그다음 장에서 다니엘은 이 작은 뿔에 관한 또 하나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숫염소의 네 개의 뿔들 중 하나 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작은 뿔은 심히 커졌고 넷째 세상 왕국(부활한 로마 제국)의 마지막에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왕으로 일어나지만 그것은 자신의 권세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크게 번성할 것이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 즉 유대인들을 멸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정책을 통해 자기 손에서 교활한 술책을 일으킬 터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즉 짐승의 표 없이는 어느 누구도 물건을 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고(살후2:3-4) 위장된 평화로 많은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는 또한 통치자 중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설 것이나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멸망할 것입니다(단8:23-25).

불법의 신비는 사탄의 초능력 인간(Superman)일 것입니다. 능력으로 말하자면 그는 느부갓네살, 알렉산더 대왕, 카이사르의 권세를 다 포함하는 복합적인 인간일 것입니다. 그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을 지닐 것이고, 매혹적인 힘과 여러 방면에 능한 업적들, 초자연적인 지혜, 놀라운 통치력과 행정 능력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그는 완벽한 아침꾼, 뛰어난 외교가, 최상의 전략가로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인도주의자, 사람들의 친구, 유대인들의 특별한 친구로 가장하여 자신을 대언자들이 예언한 황금시대로 인도하려 온 사람이라고 말하며 유대인들을 설득할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는 강력한 기만술과 변치 않는 성공으로 사람들을 자기 말에 도취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 내어 살해당했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것이며(계13:3) 그때에도 그는 이러한 권세들 중 어느 것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그는 모든 종류의 사악함과 신성 모독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묘사된 것과 일치하는 사람은 아직 이 땅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의 특성들은 거의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어떤 작가도 이러한 인물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통치할 것이지만 종말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다시 오셔서 그의 연합 군대들을 쳐부수실 것이고 거짓 대언자와 함께 그를 산 채로 불 호수에 내던지실 것입니다(계19:19-20). 이리하여 불법의 신비인 적그리스도는 끝이 날 것입니다.

## 제11장

#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기초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고전15:17-18).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신성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섯 번에 걸쳐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형될 것과 장사될 것 그리고 삼 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12:39-40; 20:17-19; 26:30-32; 눅 18:31-33; 요2:19-22).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주장하신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를 취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사실이 성취되었는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 선고받은 대로 자신의 형량을 모두 채우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를 더 이상 옥에 감금시켜 놓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삼 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다 차자 하늘과 땅과 또 지옥(지하 세계)에 있는 어떤 권세도 그분을 거기에서 단 한 순간도 더 붙잡아 두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시편 기자도 예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넘겨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시16:10; 행2:29-32 참조).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육체의 썩음이 이르게 될 넷째 날이 되기 전에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정복했음을 증명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밧모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나는 살아 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계1:18).

우리는 사망이 거대한 돌무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씩음이 그를 붙잡아 놓을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 만일 그가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지옥의 벽에 구멍을 낼 것이고 그 구멍을 통해서 지옥의 모든 포포들이 다 빠져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망은 결코 그리스도를 사로잡아 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정복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요11:25)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그분은 사망을 폐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딤후1:10). 그분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셨으며 우리가 몸의 부활에 의해 사망의 올라미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계 21:4). 이러한 까닭에 무덤은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고 우리들도 붙잡아 둘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8:11).

다시 말해 우리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는 분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의문의 여지도 없습니다. 사복음서의 네 저자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사망은 그분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의 뜻에 따라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느니라. 내게는 그것을 내놓을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요10:17-18).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요19:33). 그리고 백부장은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막15:43-45).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창에 찔려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사가 자신의 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러 넣었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으며 이 사실은 그 창이 그분의 심장을 관통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요19:34).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단지 기절했다 하더라도 그분은 자신의 머리를 둘러맨 수건에 의해 질식되어 죽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의 몸이 비밀스럽게 무덤으로부터 옮겨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모든 것이 확실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무덤은 봉인되었고 로마 병사들 중에서 총독의 근위병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배치되었습니다(마 27:62-66). 그러나 로마 병사들 이외에 무덤을 지키는 또 다른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안식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 밤이 지나 최초의 부활의 날 아침에 하늘은 동쪽에서 자줏빛으로 밝아 오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큰 울림이 있었고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의 돌을 굴러 냈으며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냇을 잃고 있었습니다(마 28:2-4). 천사가 무덤의 돌을 굴러 낸 것이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오시게 하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의 그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목격한 증인들은 많이 있었으나 그분의 부활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이 무덤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로마 병사들 역시 그분이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돌이 옮겨지는 동안과 그 이후에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자들이 밤을 틈타 병사들이 자는 동안 예수님을 도둑질해 갔다는 이야기는 얼핏 들어도 터무니없는 말입니다(마 28:11-15). 왜냐하면 로마 병사가 근무 중에 잠을 자는 것은 사형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모두 잠을 잤다면 예수님의 몸을 도둑맞았는지 아니면 그분께서 부활하셨는지 또 도둑맞았다면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봉인을 깨고 돌을 굴리는 일은 매우 시끄러운 작업이었을 터이므로 만일 병사들이 잠들었다 해도 그 소리로 인해 그들은 잠에서 깨어났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날은 달빛이 밝은 날이었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 도시 주위에 장막을 세웠을 터이므로 그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의 몸을 운반하기란 심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도둑맞았다고 대제사장이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찾기 위해 현상금을 내걸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몸을 되찾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더 이상 알가알부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증거는 사도 요한의 진술에서 나타납니다. 그와 베드로가 빈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찢던 아마포가 그분의 몸이 놓여 있던 평평한 돌 위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돌무덤에 들어가 보니 아마포가 놓여 있고 또 그분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잘 접힌 채 한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요 20:6-7).

즉 예수님의 옷은 무덤 밖으로 내던져지지도 않았고 버려진 것처럼 한쪽에 내동댕이쳐지지도 않았으며 장례식에 쓰이는 향료에 의해 뻘뻘하게 된 채 속이 빈 누에고치처럼 평평한 돌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건은 몸에서부터 머리의 길이만큼 떨어져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마치 메뚜기가 껍질을 벗고 나오듯이, 수의 속에서부터 나오시며 수의를 그대로 남겨 두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이 도난당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뒤에 자신의 옷을 남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분의 몸이 도난당했다면 도둑들은 그분의 수의를 벗기려고 애쓰지 않았을 것이며, 만일 어떠한 이유로 수의를 벗겼을지라도 그들은 그 옷을 가지런히 남겨 놓지 않고 아무렇게나 내던져 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들이 그분의 몸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제자들이 모두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 무덤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삼 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자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슬픔으로 인하여 그것을 잊어버렸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 중 단지 몇몇 여인들만 그날 아침 무덤에 갔고 그 이유도 단지 예수님의 죽은 몸에 향료를 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총독의 근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가 무덤의 돌을 굴러 줄지 궁금해했기 때문입니다(막16:1-3).

우리는 이제 그들의 불신에서 지혜를 보게 됩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 주위에 있었다면 그들이 그분의 몸을 훔쳐 갔다는 혐의가 더 그럴듯하게 보였을 것이지만 그들이 거기 없었다는 사실과 그들의 불신 자체가 그 같은 혐의가 틀렸음을 보여 줍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 이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수주나 수개월이 지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그날에 말입니다.

만일 그분께서 무덤에 있었을 때 실제로 죽지 않고 생존해 있었다면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 무덤에서 탈출했다면 그분께서는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를 지닌 채 육체적으로 녹초가 된 비참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건강하셨고 자신이 일어나신 날 오후에 자신의 제자들 중 두 명과 함께 엠마오까지 약 10킬로미터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은 생명과 건강한 모습으로의 회복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에게 다섯 번 나타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20:11-18), 그다음에는 여인들에게(마28:9-10), 그다음에는 베드로에게(눅24:34), 그다음에는 늦은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눅24:13-35)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에 다락방에 있는 여러 명의 제자들에게(눅24:36-48; 요20:19)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일주일 뒤 같은 다락방에서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요20:24-29). 나중에 그분은 갈릴리 해변에서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21:1-25) 그 뒤 갈릴리에 있는 산 위에서 일곱 명의 사람들과(마28:16-20)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고전15:6). 그 뒤 그분은 야고보에게 자신을 보이셨고(고전15:7)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신 뒤에 올리브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눅24:50-53).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뒤 약 27년이 지나서 기록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분을 일시에 보았던 500명의 증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속임을 당할 수 없었음을 보여 주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만일 그들 사이에 이 속임수를 영원히 합리화하려는 공모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두 그 비밀을 지키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비밀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고 대제사장들과 빌라도 등 자신의 원수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는가?”라고 의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이다!”라고 말할 때까지는 자신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마 23:39) 이 일은 실제로 그들이 자신들이 찢었던 그분을 다시 보게 될 때, 즉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은 자신의 가장 큰 원수들 중의 한 명인 바리새인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부활 후 66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서는 밧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의 증거들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한 논쟁의 여지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증거는 그분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분의 원수들로부터도 나왔으며 속임수가 있을 수 없도록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의식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더 확실한 증거는 그분께서 다시 죽지 않고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주후 30년 4월 9일 일요일 아침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빈 채로 발견되었다는 그 기적적인 사실에 대해 지난 19세기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유일한 설명은 로마 병사들의 헛된 이야기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몸을 훔쳐 갔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지나간 수 세기 동안 가장 고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의 무게를 달아 보았고 그 결과 그것이 정말 흠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 관한 한, 요한과 다른 복음서 저자들 사이에 어떤 의견의 차이도 없습니다. 새벽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마리아는 그 무덤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을 버려둔 채 떠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 주려고 급히 되돌아갔습니다. 그녀가 가버리고 난 뒤 다른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흰옷 입을 짧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 사실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했습니다(막16:4-7). 그들은 즉시 그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동안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고 그들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황급히 그 안을 살펴본 뒤 그들은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요20:3-10).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떠난 이후에 무덤으로 되돌아왔고 자신만 남은 것을 발견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즉시로 그녀는 주님을 알아보았고 그분을 만져보기 원했으나 예수님께서서는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가서 형제들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뒤 사라지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즉시 무덤을 떠났습니다.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말하기 위해 길을 가고 있는 다른 여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분은 “다 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위에 자신들의 손을 올려놓고 경배했습니다(마28:9-10). 우리는 즉시 “왜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에게는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다른 여인들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셨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답변은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빛의 속도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되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희생 제단 위에 속죄의 피를 드린 뒤 그 피를 지성소로

가져가 속죄를 드리기 전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지면 그 희생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레 16:17 참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드리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피를 드리기 전에 마리아가 그분을 만졌다면 십자가의 사역이 무효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잡은 사실, 그날 오후 수 킬로미터를 걸어서 자신의 두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신 사실, 저녁에는 구운 물고기 한 쪽과 벌집을 드신 사실, 일주일 뒤에 도마에게 말씀하시며 그의 손을 자신의 옆구리에 넣어 보라고 하신 사실 그리고 열마 뒤에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해변에서 아침을 드신 사실 등과 같은 것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유령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형체를 가졌고 실제 사람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부활 뒤 예수님의 몸은 변화산에서 드러난 것처럼 영광으로 빛나는 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그분께서 닫힌 방에 들어가고 의지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을 알려 주기까지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앞으로 우리의 부활할 몸이 그 능력 면에서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잘 보여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를 전적으로 바꾸어 버렸고 그들의 삶에 완전한 혁명을 일으켰으며 그들의 설교의 중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표준은 이집트 탈출(출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권능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의 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으며 또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합니까?(행26:8)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는 주의 첫째 날, 즉 주의 날을 준수하고 침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며 모세 율법의 표시로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키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출31:13; 겔20:12, 19-21 참조).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며 이방인들(세상) 및 교회(그리스도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는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이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꾸지람을 받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규례인 안식일은 결코 일주일 중의 다른 날로 바뀐 적이 없으며 다른 민족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날로 된 적도 없습니다. 안식일은 호세아서 2장 11절에서 예언된 것처럼 현재는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으며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그들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갈 때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사66:23; 겔44:24; 46:1-3; 마24:20).<sup>1)</sup> 기독교회가 안식과 경배의 날로서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주의 첫 날에 모이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증표입니다.

1) 라킨이 이 글을 쓴 때는 1920년대였다. 그는 1948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독립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으나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그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하였다.

## 제12장

# 성경의 부활

성경은 세 종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1. 민족적 부활

이 부활은 현재 민족적으로 죽어 있고 여러 민족들의 무덤 속에 매장되어 있지만 다시 살아나 자기들의 본토로 돌아가게 될 이스라엘에 대한 것입니다(호6:1-2).<sup>1)</sup>

### 2. 영적 부활

이 부활은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롬 6:11; 엡2:1-6; 5:14). 이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부활로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혼이 다시 태어나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일이 생기며 우리는 이것을 영적 부활이라고 말합니다(요5:24).

### 3. 육체적 부활

이것은 죽은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다 해도 사람의 영은 죽지 않고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몸뿐이며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몸뿐입니다. 영의 세계를 다룬 7장을 보기 바랍니다.

## 몸의 부활

예수님은 무덤으로부터의 몸의 부활에 대해 명쾌하고도 뚜렷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요5:28-29).

여기에서 예수님은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 모두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행24:15).

---

1) 라킨이 이 글을 기록한 1920년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다. 물론 21세기 현대에는 이스라엘이 이미 1948년에 본국에 들어가 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고전 15:22).

이 말씀이 육체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주제는 사람의 몸이지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갖지 못합니다. 이 구절들은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중히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의인들과 악인들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동시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펴 보면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사악한 자들보다 먼저 부활하여 그들을 앞설 뿐만 아니라 두 부활 사이에 약 1,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내가 왕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 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다(계 20:4).

이 구절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그들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스물네 장로들로 표현되었으며 이들은 하나님의 왕좌를 둘러싸고 있는 왕좌들 위에 앉아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계20:4-5).

이 구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환난기 성도들입니다.<sup>2)</sup> 처음에 요한은 순교당한 모습의 그들을 혼들로서 보았으며 그다음에는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해서, 즉 다시 살아서 최초의 부활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구절의 끝에 있는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과 연관이 있지 않고 4절에 나와 있는 자들, 즉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자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구절이 잘 보여 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악인들의 운명, 계20:14-15)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계20:6).

죽은 자들이 서로 다른 그룹으로 서로 간에 시간의 간격을 두고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2-24절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그 뒤에 끝이 오는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

2) 교회, 즉 예수님의 몸에 속한 자들(그분의 신부)은 7년 환난기 이전에 공중으로 휴거되며 7년 환난기에는 교회가 이 땅에 없고 이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환난기 성도들’(tribulation saints)이라 불린다.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때라(고전 15:22-24).

여기에 나오는 ‘차례’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로 무리, 군단, 여단 등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부활의 순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첫 열매 그리스도
2. 그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
3. 그 뒤에 끝이 옴

이제 우리는 첫 열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 사이에는 이미 2,000년 정도가 흘러갔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의 부활과 사악한 자들의 부활 사이에는 1,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이 동시에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더라(마27:50-53).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첫 열매를 이루었고 지금 그분과 함께 부활한 몸으로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의 부활> 선도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5절은 성경에서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의 부활 사이에 1,000년이라는 기간이 존재함을 보여 주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런 사실을 논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20장 4-5절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많은 구절이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의 부활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세상에서 남편이 일곱이나 되었던 여자는 다음 세상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그분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을 얻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고 부활의 아이들로서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이라(눅20:34-36).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이라고 번역된 ‘아이온’(Aion)이라는 그리스어는 시대로 번역될 수 있으며 이 단어가 쓰였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음 시대 곧 천년 왕국 시대 이전에 부활하게 될 죽은 자들의 한 무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들은 더 이상 죽을 수도 없고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첫째

부활의 자녀들만 천년 왕국 이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의인들의 부활이라 부르는 특별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로서 의롭다 불리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며 첫째 부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편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은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히11:35).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설명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그들이 믿어온 바이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교리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었고 언젠가 반드시 부활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빌3:11) 그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마음속에 어떤 특별한 부활을 생각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이 의미한 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17절을 살펴볼 때 분명해집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살아 있는 성도들의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천년 왕국 전에 일어나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 중 부활하지 못한 나머지 무리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의 부활은 시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특성도 다릅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지만 악을 행한 자들은 저주의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요5:28-29).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2-15절에서 읽은 것과 같이 둘째 부활, 즉 저주의 부활에서 부활하는 자들은 흰 왕좌 심판에 나타나야 합니다. 또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그들은 불 호수에 던져질 것인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 부활의 방식

더러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을 때 몸으로부터 혼과 영이 분리되는 것이 곧 부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의 몸이 그들의 무덤으로부터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요5:28-29).

몸의 부활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잡아먹혔거나 원자탄에 날아가 버렸거나 혹은 불 또는 석회암 등에 의해 멸망된 몸들은 회복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펴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눅1:37; 행26:8).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5-54절에서 부활의 방법에 대해 밝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자 이론(Germ theory)이라 불립니다. 즉 모든 사람의 몸에는 파괴될 수 없는 씨, 즉 살아 있는 씨가 있고 몸이 먼지로 변할지라도 그 살아 있는 씨는 무덤에서 또는 그것이 어디에 방치되었을지라도 거기서 계속해 존재할 것이며 땅속에 있는 씨처럼 몸의 부활의 시기가 올 때 불멸의 생명으로 튀어나올 것입니다.

한편 부활의 몸은 종류 면에서는 같지만 특성 면에서는 다르고 서로 다른 자질들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니라(고전15:39).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물의 육체는 다 그들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성경의 부활

## 그리스도의 심판석 의로운 자들 (고후5:10)

## 헌양과 심판 사악한 자들 (계20:11-13)

첫열매 그리스도 (마27:50-53)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고전15:22-24; 계20:6

부활의 날  
'하루가 천년 같고'  
(벧후3:8; 계20:5)



현재의 교회 시대

의로운 자들의  
생명의 부활

7년 환난기



환난  
성도들



천년왕국

행24:15

요5:28-29

계20:4-5



갈보리

그리스도의 부활

첫열매

첫열매 성도들



일단 수확

유대인들 부활  
(사26:19; 단12:13)

이삭 줄기



썩정이

무덤

무덤

물고기의 육체가 공중에 날아다닐 수 없고 새의 육체가 바다에서 헤엄을 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땅의 육체들이 있고 하늘의 육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대로의 사람의 몸은 하늘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화가 있어야만 하고 이 변화는 부활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변화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러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키지며 수치 가운데서 뿌러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키지며 연약함 가운데서 뿌러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키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키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고전15:42-44).

이 구절은 부활한 몸이 어떠한 실체도 소유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형체와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영의 몸의 기능들을 소유한 몸이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의 몸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보여 주는 본보기입니다. 그분의 몸이 썩음을 보지 않았고 무덤에 누우셨던 것과 똑같은 몸으로 일어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일한 몸이기는 했지만 그 특성에 있어서는 달랐습니다. 못 자국과 창 자국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 몸은 닫힌 문을 통과할 수 있었고 의지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몸은 ‘살과 뼈’는 가졌지만 피는 없었습니다(눅24:39-43). 왜냐하면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고전15:50). 이는 피가 부패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피를 다 빼거나 약품 처리한 액으로 그 피를 보존해야 합니다. 희생물에서 피를 빼야 했듯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피를 땅에 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가시적인 형태와 모양을 지닐 것이고 살과 뼈로 된 골격을 갖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과 뼈는 새 환경에 맞도록 변경된 살과 뼈일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과 엘리야가 자신들의 육체를 입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추측컨대 그들의 몸은 하늘로 올라가면서 영광스럽게 되었지만 그들이 몸을 벗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만일 그들이 하늘에서도 몸을 필요로 했다면 왜 우리라고 몸이 필요치 않았겠습니까? 단지 이 두 명의 성도들만 하늘에서 자기들의 몸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만일 모세의 몸이 쓸모가 없었다면 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몸을 놓고 마귀와 논쟁을 벌였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을 때 자기들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일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행1:9-11) 흰옷을 입고 곁에 서 있던 두 명의 남자들이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요한계시록 11장 3-6절의 두 증인들이라면, 그들이 부활로 변화된 성도들과 휴거로 변화된 성도들의 모형이었듯이 성도들은 휴거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 부활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이들의 부활은 첫 열매이고 의로운 자들의 부활은 수확이며 환난기 성도들의 부활은 이삭줍기입니다.

땅에 존재했던 모든 죽은 자들이 동시에 부활한다면 그들이 함께 설 자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모두 동시에 부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악한 자들이 부활하기에 앞서 의로운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지구를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들이 모두 동시에 부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현재 전 세계의 인구는 17억 명입니다.<sup>3)</sup> 대개 한 세대는 33년입니다. 편의상 아담이 살던 시대에 인구가 17억 명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한 33년마다 17억 명이 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아담이 창조된 주전 4000년부터 주후 1900년까지는 약 178세대가 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은 모두 3,026억 명이 됩니다. 만일 이들이 모두 동시에 부활하여 가로 세로 1미터의 공간을 차지하며 땅 위에 선다고 하면, 미국 텍사스주의 절반 정도의 땅이면 모두 설 수 있습니다.<sup>4)</sup>

---

3) 라킨이 살던 1920년대의 인구이다.

4)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12,000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다. 지금의 척도를 따르면 이 도시는 대략적으로 길이, 높이, 너비가 각각 2,240킬로미터 정도 될 것이다. 만일 이 도시를 미국 위에 놓는다면 아마 뉴욕에서 덴버까지 혹은 캐나다에서 플로리다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면 이 도시는 과연 어느 정도 큰 것일까? 지구의 표면적은 약 4억 6천만 제곱킬로미터이며 이 중 수면은 약 3억 6백만 제곱킬로미터이고 지면은 약 1억 5천 4백만 제곱킬로미터이다. 이 도시가 정육면체라 가정하고 높이 방향으로 약 1.6킬로미터마다 한 층을 만든다고 하면 한 층의 면적은  $2,240 \times 2,240$  제곱킬로미터가 된다. 이런 층이 1,400개 있으므로 총면적은 약 70억 제곱킬로미터가 된다. 이것은 수면과 지면을 포함한 지구 전체 표면적의 열다섯 배나 되는 수치이다.

## 제13장

# 성경의 심판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며 천년 왕국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한 번의 총체적인 심판과 총체적인 부활이 있고 그 뒤에 불에 의해 땅이 멸망한다는 견해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살전4:16-17; 고후5:6-10), 땅에서 이루어지는 심판(마25:31-46), 그리고 땅과 대기가 날아가 버린 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심판(계20:11-15) 등에 대하여 말하기 때문에 한 번의 총체적인 심판이나 총체적인 부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확신하건대 이러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심판들은 단 하나의 심판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것을 증명하듯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다른 세 개의 심판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 그리스도의 심판석(고후5:10): 심판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공중에서 이루어짐
2. 영광의 왕좌(마25:31-32): 심판이 민족들을 대상으로 땅에서 이루어짐
3. 크고 흰 왕좌(계20:11-12): 심판이 사악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짐

성경 말씀은 위의 세 심판을 포함해서 다섯 가지 주요한 심판들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 대상과 때와 장소와 심판의 기준과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심판

1. 대상 - 성도들
2. 때 - 주후 30년
3. 장소 - 갈보리
4. 심판의 근거 -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마치신 일
5. 결과 - a.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옴  
b.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심(칭의)이 이루어짐

이 심판은 이미 지나갔으며 이 심판의 결과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롬10:4).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상형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상형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롬8:1-2).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

# 성경의 심판

## 틀째 심판

성도들의 행위를 심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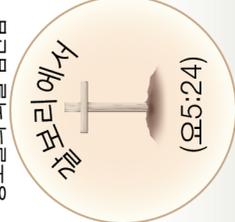
## 셋째 심판

유대인들을 심판함



## 첫째 심판

성도들의 죄를 심판함



## 넷째 심판

민족들을 심판함



## 다섯째 심판

사악한 자들을 심판함



는 생명이 있고 정죄(定罪)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 5:24).

죄에 대해 성도가 받는 심판은 이미 지나갔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이 받는 심판이 세 종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 죄인으로서의 심판
2. 아들로서의 심판
3. 종으로서의 심판

이미 위에서 살펴본 대로 죄인으로서의 성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아들로서의 성도의 심판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고 맙니다. 우리의 불법들이 그분 위에 놓이고 더 이상 우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사53:5-6). 그러나 죄(Sin) 문제와 죄들(Sins)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즉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저지른 불순종으로 인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란 사람 안에서 잘못된 것을 행하려는 경향 혹은 본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본래의 타락하려는 경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향 혹은 본성은 새로 태어남으로써 제거되지 않으며 단지 우리에게는 이것에 대항하는 힘, 즉 새로운 본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본성 중 어느 것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양육하고 어떤 것을 굶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회심한 뒤에 스스로 경험한 것을 묘사한 두 본성 간의 전쟁입니다(롬7:1-25). 이 전쟁은 사람이 죽음으로써 옛 본성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죄들이란 죄를 지으려는 우리의 본성으로 인해 우리가 범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잘못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들을 매일같이 하나님께 자백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2:1).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일1:9).

아들로서 우리가 받는 심판은 죄를 자백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그 형벌은 징계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징계를 받으며 이 사실은 그들이 사생아가 아니고 아들임을 보여 줍니다(히12:5-11).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나 우리가 판단을 받았으면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전 11:31-32).

아들로서 우리가 행할 임무는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 둘째 심판

1. 대상 - 성도들
2. 때 - 교회가 채여 올라감(휴거)을 받은 뒤
3. 장소 - 그리스도의 심판석(공중에서)
4. 심판의 근거 - 성도들의 행위
5. 결과 - 보상 또는 손실

이 심판은 미래의 일이며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고후5:10).

고린도후서 5장에는 우리라는 대명사가 26번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심판이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때는 주님께서 오실 때이고(고전4:5) 장소는 공중이며(살전4:17)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입니다.

이것은 단지 구원받은 자들만 받는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자가 죄인인지 혹은 죄인이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한 재판의 의미를 갖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라 성도들의 행위를 따지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고전 3:11-15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같이 받으리라(고전3:11-15).

이 심판의 결과는 보상 아니면 손실입니다. 이 심판의 결과 나무, 건초, 짚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모든 나쁜 행위와 죽은 행위는 소멸되고 우리의 선한 행위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단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차원에서 행한 행위들이 많으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영원한 보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보상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 그리스 게임(고대 올림픽 게임)이 모두 끝난 뒤에는 경주자들과 레슬링 선수들과 또 좋은 결과를 거둔 경쟁자들이 ‘베마’(Bema)라고 불리는 심판대 앞에 모였습니다. 그 심판대는 심판이 앉아 있는 높은 좌석이었으며 승리자들은 승리의 대가로 월계수 잎으로 만든 썩을 관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을 받지 못했고 승리의 월계관도 따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거기에서 상을 받지 못했지만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내쫓기는 일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 성도들에 대한 두 심판

## 첫째 심판 죄를 심판함

**갈보리에서 그리스도**

회개한 강도      그리스도      회개하지 않은 강도

죄가 그 안에 있음      죄가 그분 안에 없음      죄가 그 안에 있음  
 죄가 그 위에 없음      죄가 그분 위에 놓임      죄가 그 위에 있음  
 (눅23:42-43)      (눅8:1-2; 고후5:21)      (눅23:39)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롬8:1).

## 둘째 심판 행위를 심판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      은      나무      진초

각종 보석      각종 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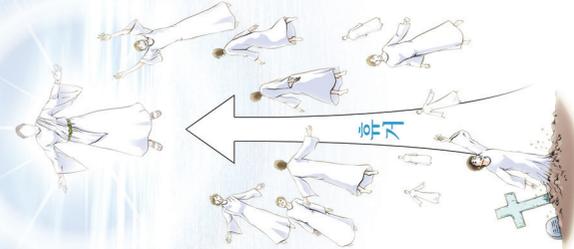
(고전3:11-15; 고후5:10)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고전3:13).

하늘

공중 강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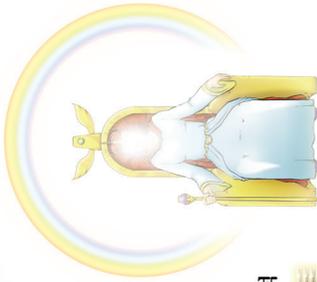
(살전4:13-18)



휴거

# 보상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위를 심판함



금, 은  
각종 보석

나무, 진초  
짚

**그리스도의 심판석(베마)**  
(고후5:10; 고전3:11-15)



**의의 왕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을  
씨지 않는 왕관  
(딤후4:8)



**의의 왕관**  
의의 왕관을 구원한  
자들을  
(벰전5:2-4) (살전2:19-20)



**환희의 왕관**  
영광의 왕관을 구원한  
자들을  
(벰전5:2-4) (살전2:19-20)



**생명의 왕관**  
순교자들을  
(계2:10)

어린양의 혼인 잔치  
(계19:7-9)



지상 강림

(살후1:7-10)



신약 성경은 성도들이 받게 될 다섯 가지 왕관에 대해 말합니다.

### 1. 생명의 왕관

이것은 순교자의 왕관이며 성경에 단지 두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약1:12).

네가 장차 당할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계시록 2장 10절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즉 누구나 죽는 죽음이 올 때까지’(until death)가 아니고 ‘죽기까지’(unto death), 즉 ‘순교하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순교자로서 죽기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철회하지 않고 끈끈이 유지해야 합니다. 믿음을 철회하는 것은 왕관을 잃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은 주로 환난기의 순교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 2. 영광의 왕관

이것은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장로나 목양자들에게 주실 왕관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돈을 위해 일하거나 하나님의 상속자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에게는 이 왕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 떼에게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벧전5:2-4).

### 3. 환희의 왕관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받게 될 왕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은 그분께서 오실 때에 바로 우리가 누릴 ‘환희의 왕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살전2:19-20).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빌4:1).

### 4. 의의 왕관

이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받을 왕관이며 그날, 즉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그분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딤후4:8).

## 5. 썩지 않을 왕관

이것은 승리자의 왕관이며 자기 몸을 복종시킨 자들, 즉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것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고전9:25).

이들은 세상의 유희와 즐거움으로 인해 주인의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이 세상의 기쁨 속에 자신들의 몸을 담그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오실 때 부끄럽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켜야만 할 것입니다(고전9:27).

## 셋째 심판

1. 대상 - 유대인들
2. 때 - 환난기
3. 장소 - 예루살렘과 그 근방
4. 심판의 근거 - 하나님의 신성을 거부한 것
5. 결과 -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임

이 심판 역시 미래에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가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을 동안 유대인들은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모두 땅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 역시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근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거부한 데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그들은 성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삼상8:7). 그리스도 시대에 그들은 성자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눅23:18). 스테반 시대에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행7:51, 54-60).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세상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때가 끝날 무렵에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거룩한 땅에 되돌아오게 될 것이고 막대기 아래로 지나며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겔20:34-38). 그들은 하나님의 도가니 속에 던져질 것이며(겔22:19-22) 예레미야와 다니엘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했던 무서운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렘30:4-7; 단12: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때를 큰 환난이라고 했으며 그분과 스가랴 대언자는 그것이 일어나는 때를 주님의 재림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슌14:1-11; 마24:21-31). 주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사람은 적그리스도로서 그의 무서운 통치는 지상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금병들이 쏟아짐으로써 더욱 가증될 것입니다. 이 끔찍한 심판의 결과로 유대인들은 참담한 가운데 자신들의 주님을 부를 것입니다(슌12:10).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브산으로 돌아오시고(슌14:4)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찢은 그분을 바라 볼 것이며(슌12:10) 유대인 민족은 하루 만에 태어나 회심할 것입니다(사66:8). 이것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 완결되며 히브리서 8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집 및 유다의 집과 세우신 새 언약이 발효됩니다.

## 넷째 심판

1. 대상 - 민족들(이방인들)
2. 때 -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 때
3. 장소 - 그분의 영광의 왕좌(땅 위의 여호사밧 골짜기)
4. 심판의 근거 -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곧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5. 결과 - 어떤 민족은 구원을 받고 어떤 민족은 멸망을 받음

이 심판 역시 미래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심판은 마태복음 25장 31-46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심판에 대한 말씀과 요한계시록 20장 11-15절 말씀을 한데 묶어 이 둘이 마치 하나의 총체적인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비교해 보면 이 둘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것들이 같은 사건을 묘사하지 않음은 매우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떼어 놓으신 것을 사람이 붙여 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표는 두 사건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줍니다.

마25:31-46	계20:11-15
부활이 없음	부활이 있음
살아 있는 민족들이 심판을 받음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음
땅 위에서 이루어짐(율3:2)	하늘과 땅이 사라진 뒤 이루어짐
책들에 대한 언급이 없음	책들이 펼쳐져 있음
세 부류가 나옴: ‘양들’, ‘염소들’, ‘형제들’	오직 한 부류만 나옴: ‘죽은 자들’
때 - 천년 왕국 이전	때 - 천년 왕국 이후

위의 표를 통해 우리는 이 심판들 중 하나는 땅 위에서 이루어지며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것들 간에는 1,000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민족들로 번역된 그리스어 ‘에스노스’(Ethnos)는 신약 성경에 158번 나옵니다. 이 단어는 이방인들로 92번, 민족 혹은 민족들로 61번 그리고 이교도들로 5번 번역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도 죽은 자들이나 부활한 자들에게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이 넷째 심판은 단지 민족들(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기에 유대인들은 그 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민23:9). 그리고 교회는 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미 휴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세상(민족들)을 심판할 것이기에 교회 역시 이 심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고전6:2). 유대인들도 환난기를 통해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이 심판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무신론자들도 알고 있는 총체적인 심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양들이란 누구를 뜻할까요? 그들은 의로운 자들, 즉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의로운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염소들은 모든 사악한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아닐까요? 양들이 의로운 자들이고 염소들이 사악한 자들이라면 도대체 ‘내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만일 이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면 그들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민족들의 심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분리하기 위해 심판하실 때에 양 민족, 염소 민족,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인 유대인들, 이 세 그룹이 그분 앞에 서 있다.

당연히 양들로 분류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악인은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멸망당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장면에서 심판의 기준은 민족들이 형제들이라 불리는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하는 것이며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이 기준에 의해 양들은 왕국을 상속받고 염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개개인에 대한 심판으로 영적으로 풀어 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양들은 민족들 중 한 분류이고 염소들 또한 다른 한 분류이며 반면에 '이 내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형제들인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때와 장소를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땅에 자신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시는 때이며 장소는 예루살렘 근처의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보라, 그 날들에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 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대에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은 뒤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흩어 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골3:1-2)

요엘 대언자의 예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 땅에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 심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형제들, 즉 유대인들에 대한 민족들의 대우가 될 것임을 명백히 보여 줍니다.

환난기에 유대인들을 친절히 대해 주고 먹여 주고 입혀 주며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찾아간 민족들은 양 민족들이 될 것이며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염소 민족들이 될 것입니다. 민족들의 심판 때에 왕께서는 양 민족들에게 “너희는 이 내 형제들(유대인들)에게 친절히 대했으므로 오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왕국은 양 민족들이 상속하여 천 년 동안 소유하게 될 천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 땅(계21:24)의 구원받은 민족들 가운데 있을 것이므로 그들 혹은 최소한 그들 중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입니다(마25:46). 염소 민족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판결은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염소 민족들은 즉시 민족적으로 멸망할 것이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민족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악한 개개인들은 죽어 영벌에 처해질 것입니다.<sup>1)</sup>

### 다섯째 심판: 흰 왕좌 심판

1. 대상 - 죽은 사악한 자들
2. 때 - 불에 의해 땅이 정화되는 동안
3. 장소 - 크고 흰 왕좌 앞
4. 심판의 근거 - 그들의 행위
5. 결과 - 불 호수에 던져짐

이 심판도 역시 미래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사는 다음 말씀 속에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이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계20:11-15).

이 심판은 민족들의 심판이 끝나고 천 년이 지난 뒤에 크고 흰 왕좌 앞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크고 흰 왕좌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흰 왕좌 심판은 불에 의해 땅이 정화되는 때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땅이 정화되는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벧후3:7)이라고 부르면서 언급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크고 흰 왕좌 심판은 바로 이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고 죽은 자들은 모두 첫째 부활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첫째 부활과 악한 자들의 부활, 즉 둘째 부활 사이에 의로운 자가 죽는다면 그들은 악한

---

1) 여기의 양과 염소 심판이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양들과 염소들에 대해서는 두 의견이 있다. 먼저 라킨과 같이 이방 민족들이 양 민족들과 염소 민족들로 구분되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또 이방 민족들에 속한 자들 중에 의로운 자들은 양들이고 사악한 자들은 염소들로서 이들이 모두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한편 이 심판을 가지고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도 잘못이다. 여기서 양과 염소로 분류된 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의 열매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행위 자체가 사람을 구원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행위가 있기 마련이며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자들의 부활 때에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계20:15)라는 말은 거기에 적어도 몇몇 의로운 자들이 - 아마도 극소수가 되겠지만 - 둘째 부활 때에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 말기에 그리고 불에 의해 땅이 정화되기 직전에, 살아 있는 의로운 자들은 아마도 휴거 등을 통해 옮겨질 것이며 살아 있는 악한 자들 혹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지구의 대기과 표면을 태우는 불길에 의해 멸망당할 것입니다.

흰 왕좌 앞에 선 사악한 자들,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심판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내릴 벌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참으로 애석한 점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 분류될 ‘구원받지 못한,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록하는 천사가 적어 둔 모든 사람의 삶에 대한 기록을 담은 책들이 펼쳐지고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심한 처벌을 받을 것이지만 어느 누구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그리 나쁘지 않았던 사람들이 불 호수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지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벌은 둘째 사망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곧 그들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불 호수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창세기 6장의 타락한 천사들(지금 활동하고 있는 마귀의 천사들이 아님)은 현재 어둠 속에서 영존하는 죄사슬로 묶여 있지만 이들 역시 유다가 큰 날의 심판이라고 부른 이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유6).

## 제14장

# 두 아담

성경은 두 명의 상징적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째 인물은 아담이라 불리며 둘째 인물은 마지막 아담(고전15:45) 또는 둘째 사람, 하늘로부터 오신 주(고전15:47) 등으로 불립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바로 이 둘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첫째 아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롬5:12).

마지막 아담은 첫째 아담이 했던 것을 되돌리고 죄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히9:26).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균림하였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서 균림하리라(롬5:17).

이러한 두 명의 상징적인 사람들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들의 역사를 연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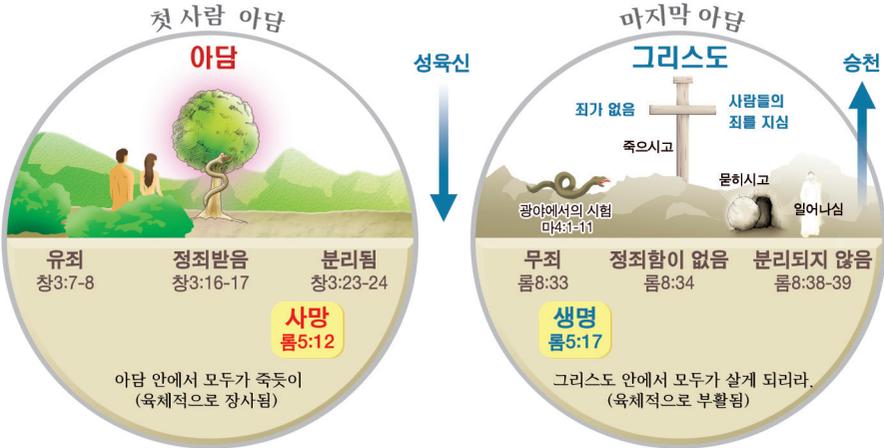
### 1. 첫째 아담

지구가 형체가 없고 공허한 상태에서 채워지기 시작해서 6일간의 창조를 통해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이 새와 물고기와 동식물로 다 채워진 뒤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창1:26-27).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창조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원숭이의 형상대로 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짐승으로부터 형성되지 않고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프리카의 밀림에 살아서 발달 수준이 매우 낮은 사람과 가장 많이 발달된 짐승 간에는 과학으로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중간 단계는 지금까지 결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온 인류가 한 종으로

# 두 아담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임이라(창5:1).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임이라(마1:1).

그러므로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고전15:45).

성경은 두 명의 상징적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 첫 번째 인물은 아담이라 불리며 두 번째 인물은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혹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고전 15:47) 등으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첫째 아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책임을 지고 있다(롬5:12). 반면에 마지막 아담은 첫째 아담이 행한 것을 되돌리기 위해 즉 죄를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왔다(롬5:17; 히9:26). 구약 성경은 첫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것으로 그들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창5:1-27). 구약 성경에는 아벨, 에녹,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느헤미야 등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런 훌륭한 사람들 모두가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도시를 소망하면서 결국 죽었다. 첫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그의 모든 세대들이 죽는다는 것이 구약 성경이 보여 주고자 하는 핵심이다. 반면에 신약 성경은 사람의 최대의 원수인 사망을 이기신 분, 영원한 도시를 예비하시고 성도들을 맞으러 다시 오시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한 세대밖에 없다(시22:30; 사53:8; 벰전2:9). 그분 안에는 단 한 세대밖에 없으므로 그분에게서 난 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상관없이 모두 형제/자매이다. 마귀는 세상의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요일2:16)으로 첫 아담을 좌절시키고 죄를 이 땅에 가져왔으나(창3:5-6)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고(마4:1-11) 공생애를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남으로써 마귀의 최대 무기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구원 사역을 완수했다(히2:9-18). 첫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분께서 육체로 부활한 것 같이 그분의 의에 힘입어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육체적으로 살 것이다(고전15:51-57; 살전4:13-17).

이루어졌고 하나의 공통된 기원을 가졌다는 것은(행17:26) 지구의 거주민들 중 서로 다른 종족들이 결혼할 때 그들의 자손들의 생식 능력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는 사실로부터 분명해집니다. 사람의 창조에 관해서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는 어떠한 모순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사람 창조의 사실을 말하고 있고 2장은 창조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창2:7). 따라서 1장과 2장은 서로 보충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이로부터 우리는 인간의 창조가 다음의 세 가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 (1) 몸의 형성
- (2) 영의 부여
- (3) 인간의 혼을 통한 몸과 영의 연합

사람을 구성하는 두 가지 주요한 부분은 몸과 영이며 이것들의 기능은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는 육적인 것을 담당하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것을 담당합니다. 또 혼이라 불리는 셋째 부분이 첨가되는데 이것은 몸과 영 사이를 중재하고 이것을 통해서 몸과 영이 서로 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삼중적 존재임을 보여 줍니다.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살전5:23).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히 4:12)

7장 '영의 세계'와 거기에 있는 <사람의 세 요소> 선도를 보기 바랍니다.

처음에 창조된 아담 속에 있는 혼은 몸과 영 사이를 이어 주는 완벽한 연결 매체였고 따라서 몸과 영 사이에 충돌이 없었습니다. 이 셋은 서로 조화를 이루었으며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면서부터 혼은 몸과 영의 싸움판이 되었으며 그 갈등은 바울이 로마서 7장 7-24절에서 묘사한 것과 같습니다.

이브는 아담과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창조되지 않았고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때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그 주변의 살을 메우신 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창2:21-23).

이브가 아담과 전혀 상관없이 따로 만들어지지 않고 아담의 옆구리로부터 취해진 것은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한 몸이어야만 함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습니

다. 그들은 관심거리, 연민 등에서 하나여야 했으며 육체적으로도 서로의 상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담과 이브는 마지막 아담과 그분의 이브인 교회의 모형입니다 (엡5:25-32).

아담은 아기나 원시인으로 창조되지 않았고 지성과 지식 면에서 완전한 성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자손들이 악기와 기계 장치의 발명들에 있어서 대단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었고 방주와 같은 거대한 배와 성읍들과 탑들을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은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엄청난 지성을 지닌 사람들이었다는 점과 사람이 하등 동물인 짐승으로부터 고등 동물로 진화되지 않고, 높은 위치에서 오히려 하등 동물처럼 아래로 타락해 왔다는 점을 증언합니다. 이 최초의 부부는 서로의 동반 관계로 인해 행복했으며 틀림없이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믿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자기들 위의 하늘들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타락한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과 자기들의 행복이 타락으로 끝나서 그 기쁨의 동산으로부터 자기들이 추방을 당해 조만간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의 위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미리 경고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실로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고 결국 그것을 먹도록 시험할 존재가 있다는 점에 신경을 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아담을 시험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순종은 왜 그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주어진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된 이후 얼마나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브를 주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자기에게 나오는 가축과 새 그리고 들짐승 같은 모든 창조물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브를 아담에게 주신 뒤 얼마가 지나서 시험이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즉시 시험이 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성숙했지만 경험 면에서는 어린아이들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브의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강력한 대적인 뱀의 계교에 대처하기에는 아직 적당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의 목적은 사람의 창조 안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목적, 즉 거룩한 종족으로 지구를 채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을 격노케 해서 사람들이 지구를 채울 수 있기 전에 그들이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이 그 첫째 부부를 멸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기술로 게임을 했습니다. 만일 아담과 이브가 함께 있을 때 접근한다면 자기에게 저항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는 이브가 홀로 있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한 이브는 아담으로부터 떨어져서 그 나무를 관찰하기 위해 스스로 다가갔고 그녀가 그곳에 있음을 발견한 사탄이 그 기회를 이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일 이브가 그 나무에 접근하기를 피했다면 그 나무를 바라보려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결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는 욕망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만족스러워 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간교하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이라고

짐작했고 그래서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브가 뱀과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뱀이 지금처럼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으며 그녀에게 낯설지도 않은 존재였음을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자주 뱀을 보았고 아마도 전에 뱀과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신의 길을 미리 준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 땅 위에서 기어 다니게 되었는데 그전에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름다운 창조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뱀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사탄의 사주를 받아 말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사탄이 뱀 안에 그 자신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브가 그 나무 열매를 바라보며 갈망하는 눈빛을 던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뱀(사탄)은 간교하게 다음과 같이 물으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창3:1)

이 질문은 매우 교묘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어떤 것을 금하실 정도로 부당하고 불친절하시다고 던지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브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다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 말라.”는 구절을 더하며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브를 신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말투입니다. 그녀는 또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에서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라고 하나님의 형벌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계22:18-19).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고후4:2).

사탄은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한 고등 비평가였습니다. 그는 의심의 씨를 만든 존재였습니다. 이 의심의 씨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더냐?”와 같은 사탄의 질문을 통해 이브의 마음에 심겼습니다. 이 질문은 이브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류는 이브로부터 이 불신의 세균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을 갖는 것에 비례해서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오해했든지 그분의 뜻을 곡해하지 않았는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기 때문에 악인을 영원히 벌주시지는 못하시지.”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의심의 씨를 뿌린 뒤 그 독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탄은 곧장 “너는 분명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로서 사람이 영원히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오늘날의 종교 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탄은 사람들이 신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과 악의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고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동기를 비난했습니다. 이 말은 이브의 호기심과 야심에 무엇인가를 호소했고 그녀의 가슴속에서 욕망의 급류를 격동시켰습니다.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육신의 정욕), 보기에 좋으며(안목의 정욕),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하다는(인생의 자랑)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남편에게 물어보기 위해 기다리지 않았고 즉시로 손을 뻗어 그 과일을 따먹었습니다(요일2:15-17 참조). 이로써

그녀의 무죄의 날들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나타났을 때 마음에 뉘우침이 없이 그녀는 도리어 그를 유혹했으며 그녀로부터 분리되기를 원치 않는 아담도 그 과일을 먹었고 그 결과 인류의 파멸이 왔습니다. 여자는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갔지만 아담은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이 여자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딤후2:13-14).

사탄이 이브에게 행했던 유인책, 즉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획득으로 인해 그녀와 아담이 하나님과 같은 선상으로 올라갈 것이고 신들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기만책은 사탄이 오늘날의 야심에 찬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동일한 책략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속임수를 통해 사람들의 발견과 발명 위에 웅장한 문명을 건설하려 하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빼놓은 채 사람을 드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의 신격화이며 그것은 자신의 슈퍼맨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 선포할 적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살후2:3-4).

위의 사건은 인류의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상업적인 진보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오늘날의 모든 세상 체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무죄의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무죄란 결코 의(義)가 아닙니다. 무죄는 시험받기 전까지는 의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아담과 이브가 그 시험에 성공했다면 그들은 의롭게 또는 거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무죄에서 거룩함까지 또는 무죄에서 죄까지는 단지 한 계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무죄에서 죄까지 이르는 이 계단을 밟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반대편을 택했다면 그들은 거룩하게 되었을 것이고 죄의 영역 밖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새로운 출생 없이는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타락시키는 일에서 사탄의 승리는 완전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으로 인한 첫째 효과는 자아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무화과 잎사귀로 된 옷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살아 있는 모든 창조물은 자연적으로 옷을 입습니다. 물고기는 비늘을, 새는 깃털을, 짐승들은 털 또는 모피나 양털을 입고 있고 심지어 뱀조차도 아름답게 채색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체가 태어날 때는 벌거벗고 태어나지만 자연이 곧 옷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 옷을 입지 않은 채 태어나고 죄로 인해 타락한 결과 인위적으로 만든 옷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처음에 옷을 입지 않았고 옷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무죄 상태로 인해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타락하지 않은 본성이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숨겨 준 휘장, 즉 빛나는 영광의 휘장으로 옷 입혀져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은 타락으로 인해 이것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즉시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의식한 그들은 인위적인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옷은 죄를 가두어 두는 역할을 합니다. 옷의 스타일과 모양은 변할 수 있지만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옷은 사람의 눈으로부터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눈으로부터는 가리지 못합니다. 사실 검은 마음이 흰옷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태양은 그날 인류의 타락을 목격한 채 저 버렸고 이제 어둡고 두려운 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둘 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주 하나님께서 서늘할 때 동산에서 자신의 일상적인 행보를 취하시려고 내려오셨을 때 숲에서 스스로 숨어 버렸습니다.

전에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방문하는 것을 고대했지만 지금은 그분을 대면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이렇듯 죄는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듭니다.

이제 그들에게 물으시면서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 심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타락을 이브의 탓으로 돌렸고 이브는 자신의 타락을 뱀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참을성 있게 그들의 말을 들으시며 그들에게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다음 그분은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지만 뱀에게는 자신을 정당화할 어떤 기회도 주시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흠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그리스도)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3:14-15)

네 씨(사탄의 씨)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사탄의 씨로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멸망의 아들로 불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의 말씀은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 즉 정죄받은 죄인에게 내려진 재판장의 선언이었고 사탄의 반란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으로 그는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도구인 뱀은 즉시로 기어 다니고 징그러우며 혐오스러운 모습을 한 파충류로 변했습니다. 여자에 대한 판결은 그녀가 남자에 대해 동등자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것이며 또한 아기를 낳는 일에 있어서 그때까지 들어 본 적이 없는 고통과 비참함을 당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주님께서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또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리라.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3:17-19).

그래서 그때까지 아담에게 기쁨을 주었던 동산 관리 일이 그 이후로는 노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산 밖으로 추방당한 그는 자연히 가시와 엉겅퀴와 잡초만 내는 땅을 밟으로써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경륜(세대)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때는 죄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까지 다시는 그때와 같은 때가 없을 것이며 나중에 그때가 오면 그분께서는 새 땅 위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실 것입니다(계21:3). 에덴 경륜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죄라는 근거 위에서 아담을 다루셨지만 죄의 저주가 땅으로부터 제거될 때까지는 그와 똑같은 근거 위에서 사람을 다루실 수 없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유예된 상태에 있지 않고 정죄하에 있습니다(요3:18).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 있는 존재, 상실된 존재,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파멸된 죄인'으로 다루셔야 했습니다. 사실 사람은 파멸된 죄인일 뿐 아니라 파멸된 창조물입니다. 그 안에는 선함이 없고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법에 속하지도 않고 참으로 그럴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롬8:6-7).

하나님께서서는 죄가 있지만 용서받은 그 부부를 긍휼히 여기사 동산에서 몰아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죄로 물든 채 불멸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죄와 완전한 환경 조건이야말로 사람을 잘못으로부터 지켜 주는 요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에덴동산의 재앙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 II.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마지막 아담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타락한 창조물이 자기 자신을 대속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그는 외부의 능력에 의해서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담 종족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종족을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대속은 하나님의 중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대속자는 아담 종족과 같은 본성을 지녀야 합니다. 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국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되 죄의 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것은 처녀 탄생으로 성취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에 관한 10장을 보기 바랍니다.

스스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마지막 아담은 첫째 아담과 같은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분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거나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신 뒤 즉시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나가셨습니다(마4:1). 그것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 시험은 마귀에 의해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마귀는 틀림없이 그것을 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만나게 되었고 마귀는 그 만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귀가 그분을 시험하는 일을 크게 갈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서 배고픔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쇠약해질 때까지 꾸준히 기다렸다는 사실로 증명됩니다.

시험의 장소를 주목하여 보기 바랍니다. 그곳은 첫째 아담이 시험받았던 곳과 같은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야생 동물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곳 또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40일 동안의 금식과 예수님의 금식을 비교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마귀와 함께 있었습니다.

### 첫째 시험

마가는 그분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받으셨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마귀로부터 시험받은 기간이 40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마태는 그분이 40일간 밤낮 금식하신 뒤 굶주리게 되었고 그때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마귀는 40일 동안 예수님 곁에 매복해 있었고 예수님께서서 금식으로 인해 연약해진 것을 보았을 때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믿고 공개적으로 나타나 그분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배고픔의 문제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 시험 속에서 배고픈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절기가 지난 이후에, 즉 금식한 뒤에 가버나움이나 예루살렘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험은 그분이 새로운 종족의 머리가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침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과 왕국의 선포 사이에 시험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왕국의 건설과 그 왕국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 시험들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으로 시작되는 첫째 시험은 에덴에서의 시험과 유사한 것으로 의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신 지 6주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마귀의 논리는 굶주림에 시달리며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한, 눈에 보이는 어떤 수단도 없었던 예수님께서 하나의 기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됨이 사실임을 시험해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네가 먹지 않으면 죽을 거야.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너의 왕국 계획들을 수행할 수 있지? 사람들을 주도하려면 그들을 먹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어떻게 식량도 없이 왕국을 건설할 수 있겠는가? 만일 돌들을 빵이 되도록 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네가 안다면 네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배고픈 모든 자들은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음식을 주고 너희들의 필요들을 채우리라.’ 그러면 너는 수많은 추종자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독자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실제로 사람들은 그분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기를 원했으며 예수님은 때가 오지 않았을 때에 왕국이 건설되는 것을 막고자 그들로부터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돌을 빵이 되게 했다면 이는 큰 불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행할 능력은 그분 자신의 필요가 아니고 다른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 돌을 빵이 되게 했다면 이는 불순종이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이 굶주리게 되는 것이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배고픔을 만족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실 때까지는 그분께서 자신의 배고픔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돌들에게 명하여 그것들이 빵이 되게 하는 것은 불순종의 행위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왜냐하면 시험의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분께 시중들고 그분의 육체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마4:4).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으로 분류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세를 취하시면서 사람이 음식 이상의 중요한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음식에 대해 그분께서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요4:32-34).

이 답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이 사람은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줄 기적이라는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 둘째 시험

시험들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며 단지 ‘그때에’라는 단어가 제시하듯이 시험들이 빨리빨리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아담과 이브가 첫째 시험에서 타락하지 않았다면 둘째 그리고 셋째 시험들은 어떤 것이었을 까요? 그것들을 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 시험들은 처음 것과는 다른 종류의 시험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에 실패한 마귀는 이제 자신의 전술을 바꿉니다. 그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이끌어 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는 성전 꼭대기 위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마4:6; 시91:11-12 참조).

이 시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는 도전이었습니다. 마귀의 요청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스스로 성전 꼭대기로부터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분을 공중에서 받아서 그분이 땅에 천천히 내려오게 할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약속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 속에도 왕국에 대한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말라기 대언자는 메시아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시리라고 예언했습니다(말 3:1). 예수님이 유대인 민족의 대표자들로 가득 찬 성전 뜰 안으로 하늘로부터 드러나게 내려오는 것보다 더 장엄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기적으로 나타난다면 군중들은 분명히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그들은 즉시로 그분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더러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를 보호해 주시리라고 억지로 주재님께서 가정함으로써 자신의 신성과 아들 되심을 시험해 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귀는 만일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굴복하고 스스로 성전 꼭대기로부터 뛰어내린다면 그분께서 억지로 추측한 것으로 인해 천사의 보호 구역 밖에 있게 되어 결국 성전의 대리석 보도 위에 부딪혀 죽사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이와 같습니다.

다시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마4:7).

이것은 책망이었으며 이로 인해 두 번째로 마귀는 자신이 실패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셋째 시험

다시 마귀가 그분을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 주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하매(마4:8-9)

이 시험이야말로 마귀의 으뜸가는 책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게 하는 일과 자신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심을 시험하게 하는 일에 실패한 마귀는 만일 예수님께서서 그분의 아버지께 충성하지 않고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한다면 이 세상의 왕국을 주겠다고 갑작스레 제안합니다. 이것은 타협적인 제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패배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협상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 왕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예수님께서서 이것을 논박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이 세상의 통치자라 부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 마귀의 제안을 거부하시며 이 세상의 왕국들을 마귀의 지배하에 그대로 남겨 두었다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 왕국들은 그분이 오셔서 천년 왕국의 영광으로 그것들을 다스릴 때까지는 이대로 마귀의 수하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서 세상의 왕국들을 통치하시기 위해 세상으로 오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가 예수님께 말했던 것은 이와 같습니다. “너는 왕국들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이 세상에 왔다. 이제 만일 내가 엎드려 절하고 내게 경배해서 이 왕국들에 대한 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내가 십자가의 고통 없이 이것들을 네게 주겠다.” 이처럼 멋있는 제안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갔고 잠시 동안에 세상의 왕국들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 주었습니다(눅4:5). 잠시 동안만 보여 준 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보여 주면 이 세상의 왕국들의 허상과 무가치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마귀보다 더 멀리 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세워야 할 예정된 왕국을 보셨고 그 왕국이 이러한 세상의 왕국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그 제안이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다음의 약속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교도들을 네 상속물로 네게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네 소유물로 주리라(시2:7-8).

그래서 그분께서는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제안은 그 자신의 파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즉시로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엄 있는 명령이었고 이에 즉시로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으며 이름이 알려진 채 매 맞는 개처럼 실패하여 꼬리를 내리고는 슬그머니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중들었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십시오으로써 예수님께서서는 성령님의 충만한 단계를 지나 성령님의 권능을 갖게 되었습니다(눅4:1, 14).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우리처럼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히4:15). 이 모든 점이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들로 대표되며 이브의 시험 안에 포함된 세 가지 주요한 것들, 즉 (1) 육신의 정욕, (2) 안목의 정욕, (3) 인생의 자랑(요일2:16)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시험은 광야에서의 시험들로 대표되는 이 세 가지 주요한 시험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불법적인 수단으로 우리의 자연적인 필요들을 충족하려는 시험
2. 자의로 위험에 뛰어들어 억지로 주재님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구하는 시험
3. 악의 권세와 연합함으로써 고생이나 고통을 겪지 않고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얻으려는 시험

기독교회를 위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회를 교회의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금을 모으는 저녁 식사 장소나 무료 급식 장소로 만들지 말라.
2. 청중을 얻기 위해 웅장하고 감각적인 수단들을 사용하지 말라.
3. 정부와 부와 사회의 권세들과의 연합이나 세상의 최고 주권을 추구하려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의 연합을 추구하지 말라.

아담의 신부인 이브는 먼저 시험을 받아 넘어졌으며 자기 자신과 함께 자기 남편도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신부인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첫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왕권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쓸모없게 만들려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시험하십니다. 승리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바...”라는 말씀으로 마귀에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만일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없었다면 우리처럼 모든 점에서 시험받으실 수 없으셨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시험에서 어떤 위험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분을 사탄과 아담에 비교하곤 합니다. 그들은 모두 순수하고 죄 없이 창조되었지만 그들의 타락이 증명하듯 죄를 지을 가능성을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탄과 아담은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sup>1)</sup>

예수님의 몸에 대해 성경은 그것이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성에는 죄가 없었으며 그 인성이 영원히 거룩하신 아들의 인격체와 결합되었으므로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가 광야 시험 이후까지도 미지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생각할 수도 없으며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해진 어린양이셨습니다(벧전1:18-20). 한편 희생물로 취해진 어린양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선언합니다(요일3:9).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자신의 인성을 취하셨으므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도 그분의 본성에는 어떠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분께서 그 시험에서 죄를 지을 수 있었다면 무엇으로 미래에 시험에서 지는 것을 막을 수

1) 108쪽의 각주 1번 beget 참조

있었겠습니까? 구원의 전체 계획이 전복되지 않으리라고 그 무엇이 보장해 주겠습니까? 이 같은 생각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타락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완전하신 구원자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떤 죄도 없고 실패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시험받을 때 따라야 할 본보기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시험받을 때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대상으로서 우리 앞에 앉아 계십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두 개의 트랙이 있는 현수교가 두 산의 경계를 연결하는 깊은 협곡 위에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계곡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리가 그 자체의 무게를 거의 지탱할 수도 없는 쓸모없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들은 다리에다 자기들의 생명을 맡기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놀랍게도 두 개의 화물 기차가 무쇠 덩어리를 싣고서 각각 반대 방향으로부터 접근해서는 그 다리의 중앙에 도착해 멈추었습니다. 즉시 그들은 그 다리가 붕괴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본래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24시간을 지체한 뒤 그 기차들은 자기들의 길을 계속 갔고 이제 그들은 그 다리의 안정성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도 이와 동일합니다. 마귀의 계교를 이기고 무찌르신 것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아들 되심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께서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구원자이시므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첫째 아담은 인류에게 죄와 저주와 분리를 가져왔으나 마지막 아담은 이 모든 것을 뒤집었고 그 결과 신자의 위치는 더 이상 죄인의 위치가 아니며 그는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롬8:33-39). 죄의 삯은 사망이지만 바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고전15:22). 그는 분명히 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여기에서 보편적 구원에 대한 논리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으나 마지막 아담은 복음을 통하여 부활과 생명과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가져왔습니다.

## 속죄와 구속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는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기독교는 피비린내를 자아내고 성전을 도살장으로 바꾸어 버리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하므로 푸줏간 종교이며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에게 큰 반감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피와 우리 몸(생명)이 불가분의 관계이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경도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붉은 피와 관련된 단어를 빼 버린다면 그것은 죽은 책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읽어 가면서 붓에 붉은 잉크를 묻혀 피를 말하고 있거나 피와 관련된 모든 구절들을 지워 버린다면 남는 부분이 얼마 안 된다는 것에 매우 놀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성경은 아무 가치도 없는 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부분들은 무의미하게 되고 윤리적인 가르침은 무력해질 것이며 예언의 말씀들은 전혀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교리는 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피가 없이는 죄들의 용서도, 다시 태어남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도, 거룩하게 됨도, 천국도, 옷을 씻음도, 새 노래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무려 28번이나 어린양이라 불리는데 이 칭호는 항상 그분의 속죄 사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피를 제거하면 속죄의 교리도 없어지고 맙니다.

### 1. 속죄

이 단어는 원래 하나가 됨(At-One-Ment)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은 둘이 되었고(At-Two-Ment) 서로 간격이 벌어진 채 분리되었습니다. 속죄의 목적은 이 둘을 합쳐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은 법을 어긴 사람이나 그 대리자나 보증인에게 내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법은 아무 효력이 없게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그것의 형벌입니다. 속죄란 행정부에 존재하는 예비 규정으로서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로부터 범법자를 사면하기 위해 공의롭고 안전하며 받아들일 만한 근거 위에 마련한 법률 규정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법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창2:16-17).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그 법을 어겼고 또한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죽으면 그들을 통해 땅을 채우려 했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창1:28).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말씀을 어기지 않고서는 죽음의 형벌을 철회할 수 없게 되셨고 만일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아담과 이브는 그분의 말씀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분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들을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형벌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마련하신 대속자는 바로 자신의 아들 속에 계신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름 아닌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속 사역은 즉시로 준비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것은 그로부터 약 4,000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그 4,000년 동안에 수소나 염소 또는 흠 없는 어린양이 히브리 사람들의 희생 제단 위에서 타면서 연기를 냈는데 이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위한 사면이 없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때 유월절에 어린양의 피를 뿌린 것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셔야 했던 분을 암시한 것이었습니다(요1:29).

참된 희생물을 드릴 때가 오자, 우리는 공의와 공홀이 같보리 언덕 위에 서서 변론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공의가 공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4,000년 전 에덴동산에서 저질러진 이 세상의 죄로 인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 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공홀이 대답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오는 저분을 보라.” 그분께서 언덕의 정상에 이르자 공의는 수천 년 전에 체결된 채무 증서를 내보이며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그 증서를 말소하겠노라.” 이에 곧바로 희생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하나님의 어린양이 십자가의 희생 제단 위에 놓였습니다. 십자가의 가로대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손 안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말소해야 할 그 증서를 쥐고 계셨습니다. 로마 군인이 그 손에 못을 박았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한 사도 바울의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 즉 손으로 규례들을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골2:13-14)

이 채무 증서가 제거됨으로써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롬3:26).

그러나 어떤 이들은 “무죄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질 수 있느냐?”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무죄한 사람이 죄 있는 사람과 결합하여 연대적으로 하나가 되어 그 죄인과 동일시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난한 과부의 빚을 그 이웃의 백만장자에게 지게 하는 것은 공정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그녀와 결혼함으로써 함께 연대적으로 하나가 되어 그녀의 모든 의무를 떠맡는다면 그는 그녀의 빚에 대해 공정하고도 합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롬7:4).

이 같은 연합을 통해 그분은 우리가 율법에게 지고 있는 모든 빚을 갚기 위한 합법적인 해결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들에게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만 하지 아니하느냐?”(눅24:25-26)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겪으셔야 할 모든 고난의 당위성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순히 대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하여 연대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합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차 없이 자신의 아들에게서 죄의 대가를 거둘 정도로 공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율법을 향해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롬7:4). 다시 말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처럼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롬8:1)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심판을 받았으며 우리가 죄로 인해 받은 심판은 지나간 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효능과 대속적인 특성은 강도 바라바의 이야기 속에 잘 예시되어 있습니다. 바라바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두 강도 사이에서 있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에게 그리스도와 바라바 둘 중 하나를 택할 권리가 주어지자 그들은 그리스도를 택하였고 그분은 바라바의 위치를 대신한 대속물로서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는 충족되었고 바라바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만일 바라바가 그날 갈보리로 가서 자신을 대신하여 죽은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자기의 죄들에서 자기를 구출하신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그는 속죄의 대속적 특성을 이해한 첫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으나 믿는 자가 된 뒤에는 다음과 같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갈3:13).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나무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이는 실제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형벌은 결코 두 번 집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다면[이것은 사실입니다!], 그 죄들은 더 이상 우리 위에 있지 않으며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1:18-19).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으며 갈보리와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아버지에게 대해 증언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속죄의 범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속죄를 단지 선택받은 자들에게로만 제한합니다.<sup>1)</sup> 이들은 속죄를 상업상의 거래와 같은 것으로 여기고 “너희는 값으로 산 자들이다.”(고전6:19-20)라는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게다가 상업상의 거래에는 구매자와 판매자, 매매할 물건 그리고 지불할 가격이 있어야 하므로 하나님은 구매자이시고 율법은 판매자이며 선택받은 자들은 매매 물건이고 그리스도의 피는 구입 가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상업상의 거래에서처럼 지불할 가격과 인도되어야 할 물품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해서도 상호 간의 이해가 있어야만 하므로 속죄에 대한 이러한 상업적인 견해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선택하시고자 하신 특정한 수의 사람들만을 구입하셨고 또 정확히 그 숫자의 사람들만을 받을 것을 고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말 100마리를 샀다면 말들이 도착했을 때 정확히 100마리인지를 헤아려 보는 것만으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구입하고자 했던 것과 동일한 말인지 알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속죄를 상업적인 견해로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선택받은 자들에게로만 제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몇몇 사람들만을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시지 않았고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치르시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께서는 전 인류를 죄의 저주로부터 구속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위치에 두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요일2:2).

여기서 화해(propitiation)라는 말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긍휼로써 온 세상을 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롬5:10).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되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골1:20).

이로써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속죄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며 온 인류를 구원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않으므로 이것은 결코 보편적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

1)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만을 위해 피를 흘렸다는 ‘제한 속죄 교리’(Limited atonement)를 가르치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을 지칭한 것이다. 성경이 ‘누구든지 회개하고 아들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명백하게 가르치므로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은 몇몇 선택받은 자들에게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요3:16; 롬9-10; 13장 참조).

사람이 구원의 조건 곧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일을 받아들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II. 구속

속죄와 구속이란 두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사용됩니다. 이 두 용어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의 결과이지만 시간과 행위 면에서 볼 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이란 현재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나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것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소유물의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엡1:13-14).

그러면 구속받아야 할 소유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바로 바울이 로마서 8장 22-24절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은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로써 우리는 창조물과 인간에게 속한 어떤 것이 그들에게서 빠져나갔고 따라서 이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는 창세기 3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몸의 영원성과 땅의 상속권을 상실했습니다. 그 뒤 아담의 씨들이 받아야 할 모든 상속물이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스스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친족이 잃어버린 소유를 되찾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레25:23-34). 그리고 그 친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예비되었습니다. 친족이 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처녀 탄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의 값을 치르셨는데 그 구속의 값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 자신의 피였습니다(벧전1:18-20).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 값을 주고 사신 것을 아직까지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속은 순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이 기간을 ‘구원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원의 날’은 지나간 2,000년이 넘도록 오랫동안 연장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날’은 적어도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이 ‘구속의 날’은 죽어 있는 의로운 자들의 몸이 부활할 때부터 시작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sup>2)</sup>

### 몸의 구속

우리는 부활한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감히 상상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

2) 저자는 ‘구속의 날’을, 다음 쪽 끝에서 사11:6-8을 언급하며 설명한 것처럼, 7년 환난기 이후의 천년 왕국 기간으로 보고 있다.

변화산에서 변형되었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에 대해 어렵פות이나마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몸이 그분의 몸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일3:2). 또한 바울은 부활에 대해 많은 것을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한 몸이 어떠할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1.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러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고전15:42)

이것은 꾸밈이 없는 진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게 될 더러운 것으로 뿌려졌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천한 몸이라고 불렀습니다(빌3:21). 이렇게 썩는 것은 어디서 유래되었을까요? 그것은 죄가 구체화되고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몸이 다시는 죽지 않을 몸과 결코 쇠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덤에서 나오며 또 살아 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 영광의 옷을 입고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자신들의 구속자를 만나는 날은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2. 수치 가운데서 뿌러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고전15:43)

수많은 몸들이 추악함을 유발하는 죄로 말미암아 수치 가운데서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변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에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고 그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연약함 가운데서 뿌러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켜지며(고전15:43)

죽은 몸은 연약함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몸보다 더 무용지물인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자가 하나님의 성도 중 한 사람이 된다면 그분께서는 이같이 생명이 없는 몸도 권능 있는 몸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의 무덤을 열어버림으로써 자신의 권능을 펼쳐 보이실 것이고 부활한 몸은 새로운 시력과 청력과 기억력 등의 권능들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의 소유자는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고 달려도 지치지 아니하며 걸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4.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고전15:44)

이 말은 우리의 영적인 몸이 영기성(靈氣性)으로 변화된 유령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과 뼈를 가진 실질적인 몸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야말로 몸을 썩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같은 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부활한 몸에 대하여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24:36-43).

지금 우리의 몸은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만 그때에는 영적 세계의 법칙에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황폐화된 창조 세계와 땅까지 구속하시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구속의 날에는 이사야서 11장 6-8절에 묘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sup>3)</sup>

이리도 어린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 떤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사람의 타락으로 인한 효과는 실로 광범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온 인류가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땅과 대기까지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또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창3:17-18)

여기서 우리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죄로 말미암은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 짐승들도 고통을 받으며 땅도 죄로 인해 그것의 소산물을 내지 못합니다. 또한 죄로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땅, 그 땅을 그런 상태에서 구속하실 분께서 가시나무로 된 관을 쓰셨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땅은 저주받은 상태에서 구속되고 땅의 외부 표면은 불 침례를 통과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불로 태워져서 멸절되고 모든 병균과 기생충과 죄의 결과로 인한 모든 것 그리고 대기까지도 불로 정화되며 또한 악한 영들도 제거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의가 거할 것이며 그 위에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의 본향인 새 도시가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부조화가 그치고 영원한 조화가 하나님의 전 우주에 걸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아들이 죽으신 이 땅을 파멸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은 너무나 신성하고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이 단지 인간의 혼의 구원만을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몸의 구속과 더 나아가 땅의 구속까지도 포함해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

3) 이것은 창조물이 신음에서 벗어나는 천년 왕국 기간을 말한다.

## 죄와 구원

사람이 선을 행하려 할 때 악도 함께 거한다는 사실은 성경이나 그 밖의 도덕 기준을 찾아보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심과 행동 사이에 그리고 좀 더 나은 판단과 자연적인 기질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도덕적 부조화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사려 깊고 조심스러운 관찰자라면 누구나 짐승과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짐승들은 악을 행하려는 성향, 즉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성향에 대하여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들은 그것들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목표들로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본능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하고 죄를 지으며 모든 종류의 잘못을 즐기려는 뿌리 깊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려는 것 자체가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요? 짐승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무엇인가가 인간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에덴동산에서의 사람의 타락을 드러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그 차이를 일으켰는지 압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 1. 죄

죄는 이 세상이 안고 있는 핏속의 독입니다. 나쁜 피는 사람의 몸 안에서 두 모습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부적으로는 당뇨병으로, 외부적으로는 염증과 종기와 등창 그리고 궤양 등으로 나타납니다. 전자는 눈에 보이지 않고 한동안 감추어져 있지만 후자는 눈에 훤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죄(sin)와 죄들(sins)의 차이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죄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것으로 죄를 지으려는 성향 내지는 본성입니다. 그리고 죄들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성향 때문에 범하게 되는 죄의 특별한 행위들을 말합니다. 전자, 즉 죄는 당뇨병처럼 내부적으로 감추어져 있으나 후자, 즉 죄들은 종기나 등창처럼 외부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죄들을 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본질적인 타락 또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지으려는 본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방법은 사람의 마음에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전혀 없도록 새 성품을 심어 놓는 것이었는데 이 새 성품은 죄를 지으려 하거나 특별한 행위들을 범하려는 어떠한 욕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타락이란 사람의 본성에 선한 것이 전혀 없어서 사람이 결코 친절하지도 않고 애정을 느끼지도 않으며 너그럽고 사랑할 만하지도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 마음의 본성이 자연적으로 악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화를 내는 것은 죄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인이라면 살인이나 도둑질 또는 간음하는 사람들처럼 어떤 특별한 죄들을 범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죄를 지으려는 본성을 가진 사람 모두를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은 죄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내리고 있습니다.

#### 1. 불법이 죄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요일3:4). 하나님의 법이나 인간의 어떠한 법을 깨뜨리는 것은 죄입니다.

#### 2. 태만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약4:17).

#### 3. 의심이 죄입니다.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정죄를 만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롬14:23). 올바른 것을 행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 4. 불신이 죄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요16:8-9). 모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5.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요일5:17). 이것은 모든 종류의 죄를 포함하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잠시 동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탐조등을 비추어 보도록 합시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우리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의 빛 가운데 두셨으니”라고 말했습니다(시90:8). 여기서 시편 기자는 공개적인 것과 은밀한 것 이 두 계열의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개적인 죄들은 신성 모독, 무절제, 거짓말하는 것과 도둑질과 같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 주는 엑스레이 광선을 당신 마음에 투과시키시고 모든 생각의 방을 환한 빛으로 비추사 불순하고 살인적인 생각, 시기, 자랑, 질투, 미움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 보여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요일3:15). 당신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죽어서 당신이 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남자가 단순히 여자에게 음욕을 품으며 그녀를 바라만 보아도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5:27-28).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음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오?(렘17:9)

어느 날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제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의 마음을 해부해 놓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기 바랍니다.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색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막7:21-22).

여기에 사람의 마음 상태를 요약하는 13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그것들을 읽고서 “그것은 나의 마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는 썩고 부패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잘 보존되지 않는다면 곧 썩어 없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의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에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도 없습니다. 정직하고 고상하며 진실하고 예의 바르며 자비로운 한 남자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순수하고 순결하며 사랑스럽고 온화하며 온순하고 모든 사랑스러움의 구현인 한 여인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백합처럼 순수하고 가정의 빛이며 살아 있는 기쁨인 어떤 귀여운 소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늘이 가정에 보내 주신 천진난만한 아이, 방금 떨어진 눈처럼 깨끗한 한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과 죄로 물들어 있으며 미워하고 미움받는 사람들, 저주하고 저주받으며 신성 모독하며 지옥에서 몸부림치는 버려진 영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란 단순히 누룩(이스트 효모)이 들어가 있는 빵과 그 누룩이 그 영향력을 발휘한 빵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기와 발달의 차이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은 스스로 그 누룩을 제거할 수 없으며 그 누룩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상태는 단지 시간문제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누룩을 제거하지 않은 채 다른 세계에 간다면 죄의 누룩이 영원한 시대들 속에서 계속 작용할 것이며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되어 마침내 그들은 지옥의 마귀들처럼 악화될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의 최초의 흔적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올 때부터 그가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도시 밖에 앉아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칠 때와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입니다.

죄는 어떤 작용을 일으킵니까? 그것은 수치를 일으키고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듭니다. 그것은 아담과 이브를 동산 밖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빛에서 어둠으로 내몰리고 세상에서 쫓겨나며(욘18:18)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눅5:8).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거저 죄를 지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값을 지불하게 하는데 어떤 때는 분할 지불 방식으로 또 어떤

때는 한 번에 몽땅 지불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값을 치르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죽음입니다. 이는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도 의인도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만일 죄의 값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라면 그것은 저주라기보다는 축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죄인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이 그가 받아야 할 형벌의 전부라면 말입니다. 그것은 또한 영적인 죽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엡2:1-3).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15절은 사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죄가 있다고 밝혀진 이후에 둘째 사망에 처해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몸으로부터의 혼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을 말합니다. 사악한 자들은 첫째 사망 이후에 있을 부활의 시기에 몸과 영혼이 다시 합해지지만 곧바로 다시 죽음에 처해져서 불로도 없어지지 않을 몸과 혼과 영의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불 호수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불립니다.

죄는 불행이 아니라 사악함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명의 구실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써 죄의 본성을 제거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기를 거절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죄는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값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높았던 자신의 위치를 상실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그를 이끌었습니다. 죄는 인류가 낙원을 상실하게 하는 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곧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의 피의 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죄는 예수님이 겻세마네의 고뇌와 피땀의 값을 치르게 했으며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겪게 했고, 그분께서 죄인의 자리를 취하사 하나님께 버려졌을 때 영원한 죽음의 맛을 보게 했습니다.

## II. 구원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람이 세 가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제는 바로 죄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세월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나간 날들을 반복하여 다시 살 수 없으며 또한 그 날들은 2-3배의 선행을 쌓는다 하더라도 보충하거나 메울 수 없습니다.

둘째는 오늘에 관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昨天的 죄에 잘 대비했다면 오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일 오늘 나의 본성에 변화가 없다면 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을 것입니다.

셋째는 내일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과거와 현재, 어제와 오늘을 위해 잘 대비할 수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내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내일에도 이전의 동일한 유희들 곧 악을 행하자는 동일한 제안들을 만날 것이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죄를 극복하는 일에 여전히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현재에 대해서는 정결함을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권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만일 죄가 세상이 안고 있는 핏속의 독이라면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그 병을 유전으로 물려받았다면, 모든 질병을 위한 치료약이 어딘가에 있듯이, 죄의 병을 위한 치료약이 있어야 합니다. 이 치료약은 바로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롬1:16).

복음의 권능은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요 일1:7).

이것은 속죄와 구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15장에 잘 설명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은 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원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칭의)으로 시작되고 거룩하게 됨(성화)을 통해 진행되며 영화롭게 됨(영화)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고 있는 중이며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1.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구원의 시작(칭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칭의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롬5:1).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즉 칭의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로 죄가 없다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칭의는 다음의 예를 통해 잘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살인 혐의로 재판관 받고 유죄로 판명되어 사형을 언도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사형 집행 전에 한 사람이 감옥에 나타나 보안관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공식 문서를 전달하였는데 보안관은 그것을 읽고 그 사형수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발견합니다. 그 사형수는 한 번에 자유의 몸이 되고 자유인으로 그 감옥을 벗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는 의롭다고 인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 범죄로 인한 유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사람이 정황상 여러 증거들로 인해 유죄임이 판결되었지만 실제로는 무죄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사형 집행 날짜가 되기 전에 실제 살인범이 보안관에게 자수하여 자신이 진짜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보안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를 풀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형수였던 사람은 이제 의롭다고 인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분으로 감옥을 걸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혐의를 씌운 범죄에 대하여 그가 무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법적 개념이고 성경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죄한 사람이라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인의 위치에 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유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5:21).

한 죄인이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5:24).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립니다(롬5:1).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의 화평’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빌4:7). 여기에 좋은 실례가 하나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진행될 때 링컨 대통령은 정부에 대항한 반란군 중 어떤 사람일지라도 남부로부터 올라오면서 ‘메이슨과 디컨 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용서받을 것이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남부에서 올라온 한 사람이 한밤중에 자신도 모르게 그 라인을 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는 즉시 정부와의 화평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라인을 넘은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포와 투옥의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 새벽이 밝아 왔을 때야 비로소 지난 몇 시간 동안 자신이 안전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매우 큰 기쁨과 마음의 평화가 그의 혼을 채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화평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며칠, 몇 주, 심지어는 몇 년이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아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화평을 갖게 됩니다.

## 2. 우리는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구원의 진행(성화)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한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말했습니다(마:21).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sin)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들(sins)로부터도 구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날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들 또는 흑인 설교자들이 말했듯이 마음을 혼란시키는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빌2:12-13).

이 구절은 결코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뒤에 우리가 그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어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죄의 형벌로부터 용서를 받은 우리는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나약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가 선한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화의 사역에 협력하여 그분께서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것을 우리 안에서 뜻을 두고 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sup>1)</sup>

죄는 점진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회심하고 난 이후 우리는 진실로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잠을 깨면 당신은 몇 개의 두드러지게 나타난 가구들만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날이 밝아 오면서 당신은 벽에 걸린 그림들의 형체를 알아볼 수 있고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당신이 편이나 실 조각들 그리고 먼지들을 알아보려면 해가 완전히 떠올라야만 합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께 갔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두드러진 죄의 습관들만을 인식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속에서 자라면서 우리 삶 속의 다른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고 그것들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알게 되고 버리는 것이 진행되어 나갑니다. 우리가 5년 전에 행했던 죄들을 지금은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행한 죄들을 지금부터 5년 뒤에는 다시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 18년이 지나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쓴 글(고전5:9)에서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뒤에 그는 자기가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못하다고 말합니다(엡3:8). 그로부터 5년 뒤에 그는 디모데에게 자기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썼습니다(딤후1:15).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가 점점 더 악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그는 죄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전보다 더 많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성화를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도 완전해지지 않았고 그것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쫓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빌3:12-14).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성화가 점진적인 행위이며,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 몸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내어 드릴 때에 우리는 어느 정도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 3. 우리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의 완성(영화)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

1) 한글개역성경은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work out your own salvation)를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로 번역하고 있다. ‘work out’으로 번역된 그리스어에는 ‘이루다, 완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많은 이들은 행위를 통해 구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문을 갖는다. 그러나 이 구절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행위(열매)를 하여 구원받은 것을 밖으로 드러나게 입증해야 함을 말한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견게 하려 하심이니라”(엡2:10).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약2:26).

그분은 무덤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구속하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또 우리의 몸을 휴거 때에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구원이 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칭의로 시작해서 영화로 끝이 납니다. 칭의는 순간적인 것으로 죄의 형벌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며, 성화는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점진적인 구원이며, 영화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최종적인 구원입니다.<sup>2)</sup>

---

2)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고 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죄의 형벌 및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한다. 실제로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면 죄의 권능과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혹시 이 부분의 설명을 읽은 뒤 구원이 전 생애에 걸쳐 점진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이 점을 밝히 알린다.

## 율법과 은혜

성경은 율법과 은혜를 명백히 구분하여 율법을 한 경륜에, 은혜를 다른 경륜에 두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요1:17). 여기서 율법이라 함은 모세의 율법을 뜻하며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도덕법: 출20:1-17(십계명)
2. 시민법: 출21:1-24:18
3. 의식법: 출25:1-40:38

여기서 우리는 모세 이전에는 법이 없었다거나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은혜가 없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요일3:4). 사실 아담의 죄는 동산의 열매를 먹는 것에 관해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법을 범한 것이었으며 은혜는 아담과 이브가 그들의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었을 때 이미 적용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율법 밖에 있던 자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결코 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에 의해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이 증언하는 대로 기록되지 않은 율법이 있었음을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롬2:14-15). 사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기록된 율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언급하려는 율법은 ‘모세의 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경륜에서든지 다른 경륜에서든지 율법과 은혜는 결코 혼합되거나 혼용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 1. 율법

1. 율법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롬2:14)

율법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안식일은 결코 이방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모세 언약의 표적으로 주어졌습니다(출20:8-11; 31:13).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속한 것이며 이방인들(세상)에게나 교회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의 첫 날을 쉬며 경배하는 날로 준수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안식일이 아니며 성경 어디에서도

# 율법과 은혜



율법은 모세를 통해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요1:17). 율법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에 관한 법이다. 안식일은 결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며 모세와의 언약의 표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다(출20:12; 19-21; 겔 20:12, 19-21). 율법은 결코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그분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롬3:20; 갈2:16).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깨닫게 하려고 주어졌다(롬3:20). 유대인들의 일곱 명절이나 반제 헌물과 같은 의식법의 모든 예식과 의식은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율법을 이루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롬10:4; 갈2:19). 반면에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그분의 긍휼이다(엡2:8-9). 은혜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딤훈2:11) 은혜를 입기 위한 유일한 도구는 믿음이다(엡2:8).

**율법:**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신6:5).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요일4:10).

율법	은혜
중(히3:5) 네 신을 벗어라(출3:3-5)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레18:5). 거룩함을 요구함 양이 목자를 위해 죽음 여러 번 드리는 수많은 짐승 희생물	아들(히3:6) 네 신을 신어라(눅15:22) 살라. 그리고 행하라(엡2:8-10). 거룩함을 줌 목자가 양을 위해 죽음 한 번 드리는 영원한 희생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외에 다른 민족이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규례로서의 안식일은 폐기 또는 변경되거나 주간의 다른 날로 이전되거나 다른 백성에게 이양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과 3장 4-5절에서 예언되었듯이 지금은 안식일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sup>1)</sup>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자신들의 본토로 회복되어 돌아올 때 다시 지켜질 것입니다(사66:23; 겔44:24; 46:1-3).

## 2. 율법의 목적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그분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롬3:20; 갈2:16).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롬3:20). 만일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롬7:7). 이와 같이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고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롬3:19).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감독 교사로 주어졌습니다(갈3:24-25). 절기나 헌물과 같은 의식법의 모든 예식과 의식은 예표로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더 이상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의 모든 예식과 의식들은 그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십니다(롬10:4; 갈2:19). 따라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주의의 속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 II. 은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은혜가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은 단지 샀 혹은 임금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일 구원이 하나님께 드린 재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보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구원을 샀이나 보상으로 받게 된다면 구원은 선물이 아니라 단지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 받는 어떤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은혜에 의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은혜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공훈과 사랑입니다.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

1) 라킨이 이 책을 지을 당시인 1920년대에는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흩어져 민족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은혜의 통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요 1:17).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딤후2:11)

은혜의 도구는 믿음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엡2:8).

이 믿음은 우리가 행한 어떤 선한 행위와 같은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을 보다 더 잘 알기 위해 이 둘을 대조하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1. 피와 포도즙<sup>2)</sup>

율법을 대표하는 자로서 모세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은 물을 죽음의 상징인 피로 변하게 한 것이었습니다(출7:19-21). 그러나 은혜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물을 생명의 상징인 포도즙으로 변하게 한 것이었습니다(요2:7-11).

### 2. 어둠과 빛

모세가 칠후 같은 어둠을 일으켜 온 이집트 땅을 덮게 했듯이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둠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출10:22-23). 그러나 은혜는 빛을 가져다줍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9:5).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눈먼 자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자들도 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 3. 죽음과 생명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재앙은 죽음 곧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출12:29-30). 이처럼 율법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롬6:2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적 중 하나는 생명을 주는 것, 즉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이었습니다(요11:41-44). 예수님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 생명과 불멸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율법이 처음으로 선포되었을 때 3,000명이 죽었습니다(출32:26-28). 그러나 은혜가 처음으로 선포되었을 때에는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행2:41). [역자 주: 흥미롭게도 이 두 사건은 오순절에 일어났음.]

### 4. 벗기는 것과 입히는 것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본래 강도들에게 강탈당해 옷마저 벗겨진 채 길가에 버려져서 죽어 가는 자들이었습니다(눅10:30-37). 율법은 제사장과

---

2) 히브리어, 그리스어, 영어에서 wine은 동형이의어(homograph)로 ‘포도즙 틀에서 갓 짜내어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과 ‘시간이 지나 발효된 포도주’의 의미를 둘 다 포함하지만 성경의 전체적 용례 면에서 볼 때 거의 대부분이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말한다.

레위 사람처럼 그냥 지나쳐 버리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지만 은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있는 곳까지 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부어 주고 자신이 타던 짐승 위에 우리를 태우고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줍니다.

### 5. 찾는 것과 구원하는 것

율법은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 동안에 그분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라고 말합니다(눅19:10).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이것을 얼마나 잘 그려 주고 있습니까! 이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한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방황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아, 너는 나 없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 없이는 지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은혜가 일을 시작한 때였습니다.

### 6.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와 ‘살라. 그러면 행하리라.’

율법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레18:5)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자는 단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즉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지 않고 구원받았기에 행합니다.

### 7. 종과 아들

율법은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는 곳에서 모세에게 “네 신을 벗으라.”(출3:3-5)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종이기 때문입니다(히3:5). 그러나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혜는 그에게 “네 신을 신으라.”(눅15:22)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눅15:24).

율법은 말합니다	은혜는 말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분을 껴안으라’
‘무릎을 꿇으라’	‘그분께 입 맞추라’
‘처벌하라’	‘용서하라’
‘그를 채찍질하라’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
‘죽이라’	‘살게 하라’

율법 아래에서는 양이 목자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는 목자가 양을 위해 죽었습니다(요10:14-15).

율법은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거룩함을 줍니다.

율법은 말합니다 -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는,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갈3:10).

은혜는 말합니다 -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롬4:7-8).

율법은 말합니다 -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마22:37).

은혜는 말합니다 -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요일4:10).

율법은 말합니다 -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제사장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히10:1).

은혜는 말합니다 -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 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히10:12-14).

율법은 선언합니다 -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롬2:12)

은혜는 선언합니다 -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롬8:1).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5:24).

## 은혜의 목적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에베소서 2장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 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 주려 하심이라.

대형 박물관에는 각 나라와 각 지역에서 채집한 동물과 식물 심지어 광물에 이르는 온갖 종류의 표본들이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표본들이 모두 채집될 때까지는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모든 지파와 사람들 그리고 민족들로부터 자신의 은혜의 표본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복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 줄 샘플로서 이와 같은 은혜의 트로피를 전시하실 것입니다. 그것들 중에는 결코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구원받기에는 너무 악하고 천박하며 심보가 고약하고 괴상하며 유별난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죄인의 표본들만 저 위에 있게 하셔서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됨을 온 우주에 보이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 믿음과 행위

우리는 믿음과 행위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새가 두 날개 없이 날아갈 수 없고 배가 두 개의 노가 없이 전진하지 못하듯이 믿음과 행위 둘 다가 구원에 필수 요소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롬 3:28).

또 다른 사람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만으로 인정받지 아니하는 나라(약2:24).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서 사도 야고보가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sup>1)</sup>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고보는 자기 아들 이삭을 희생으로 드린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의 믿음을 보여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창22:1-2).

아브라함의 행위는 그의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단순히 자신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따름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약2:21-16, 창15:6, 롬4:1-5, 히11:8-16 참조). 이삭을 통해서 약속된 씨가 탄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매우 위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명령받은 대로 이삭을 희생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히11:17-19). 이와 마찬가지로 창녀 라합의 믿음도 줄을 창문에 매달았을 때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고 가시화되었습니다(수2:15-21). 그리고 믿음에 대한 행위의 관계를 보여 주기 위해 사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sup>2)</sup>

1) 성경에서 '의롭다고 여겨진다'(be justified)는 말은 종종 '의롭다고(옳다고) 인정받는다'는 의미로 쓰인다(마11:19; 롬3:4; 딤펢전3:16).

2) 성경의 대원칙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다.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과 달리 구원 교리를 가르치는 데 역점을 두지 않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삶과 삶의 열매에 역점을 둔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믿음을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약2:26).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기의 믿음을 보여 주지 못하면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 아들 이삭을 희생으로 드린 아브라함의 사건을 야고보와 똑같이 인용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기록이 무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롬4:2-3; 창15:6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한 것은 그의 믿음이었고 그를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한 것은 그의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힘써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쓰는 글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sup>3)</sup>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라(빌2:12-13).

사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갖지 않은 것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완수하기 전에(구원을 일이나 행위로 드러내기 전에)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즉 이미 구원받은 이들에게 글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교리는 구원이 단순히 죄의 형벌로부터의 탈출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의 형벌뿐 아니라 죄의 권능과 죄의 존재로부터의 해방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즉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들 안에 거하는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하고 분투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완전한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행위로 구원받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행위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열매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1. 믿음

믿음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립니다.

---

가진 사람에게서 믿음의 열매인 선한 행위가 나와야 함을 강조한다.

3) 여기의 영어 원문은 ‘work out’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성경은 이것을 ‘이루다’ 혹은 ‘완수하다’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이것을 ‘일하여 드러내다’로 번역하고 있다. 신론 등에서 우리는 워크아웃 기업이라는 말을 본다. 이미 존재하는 기업이 재정 상태를 좋게 만들기 위해 애를 쓸 때 워크아웃 기업이 된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work out’하라는 것도 이미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합당한 행위를 하라는 말이지 평생의 점진적 과정을 통해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다(172쪽 각주 1 참조).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11:1)

히브리서 11장의 나머지 구절들에서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은 이름을 거명할 필요가 있는 구약 시대 사람들의 행위를 들어가면서 믿음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지금 손에 수표 한 장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금으로 교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의 실체(종이 위에 있음)이고 제가 아직 보지 못한 돈을 받으리라는, 잉크로 인쇄한 증서(증거)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 가장 잘 보여 주는 예들 중의 하나는 예레미야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아나돗의 밭을 매입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렘32:6-44). 얼핏 보면 그것은 매우 형편없는 부동산 투자로 보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70년 동안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리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아나돗의 밭을 매입해야만 했을까요? 70년 뒤에 되돌아와서 아나돗의 밭의 소유권을 주장할 정도로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고 그의 친척들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70년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돌아와서 자기들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보여 주기 위해 그는 아나돗의 밭에 대한 값을 치렀고 그 매매 증서를 취한 뒤 진흙으로 만든 용기 속에 넣어 보관하였습니다. 왜 그가 진흙 용기에 증서들을 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철 용기는 녹이 슬고 나무 용기는 70년 안에 썩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의 매매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곧 하나님의 약속에 투자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구약 시대 족장들의 생애 속에서도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투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자기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여행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투자한 것입니다. 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녀의 유품들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로 되돌아가지 않고 그녀를 장사하기 위해 막벨라 굴을 산 것도 자신의 씨가 가나안 땅을 영원히 물려받으리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서 임종을 맞으면서 아들에게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옮겨가서 막벨라 굴에 묻어 달라고 부탁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투자한 것입니다(창49:29-31).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뼈를 그들과 함께 가져가겠다는 맹세를 받아 내었던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투자한 것입니다(창50:24-26).

모세가 믿음으로 성년이 되자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선택하여 이집트의 보화들보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더 큰 재물로 평가하였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투자한 것입니다(히11:23-27).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었고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것처럼 여기면서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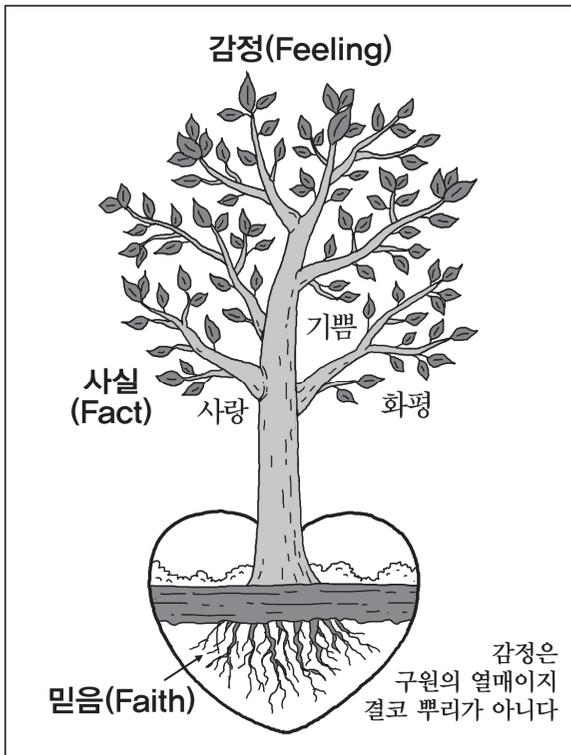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현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투자해야 합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다음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지식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둘째, 확신입니다. 비록 어떤 것에 관하여 알고는 있을지라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신뢰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관해 알고 그것을 믿을 수는 있지만 아직도 그것에 신뢰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침몰하고 있는 배 위에 있는데 구명보트가 해변으로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 당신에게로 접근하고 있다고 합시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것이

구명보트라는 것을 알려 주면 그것은 지식입니다. 그 구명보트가 많은 승객을 안전하게 해변으로 운반하는 것을 보고 당신이 그 배의 구조 능력을 확인하게 되면 그것은 확신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구명보트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구명보트가 당신을 구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배에 올라 당신 자신을 의탁하지 않는다면 결코 구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믿는 자들의 현재의 구원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들어 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지식]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확신하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현재 가지고 있다] 정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5:24).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자신들의 땅에서의 상속물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에 투자했던 것처럼, 당신은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상속물에 관한 그리스도의 약속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 증서를 받을 때 그것에 대해 반드시 어떤 특별한 감각이나 느낌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 재산에 대한 그의 권리를 증명하는 것은 권리 증서이지 느낌이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원금을 투자하기 전에는 이자(감정)가 생길 수 없으며 투자한 뒤에도 때가 되어 이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감정(느낌)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뿌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며 감정은 그 열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에 투자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약속들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고 봉사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빌4:19) 그리스도인의 봉사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로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 II. 행위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구원을 받지는 않지만 자신의 선한 행위에 대해 보상은 받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보답해 주리라(마16:27).

물론 이런 행위들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고후5:10).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같이 받으리라(고전3:11-15).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믿는 자의 행위가 모두 선하고 보상을 받을 만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동기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행위들은 나무나 건초나 짚들과 같이 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반면에 금과 은 그리고 귀중한 보석과 같은 선한 행위들은 조금도 변색되지 않은 채 불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은 왕관입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기 위한 고행이나 육신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것 그리고 금식 등과 같은 행위들은 보상을 받을 행위들의 목록에 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슬픈 일도 발생합니다. 심판석에서 자기들의 행위들이 다 타 버린 사람들은 비록 구원은 받게 되지만 보상이 없고 영원히 영광의 왕관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제19장

# 두 본성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이 사람의 두 본성에 관해 무어라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난 혼이 두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새 희망 속에서 기쁨을 누리다가도 이내 자신의 옛 본성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다시 태어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되고 마음이 무뎠어지고 실의에 빠지게 되어 떠돌다가 결국에는 예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5).

물론 그 이유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요3:6)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유전적 계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육의 계통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 계통입니다. 성경은 첫째 계통의 사람을 자연 그대로 ‘본성에 속한 사람’(Natural man), 즉 자연인이라 부르고 둘째 계통의 사람을 ‘영적인 사람’(Spiritual man)이라고 부릅니다.

### 1. 자연인

성경은 자연인을 가리켜 지각이 어두워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엡4:18). 그는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거나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고전2:14).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엡2:3). 게다가 그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며 따라서 그분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롬8:7-8). 그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되어 있습니다(렘17:9).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간음, 행음,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 등입니다(막7:21-22). 영적으로 볼 때 그는 범법들과 죄들로 인해 죽은 사람입니다(엡2:1). 그의 속에는 선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습니다(롬7:18).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를,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자연인도 초자연적인 도움이 없이는 자기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렘13:23).

물론 하나님은 자연인이 항상 세련미가 없고 교양이 없으며 부드러운 기질을 갖고 있지 않고 관대함도 전혀 없는 무정하고 거짓되며 진실하지 못한 종교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따라서 의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롬3:23).

## II. 영적인 사람

자연인이 육신의 부모를 가지고 있듯이 영적인 사람도 그에게 영의 생명을 준 존재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이미 존재하는 생명에서부터 나오기 마련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갑자기 자연 발생으로 튀어나오는 생명체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야 생명이 출생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성령님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태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합니다(벧전1:23). 자연 세계에서 씨가 생명이 없으면 싹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속에 떨어질 때 성령님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지 못하면 거기에서 새 생명이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해도 회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람은 새로 태어날 때 새 본성을 받게 됩니다. 이 본성은 영적인 본성입니다.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요3:6)

이 같은 새 본성은 죄를 짓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요일3:9).

이 새로운 영적 본성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불리며(골1:27)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부여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요일5:12).

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으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골3:3-4). 영적인 삶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운 음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입니다(갈5:22-23).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빛의 조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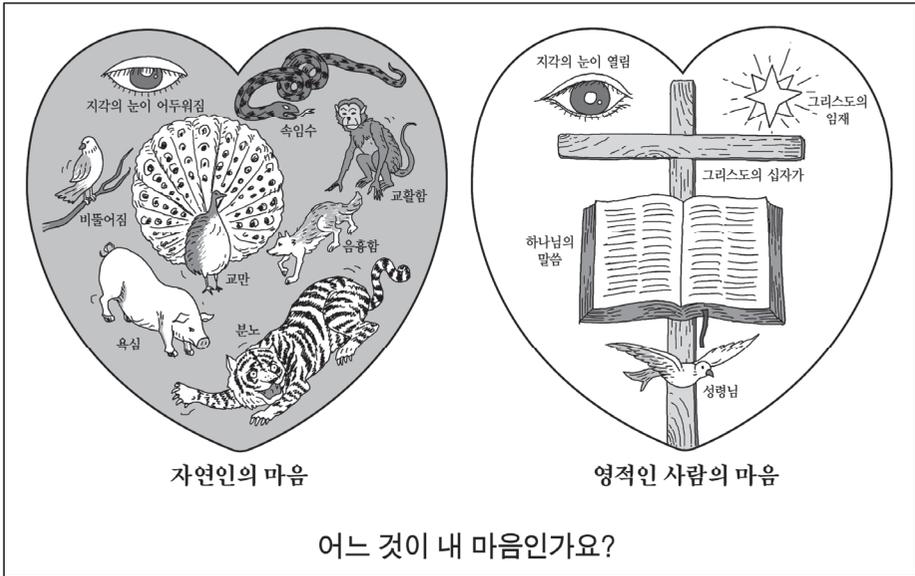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살이 살피시느니라(고전2:9-10).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자연인에서 진화하거나 혹은 발전한 사람이 아님을 즉시 알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고후5:17). 영적인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로서 자연인과는 전적으로 다르며 인격과 기질 등에서 자연인과 정반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는 모두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성경이 말해 주듯이 두 부류의 사람, 즉 자연인과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신자 안에는 이 두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 III. 새로 태어난 사람

믿는 자의 마음속에 새 사람이 태어난다고 해서 옛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것이 내 마음인가요?

옛 사람은 여전히 그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마치 한 거주지를 놓고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 것처럼, 같은 몸을 차지하려고 서로 정반대되는 두 본성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것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sup>1)</sup>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난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다는 것과 또 우리 자신이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경향이 있으며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나면 너무나 놀라고 또 어이가 없게 되어 우리는 혹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고 우리의 구원과 회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189쪽의 <두 본성> 선도를 보기 바랍니다. 이 선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4-25절에서 생생하게 묘사한 영적 싸움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 싸움은 회심한 이후에 사도가 직접 경험한 것으로 24-25절에 있듯이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 육체를 이기고 성령님이 자기의 삶을 주관하게 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 두 본성 간의 전쟁

1. 우리는 육신이 죽을 때까지 옛 성품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2. 우리는 육체를 향상시키거나 멋있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갈6:12). 더욱이

1) 어떤 이들은 갈2:20을 인용해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의 옛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옛 사람이 죽었다 해도 육신은 살아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저자는 옛 사람 혹은 옛 본성을 '아담의 죄성으로 인해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를 지으려는 경향'으로 정의한다. 성경은 이것을 종종 육신(flesh) 혹은 육체라고 말한다.

그것을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빌3:4).

3. 육신을 억눌러서 육신의 욕정을 이루기 위한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롬13:14).

4. 새 본성을 자라게 해야 합니다. 새 본성은 처음에는 갓난아이와 같으므로 순전하고 영적인 말씀의 젖을 먹여야 합니다(벧전2:2). 또한 아주 규칙적으로 먹여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문학작품도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그를 키워 줄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 사람을 굶주리게 만들어 그가 약해져서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우리가 그를 죽은 것으로 여긴다 해도 옛 사람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또 그에게 먹을 것을 준다면 그는 다시 기운을 회복하여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랫동안 경건한 삶을 살아오던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타락하여 이전에 옛 본성이 즐기던 것들로 되돌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옛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늦춘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동시에 두 본성을 양육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음악이나 행동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본성을 양육하는 것은 다른 본성을 굶어 죽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5.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5:16).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극복할 수 있는 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1. 첫째는 끊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걸러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들을 잘라 내어 네게서 던지라.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걸러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네게서 던지라.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라(마18:8-9).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손이 어떤 것을 도둑질했다면 도둑질을 서서히 줄여 나가기보다는 단번에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만약 발이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마치 발이 잘린 사람처럼 즉시 그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눈이 여인을 본 뒤 음란한 마음을 품게 된다면 오히려 실명하여 보지 못하는 편이 낫다는 뜻입니다.

2. 둘째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골3:5).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곧 살아 있는 몸의 한 부분을 죽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끊어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방법으로 이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담력의 부족함, 성급함, 자만심 등을 극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며 따라서 이런 것들은 죽여야 합니다. 이 방법은 수술로 잘라 내는 것 같은 외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약을 복용하여 치료하는 것과 같은 내적인

# 두 본성

## 로성에 속한 사람

첫째 아담으로부터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받음

(창5:3;  
롬8:6-8;  
고전2:14;  
엢2:3)

## 다시 태어난 사람

옛 본성  
육신

새 본성  
성령님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육신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갈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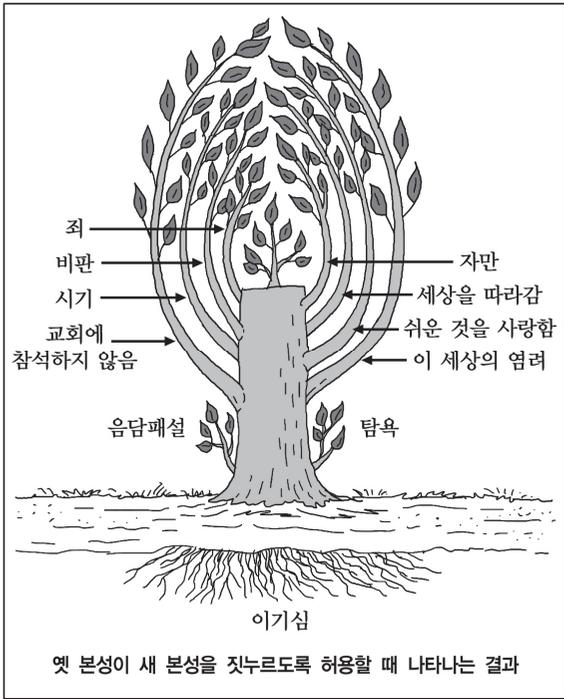
(롬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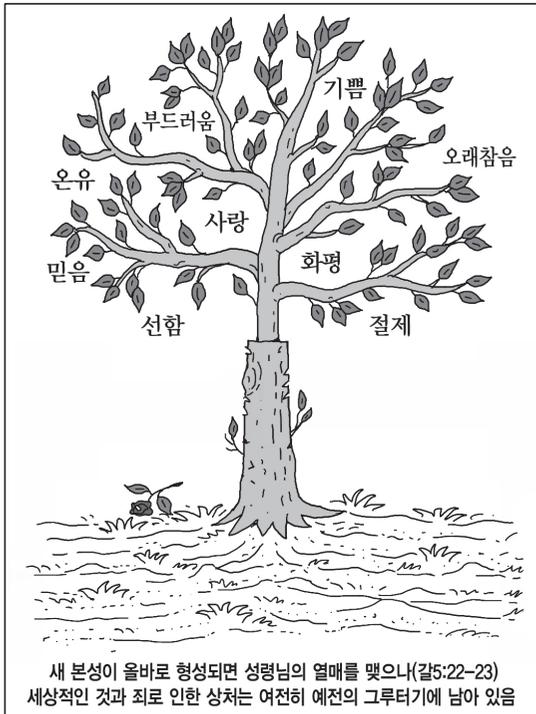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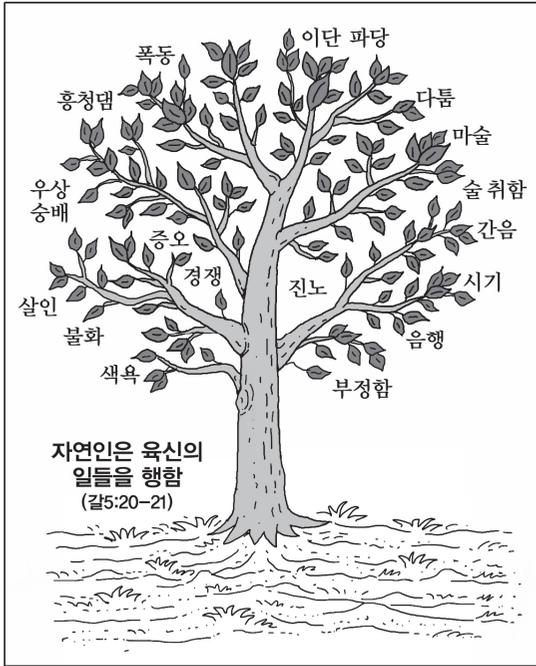
## 영적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초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받음  
(벧전1:23)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느라(갈2:20).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빌2:12-13).

### 3. 셋째는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 길을 달려가며(히12:1)

모든 무거운 것과 죄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무거운 것이 되지만 무거운 것이 다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업의 노예가 된다거나 혹은 다른 중요한 책임을 간과할 만큼 사회봉사에 몰두한다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거운 것들로 그 사람이 적절하게 영적인 삶을 개발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제한해야 합니다. 반면에 모든 죄는 무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짓누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할 때에 방해를 놓기 때문입니다.

##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상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고, 둘째는 구원은 받았으나 그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며, 셋째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보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그렇겠죠.”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라고 대답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억지 추측에 불과하며 죽을 때까지는 결코 그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위치와 상태 그리고 경험을 서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1. 그리스도인의 위치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대해 올바르게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무어라 말할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아들의 위치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신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1:12)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sup>1)</sup>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다 그분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요일3:2).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롬8:17).

이렇게 상속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

1) 우리가 다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의 증거와 과학의 증거를 보여 주며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교육을 시킨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원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친다. 즉 사람이 자기가 가던 길에서 180도 돌이키며 믿음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영이 속에 거할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벧전1:4-5).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요10:28-29). 왜냐하면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고(엡4:30) 우리의 생명, 즉 영적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골3:3).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 놓았다면 내가 그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6장 4-6절에 나오는 ‘떨어져 나간다’는 말과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있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 있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혹시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유대인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독자에게 적용이 되나 이방인이라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배도한 유대인을 향한 것이고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sup>2)</sup>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자마자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에게 닥쳐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출12:13)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안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상태> 선도를 보기 바랍니다.

---

2) 히브리서 6장에서는 몇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는 6절에서 가정법이 쓰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떨어져 나가 다시 새롭게 되는 일이 말 그대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셋째는 사도 바울이 9절에서 ‘비록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지만’이라고 양보의 형태로 이 일을 기록한 점이다. 즉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가정법을 써서 과장되게 표현했다고 스스로 말한다. 비록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그는 결론을 맺는다. 또 히브리서 10장의 경우 26-29절을 살펴보면 여기의 심판 혹은 형벌이 육체적인 죽음을 알 수 있다.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극도의 죄를 지으면 죽임을 당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구약에서는 나답과 아비후(레10:1-7), 고라와 그의 형제들(민16), 아간(수6-7), 웃사(삼하6) 등이 있고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행5), 음행한 자(고전5:3-5), 주의 만찬을 무시한 자들(고전11:30),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딤후1:19-20) 등이 있다. 성경의 요점은 성도들이 스스로 죄를 판단하고 고백하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이다(히12:1-13). 여기서 9절을 보면 의미가 확실해진다. 그래서 육체의 사망으로 이끄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친다(요일 5:16; 약5:14-20; 램7:16). 끝으로 마24:13 등을 인용하며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거기의 끝은 목숨의 끝이 아니라 세상의 끝, 즉 말세의 전환한 속에 들어간 유대인들이 환난기의 끝까지 견뎌야 함을 말한다(마24:6, 13-14 참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므로 그는 결코 구원을 잃지 않는다. 사람의 구원과 구원 유지는 모두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상태

위치

이집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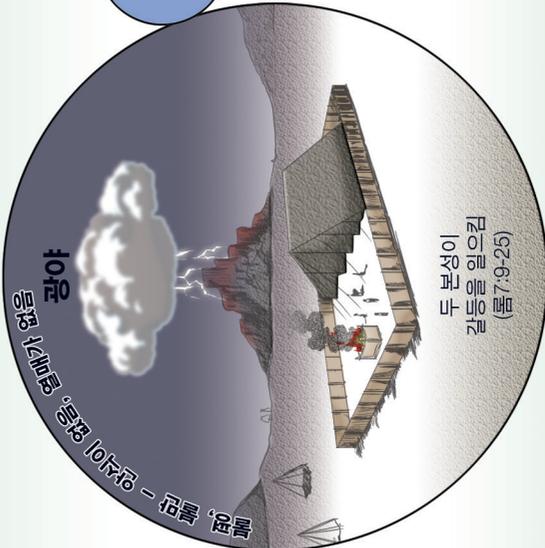


유월절  
(출12:1-51)  
피에 의해 구원받음

이 세상의 예표

상태

관아



두 본성이  
감동을 일으킴  
(골7:9-25)

육신의 예표

경험

가나안



에스콜의 포도  
(민13:23)  
민들의 안식

마귀의 예표

가데스  
바네아

여리단 강

## II. 그리스도인의 상태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정착되어 확고하지만 그의 상태는 일정하지 않고 변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한 본성만을 갖고 있었으나 새로 태어난 뒤에는 두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아담 곧 영적인 본성을 받았다고 해서 옛 아담, 즉 육신의 본성을 잃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에서 태어난 것은 여전히 육이요 오직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만 영이기 때문입니다(요3:6). 따라서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4-25절에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 것처럼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뒤에 직접 체험한 것으로 믿는 자들이 두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 줍니다. 그래서 두 본성 중 어떤 본성이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죄가 없는지 혹은 죄로 가득한지가 판가름 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 본성,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본성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요일3:8).

그러나 육신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놔두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일 뿐만 아니라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요일1:8-10).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죄’(sin)와 ‘죄들’(sins)을 구분해야 합니다. 죄란 우리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를 범하려는 성질 혹은 성향을 가리키며 종종 원죄 또는 타고난 타락성이라 불립니다. 죄들이란 우리 안에 죄를 지으려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특정한 죄들을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성질, 즉 죄성을 제거하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써 죄성이 없는 새 본성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본성은 죄를 짓지 못합니다. 두 본성에 대한 19장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를 향해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 한다.”(롬6:1-2)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여기에서 의미한 바는 우리가 판결을 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우리가 새 본성을 받아 죄의 법을 향해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사도는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롬6:11).

이 말은 우리 자신을 죄를 향해 죽은 자로 여기고 또 옛 생활 습성을 향해서도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5:16)라고 말하며 또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롬 6:12)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될 때 다음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롬6:14).

위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믿는 자의 위치는 확고히 정착되어 안전하나 그의 상태는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 본성이 그를 지배하느냐, 새 본성이 그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그는 죄로 가득하기도 하며 죄가 없기도 합니다.

### III. 그리스도인의 경험

경험에 관한 한 믿는 자들은 세 장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세상의 모형인 이집트에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육신의 모형인 광야에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는 마귀의 모형인 가나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이 거하는 집의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뿌리는 순간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도 비록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여전히 살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 영혼에 적용하는 순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를 뒤로 하고 떠났으나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거하면서 그들은 어떤 때는 이집트 쪽을 바라보며 예전에 먹던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그리워하는가 하면 때로는 가나안 쪽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에서 얻을 새 곡식과 포도즙 그리고 무화과와 석류를 고대하며 방황합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안식도 없고 열매 맺음도 없이 불평만을 일삼으며 방황합니다.

어떤 이들(신자들은)은 가데스바네아까지 갔고 또 가나안에 도달하여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송이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인들과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을 보고는 이내 겁에 질려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기를 거절하였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수십 년 동안 방황하다 자신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숨까지 잃고 말았습니다(민13:1-33).

또 다른 신자들은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그리스도의 예표인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으며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나안의 일곱 족속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버림으로써 소유를 얻게 되고 자기들이 밟은 땅을 다 다스리게 되리라는 약속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수:3)

가나안은 결코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전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나안은 믿음의 안식과 승리하는 삶의 모형입니다.

한편 가나안은 마귀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이 이집트(세상)에 머물러 있거나 육신에 정복당한 채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가나안에 도달하면 마귀는 그들이 밟을 디디는 곳마다 나타나서 대적하며 그들이 승리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지금까지 살려온 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는 끊어질 수 있으나 이미 맺은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탕자가 자신의 몫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남으로써 그와 아버지와의 교제는 끊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아들로 반겼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겠느냐?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롬8:35)

## 새로 태어나는 것과 침례

새로 태어나는 것과 침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소의 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가 구원하는 의식이며 그 의식을 행함으로써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성사(Sacrament)<sup>1)</sup>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아기를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빨리 유아 세례를 받으려고 안달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과 침례라는 주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말들의 성경적 의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것은 내적인 경험이고 침례는 외적인 행동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1. 새로 태어남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고(요3:3, 5) 둘째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도박꾼이나 술주정뱅이 혹은 도둑이나 난봉꾼 혹은 이교도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을 말씀하지 않았고 엄격한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의 공회 회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이며 랍비이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며 율법과 성경에 해박하고 그 시대의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며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출생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랑할 만한 출생 특권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에게 한 자리를 얻게 해 주지 못한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에게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다 해도 첫 번째 출생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두 번째 육적 출생에 의해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천 번 만 번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육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

1)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전달되는 예전을 말한다. 즉 성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은혜의 통로라고 할 수 있다.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세례 성사, 견진 성사, 성체 성사, 고해 성사, 혼배 성사, 병자 성사, 신통 성사의 7가지 성사(이를 7성사라 부른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주장한다(<위키백과>). 하지만 이것은 성경과 배치된다.

# 사람의 상태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렘13:23).

보소서, 내가 불뿔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시51:5).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롬3:10)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그의 몸에는 첫 사람 아담의 피가 흐르므로 그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즉 사람은 죄를 지으므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모태 신앙'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고 '모태 죄인'이라고 해야 맞는다. 사람 안에는 본성적으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롬7:18). 성경은 본성에 속한 사람 즉 자연인을 가리켜 '지각이 어두워진 사람'이라고 말한다(엡4:18). 그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일을 인식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전2:14).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엡2:3)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고 따라서 결코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없다(롬8:7-8). 그의 마음은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여 부패되어 있다(렘17:9).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등이다(막7:21-22). 영적으로 볼 때 그는 죄와 범법으로 인해 죽은 존재이다(엡2:1).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자연인도 초자연적인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다(렘13:23). 이런 상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일이 구원의 첫걸음이다.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세상의 어떤 창조물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그를 지으신 분 곧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를 변화시켜 새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왜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그 이유는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요3:6).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입니다(요일3:10).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요8:37-44).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영적인 형제로 연합되는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자기의 개인적인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요1:12).

요즘에는 사람들이 인간성 개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 본성의 도덕적 진화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며 선택에 의해 또는 육체적이고 도덕적이며 지적인 접합에 의해 초자연적인 남자들과 여자들의 종족을 생산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며 인류의 역사와 성경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은 발달 또는 개혁이라고 불리는 '점진적이거나 순간적인 변형'에 의해 옛 본성이 새 본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감화 혹은 개혁이 옛 본성을 가진 육체를 개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종교적인 육체일 뿐입니다. 성경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만일 우리가 길가에 있는 췌기풀을 정원이나 온실에 가져다 놓고 보살피고 물을 주며 따뜻하게 해 준다면 아름다운 췌기풀이나 본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췌기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췌기풀일 뿐입니다. 결코 췌기풀로부터 무화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마7:16)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렘13:23).

그렇다면 새로운 출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새로운 본성을 이식하는 것으로 새로운 생명의 교통입니다.

자연적으로 생명이 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앞서 존재한 생명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 없는 무기적인 세계와 생명이 있는 유기적인 세계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돌은 스스로 무기적 상태에서 유기적 상태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이 두 세계 사이에는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은 유기적 세계 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돌은 그 문을 열 수 없는 반면에 식물은 열 수 있습니다. 식물은 그 뿌리들을 흙 속으로 밀어 넣음으로써 돌을 부술 수 있으며 돌의 화학적인 구성 요소들을 취하여 그 요소들에 자신의 생명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식물 세계와 동물 세계 사이에도 문이 하나 있으며 그 문은 동물 세계 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식물은 그 자체를 육으로 변화시킬 수 없지만 동물은 그 식물을 먹음으로써 식물적 생명에서 동물적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사이에도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육적인 쪽에서는 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조각가가 대리석 조각을 취하여 살아 있는 것 같은 형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대리석이며 생명이 없는 물체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부모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인간의 마음이 태(어머니)가 되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됩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벧전1:23)*

만일 자연 세계에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씨에 생명이 없다면 어떠한 새로운 생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사람의 마음에 떨어질 때 성령님에 의해 생명력을 부여받지 못하면 어떠한 새로운 출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는 있지만 회심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다음의 말씀을 천 번이나 듣고 읽었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요5:40). 그런데 어느 날 거리에서 그는 이 말씀이 큰 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카드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공공연히 드러난 것으로 인해 화가 났고 또 자신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으로 인해 기분이 상해 그 카드를 갈기갈기 찢고 모독적인 말을 해대며 시궁창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기억으로부터 그 사건을 지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기억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이 사업에 능력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극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카드에 쓰인 말들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을 떠나 집으로 가서 밤을 뜬눈으로 꼬박 새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말씀은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생명력을 부여받았고 태 속에 떨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생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 자체 그대로 두면 그것은 자기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를 회심하게 했던 성경 구절을 기억하거나 회상할 수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출생을 일으켰던 그 말씀의 씨앗을 움튼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시 태어나는 방법

만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면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새로운 출생의 수단과 방법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지 보여 드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세 예화를 사용하셨습니다. 첫째는 출생의 예, 둘째는 낫뱀의 예, 셋째는 바람의 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첫째 예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둘째 예를 상고해 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3:14-15).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는 낫뱀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민21:4-9).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려다가 낙담하게 되었고 모세를 대적하여 불평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낫뱀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아 그것을 장대에 달았는데 누구든지 낫뱀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의 독으로부터

치유받게 된 이야기를 니고데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뱀은 마귀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뱀은 마귀의 일을 저지하고 멸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들려진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로 들려지신 분,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위로 들렸으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들렸습니다.

내가 땅에서부터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겉으로 드러내 보여 주시니(요12:32-33)

그날 밤 예수님과의 대화는 너무도 강력해서 나중에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몸을 장사하기 위해 그분의 몸 위에 몸을 구부렸을 때 니고데모의 기억 속에 그것이 다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니고데모가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이것이 바로 그날 밤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요한의 집에 계시던 그분을 방문했을 때 그분께서 내게 설명해 주셨던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네. 그분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듯이 자기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야말로 그분은 위로 들리셨네. 그분을 조심스레 모시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일세.”

이제 광야의 장면을 공부해 봅시다. 우리가 그것이 주는 교훈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구원받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1.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뱀에게 물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뱀의 독의 상처를 느끼기 전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은 죄의 독이 자신의 혼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영적인 건강에 대해 어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2. 둘째로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치료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뱀에 물렸을 때 그 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면 무지함으로 인해 멸망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그들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치료약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치료약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3. 셋째로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치료약도 그것을 쓰기 전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만일 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기를 거절하였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의 상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면 그는 자신의 죄들 속에서 죽을 것입니다.

뱀에 물린 한 이스라엘 사람이 뱀을 바라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오! 나는 뱀 조각에 대해 어떤 믿음도 가지지 않아요. 나는 파스 찜질을 해 보거나 집에 있는 약을 마셔 보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선행, 고행, 음악, 세속적인 오락 그리고 종교적인 습관과 같이 양심의 고통을 순화시켜 주는 인공 치료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뱀에 물린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뱀이 어떻게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알기 전에는 그 뱀과 아무런 상관도 아니할 것이요.

나는 어떻게 그것이 나를 치료하는지 그 철학을 알고 싶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의 형상으로 된 뿔 조각으로 물린 상처를 문지르거나, 뿔 조각을 취하여 약간의 풀과 함께 달여서 먹을 수 있는 약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사물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단순히 상대 위에 달린 뿔뱀을 바라보는 것은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것이요 나는 그것을 보기 전에 죽을 거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그 같은 속죄의 철학을 이해할 수 없소. 그래서 당신이 내가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요.”

뱀에 물린 한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내 상태가 좀 더 나아지는지 보기 위해 내일까지 기다려야겠소. 만일 내가 좀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보기 위해 그 뿔뱀을 쳐다보겠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은 영적인 상태가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바람 속에서 살고 있으며,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종교에 한번 의지해 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뱀에 물린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이웃과 비교해 보면서 “내 상처는 내 이웃의 것만큼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가 살아 있는 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웃과 비교해 보면서 “나는 그들만큼 나쁘지 않아. 만일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도 그렇게 될 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그 상처를 바라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치료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치유하는 것은 뿔뱀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에 물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만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이웃과 우리 자신과 교회와 장식품들과 제사장들로부터 떼 내어 갈보리의 십자가에 고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일을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뿔뱀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치료약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 안에도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행4:12). 뿔뱀을 바라보기를 거절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듯이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도 죽을 것입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데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에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그 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다.)(살후1:7-10)

##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바람의 비유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나니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요3:8).

당신은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은 그 자체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람의 영향을 받아 무언가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인지하는 것뿐입니다. 바람에 의해 나무들과 먼지 구름들이 흔들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바람의 존재와 그것의 영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바람처럼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분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영향을 통해서만 그분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출생 표시가 있습니다.

1.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자신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롬8:16; 요일5:10).
2.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합니다(요일3:24).
3.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요일3:14).
4.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요일5:4).
5.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롬8:14).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성향과 기질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언어를 소유할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의 언어를 말할 것이고 하늘의 일들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의 음식은 더 이상 소설이나 문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노래를 소유할 것입니다. 이 노래는 더 이상 가곡 형태와 음유적인 가락이 아닌 거룩한 음악입니다. 그는 새로운 교제를 추구할 것입니다. 예전의 교제들, 즉 세상적인 교제들은 깨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추구할 것입니다.

## II. 침례

지금까지 우리는 새로운 출생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이 내적인 경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침례의 의미와 목적을 연구해 봄으로써 우리는 침례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출생을 상징으로 보여 주는 외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구절의 물은 침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출생과 물에 의한 침례 두 개가 모두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물이라는 단어는 물에 의한 침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sup>2)</sup>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약1:18).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벧전1:23)

침례는 오직 믿는 자들을 위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행8:36-37). 그러므로 침례를 받기 전에 우리는 먼저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책임 있는 나이에 이르러 믿고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을 행사하기에 충분하게 성숙한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침례를 받을 수 없으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침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견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롬6:3-5).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고전1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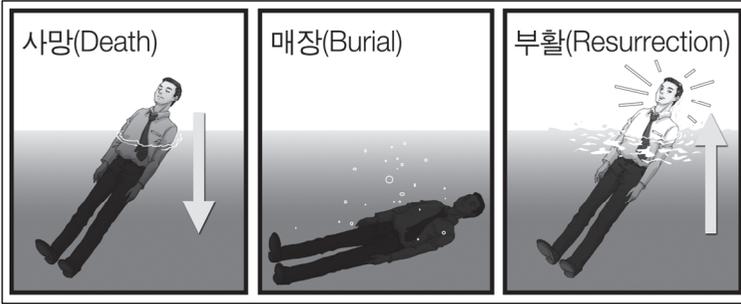
여기서 우리는 간결하게 정리된 복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을 상징으로 보여 주고 오직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형태의 침례만 유일하고 완전하게 그것들을 상징으로 보여 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침례는 믿는 자가 옛 생활에 대해서는 죽었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침례 받는 장소에서 물 무덤 속에 묻혔다가 부활한 생명으로 행보하기 위해 물속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것보다 더 침례의 의미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징은 그 대상자를 뒤로 눕혀서 한 번 물 안으로 잠기게 하는 것으로 유일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엮어진 상태로 사람을 묻지

---

2) 요한복음 3장 5-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에서 태어나는 것을 육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해석해 주신다. 따라서 여기의 물은 육신적인 출산, 즉 양수와 함께 아이가 모태에서 나오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않으며 또한 장례를 세 번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sup>3)</sup>

셋째로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장사되어 부활한 것을 상징합니다. 즉 침례는 그분과 우리의 연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새로운 출생과 침례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침례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집행인이 그리스도인을 위해 행하는 외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출생에 의해 그리스도인 안에 이미 효과를 발휘한 것, 즉 구원을 상징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새로운 출생은 초자연적인 것이며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 자체는 사람을 구원하는 어떠한 능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독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의 구원자께서 침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막16:15-16). 둘째, 침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규례이기 때문입니다(행8:36-37; 16:14-15, 27-33). 셋째, 믿는 자로서 우리는 자신을 다른 믿는 자들의 몸, 즉 교회 모임과 연결해야 하며 그러한 연결의 문이 바로 침례이기 때문입니다(행 2:41-42).

3) 어떤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을 확대 해석해서 삼위일체에 따라 침례 대상자를 세 번 물속으로 넣어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행한다.

## 선택과 자유 의지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교리가 있는데 이 선택은 봉사뿐만 아니라 구원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어떤 조건하에서 사람의 자유 의지에 대한 교리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사람의 자유 의지를 조화하기란 어렵지만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은 구원의 교리를 이루는 데 필요한 두 개의 짝으로서 선택은 하나님 편에서의 일이고 자유 의지는 사람 편에서의 일입니다.

선택의 교리가 왜곡되면 운명론 혹은 무능력 교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부인하며 따라서 구원받는 일에 사람이 전혀 책임이 없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피니 목사<sup>1)</sup>는 평생토록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바로 이 악한 교리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길을 잃은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자신만 아는 특정한 목적, 즉 자기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사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성경 전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 대신에 아벨을 택하셨고 함과 야벳 대신에 셈을, 나홀 대신에 아브라함을, 마음이 후한 에서 대신에 피 많은 야곱을, 맏아들 므낫세 대신에 동생인 에브라임을 선택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도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이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흠을 베풀 자에게 공흠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공흠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롬9:15-16).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친히 공흠을 베풀 자에게 공흠을 베푸시고 친히 강박하게 할 자를 강박하게 하시느니라(롬9:18).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

1) 찰스 피니는 극도의 알미니우스주의를 믿고 가르쳤으며 그의 가르침에는 많은 부작용도 있다. 여기서 저자는 자유 의지를 가르친 사람의 예로 그를 언급하였을 뿐이다.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력이 없겠느냐?(롬9:21)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며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라(요15:16).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행13:48).

[그분께서]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엡1:4-5)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상형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살후2:13).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인데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딤후1:9)

위의 구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세상의 창건 이전에 어떤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는 말씀은 이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몇 가지를 보여 줍니다. 첫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혹은 결심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제한된 숫자만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처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정하신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며 봉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넷째,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정해진 자들은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한편 성경은 사람의 자유 의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6:37).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1:12)

그러나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요5:40).

성경에서 맨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은 특정한 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모두를 향한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상형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계22:17).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이런 모순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것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미리 아심’(예지)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벧전1:1-2).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8:29-30).

위의 로마서 구절에서 중요한 단계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히 구별하는 단계, 즉 성화의 단계입니다. 이 성화의 단계는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화는 그전의 말씀, 즉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에 들어 있으며 그 위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곧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이라는 말씀 또한 이를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택하다'(chosen), '예정되다'(predestinated), '미리 정하다'(foreordination 혹은 before ordained)라는 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택하다'라는 단어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사실을 보여 줍니다.

[그분께서]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엡1:4)

'예정되다'라는 단어는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미래에서의 우리의 상속 유업이 예정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엡1:11)

'미리 정하다'는 현재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엡2:10)가 오래전에 미리 정해졌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엡2:10).

이 셋째 단어는 첫째와 둘째 단어를 연결해 주며 우리의 구원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잘 보여 줍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예언 자체가 사람의 행위나 사건들을 미리 결정짓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사실이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것과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할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했던 일을 반드시 하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한 일들에 대해 그들이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나 예정은 그 사람이 복음을 접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지 혹은 거부할지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선견지명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미리 아심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예정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예정하셔서 정죄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임의적이거나 강압적인 선택이 아니며 사람의 자유 의지와도 전혀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제가 1850년 10월 28일에 태어날 것과 1869년 5월 어느 저녁에 YMCA 기도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리 아신 대로 그분께서는 필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정해 주시고 어린양의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제가 예술적 재주를 갖고 태어나 선도의 형식으로 성경의 진리를 제시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목적을 위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을 받아 이처럼 성경에 대한 책들을 쓰고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제가 종교적 성향을 많이 갖고 태어났지만 자연적으로, 즉 나 자신의 내적 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으며 제 밖에 있는 외부적인 힘, 즉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힘에 의해 저의 자유 의지에 역행하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며 저의 소망과 부합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사람의 자유 의지는 조화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사람의 의지에 관해서 살펴봅시다. 의지라는 것은 곧 선택을 하는 능력입니다. 의지는 스스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은 정신이 아닙니다. 의지는 단지 취해야 할 행로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악하면 의지도 악하고 마음이 선하면 의지도 선합니다. 자연인, 즉 본성에 속한 사람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자연인의 마음의 성향이란 그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피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의 의지가 그 마음의 자연적 성향을 거슬러서 행동하려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밖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 조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힘이 바로 성령님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연인은 그 의지가 성령님의 힘 아래에서 복종될 때까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의지가 성령님의 힘 아래 있게 되면 자유 의지를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의 의지는 자유로워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담은 무죄의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기록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지는 도덕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의 경우는 그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타락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으며 그의 의지는 더 이상 도덕적 평형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오?(렘17:9)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의지는 도덕적으로 평형 상태에 놓여 있던 첫 아담의 의지와 달랐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자연인의 의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의지는 전혀 악을 향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룩함을 향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지가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악한 마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의지가 선택하는 바가 다 악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자연인이 악을 좇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악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마음이 완악해져서 외부에서 오는 좋은 영향을 거부하고 육신의 정욕에 몸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본성은 스스로 거룩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요6:44).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어 깨닫게 하노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고전12:3).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인의 무능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사실이 사람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구원을 찾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땅에서부터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빛에 따라 구원을 받아야겠다고 느끼며 또 그 일이 자기 밖에 있는 외부의 힘에 의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는 어디에서 어떻게 그 힘을 찾아야 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예수님이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롬1:16). 그런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롬10:17).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믿을지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의 필요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새 본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 성령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요3:5).

그런데 사람이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자유 의지를 발휘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스테반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이 뻗뻗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행7:51).

그러므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의 지배를 받는 의지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간구를 거부하고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사역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이 자기들의 의지에 역행하면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죄들의 용서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었고(행13:38)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명령하시며(행17:30)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간청해야 한다면(고후5:18-20),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진실한 약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택하셨으므로 그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의 후보자가 되지 못한다면 결코 선택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다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다 구원받고자 하지 않는 자들이다.”

끝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표적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새로운 출생을 의식함
2. 삶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있음
3. 점진적으로 성화됨
4. 신앙의 굴곡이 없이 주님과 동행함
5. 믿음 안에서 인내함

## 그리스도와 신자의 내주 관계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본 독자라면 누구나 상반되는 내주 관계를 분명히 보여 주는 역설적인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해 나를 믿으라(요14:1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요17:21).

그다음으로 그리스도와 신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요6:56).

이것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 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요15:3-5).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또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다는 것은 식물학적으로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나무와 가지가 자란다는 것은 이 둘이 서로에게로 자라나는 것을 뜻합니다. 나무와 가지를 갈라놓는다는 것은 서로를 연결해 주는 섬유질을 절단하는 것이므로 둘 다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같은 상호 내주 관계는 자연 속에서도 아주 아름답게 예증되어 있습니다.

흙, 공기, 물, 불의 네 요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무나 풀은 흙 속에 있고 흙도 나무나 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새는 공기 안에 있으며 공기도 새 안에 존재합니다. 물고기도 물속에 살며 물도 물고기 속에 있습니다. 쇠는 불 속에 있으며 또한 불이 쇠 속에 있습니다. 식물과 흙, 새와 공기, 물고기와 물 사이의 상호 관계야말로 생명체의 삶을 위해 필요합니다.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의 상호 내주 관계 역시 신자의 영적인 삶에 매우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 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요14:19-20).

그러면 그리스도와 신자들이 서로의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에 관한 중요한 사실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봅시다.

## 1.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에 의해 이미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위치를 말해 줍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혹은 ‘그분 안에’라는 구절은 신약 성경에 무려 13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머리가 몸에 붙어 있듯이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신자의 상호 내주 관계> 선도가 이 같은 관계를 잘 설명해 줍니다. 선도의 원(圓)을 구(球)로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더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루 위에 원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다면 그 원이 1차원적인 의미에서 당신을 감쌀 것입니다. 그런데 둥글게 생긴 방 한 가운데 자신이 서 있다고 가정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방으로 벽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적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이나 안전은 공 모양의 방의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더 좋은 예를 들자면, 어머니 배 속에 있는 태아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태아는 외부의 위험에 구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지냅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핏줄을 따라 공급되는 것을 섭취하며 자라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어머니의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같은 관계에 대해 태아는 어머니 안에 있고 어머니도 태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구절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전체 신약 성경을 풀기 위해 하늘에 계신 해석자께서 사용하는 열쇠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예로 들어 봅시다. 고린도전후서를 하나로, 데살로니가전후서를 하나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로마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집니다(3:24).

고린도전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됩니다(1:2).

갈라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2:20).

에베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1:3).

빌립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집니다(1:11).

골로새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합니다(2:10).

데살로니가후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습니다(1:12).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의 위치는 그리스도의 위치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롬6:6)
2.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골2:12)
3.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엡2:5)

# 그리스도와 신자의 상호 내주 관계



4.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남(골3:1-3)
5.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됨(롬8:17)
6.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음(롬8:17)
7. 그분과 함께 영화롭게 됨(롬8:17)

이 말은 결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실제로 그분 옆에 있던 강도들같이 십자가에 달렸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 나도 주님이 묻히신 무덤 근처의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말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일어나셨을 때, 나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과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신자로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본질적으로 아담의 자녀로 태어났기에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는 둘째 아담, 즉 그리스도의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게 되며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든지 간에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내 안에 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나도 그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땅에 묻혔을 때 나도 땅에 묻혔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 나도 일어났으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나도 같이 하늘에 올라갔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에 나도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과 함께 나도 다시 올 것입니다.

한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유전의 법칙에 따라 그 아이는 그의 족보에 따라 그 가정의 내력과 관습과 사회적, 정치적 권리나 특혜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상속법에 따라 그 아이는 그 가정의 재산도 물려받을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아이가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며<sup>1)</sup>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래에 있을 상속을 받을 자격을 얻음과 동시에 과거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경험도 함께 자기 것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지위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만드는 것이며 이것은 곧 우리가 성경이 밝혀 놓은 우리의 존재를 실제로 이루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지위와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왕은 왕답게 행동하고 백만장자는 백만장자처럼 행동하며 거지는 거지처럼 행동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죽은 사람이 입는 수의를 더 이상 입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대로 남겨 놓은 채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수의는 이제 주님의 몸이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의 몸이 부활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수의 대신에 부활한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옷을 입으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묻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습니까? 만약

---

1)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divine nature)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벧후1:4).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옛 사람의 옷을 벗어서 담대하게 무덤에 버리십시오.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를 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 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없으며 바바리인이나 스키타이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라(골3:8-14).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새롭게 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환경 속에서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생물은 자신이 적응을 한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새에게는 대기가, 물고기에게는 물이 그 영역입니다. 이같이 정해진 영역 안에 살려면 그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데는 새로운 창조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새로 창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후5:17).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실로 커다란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안전을 약속받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상속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낼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날라(골 3:4).

## II.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생명이 길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행동을 통해서 혹은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는 엉경귀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되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너희가 그들을 알리라(마7:16-20).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마지막 비유이며 중대한 비유였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요15:1-8 참조).

포도나무가 우선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하나 되인데 이 하나 됨이란 기계적인 하나 됨이 아니고 유기적인 하나 됨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한 뿌리에서부터 가장 높게 솟은 가지에 이르기까지 뿌리, 줄기, 가지, 잎, 꽃, 열매, 이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요15:5).

포도나무의 의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동하기 쉬운 행위와 열매를 구분해야 합니다. 행위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나 성도들 사이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봉사과 같은 외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열매는 내적인 것으로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갈5:22-23).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맺어야 할 아홉 개로 구성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 어떤 이들에게는 선하게 열매를 맺는 일이 고되고 무척 힘겹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 한 가지 비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던 것을 멈추고 성령님께서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기만 하면 우리 삶에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일입니다. 가지는 열매 맺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은 바로 포도나무가 집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수액입니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은 수액이 온 가지로 골고루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열립니다. 만약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수액이 나무와 가지에 퍼지는 것을 방해한다면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오만, 탐심, 세상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세상일이 장애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열매를 맺는 데 큰 방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지 치는 칼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요15:2).

이것은 징계의 비밀입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 보면, 가지를 치는 이유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두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포도나무는 다른 어떤 나무보다 더 많은 수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포도나무는 다른 어떤 나무보다 빨간색을 더 많이 제공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면 수액이 곁가지들, 즉 빨간색이 될 부분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 단지 열매만 맺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지치기를 통해 이루어지며 가지치기란 썩어 난 가지 전체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 욕심내는 것 등과 같은 곁가지들을 잘라 버립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결정되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의 깊게 가지를 치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는 일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요15:7).

이 구절에는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이 있고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기도의 절대적인 대현장입니다. 따라서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첫째 조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요일5:14).

그러면 성경기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확실히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내려보내 줄 것과 자신이 한 모든 말을 그분께서 기억나게 해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분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확신을 갖고 오순절 날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아버지께서는 주실 수 있습니다(요16:23-26 참조).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확신 있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밝히 말해 주는 성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 기도를 하시는 성령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형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상형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상형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또한 요한1서 5장 14-1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거든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반드시 계시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확신을 갖기 위해

암송하기 좋아하는 약속의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마18:19).

대개 사람들은 이 구절에 명시된 약속이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모여서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는 전혀 그러한 뜻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마음이 되면’이라는 말은 매우 암시적인 말입니다. 이 말의 어원으로부터 교향곡, 즉 심포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만일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하는 것에서 일치하면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함께 꾀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 했습니다(행5:9). 그 두 사람은 합심을 했지만 성령님과와는 합심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들을 조율할 때 모든 음은 기준 음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두 사람만 합심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들은 셋째 분, 즉 주님과 더불어 합심해야만 하며 하늘의 조율사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한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약속에 대한 열쇠는 바로 다음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마18:20).

이것은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곳에 한 분이 더 계시고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해도 그곳에는 한 분이 더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예전에 서로 동의하자고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뜻이 거룩하신 분의 뜻과 일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요 16:23).

그분께서는 ‘내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무려 여섯 번이나 되풀이하셨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이루어진 하나 됨은 그때까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려주실 때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구한다면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실상 구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은 구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뜻이 결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못합니다.

다음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일 라파엘과 같은 화가가 되고 싶다면 단지 라파엘의 그림을 복사하고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라파엘과 같이 되려면 그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뇌와 손을 조종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처럼 기도를 하려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밝히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내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 그리스도의 세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언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 직분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시지는 않으며 순서대로 수행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대언자로서의 사역을 창조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이미 수행하셨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승천하신 때부터 교회가 휴거를 받을 때까지 수행하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사역은 7년 환난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땅에 재림하시는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왕국을 넘기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때까지 행하실 것입니다(고전 15:20-28). <그리스도의 세 사역> 선도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1. 대언자로서의 사역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그분께서는 이미 대언자로서 많은 대언(예언)<sup>1)</sup>을 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언자로서의 사역을 수행하신 것은 성육신 이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세가 이미 오래전에 오시리라고 예언한 바로 그 대언자였습니다.

주 네 하나님께서 네 한가운데서 곧 네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신18:15).

한편 사도 베드로도 성전에서 행한 설교에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대언자임을 선포하였습니다(행3:19-26).

대언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대언(예언)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비유로 가르친 말씀들 속에는 예언적인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산에서의 말씀(마24:1-25:46)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승천한 뒤부터 재림할 때까지 일어날 사건들을 요약하여 보여 주셨습니다.

---

1) 대언(Prophecy)과 대언자(prophet)는 성경에 500회 이상 나오며 성경기록 그 자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대 영어사전에서 이 단어의 주된 의미가 '예언하다'이므로 기존 우리말 성경은 이 단어들을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과 '선지자'로 번역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남의 말을 대신 전한다'는 '대언(代言)'이며 성경의 용례 역시 전적으로 이것을 가리킨다(출7:1; 겔37:4; 계19:10). 이처럼 중요한 단어를 기존 우리말 성경은 고린도전서 12-14장 등에서 선지자나 예언 등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교회 내에 심각한 영적 선물(은사) 문제가 일어나고 기복신앙이 널리 퍼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신약 시대 초기에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그것은 대언의 말씀이지 결코 예언의 말씀이 아니다. 구약 대언자들의 말씀 중 여러 부분이 미래를 다루므로 대언에 예언의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언이라는 말은 이미 그 의미도 다 포함하고 있다.

# 그리스도의 세 사역

제사장으로서  
계심  
(히9:24)

성화

구원

고난의 십자가



초림

십자가를 뒤로 보고

(티2:11-12)



교회

벤전1:10-11

민찬의 상

간헐적 사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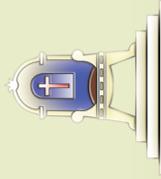
영화



영광의  
왕관

제림

왕으로  
나타나실 것임  
(히9:28)



다윗의 왕좌

(단7:13-14;  
눅1:31-33)

대언자로  
나타나심  
(히9:26)



제단

(신18:15;  
눅24:19; 요6:14)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고전11:26)

그러나 대언자로서 행하신 그분의 사역 중 가장 큰 것은 계시를 통해 밧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장차 올 일들에 대한 모든 비밀을 세밀하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 계시에서 주님은 일곱 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교회의 역사와 7년 환난기에 있을 무서운 고통, 아마겟돈 전쟁, 사탄의 결박, 희고 큰 왕좌의 심판, 불로 땅을 정화하는 것,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시 등을 보여 주셨습니다.

## II.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한 번 속죄일에 백성의 죄들을 용서해 줄 짐승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중보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구름의 휘장을 지나 땅에서 보이지 않게 되면서 하늘의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의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히9:24).

현재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는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가르치기는 하셨지만 희생물을 드리거나 향을 태우지는 않았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물이나 의식은 드리는 자들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것들이 그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라면 더 이상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와 모형에 지나지 않습니다(히10:1-3).

그 대표적인 예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홀로 거룩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예복을 벗고 물로 몸을 씻은 뒤 아마포 반바지를 입고 아마포 띠를 띠며 아마포로 된 관을 씩니다. 그리고 분향 제단에서 취한 숯불을 향로에 채워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숯불 위에 향을 올려놓아 연기가 나게 하고 그 향연으로 언약의 궤 위에 있는 공훈의 자리가 가려지게 합니다. 공훈의 자리를 가리지 않으면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빠져나와 회중의 성막의 뜰로 나오고 성막 뜰에서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해 죄 헌물로 소를 잡고 그 소의 피를 취하여 다시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 묻은 손가락으로 공훈의 자리 앞에서 동쪽에 일곱 번 뿌림으로써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해 속죄를 합니다. 그런 다음 대제사장은 성막 뜰로 다시 나와서 속죄 헌물이 되도록 제비가 뽑힌 염소를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세 번째로 지성소에 들어가 소의 피를 뿌린 것과 마찬가지로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는 뜰로 나온 뒤 놋 제단으로 가서 먼저 제단 모퉁이 뿔들에 수송아지와 염소의 찌른 피를 바르고 다음에는 손가락으로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어서 대제사장은 속죄 염소라 불리는 살아 있는 염소를 취해 그 머리 위에 두 손을 얹은 뒤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들을 속죄 염소의 머리 위에 얹어 놓은 뒤 그는 적당한 사람을 시켜 그것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법을 짊어진 그 염소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보내어져서 그곳에 남게 됩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다시 성막의 거룩한 곳으로 돌아와 아마포 옷을 벗고 몸을

씻은 뒤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예복을 입고 회중의 성막 뜰로 나갑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죄 헌물을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궁금해 하며 기다립니다. 만일 그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체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거절하시고 대제사장을 죽이시지는 않았는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뒤 그들은 대제사장의 옷 끝에 달린 종에서 소리가 나는지 들어 보고 그 소리가 나면 하나님께서 헌물을 받으신 것을 알게 되어 안도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영광과 아름다움의 예복을 입고 나와 늦 제단으로 다시 가서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태운 헌물을 드리는데 이것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시 성결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행한 일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사(빌2:5-8,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영광과 아름다움의 예복을 벗고 섬기기 위해 사람의 아마포를 입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께서 지성소에서 향을 드리거나 혹은 자기를 위해 소를 속죄물로 드리는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분께서는 온 세상을 위해 죄 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속죄 헌물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일은 두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 죄 헌물이 되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구름 휘장을 지나 하늘의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로 승천하사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피를 헌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 마리의 염소를 사용한 것으로 예표될 수 있습니다. 첫째 염소는 속죄의 헌물이 되어 죽임을 당했고, 둘째 염소는 속죄 염소가 되어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쓴 채 광야로 쫓겨났습니다(레16:8-10, 20-22).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마다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으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막의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셨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않으셨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해마다 고난을 받고 피를 흘리셔야 했을 것입니다(히9:26).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베일(휘장) 안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가서 현재 그곳에 머물러 계시며 대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 큰 속죄일이 끝나게 될 때 주님은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대신에 왕의 영광 가운데서 치리하고 다스리기 위해 영광과 아름다움의 왕복을 입고 오실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헌물을 계속해서 드려야 하므로 앉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한 번 드린 뒤에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히12:2). 이 왕좌는 현시대의 경륜에서는 은혜의 왕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56절에는 스테반이 죽을 때 그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의 둘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둘째는 그분께서 그때까지 앉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배척을 받을 때까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그분을 배척한 것은 스테반이 유대인들을 목이 곧고 성령님께 대항하는 백성이라고

고소하자 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행7:51).

현재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 1. 중보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즉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세우셨다고 말했습니다(딤후2:3-6). 그분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셨으며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기 위해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과 사람의 본성을 모두 가진 ‘하나님-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구속의 사역을 마치신 뒤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사람의 모든 품성을 지닌 채 가셨고 지금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에 계십니다(딤후2:5).

## 2. 변호자

요한1서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서신서가 나의 자녀들 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오직 의로운 자들에게만 변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은 구원자를 필요로 하며 변호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나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고 판사가 사형 집행일을 선언하면 변호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변호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사면장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요3:18).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중재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면 도대체 무엇을 변호하실까요? 죄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죄는 이미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저지른 죄들에 대해서 변호하십니다(요일2:1).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변호자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도 죄들을 짓기 때문에 아버지의 곁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법을 어겨 고소를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변호사를 찾습니다. 변호사는 그의 입장을 판사에게 대변하고 호소해 주며 공평한 판결을 받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도 죄들을 짓게 되면 변호자가 필요합니다.

죄인들이 범하는 죄들과 믿는 자들이 범하는 죄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짓는 죄들을 한결같이 미워하시고 특히 믿는 자들의 죄들은 더 미워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빛을 받고도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은 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죄들을 다루시는 방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종을 보내 각각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하나같이 게으르고 비효율적이어서 일을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참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종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었고 특히 아들은 종보다도 더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종을 해고하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제 그 종은 주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도 종처럼 해고하고 집밖으로 쫓아낼까요? 상속자로서의 권한을 박탈해 버릴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치고 용돈을 줄이고 또 종에게 한 것보다 훨씬 엄한 벌을 내릴 수는 있어도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를 통해 보자시피 아들이라는 신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죄를 짓고도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므로 죄를 지으면 변호자를 대동할 수 있는 특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므로 아들이므로 죄를 짓는 것이 믿지 않는 자로서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저는 결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므로 더 많이 죄를 짓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 III. 왕으로서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장차 행하실 일은 왕으로서의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마치면 하나님 아버지의 왕좌를 떠나 자기와 약혼한 신부인 교회를 만나기 위해 이 땅의 대기권 안으로 내려오십니다(살전4:15-18).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앉아 성도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주며 티나 주름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자기 앞에 두십니다(엡5:27). 그다음에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있게 됩니다(계19:6-9). 이 혼인 잔치가 끝나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왕국을 넘겨받고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상으로 오사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고(계19:11-21) 그 뒤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 민족들을 양과 염소 민족으로 나누는 심판을 행하십니다(마25:31-46).

그다음에야 비로소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갈 무렵 사탄은 바닥없는 구덩이(무저갱)에서 잠깐 풀려나고 대반역을 일으키지만 곧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사악한 자들을 소멸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도 불사르십니다. 그런 다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거기에는 옛 땅에서 거하던 의로운 민족들이 거하며 그리스도께서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왕국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됩니다(고전15:28).

### 통치자 메시아

성경의 여러 구절을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아들이 영원히 다스릴 한 왕국을 땅에 세우려고 하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나단 대언자를 통해 다윗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네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삼하7:16).

후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맹세로써 더욱 굳건히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나니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씨를 영원히 굳게 세우며 네 왕좌를 모든 세대에 이르도록 세우리라, 하였노라. 셀라(시89:3-4).

이 언약은 무조건적이었으며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재확인되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결코 다윗에게 부족하지 아니하겠고 내 앞에서 번제 헌물을 드리며 음식 헌물에 불을 붙이고 계속해서 희생물을 드릴 사람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렘33:17-18).

그러나 이 약속은 다윗의 왕좌 위에 앉을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왕국은 두 개로 나뉘었고 주전 586년경에 유다의 마지막 왕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다윗의 씨에서 나오는 미래의 왕으로 다윗 왕의 위에 앉을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이 미래의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번영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할 것이며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쓸 그의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렘23:5-6).

이 예언의 말씀을 다음의 여러 말씀들과 비교해 보면 이 왕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고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강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의 위에 머무시면서(사11:1-2)

이 두 구절에 가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또 ‘주의 영께서 그의 위에 머무시며’라는 말씀과 다음의 말씀을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눅 2:40).

한편 메시야는 다윗의 계보에 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이 문제를 풀기 전까지 이것은 수수께끼였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7:14).

후에 이사야는 마치 자기가 처녀가 아기를 낳은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연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sup>1)</sup>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사9:6-7).

이 구절들을 푸는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의 말씀을 들어 보기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남자 즉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sup>2)</sup>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가서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하나?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무슨 식의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눅1:26-33).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처녀가 그 당시의 어느 여인(처녀가 아니라 그냥 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주장이 옳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마 1:22-23). 처녀 탄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다룬 10장을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아들이며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분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는 더 결정적인 증거로서 구약 성경은 그분의 탄생 사실과 장소뿐만 아니라 시기도 언급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재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가 일어나기까지 69이레가 지나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단9:25).

이 구절에는 69이레라는 명확한 시간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 69이레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재건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6장에 있는 <다니엘의 70이레> 선도를 보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지으라는 명령은 느헤미야기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 월의 정해진 날 즉 주전 445년 3월 14일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통치자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는 주후 30년 4월 2일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들 간의 시간차는 실제의 69이레(주)를 훨씬 넘습니다. 주전 445년의 44와 주후 30년의 30을 더하면 475년이 됩니다. 즉 두 사건 사이에는 475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시간의 요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에는 시, 일, 주, 달, 년, 때, 또 때와 때를 나눈 때 등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동일한 척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척도는 무엇일까요? 민수기에 그 척도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사십 일의 하루를 일 년으로 환산하여 사십 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민14:34)

이것은 또한 에스겔서 4장 6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들을 채우거든 다시 네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사십 일 동안 유다 집의 불법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각 날을 일 년으로 정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의 척도로서 하루는 1년입니다. 이제 이 척도를 다니엘의 70이레에 적용해 봅시다. 예루살렘을 지으라는 명령이 떨어진 날부터 메시아의 입성 때까지는 69이레이므로 69 곱하기 7(1주일)을 하면 483일이 나옵니다. 만일 하루가 1년이라면 이는 483년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전 445년부터 주후 30년까지는 475년으로 483년과 475년 사이에는 8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는 1년이 정의에 따라 여러 날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력으로 1년은 354일이며, 유대인들의 1년은 360일이고, 양력은 365일이며, 율리우스력에 따르면 1년은 365일이며 4년마다 한 번씩 하루를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달력에 따라 계산해야 될까요? 그 열쇠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24절과 8장 3-4절에는 노아의 대홍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홍수가 시작된 2월 17일부터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7월 17일까지의 다섯 달이 15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은 30일이고, 일 년은 360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의 연대를 따질 때 1년을 360일로 계산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대에 따르면, 주전 445년부터 주후 30년까지의 475년이란 기간은 1년을 365일로 하는 태양력에 따른 시간입니다. 실제로 주전 445년과 주후 30년을, 전체를 다 포함해서, 계산하면 태양력으로 476년이 됩니다. 이 476년에서 태양력의 1년의 날수인 365를 곱하면 173,740일이 되고, 여기에 윤년에 따른 119일(476 나누기 4)을 더하면 총 173,859일이 됩니다. 이 수치에다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의 날수인 20일을 더하면 총 173,879일이 됩니다. 이제 이 173,879일을 성경 예언의 해석 시 적용할 1년의 날수인 360으로 나누면 하루가 모자라는 483년이 됩니다. 따라서 69이레는 483일이며 1일을 1년으로 치면 69이레는 곧 483년이 됩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69이레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한 주후 30년 4월 2일에 일어났음을 보여 주는 이 증거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여 다니엘의 70이레에 대한 예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을 것이며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치자 메시아가 오는 것을 언급하는 바로 그 구절의 말씀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십이 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단9:26).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끊어진다면 그가 다윗의 왕좌를 받아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며 그의 왕국이 끝이 없으리라는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첫 단계에서 고난받는 구원자로 그리고 둘째 단계에서 왕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로 성경의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영광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벧전1:11). 그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강력한 왕이 되면서 동시에 자기 백성의 죄와 불법으로 인해 끊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

2) 다니엘의 70이레 예언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김재욱 저,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와 사랑침례교회의 소책자 「재림과 휴거 바로 알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시편 16편이 메시아에 대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10절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오순절 날에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들이니라(행2:31-32).

나사렛 예수님께서 바로 약속된 다윗의 아들이며 따라서 다윗의 왕좌에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어나 왕국을 취할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다윗의 왕좌는 땅 위에 있었으며 하늘이나 영의 세계 등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통치를 하고 있고 왕국은 영적인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의미를 크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윗의 왕좌는 비어 있으며 또한 지난 2,500년 동안에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을 때가 오면 다윗의 왕좌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앉아 통치할 것입니다.

창조부터 그리스도까지		
4000 AM	4 BC	예수님이 태어나고 헤롯이 죽음
3418 AM	586 BC	유다가 바빌론의 세 차례 침공으로 멸망함
3283 AM	721 BC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감
3029 AM	975 BC	왕국이 분단됨(겔4:4-5의 586+390년)
	+ 40	
2989 AM	1015 BC	솔로몬이 40년간의 통치를 시작함(왕상11:42)
	- 3	솔로몬이 자신의 통치 제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함
2992 AM	1012 BC	둘째 달 둘째 날에(왕상6:1, 37-38; 대하3:1-2; 5:1-5)
	+ 480	이집트 탈출로부터의 기간(왕상6:1, 480년째 되는 해=479년)
2513 AM	1491 BC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함
	+ 430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때부터 이집트 탈출까지의 기간
2083 AM	1921 BC	아브라함이 떠돌기 시작함(창12:4; 출12:40; 갈3:17)
	+ 427	노아의 홍수로부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때까지의 기간
1656 AM	2348 BC	노아의 홍수가 생긴 해
	+ 1656	창조의 시작부터 노아의 홍수까지의 기간(창세기 5장)
0 AM	4004 BC	창조가 시작된 해

AM(Anno Mundi): 창조가 시작된 해부터 센 햇수

<창조부터 그리스도까지>

## 유월절 어린양 그리스도

성경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그들은 이 날을 자기들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날로 기념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개입한 것을 기록한 성경의 사건 중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때 파라오로부터 융성한 대접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원했지만 노예이므로 자유를 위해 투쟁할수록 그들의 속박의 굴레는 점점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출1:13-14). 그리고 절망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고(출2:23-25)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구원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출 8:1)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이집트 또한 그들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나일강의 물이 아니라 요르단강의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비록 속박의 상태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은 자유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가 그들의 땅이 아닌 타국에서 낯선 자가 될 것이며 거기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그 뒤에 많은 재물을 갖고 거기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15:13-14). 드디어 그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시간이 오자 하나님은 이집트에서의 그들의 삶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만드셨고 이 목적을 위해 파라오의 마음을 자극하여 그가 그들의 짐을 늘리게 하셨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것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인을 구원하는 것의 모형이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악한 현 세상의 모형입니다. 모세 당시에 이집트는 세상적인 영광과 호화로우면서 전 세계 최고의 표본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이렇게 놀라운 영화를 지닌 국가가 없었고 그 안에는 세상의 부와 재물과 상업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유물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안에는 부족한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모두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집트도 가나안과는 비교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무화과와 석류의 땅이었고 올리브기름과 꿀의 땅이었으며 새로운 곡류와 포도즙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신8:8-9).

파라오는 사탄의 모형입니다. 이집트는 우상들로 가득 찬 사탄의 요새요, 모든 종류의 죄악의 온상이었습니다. 힘으로 이스라엘을 소유한 파라오는 그 상태를 영구히 지속시키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사탄이 죄인들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사역자들은 죄인들이 자기들의 강한 굴레 속에서 땀을 흘리게 만듭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앞서서 자신의 구원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궁리해 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 광야에서 이미 모세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의 왕좌를 경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전화를 걸었고 하나님은 모세와 통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미리 아심(예지)에 따라 그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 다시 나타나 자기의 사명을 알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노동 운동가로 간주되었고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짐을 더욱더 무겁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자기로부터 멀리 떠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길을 어렵게 만듭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는 것을 거절하자 하나님은 손을 드사 재앙들을 통한 심판을 이집트에 행하셨습니다. 재앙들의 목적은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의 신들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직접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들은 횡수로 10번이었고 약 1년이 넘는 기간에 따로따로 일어났습니다. 처음 것과 마지막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앙들은 이집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평범한 자연 현상이었습니다. 단지 기적적인 사실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매우 가혹했다는 점입니다. 열 개의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1. 피로 변한 물 - 나일강, 즉 강물의 우상에 대한 심판
2. 개구리들 - 개구리들에게 경배한 것에 대한 심판
3. 이 - 땅의 신인 썸(Seb)과 벌레를 숭상한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
4. 파리들 - 태양신인 라의 아들인 슈(Shu) 신 곧 공기 신에 대한 심판
5. 역병 - 신성화된 황소인 아피스에 대한 심판
6. 종기 - 수테크 또는 티폰에 대한 심판. 이들에게 바쳐진 희생물의 재물이 공기 중으로 흩어짐
7. 우박 - 슈(Shu) 신에 대한 심판
8. 메뚜기 - 신성화된 풍뎅이에 대한 심판
9. 암흑 - 파라오가 자신의 아버지일 것이라고 여겼던 태양신 라(Ra)에 대한 심판
10. 장자의 죽음 - 히브리 사람들의 사내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버리라는 명령을 내려 대규모의 유아 살해 죄를 지은 이집트 민족에 대한 심판(출1:22)

처음의 아홉 재앙은 각각 세 재앙씩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그룹의 처음 두 재앙이 있을 때 파라오는 경고를 받았지만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경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첫째 두 그룹은 단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으며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둘째 그룹은 단지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쳤고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희생 예물로 남겨졌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또한 재산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셋째 그룹은 주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떨어졌고 고센 땅에는 우박도 없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거주지에서 햇빛을 보았습니다.

### 이집트 사람들의 타협안

다음은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나타나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해야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출5:1-2)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사흘 동안 광야로 여행을 가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이를 거절했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짐을 더욱더 가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의 세 재앙이 지나간 뒤 파리의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닥쳐오자 파라오는 이제는 협상할 때라고 생각하여 모세를 불러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라.”(출8:25)고 했습니다.

### 첫째 타협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권세가 미칠 수 있는 이집트에 남아 있지만 한다면 그 땅에서 이따금씩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머무르는 한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만일 파라오의 생각대로 되었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코 이집트를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리함은 합당하지 아니하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가중히 여기는 것을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로 바칠 터인데, 보소서,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 눈앞에서 그들이 가중히 여기는 것을 희생물로 바치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출8:26)

신성화된 황소인 아피스(Apis)가 이집트의 신들 중 하나임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고,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주님께 소들로 희생을 드린다면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중함이 될 것이므로 그들은 이집트의 신들을 죽인 것으로 인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이 타협이 주는 교훈은 세상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제안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분께 희생물을 바치려 하나이다, 하매(출8:27)

### 둘째 타협

파리 재앙을 견딜 수 없었기에 파라오는 둘째 타협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파라오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가게 하여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게 하리라. 다만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나를 위해 간구하라, 하매(출8:28)

이것이 주는 교훈은 당신의 위치에 서서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타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둘째 제안은 처음 것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라오는 만일 그들이 멀리 떠나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매우 쉬우리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교회에 가도 좋아.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사순절을 준수하고

다른 종교적인 절기들을 지켜도 된다. 그러나 그 해의 나머지 동안에는 쾌락을 즐기면서 이집트(세상)로 되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부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유부단한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만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호는 오이와 마늘과 양파를 먹음으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고 그들은 옛날 이집트에서의 식단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영적인 음식에 기쁨을 느낄 수 없을 때 그들이 옛날에 먹던 세상 음식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음식 중 가장 맛이 없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음식인 만나와 이집트의 음식인 양파를 섞은 음식일 것입니다. 이집트의 개라도 이것을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하는 게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때 당신은 그들이 “너무 멀리 가는 가지 말라.”는 타협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셋째 타협

둘째와 셋째 타협 사이에 역병과 종기와 우박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가게 하여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왕께서는 이집트가 멸망한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출10:7)

이에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에게 “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갈 자들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모세는 “우리가 반드시 주께 명절을 지켜야 하므로 우리가 가되 우리의 젊은이들과 늙은이들과 아들딸들과 양 떼와 소 떼와 함께 가겠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출10:9). 그들은 희생을 드리기를 위해 가축과 짐승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파라오는 만일 남자들이 자기들의 사랑하는 자들을 이집트에 남겨 두고 떠난다면 머지않아 되돌아오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타협안은 “만일 원한다면 노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좋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기독교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당신이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지만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기독교를 강요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쾌락을 즐기도록 하고 당신은 그들의 구원에 관해서 어떠한 관심도 보여 주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제안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다시 이것을 거절했고 그 이후에 메뚜기와 암흑의 재앙이 뒤따랐습니다.

### 넷째 타협

이 재앙들은 파라오에게 매우 혹독했기에 그는 모세를 다시 불러서 넷째 타협안을 제안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되 다만 너희 양 떼와 소 떼는 두고 너희의 어린것들은 또한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출10:24).

파라오가 나약해지고 있는 것을 본 모세는 이제는 자기들이 떠나는 것을 위해 그들이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왕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희생물과 번제 헌물도 주어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해야 하리이다. 우리 가족도 우리와 함께 가고 발굽 하나도 뒤에 남겨 둘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중에서 취해 주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어떤 것으로 주를 섬겨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출 10:25-26).

사실 그들은 어떤 희생물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물에 관한 율법은 그들이 시내산에 도달할 때까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협상안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네 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나 너 자신을 위해 네 재산은 따로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세상에서 수지맞을 투자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남겨 두라. 당신의 주식을 팔지 말라. 그것이 가난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일지라도 큰 지분을 벌어들일 그러한 투자들을 포기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청지기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빛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돈을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세상에 투자하고, 선교 헌금은 점점 모자라는데 그들의 소 때와 양 때는 이집트에서 살이 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세의 고상한 본보기를 따라 “우리는 발굽 하나라도 뒤에 남겨 둘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넷째 타협안을 거절하자 모세는 다시 파라오를 볼 때는 죽으리라고 경고를 받은 뒤 파라오의 면전에서 물러 나왔습니다. 그것이 파라오에 대한 은혜의 날의 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열째 재앙이요 마지막 재앙인 첫 태생의 죽음이 뒤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빠져 나오려면 죄인이 반드시 거절해야만 하는 타협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어떻게 피로 대속받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월절

구약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깃발은 이집트 탈출이었지만 그분께서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피로 대속받아야 했습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에 대한 아름다운 실례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고전5:7).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하나님의 어린양의 피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선도를 보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1: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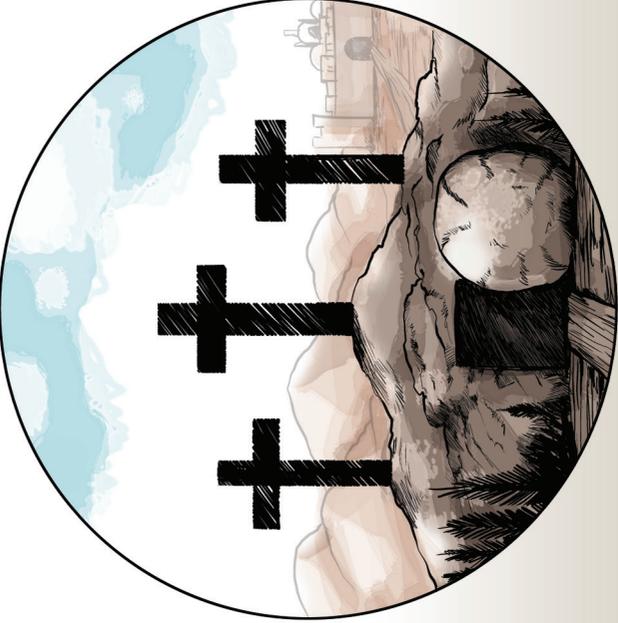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땅에 거주했고 그 땅은 이집트의 일부였으므로 그들 역시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이집트에서의 최후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갈보리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양을 잡아서 그 피를 취해 그들이 사는 집의 문의 양쪽 설주와 인방에 뿌려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한 날 밤에 주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그냥 건너가서 ‘피로 표시된 문 뒤에서 보호를 받는 처음 난 것’은 죽이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출12:1-28).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달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출12:2).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 해의 첫째 달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때까지는 살아 있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범법들과 죄들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엡2:1-3). 죄로 가득한 지난날들과 끊어오르는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보낸 시간은 믿는 자의 생애에서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고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였습니다. 대속은 하나님께서 임시방편으로 생각해 낸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구원 계획을 미리 예비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미리 예정되었습니다(벧전1:18-20). 유월절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곧 희생물과 만찬입니다.

## 1. 희생물

희생물은 어린양이었습니다(출12:5). 예수님은 유순함과 순결함의 상징인 어린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사53:7).

어린양은 일 년 된 수컷이어야 했으며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것 안에 하나의 점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희생물로 부적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으며 그분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셨습니다(고후5:21; 요일3:5).

그분은 베들레헴에서는 아기로서, 나사렛에서는 소년으로서 또 사람의 아들로써 완전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침례를 받을 때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마3:17)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로부터의 생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요18:38). 그리고 가롯 유다도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써 죄를 지었다.”고 탄식했습니다(마27:4).

어린양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출12:6). 어린양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을 쓰다듬으며 자기들이 얼마나 그 어린양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보여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죽음의 천사가 볼 수 있도록 어린양을 문에 매어 놓는 것으로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어린양은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에 의해 구원받지 않고 그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찢긴 휘장도, 흘린 피도, 열린 무덤도, 중재하시는 대제사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은 그분께서 본을 보여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벧전2:24)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신 곳은 말구유, 요르단강, 팡야 또는 깃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어린양은 단순히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들은 그것의 피와 살로 무엇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피를 취하여 자기 집의 양쪽 문설주와 인방에 그것을 뿌리고 그 살을 먹어야 했습니다(출12:7). 그들의 처음 난 것들은 단순히 피를 흘리거나 피를 대야에 담는 것만으로는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양의 피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그 피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우슬초 다발에 묻혀 그들의 집 문에 뿌려야 했습니다. 우슬초는 평범한 식물이며 이집트의 어느 곳에서나 자랍니다. 그들이 우슬초를 얻기 위해 외국에 가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슬초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상업적, 사회적 관계 또는 가족 관계 등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지방 위에 두거나 그 집의 마루 위에 뿌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매우 값지고 신성한 것이었으므로 발에 밟혀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경시하는 불신자들과 종교 교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짓밟고 있으며 그분의 피를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히10:29). 제사장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대속을 얻는 데 어떤 역할을 맡은 자가 없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유월절은 제사장들에 의해 이루어진 희생 의식이 아니었고 그 집의 가장이 직접 어린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뿌려 바름으로 이루어진 희생 의식이었습니다.

그 피는 표시였습니다.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에게 닥쳐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출12:13).

그들의 구원은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나 선한 행위 혹은 도덕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어린양의 피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레17:11).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지만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만일 그 피 뒤에서 보호를 받은 처음 난 것들 중 머리카락 하나라도 해를 입었더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하며 어린양의 피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입증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피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께서는 독자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한 적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는 것뿐입니다.

그 피를 문에 뿌렸으므로 다음 단계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출12:22). 피가 문에 있었어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까지는 처음 난 것들 가운데 집 밖에 있는 것은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수단인 유월절을 경시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그다음 날 아침에는 웃지 못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복음의 구원 계획을 조롱하고 피를 무시하지만 그들은 심판 날에 결코 웃지 못할 것입니다.

## 2. 명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고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아 있는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출12:8-10).

그들이 피로 구원은 받았지만 어린양을 죽여서 그 피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sup>3)</sup> 그들은 어린양을 먹어야 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어린양을 먹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활에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린양을 아무렇게나 먹는다면 참된 교제 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어린양을 날것으로 먹거나 물에 적셔서도 안 되며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굽기 위해서 그들은 쇠꼬챙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즉 그들은 쇠막대기로 어린양을 세로로 찢어 불 위에 놓아야 했고 또 하나의 쇠막대기로 직각 방향으로 어긋죽지를 찢어 그것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의 불에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써 그리고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믿음으로 그분의 몸을 먹습니다(마26:26-30; 고전11:23-26).

오늘날의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어린양을 먹지 않고 살아 있는 어린양을 먹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좋은 모범으로 따르려고 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반대편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살아 있는 그리스도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형당하시고 영화롭게 되신 주님 곧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양은 누룩이 없는 빵(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출12:8). 누룩은 악의 상징이므로 유월절과 같은 만찬 때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의와 사악함의 묵은 누룩을 떼어 내버리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고전5:7-8).

그들은 또한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이집트에서의 속박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린양을

---

3) 구원은 전적으로 어린양의 피로 이루어지므로 앞뒤 문맥상 저자는 지금 구원 이후의 성화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먹기 위해 잠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것 중 한 조각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그것이 합당하지 못한 손에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급히 출발할 때 뒤에 남지 않도록 모두 태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운 폭풍우가 한밤중에 이집트를 휩쓸고 있었고 그 피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 모든 집의 처음 난 것들을 멸절시키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평화롭고 즐겁게 구운 어린양을 먹으며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만찬을 먹어야 했습니다 (출12:11). 그들은 사망과 암흑과 심판이 내려진 이집트를 떠날 준비가 된 사람들처럼 그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은 것은 곧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순례자들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순례 여행이 그들을 홍해와 광야를 통과하도록 만들었을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지루하고 길지라도 대속받고 선별된 백성들의 목적지는 젓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로부터 가나안까지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행은 구약 성경의 순례자의 여행으로 불리며 이것은 신약 성경에 묘사된 그리스도인의 순례 여행을 아름답게 그려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의 피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천국과 지옥

성경은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이 영원토록 거할 두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다름 아닌 천국<sup>1)</sup>과 지옥입니다. 전자는 후자를 필요로 하며 후자는 전자를 필요로 합니다. 천국의 반대인 지옥이 없이는 하늘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지옥이 없다면 천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책이 두 장소를 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1. 천국(하늘)

천국은 장소이지 어떤 상태나 조건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속한 도시이긴 하지만 하늘 자체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계21:2).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친히 하늘에 가서 그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처소가 바로 그것입니다(요14:2). 그것은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주후 30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주후 96년에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만일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교회의 휴거 전에는 반드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어린양의 아내인 신부가 거주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계21:9-10).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니라(히11:10).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 도시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다가올 도시를 찾나니(히13:14)

성경은 세 하늘에 대해서 말합니다.

- (1) 지구의 대기가 있는 하늘: 주님께서 선을 베푸사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곳(행14:17)
- (2) 별들이 있는 하늘: 악한 권력들과 권능들의 처소가 있는 높은 곳들(엡6:12)
- (3)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 이곳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그의 영이 그의 몸을 떠났을 때 끌려 올라갔던 곳(행14:19-20)

---

1) 한국 사람들은 보통 하늘(heaven)을 천국이라 부르지만 영어나 원어로는 하늘이 맞으므로 이번 장에서는 천국과 하늘을 같이 썼다.

바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을 셋째 하늘과 낙원으로 부릅니다(고후12:1-4). 따라서 이 둘은 동일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낙원이 셋째 하늘의 어느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의로운 자들이 죽으면 혼과 영은 곧바로 천국(하늘)의 낙원 구역으로 갑니다. 영의 세계를 다루는 7장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낙원이라는 단어는 정원, 동산 또는 에워싸인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나무들과 꽃들과 과실들이 있는 매우 아름다운 장소일 것입니다. 그곳에는 의인들의 영들이 혼적인 몸<sup>2)</sup>을 입은 채 의식을 갖고 행복하게 거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든 시대들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첫째 부활을 기다립니다. 첫째 부활 때 그들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고 어린양 그리스도와 혼인하여 신부의 집인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성경의 하늘들> 선도를 보기 바랍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늘 자체와 그 안에 있는 낙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구별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인 낙원이 영광스러운 장소이며 성도들이 거기서 하늘의 것들을 만끽하고 있지만 그들이 어떤 한계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모든 영광스러운 권세를 가진 부활의 몸을 받지 않았으며 보상이나 왕관을 받기 위해 심판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나와 있는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여전히 미래의 일이며, 거기서 묘사된 일들은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기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새 예루살렘과 그곳의 거주자들에 대한 것은 휴거 이후에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기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관해 제가 저술한 책을 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을 때 그분께서는 지하 세계의 낙원 구역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이 자신과 가까이 있도록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그들을 옮기셨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도들이 지금 당장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죽음)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빌1:23). 그러나 그때 셋째 하늘로 옮겨진 구약 성도들이 지하 세계에 있었을 때보다 더 행복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다. 몸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에 성도들이 거하는 장소와 상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에 죽은 자들의 상태에 관해 비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몸이 죽은 의로운 자들의 상태는 불안전하지만 매우 복되며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는 활동과 예배의 상태라기보다는 오히려 안식과 기다림의 상태일 것입니다(계 14:13; 6:9-11).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죄와 유혹으로부터 또 슬픔과 병약함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은 자연히 거룩한 삶과 연결될 것이며 그 장소의 분위기는 사랑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다니엘, 베드로, 요한 그리고 바울과 같이 옛날의 거룩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즐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알아보게 될 것이며 삶에서의 신비들을 모두 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며 자신들을 구원해 준 것에 대해 어린양께 감사드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자기들

---

2) 영어로는 soulish body이며 이것은 나중에 있을 부활과 휴거 때에 주님께서 영화로운 몸을 줄 때까지 천국에 있는 혼들이 입고 있는 몸을 가리킨다.

의 행위들에 대한 보상을 받은 뒤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을 맡게 될 것이며 아마도 이 세상에서 하던 일을 맡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왕 또는 왕자가 될 것이며 다니엘은 정치가, 모세는 입법자, 바울은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천 년 통치 기간에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두 증인으로 땅에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사들도 일을 하고 속죄받은 자들도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늙거나 피곤하거나 싫증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며 없어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보존하신 상속 유업의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벧전1:3-5).

하늘은 우리 아버지의 집이고 우리가 거할 집이며 거할 곳이 많이 있는 장소입니다(요 14:2). 그곳에 가는 것은 기쁜 일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며(히 2:15) 죽음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지만, 하늘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영광으로의 탈출을 위한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 죽음 이후의 첫째 경험

당신은 죽음 이후 첫 5분 동안에 의로운 자들의 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몸을 공동묘지에 눕히기 전에, 장의사를 부르기 전에 또는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알리기 전에, 또는 커튼을 내리기 전에, 아니면 침대 곁에 있는 조용한 구경꾼들이 당신이 죽은 사실을 깨닫기 전에, 당신은 단 5분 만에 당신의 몸에서 나와 낙원에 도착하여 당신이 영원을 보내야 할 장소가 어디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5분 동안의 우리의 경험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1) 우리의 첫째 경험은 죽음이 매우 쉬운 일이라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이 들어 아름다운 세계에서 깨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요정들과 숲의 신 그리고 마귀들이 있는 죽음의 계곡이나 힘들게 가로질러야 할 어두운 강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섬기는 천사들이 나사로를 데리고 갔던 것처럼 우리를 낙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눅16:22; 히1:13-14). 하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할 안내자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인도할 안내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것은 너무도 기쁜 일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땅에서 이루어진 우리 삶을 꼭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2) 우리의 둘째 경험은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과 고통들 그리고 한계들을 지닌 땅에서의 몸을 남겨 두고 앞으로 거주하게 될 영적인 영역에 적합한 매우 훌륭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3) 우리의 셋째 경험은 우리가 빠른 속도로 그 광채가 태양보다 더 밝은 아름다운 나라를 향해 우주 공간을 통과하여 위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때 우리를 만나기 위해 또 우리를 집으로 안내하기 위해 천사들의 무리가 오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할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계22:14).

(4) 우리의 넷째 경험은 우리가 사랑의 분위기로 가득 찬 새로운 환경 속에 있다는

# 성경의 하늘들

셋째 하늘

**E**  
현재의 낙원  
(고후12:1-4)



(계4:1-3)



새 예루살렘  
(계21:2)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감

**C**  
그리스도의 심판석

둘째 하늘

**W**  
흰 왕좌  
(계20:11-15)

첫째 하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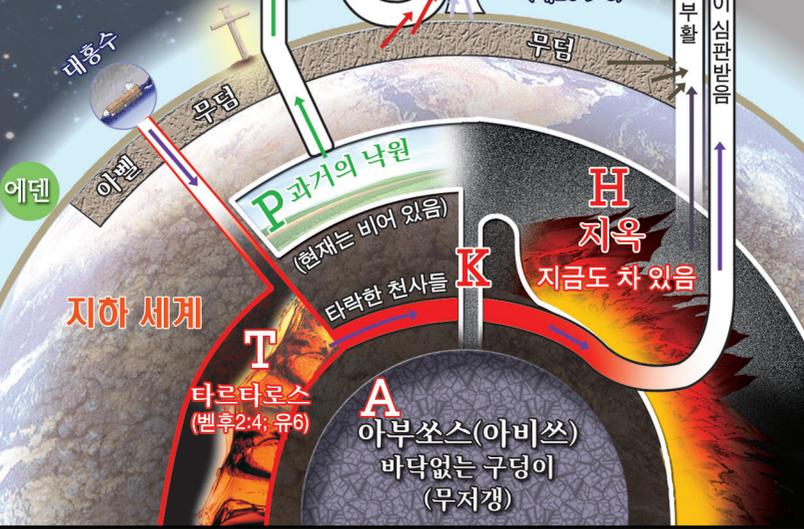
**G**  
불호수  
(계20:14-15)

의로우신 천사들과 데리고 가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며

휴거성도  
부활성도

약 1000년의  
기간이 있음  
(계20:5-6)

사악한 자들의 부활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받음



(성경의 하늘들)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집에서는 어떠한 부조화나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된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5) 우리의 다섯째 경험은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실제적으로 보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의식할 것입니다.

(6) 우리의 여섯째 경험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는 믿지 않지만, 우리의 안내 천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오는 것을 알려 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7) 우리의 일곱째 경험은 우리보다 먼저 간 족장들과 대언자들과 사도들과 우리가 살던 시절의 크리스천 지도자들 같은 성도들을 만나는 일일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험들이 죽음 이후 첫 5분 안에 다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나 틀림없이 장례 예배가 끝나서 우리 몸이 안식을 위해 무덤 안에 놓이기 전에는 다 일어날 것입니다.

## II. 지옥

천국(하늘)과는 전혀 다른 세계인 지옥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지하 세계에 관해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스올’(Sheol)은 구약 성경에서 65번 나오며 이 중에 31번은 지옥으로, 31번은 무덤으로 그리고 나머지 3번은 구덩이로 번역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스올에 해당되는 그리스어는 ‘하데스’(Hades)로 총 11번 나오며 이 중에서 10번은 지옥이라고 번역되었고 1번은 무덤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스올과 하데스는 ‘보이지 않는 상태’ 또는 ‘죽은 사람의 혼과 영이 몸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에 거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죽은 자들의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는데 무덤은 히브리어로 ‘게버’(Geber)이고 그리스어로 ‘므네메이온’(Mnemeion)입니다. 스올이나 하데스는 사악한 자들이 궁극적인 형벌을 받는 지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최종 형벌의 지옥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도벳’(Tophet)이고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로는 ‘게헨나’(Gehenna)입니다. 이 단어들은 ‘아부썬스’(Abussos)인 바닥없는 구덩이(무저갱, 계20:1-3)를 뜻하지 않으며 ‘타르타로스’(Tartarus), 즉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벤후2:4)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들은 다 지하 세계의 어떤 부분을 의미합니다.

위에 언급된 장소들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의 하늘들> 선도를 봅시다. 스올이라는 단어는 원래 속이 빈 지하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데스도 같은 것을 의미함에 틀림없습니다. 이것들은 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옥, 즉 하데스의 문들이 교회에 대항하여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마16:18). 한편 부활하셔서 지하 세계로부터 돌아오신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 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계1:18).

이 열쇠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냐?(엡4:9)

사도 신경은 예수님께서 지옥(하데스)으로 내려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데스 혹은 지하 세계는 지구의 심장부에 있음이 틀림없으며 그 선도에서도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한 강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23:43).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지하 세계 또는 하데스로 내려가셨으며 따라서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실 때에는 하데스 안에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혼 - 그분의 몸은 지구의 표면 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안에 있었음 - 은 지옥(하데스)에 내버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시16:10; 행2:27).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부패되는 것을 보기 전에 하데스로부터 되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분은 홀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데스의 열쇠들을 취하사 자신이 들어갔던 낙원 구역(P)의 문을 열었으며 그 안에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셔서 그곳을 비워 놓으시고 위로 올라가시며 그들을 셋째 하늘(E)의 낙원 구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하 세계의 낙원 구역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니라.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냐? 내려가신 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엡4:8-10).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체험한 것을 기록한 기사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당시, 즉 구약 시대의 지하 세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눅16:19-31). 이 기사는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유에는 아브라함과 나사로와 같은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부자와 나사로는 둘 다 죽었고 그들의 육적인 몸은 땅 위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한편 지하 세계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그들의 몸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들은 의식이 있었으며 보고 듣고 말하고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된 지하 세계의 낙원 구역(P)에 있었고, 부자는 궁극적인 지옥, 즉 계헨나(불 호수)가 아니라 사악한 자들이 죽어서 그들의 혼들이 가는 지하 세계의 구역에 있는 지옥 구역(H)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악한 자들의 혼은 부활 때까지 그곳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한편 지하 세계의 낙원 구역(P)과 지옥 구역(H) 사이에는 양측 사람들이 서로 건너갈 수 없는 '깊이 갈라진 구렁텅이'가 있습니다(눅16:26). 이것은 죽은 사악한 자들이 지옥으로부터 빠져나와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보여 줍니다.

이 선도에서 이 깊은 구렁텅이는 바로 마귀가 간히게 될 감옥(계9:1-21)에 이르는 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당하게 되는데(계20:1-3, 7-8) 이곳은 바닥없는 구렁이(무저갱) 또는 심연, 즉 아부쓰스(아비쓰)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아바돈’(Abaddon)이라 하는 지하 세계의 장소에 대해 말하며 신약 성경은 ‘아폴레이아’(Apoleia)라는 장소에 대해 말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멸망(욥26:6; 28:22; 31:12; 시88:11; 잠15:11; 잠27:20)으로 번역되었으며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7:13; 롬9:22; 빌3:19; 벧후2:1; 3:16). 잠언 27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처럼 아바돈과 하데스는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아바돈이 지하 세계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 11절을 살펴보면 이 같은 추측이 확실해집니다. 여기에서 바닥없는 구덩이(무저갱)의 왕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으로, 그리스어로는 아폴리온으로 불립니다. 무저갱의 왕은 멸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따라 그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무저갱이라 번역된 단어는 아부쓰스 또는 아비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비쓰는 아홉 번 나옵니다(롬10:7; 계9:1-2, 11; 11:7; 17:8; 20:1-3). 이곳은 마귀들이 그리스도께 자신들을 보내지 말라고 간청했던 장소입니다.

그들[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나가서 깊은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눅8:31).

이 구절에 나오는 깊음이 바로 아비쓰입니다. 무저갱 또는 아비쓰(A)는 지하 세계에서 낙원(P)과 지옥(H)보다 더 깊은 곳이며, 마귀들과 사악한 영들이 마침내 그들의 주인인 사탄과 함께 영원토록 불 호수에 던져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감금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무저갱의 왼쪽에는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벧후2:4; 유6)인 타르타로스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사탄의 천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천사들은 현재 자유로운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타르타로스에 감금된 타락한 천사들은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그들의 엄청난 죄는 대홍수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장을 보기 바랍니다. 그들은 죽은 사악한 자들과 함께 흰 왕좌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 감옥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유6)

무저갱의 오른쪽에는 게헨나(G)가 있습니다. 이곳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궁극적인 지옥 또는 불 호수입니다.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있는 뒤에 죽은 사악한 자들은 영원을 보내기 위하여 그곳으로 내던져질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25:41).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이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계20:12-15).

이곳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도벳’(Tophet)이라 불리고(왕하23:10; 사30:33; 렘7:31-32; 19:6, 11-14)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어로 12번에 걸쳐 계헨나라 불리며(마 5:22, 29-30; 10:28; 18:9; 23:15, 33; 막9:43, 45-47; 눅12:5; 약3:6) 5번에 걸쳐 불 호수라 불립니다. 이곳은 아직 차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첫째 인물은 짐승과 거짓 대언자이고(계19:20) 그로부터 1,000년이란 뒤에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들어가며(계20:10), 그다음은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있는 뒤에 지금은 타르타로스에 감금되어 있는 타락한 천사들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악한 자들이 들어갑니다(계20:12-15).

예루살렘의 남쪽에는 힌놈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이사와와 예레미야 시대에 도벳이라 불리는 이 골짜기의 높은 장소에서 유대인 부모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이방신 몰락에게 주기 위해 불 속을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그가 힌놈의 자손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더럽게 하여 아무도 몰락을 위해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왕하23:10)

그곳의 불은 유황으로 지펴졌습니다.

도벳은 옛적부터 정하여졌으며 참으로 그곳은 그 왕을 위해 예비되었도다. 그분께서 그곳을 깊고 넓게 만드셨으며 불과 많은 나무로 그곳의 더미를 쌓으셨으니 주의 숨이 유황 사내같이 그곳에 불을 붙이느니라(사30:33).

후에 그곳은 예루살렘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불들은 영원히 타올랐으며 아직 불타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썩은 물질들은 벌레를 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게힌놈이라 불리는 이 골짜기를 위해 계헨나라고 부르셨고 지옥 또는 불 호수의 모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막9:43-48).

이 선도의 윗부분에는 천국(하늘)이 보입니다. 그곳은 현재의 낙원(E)과 새 예루살렘(J)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C)과 크고 흰 왕좌(W)의 위치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선들은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의 길과 운명을 표시해 줍니다. 어떤 이들은 스올과 무덤이 동일하며 무덤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전9:5, 10) 혼은 몸의 부활 때까지 잠을 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무덤에 가는 것은 오직 몸뿐이므로 잠을 자거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은 오직 몸뿐입니다. 사람의 혼과 영은 무덤에 가지 않고 스올에 갑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서 우리는 다음의 말씀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었더라.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햇수가 차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매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다는 표현은 무덤 또는 가족 무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무덤은 그가 떠난 곳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들의 혼들이 간 지하 세계에 갔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는 그곳에서 그들과 재회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표현이 이삭의 경우에도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으니라.”라는 말도 함께 있습니다(창35:29). 따라서 이 구절은 그의 혼이 지하 세계에서 그의 백성에게로 합해진 반면에 그의 몸은 무덤에 묻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7장의 <지하 세계> 선도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연옥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이 지하 세계에 간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늘에 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의 혼은 연옥이라는 장소에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교도들). 연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정화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연옥 교리는 1세기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주후 600년이 되어서야 하나의 교리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교리는 사람들이 죽을 때 그들의 혼들이 즉시 하늘에 올라가기에는 적당하지 못하다는 믿음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시 동안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정화할 중간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교리의 핵심입니다. 한편 정화의 도구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이 교리는 더 나아가서 연옥에 있는 혼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기도와 미사에 의존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리의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로마 카톨릭교회를 위한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친구나 친지의 혼을 연옥의 고통으로부터 구해 내기 위해 돈을 주고 미사를 행할 것입니다.

연옥 교리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낙원과 지옥에 대한 선도에서 보듯이 성경에는 어떠한 중간 장소도 없습니다. 깊이 갈라진 구렁텅이는 동시에 지옥에 거하는 자들이 낙원으로 건너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보여 줍니다.

## 회복 교리

지옥에 거하는 자들이 낙원으로 건너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연옥 교리를 무효로 만들며 또한 회복 교리도 무효로 만듭니다. 회복 교리란 사악한 자들이 한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그들의 죄들에 대해서 충분히 형벌을 받은 뒤에 회복되어 하늘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의 대상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우주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옥이 없어진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이 교리를 옹호하는 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행3:21).

이 구절의 '모든 것'은 말 그대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므로 회복의 때에는 모든 것이 그것들의 원래의 영광과 위치를 회복할 것이라는 것이 이 주장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에는 모든 것을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종속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이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들이며 그들이 회개하고 회심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3:19). 물론 그 이후에 그분께서는 대언자들이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예언했던 것들을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회복시킬 것들은 무엇입니까?

(1)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회복시킴(암9:14-15)

- (2) 땅의 생산력을 회복시킴(을2:24-26)
- (3) 왕국을 회복시킴(단7:13-14)
- (4) 짐승들을 에덴동산에서의 조화로운 상태로 회복시킴(사11:6-9)
- (5) 족장 시대처럼 장수하는 것을 회복시킴(속8:4)
- (6) 타락 이전의 원래 상태로 지구를 회복시킴(계21:1)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 또는 우주의 악한 권세들을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을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성경은 그들이 영원토록 또는 시대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25:46; 계20:10).

이 같은 회복 교리는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교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지하 세계의 지옥 구역에 있는 사악한 자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같이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주장이 생겼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데스로 내려가셨을 때 거기에 감금되어 있던 잃어버린 영들에게 설교하셨다고 주장하며 베드로전서의 다음 말씀을 인용하며 자기들의 논쟁의 기초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상황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또한 성령에 의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즉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벧전3:18-20).

예수님은 지하 세계로 내려가셨을 때 지옥 구역에 가지 않고 낙원 구역에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죽어 있는 사악한 자들에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은 그분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말합니다. ‘감옥에 있는 영들’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죽어 있는 사악한 자들의 영들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의 딸들과 동거함으로써 자기들의 첫째 위치를 잃어버리고 타르타로스에 감금된 천사들입니다. 사실 지하 세계에 내려가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타르타로스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몸소 선포하지 않았고 다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선포하셨는데 성령님께서서는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타르타로스로 추방되기 전에 여전히 땅에 남아 있던 그 타락한 천사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만일 사악한 자들이 다음 세상에서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된다면 누가 그것을 선포할 것입니까? 만일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기 위하여 이생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들, 즉 하나님의 섭리, 성경, 복음 선포, 성령님의 일 등이 여기서 아무 소용이 없다면,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고 전적으로 악한 환경으로 둘러싸인 지옥에서는 그 무엇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성품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성품이 고정될 때 상태 역시 변하지 않고 정해집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돌지니라, 하더라(계22:11).

계시록의 말씀들은 사람이 죽을 때 성품이 고정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이 당하는 고통과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기회들에 대한 기억들이 그들을 회개로 이끌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 후회하게 되리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은 경건한 슬픔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로 그들을 인도하실 성령님이 거기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 없이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형벌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한다면 복음은 쓸데없는 것이 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들을 벌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사실 형벌은 범죄자들을 오히려 무감각하게 합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는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눅 16:23-28). 그는 긍휼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자기의 고통의 장소로부터 나와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려는 열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바깥 마른 혀의 고통이 줄어들든 것만을 원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은 형벌이 사악한 자들을 더욱더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책에 나오는 재앙 속에서 고통당한 자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오히려 바위들과 산들이 자기들 위에 떨어져 자신들을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로부터 숨겨 달라고 부르짖습니다(계6:16-17). 그들은 또한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며(계16:21) 심지어 사탄은 무저갱에서 추방의 1,000년을 지낸 뒤에도 전보다 더 악하게 나타납니다(계20:7-8).

만일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의로움보다 악을 선택한다면 그들은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도덕적 측면에서 자기들이 낮게 되기를 원하는 만큼 낮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슬픈 일은 죽음이 그들의 죄 짓는 것을 늦추지 못하여 죄의 발전을 늦추지 못하고 오히려 가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악한 자들이 지옥 속에 얼마나 깊은 곳으로 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상에서 사악한 자들을 구원할 어떤 방법을 고안해 내실 수는 없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딤후2:4) 사악한 자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며(겔33:11)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맞보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가?(히2:9)”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고 사실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다음과 같은 것도 말합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고후6:2)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을 통한 구원 계획을 고안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셨다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만일 어떤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길을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0-11절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지하 세계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지하 세계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매(계5:13)

맞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백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복당한 사람은 궁핍함 때문에 정복자의 우월성을 인정하지만 그것 자체가 그의 마음의 변화를 암시하지는 않습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하늘과 땅 그리고 지옥에 있는 모든 악의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실 뿐 아니라 왕들 중의 왕이시며 군주들 중의 군주시라고 자백할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그들이 지녔던 하늘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의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안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무덤 이편에서 죽음 이후에 행한 것이 아니라 무덤 저편에 있는 몸 안에서 죽음 이전에 행한 것에 대해 심판받아야 합니다(고후5:10).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요8:21)

이 말씀은 만일 사람들이 뉘우치지 않고 죽는다면 결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연옥 교리는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인해 생긴 결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분의 죽음이 충분하다면,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연옥에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고 한 번에 낙원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미사를 드리는 것은 주의 만찬의 목적을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주의 만찬은 성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십자가 사건을 되돌아보고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는 기념행사일 뿐입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고전11:26).

에텐동산에서의 타락과 갈보리 사이에는 희생 제단이 있고 갈보리와 재림 사이에는 만찬의 상이 있으며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 사이에는 통치의 왕좌가 있습니다. 2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세 사역> 선도를 보기 바랍니다. 갈보리와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상을 놓았는데 과연 누가 거기에서 희생 제단을 세울 수 있습니까? 천주교에서 만찬의 상을 희생 제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위에 희생 예물을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만일 빵과 포도즙이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실제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면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고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먹으며 또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기에 식인종이 되고 맙니다.<sup>3)</sup>

3) 이것은 화체설이라고 불리며 요점은 매번 미사 때에 사제가 축복 기도를 하면 빵 조각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몸과 실제 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이단 교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매주 수만 번의 미사가 행해지고 있고 이로써 알게 모르게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희생을 부인하고 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이 제정된 당시의 상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유월절 만찬 이후에 제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유월절이 상징으로 보여 준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실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미 피를 흘린 유월절 어린양을 막 먹으려 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린양인 자신을 먹어야 함을 보여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빵과 포도즙을 취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고전11:24-25).

잔의 내용물을 가리키며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잔을 건네주셨을 때 과연 그분은 자신의 혈관을 열어 자신의 생명의 피가 그 잔 속으로 흘러가게 하셨습니까? 그날 밤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빵이 이제 막 십자가에서 찢어질 자신의 몸을 상징하며 그 잔은 앞으로 흘릴 자신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의미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설명해 주려 했던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자신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양이 상징으로 보여 준 것을 성취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번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에 짐승의 희생 예물은 이제 폐지되었고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드린 것은 한 번뿐이며 따라서 더 이상 죄로 인한 희생이 필요 없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히10:12-18).

### 영혼 소멸론

영혼 소멸론은 사악한 자들이 죽을 때 혼은 심판을 받은 뒤 완전히 없어진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죽음에 대한 거짓된 관점에 그 기초를 두고 있고 멸망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한 결과로 인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일 사악한 자들이 죽을 때 없어져 버린다면 사악한 자들의 부활과 부활 이후의 심판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요5:28-29; 계20:12-15).

누가복음 16장 19-31절 말씀은 사악한 부자가 몸에 관한 한 죽어서 땅에 묻혔었지만 여전히 지옥에서 살아 있음을 보여 줍니다. 가룟 유다도 자신의 몸에 관해서는 죽었지만 그의 혼은 자기 자신의 갈 곳으로 갔습니다(행1:25). 다시 한 번 우리는 끝없는 형벌이 사악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소멸은 영원한 형벌도 아니며 실제로 아무 형벌도 아닙니다. 창세기 6장의 타락한 천사들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타르타로스에 있으며 뒤에 심판받을 것입니다(유6). 본질적으로 소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물질은 또 다른 형태 또는 상태로는 변하지만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멸망이라는 단어는 결코 소멸이나 존재의 사라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손실 또는 황폐를 의미하고, 멸망된 것은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에 더 이상 맞지 않으며 그 존재 형태가 변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파라오의 종들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이집트가 멸망한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출10:7) 그러나 이집트는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멸망시켜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요2:18-22). 여기에서 그분은 자신의 몸이 성전임을 의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파괴하였지만 그분께서는 삼 일 만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 미래의 영원한 형벌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우리는 “그리하여 이들[사악한 자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말씀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지만 형벌이라는 개념은 개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마 25:31-32 참조). 이 구절에서 나오는 ‘영존하는’과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둘 다 똑같은 그리스어인 ‘아이오니오스’(Aionios)에서 나왔습니다.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아이온’(Aion)으로부터 왔고 그것은 영어로 무한히 긴 시간 또는 시대를 의미하는 ‘아에온’(Aeon) 혹은 ‘시대’(Age)와 같은 말입니다. 그 단어는 시대, 즉 시작과 끝을 가진 한정된 기간을 의미하며 시간적으로 영원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아에타스’(Aetas) 또는 시대로부터 왔습니다. 일 년은 한정된 시간입니다. 그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시작을 안다면 정확히 365일이 지나서 그 일 년이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시대는 무한정한 시간입니다. 미래의 시대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들이 언제 시작할 것인지 또는 언제 끝날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대라는 단어는 무한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시대들의 시대’는 우리가 끝없는 기간 또는 영원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영원무궁토록 계시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데(계4:9-10; 5:14; 10:6; 15:7) 그 기간이 바로 ‘시대들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무궁한 기간 안에서 사탄의 삼위일체가 형벌을 받고(계20:10) 의인들이 통치합니다(계22:5). 그리고 사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만큼 오랫동안 존재하게 되므로 그들은 시대들의 시대 동안, 즉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 없어지고 천국도 없어지며 우주도 사라져 버리고 영원도 끝나며 하나님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 둘째 사망

의로운 자들은 부활한 뒤에 더 이상 죽지 않을 것입니다(눅20:36). 그런데 사악한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받은 뒤에 다시 죽게 됩니다(계20:12-15). 이처럼 악한 자들이 다시 죽게 되는 둘째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또한 그들의 첫째 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사망은 그들의 몸으로부터 혼과 영이 분리된 것이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부자의 혼과 영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혼과 영이 지하 세계의 지옥 구멍의 화염 속에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고 흰 왕좌 심판 이후에 사악한 자들은 불 호수로 던져지는데 그곳에서는 그들의 육체적 몸이 건디지 못하고 소멸되고 맙니다. 따라서 그들이 다시 한 번 죽는 것, 즉 그들의 부활의 몸을 잃어버리고 단지 혼과 영만 불 호수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혼과 영은 화염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sup>4)</sup> 이러한

4) 90쪽 각주 참조. 즉 영원히 천국(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나 영원히 불 호수에

설명은 불 호수가 참으로 불로 된 큰 호수임을 나타내 주고 영존하는 불 심판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의 교리를 가르쳤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불 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울부짖음과 이를 깊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마13:49-50; 25:41). 그분은 또한 지옥 불이 꺼지지 않고 그들의 벌레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막9:43-48).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므로(계1:1) 사악한 자들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가르치든지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지옥의 교리와 영원한 형벌이 가져다주는 윤리적 가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죄의 생을 마감하고 지옥으로부터 빠져나와 회개와 구원의 복음 계획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거짓 복음, 즉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짓 복음을 전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육정의 고삐를 늦추고 위험한 속도로 멸망을 향해 질주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법이 성행하는 원인은 바로 이같이 해로운 가르침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하면 세상은 덜 지옥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늘로 직접 갈 수 있는데 왜 지옥을 경유하여 하늘로 가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로부터 보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사악한 자들로부터 영원토록 분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 독자여!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분의 긍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너무 늦기 전에 그분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피하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거하는 자들이나 다 영과 혼뿐만 아니라 각자가 그 환경에 맞는 몸을 갖는다. 사람이 삼중적인 요소로 되어 있으므로 몸이 없는 사람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유대교와 기독교

우리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성경적 사고에 큰 혼동이 생길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중복되는 기간이 있으며, 논쟁의 발단은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던 주후 30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되어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의 시대가 끝나게 된 주후 70년 사이의 변천기에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선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제거하시는 때 곧 ‘세상 끝’이라는 구절에 나오는 세상은 바로 시대를 의미하며 이 구절이 의미하는 시대는 곧 유대인들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기독교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기독교 시대가 오기 전에 [구약 시대에]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고 승천하셨습니다. 기독교 시대는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마5:17).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율법은 십계명과 같은 도덕적 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그 같은 법을 지키셨으나 실제로 그분께서 성취하신 율법은 의식법이었습니다. 이 의식법은 메시아가 올 때 무슨 일을 하며, 어떤 것을 성취할 것인가를 예표로 보여 주었습니다. 그분은 유월절 어린양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 안에서 사람들이 죄 때문에 드리는 죄 헌물이 성취되었습니다. 죄 헌물을 드릴 때 바쳐진 염소와 같이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또 속죄 염소가 되신 그분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광야로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성막의 거룩한 곳, 즉 성소로 가셨습니다(히9:11-12). 부활하시던 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만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눅24:25-27).

바로 그날 저녁에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열한 제자와 자신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들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들이니라 (눅24:44).

그래서 우리는 다음 구절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롬10:4).

다시 말해 그분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셨고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의식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도덕적 율법인 십계명 아래 있습니다. 물론 십계명이 멍백하게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어지긴 했지만 사도들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서 밝히 적은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는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주의 첫 날, 즉 일요일을 지킵니다.

십계명은 신약 성경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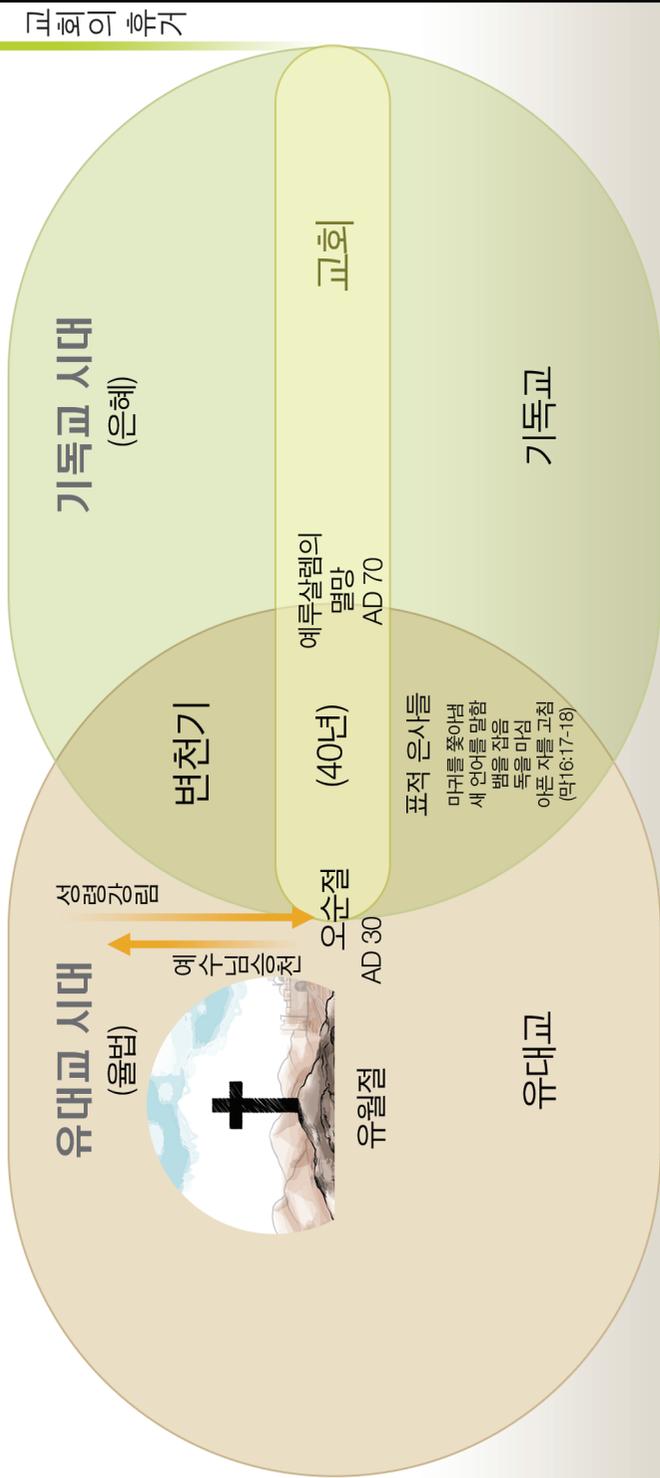
- (1) 한 하나님(고전8:4-6; 딤후2:5)
- (2) 우상 숭배 금지(고전10:7, 14; 요일5:21)
- (3) 불경스러운 것 금지(골3:8)
- (4) 안식일 - 신약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갈4:10-11; 골2:16-17)
- (5) 부모를 공경하는 것(엡6:2)
- (6) 살인하지 말 것(요일3:14-15)
- (7) 간음하지 말 것(갈5:19; 엡5:3-5)
- (8) 도둑질하지 말 것(엡4:28)
- (9) 거짓 증언을 하지 말 것(고전13:5; 엡4:25)
- (10) 탐욕을 부리지 말 것(엡5:3)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움직이던 변천기에 주님께서는 모세의 임무를 확증해서 보여 주시려고 표적들, 즉 기적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와 동일한 방법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변천기에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과 사도들의 성스러운 임무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천기는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40년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그때에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머지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며 사막에서 시내들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라(사35:5-6).

침례자 요한은 옥에 갇혀서 과연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을 했고 결국 예수님께 자기의 두 제자를 보내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 유대교와 기독교



〈유대교와 기독교〉

분을 기다리리이까?(마11:3)”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뒤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귀머슴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됨을 보이라(마11:4-5).

앞뒤 문맥으로 보아 그분께서는 이사야서를 이용하셨으며 사실 이것은 천년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들은 왕국의 표적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천년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 주신 ‘병 고치는 기적’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왕국의 표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임(Great commission)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나오리라, 하시더라(막16:15-18).

물론 마가복음 16장 9-20절이 가장 오래된 사본 -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 - 에 없으므로 이 구절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약속된 표적들은 ‘치명적인 것을 마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이 열한 제자에게 주어진 것이지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두 일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20절과 마가복음 16장 14-18절 사이의 차이점은 참으로 큼니다. 마태복음에는 표적이 약속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의 명령은 세상의 끝까지, 즉 현시대의 끝까지 계속됩니다.<sup>1)</sup>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이 약속이 사도들의 시대로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여기서 믿는 자들은 사도들의 말을 믿은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타 언어로 말하는 표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행 10:46; 19:6). 마가복음의 약속이 열한 제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은 20절에 있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막16:20).

이 열한 명의 사도 외에도 가롯 유다 대신에 주님께서 택하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행 9:15-19; 롬1:1; 딤후2:7). 이런 표적들이 사도들의 표적으로 사도들의 주장을 확증하기 위한 것임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 여기 나오는 끝은 ‘땅끝’까지의 끝이 아니고 세상이 끝나는 끝을 의미한다.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고후12:12).

이런 표적들은 이방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고(롬15:16-19) 복음을 통해 약속하신 큰 구원을 확증하기 위한 것으로(히2:3-4)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표적들이 없어진 이유는 이것들이 복음을 확증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확증하는 일에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적들 중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전령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권위를 확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시대 이후에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며 따라서 이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대하거나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성경기록을 확증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변천기에 있었던 기독교회가 거의 다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유대교 예식이나 의식에서 순식간에 벗어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같은 유대교 의식들은 더 이상 표적이 필요치 않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변천기의 첫 20년 동안에는 사도들이 증거로 보여 줄 수 있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표적과 이적이 필요했습니다.

신약 성경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주후 52년경의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마가복음이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였는데 아마도 그것은 주후 57-63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주후 65년경에 기록되었고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주후 60-7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의 기록을 제외하고는 신약 성경의 모든 기록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 즉 주후 7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신약 시대의 대언자들이 죽게 됨으로써 사도의 직분과 대언자의 직분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기독교에 다른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표적들이 필요치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좀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즉 완전한 성경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표적, 특히 병 고치는 표적이 40년의 변천기가 끝나기 전에 끝이 났음을 보여 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료 사역자들에게 무어라 말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잦은 병을 위해 포도즙을 조금 쓰라(딤후5:23).

드로비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나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내가 밀레도에 남겨 두었노라(딤후 4:20).

만일 병 고치는 것이 표적 이상의 어떤 것으로서 복음의 일부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신자가 영혼 구원과 더불어 육체적 질병에서 해방된다면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충고를 주었고 드로비모는 아픈 채로

밀레도에 남겨놓고 떠났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신다고 확실히 믿으며 믿음의 기도가 아픈 자를 고친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과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믿음이 모자라서 병에 걸린다고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만일 그리스도인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도 없다고 과격하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사 병을 고치시며 많은 경우에 순간적으로 고치십니다(약5:14-15). 그런데 이 같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서 나옵니다. 만일 기도만 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우리 중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중 대부분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몸에 질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몸을 치료해 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일부분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자마자 모든 병이 나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강단에서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친다면,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사탄이 고안해 놓은 ‘병 고치는 이단 집단’에 기웃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 타 언어(방언)로 말하는 것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변천기에 나타난 표적들 중 하나는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이 같은 사도 시대의 표적들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표적을 의논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이 같은 표적이 주어지게 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침례와 불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시며 아버지의 약속 곧 성령님의 침례를 받기까지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행1:4-5).

이 같은 성령 침례에는 두 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목적은 그들을 권능으로 입혀 주시려는 것이었고(눅24:49), 둘째 목적은 그들을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합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오순절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머리가 있기 전까지는 몸이 먼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뒤 아버지에게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머리가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 당시의 신자들이 한 몸으로 연합되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연합은 오순절 날에 성령님의 침례에 의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 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 구절이 말하는 침례는 물론 물 침례가 아니고 성령님의 침례입니다. 그 다락방은

침례를 받는 곳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안에서 성령님 가운데로 꼭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령님의 침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 이미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형당하시기 전에 [아마도 다른] 다락방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 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요15:3)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썩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썩에서 난 것이며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벧전1:23)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다시 태어난 상태에 있었고 그들은 이제 능력을 위해 성령님의 침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 성령님의 침례와 성령님에 의해 새로 태어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sup>2)</sup>

예수님은 육신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새롭게 되신 분이라는 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님의 침례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요르단강에서 이 침례를 받으셨고 그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그분 위로 내려왔습니다(요1:32-33).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시면서 비둘기의 형체를 취하셨는데 그 이유는 비둘기가 순결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실 때는 정화를 상징하는 불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일어난 성령님의 침례에 앞서 하늘로부터 강력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에는 실제의 바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바람 소리 같은 소리만 있었고 그것이 제자들이 앉아 있던 곳을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진짜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갈라진 불꽃들은 진짜 불이 가져다주는 정화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그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성령 침례의 결과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을 주시는 대로 타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는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케 된 것과 같은 혼동이 없었고, 반대로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즉 확실한 외국어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큰 소리가 퍼져 나갔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모국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타 언어로 말하는 은사는 제자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성령님의 침례를 받았으며 자기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의 그 표적은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sup>3)</sup>

---

2)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변천기에는 베드로 같은 사도들의 경우처럼 구원과 성령 침례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다(행18:24-28; 19:1-7). 이런 사람들은 신구약 시대의 변천기에 살면서 성령님의 침례 사역이 있기 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천기가 끝나면서부터는 신약 시대의 성도는 누구나 구원받는 순간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전 12:13).

3) 1차적으로 타 언어는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성경이 보여 주듯이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

그렇다면 오순절 날에 타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날이 큰 명절날로서 세상의 사방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행2:8-11). 아마도 그 가운데 있던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유월절 기간부터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유월절 이후로 오순절까지 50일 동안에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다고 보고했으며 또한 그들이 하늘로부터의 어떤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해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제 오순절 날이 지나 내일이면 이 유대인들이 멀리 있는 자기들의 집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자기들이 들은 이상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 언어로 말하는 능력을 받았다는 소문은 마치 산불처럼 빨리 퍼지게 되었고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집 앞의 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자기 나라의 말로 자세히 들어 보려 하는 사람들 곧 여러 민족들 중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어느 누구도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각각 자기 자신의 말 곧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타 언어로 말하는 은사(선물)가 표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적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서 온 어떤 유대인이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은사 역시 왕국의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과 더불어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 요지를 잡았습니다. 그가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가 이르되, 하나님에 말하노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행2:16-17)

그러고 나서 그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을2:28-32)라는 요엘의 대언을 언급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요엘의 예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이것이 요엘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일어난 것은 사실 요엘서에 기록된 것들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에 이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땅 위에 피, 불, 연기 기둥이 있지도 않았으며 해가 변하여 어둡게 되거나 달이 피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엘의 대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또한 요엘의 대언은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단지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습니다.

---

타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아마도 그리스말과 자기들 지역의 말을 하는)이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요점이다(265쪽 참조). “율법에,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대언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고전14:21-22)

그 대언은 천년 왕국의 때, 즉 주의 날과 상관이 있습니다(욥1:15). 문맥을 고려해서 요엘서를 자세히 읽어 보면 타 언어로 말하는 은사(선물)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되돌아와서 회심할 때에야 비로소 주어지게 됨을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주께서 그들(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 주시고 그러면 그들이 대언을 하게 되고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대언은 팔레스타인 땅에 늦은 비가 회복될 때에야 비로소 성취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늦은 비는, 앞뒤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영적인 늦은 비가 아니고 실제적인 늦은 비입니다. 사실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크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저주를 받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거짓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신11:13-17). 따라서 주의 날에 실제적인 이른 비와 실제적인 늦은 비가 회복될 것이고(욥2:23-27) 팔레스타인 땅은 마치 장미처럼 만발하게 되며 포도원과 올리브밭으로 뒤덮일 것입니다(사35:1-2).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내치도록 부어진 것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표였으며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사용하여 그때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죄들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다시 새롭게 하는 때', 즉 대언자 요엘이 예언한 것이 성취될 것입니다(행3:19-21).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타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바로 왕국의 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변천기에는 그것이 필요했지만 이제 그 변천기가 지나갔으므로 이것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친히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기 전까지 이것은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서 이미 말한 대로, 변천기에 살던 제자들의 경우 성령님의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사역이 있는 뒤에 능력 부여를 위해 성령님을 부어 주시는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의 어느 서신서에서도 성령님을 부어 주시는 또 다른 오순절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 이때에 타 언어를 말하는 은사 등이 동반될 - 기도해야 한다는 명령이나 권고 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런 명령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이 시간에도 또 다른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역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타 언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기사는 사도행전 10장 44-48절에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일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으며 그 목적은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습니(행11:15-18).

세 번째로, 이 사건은 사도행전 19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은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 중 몇몇이 아볼로의 복음 선포로 인해 회심했으나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고 그들은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었고 대언을 했습니다. 이 표적의 목적은 이 제자들에게<sup>4)</sup> 성령님이란 분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행19:2

---

4) 이 제자들은 요한의 침례만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었다(영어로는 Old Testament saints). 이들은 신구약 시대의 변천기에 살면서 성령님의 침례 사역이 있기 전에 구원을 받았고(즉 구약식으로 구원을 받음) 나중에 성령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변천기 이후의 표준이 아니다. 변천기 이후에는 구원받는 즉시 성령 침례를 받는다.

참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 위에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들이 타 언어로 말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행8:14-17). 따라서 우리는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이 동반되지 않아도 성령님의 침례를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sup>5)</sup>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된 것은 결코 그들이 타 언어로 말했기 때문이 아니며 그들의 마음을 찢은 베드로의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베드로는 다른 나라 말로 말하지 않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평상시의 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그곳에 있던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말로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고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때에 성령님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행2:38)

우리는 그들이 성령님의 은사(선물)와 더불어 타 언어로 말하는 능력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순절 날에 타 언어로 말한 사람들은 바로 그 특별한 날을 위해 그 은사를 받을 필요가 있었지만 우리는 어디에서도 그들이 그 일 뒤에 그 같은 은사를 사용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 서신서 중에서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이 기록된 곳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 은사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은 고린도전서 12장 4-11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아홉 개였으며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은 끝에서 두 번째에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아홉 가지였지만 이 은사들이 정기적으로 늘 분배되거나 똑같은 비율로 성도들에게 분배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주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이 은사 중 어떤 것들은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어떤 특정한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은 사도 시대와 미래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대상인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회원들은 육신적이었고 여러 가지 사악한 것들을 행했으며 분파와 헛된 영광을 구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고전3:1-4; 5:1-2). 따라서 이들 중 몇몇이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을 구했다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고전14:33, 40).

---

5) 이것이 바로 변천기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타 언어(방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변천기에는 성령 침례를 받을 때 타 언어를 말한 경우도 있고 말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우나 16장의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경우에는 구원받을 때 그들이 타 언어를 말하지 않았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34-35절을 보면 특히 이 교회의 여자들이 타 언어로 말하는 것에 열심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을 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야만 한다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이 초대 교회에 있던 표적이었으나 교회를 세워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사도들이 늘 이것을 행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늘 성령님의 충만을 강조했지 성령님의 침례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서신서에도 그들은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것의 증거이며 성령님의 침례를 받을 때 그런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대언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고전14:22).

따라서 믿는 이들은 스스로 증거를 삼기 위해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이 잘못하면 그럴듯하게 모방될 수 있다는 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늘 성령님의 은사를 가장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언어로 말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치 못하게 중얼중얼하거나 지적이 아닌 방법으로 말하거나 이상하게 행동하면 그것은 거의 마귀의 작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항상 위엄이 있고 조용하게 자신을 드러내며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이미 말한 대로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몸은 여러 지체와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은 나름대로의 기능과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 하나가 병에 걸리거나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몸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근육과 관절도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물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꼭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엡4:11-16).

이 구절은 교회의 각 지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교회 내에 분파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성경의 진리를 옳지 않게 강조하거나 떼어 내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님을 보여 주기 위해 대부분의 초기 사도 교회에서는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회심한 3,000명이나

바로 그 뒤에 회심한 5,000명 혹은 사도행전 8장 14-17절에 기록된 대로 손을 얹음으로써 성령님의 침례를 받게 된 사마리아의 회심자들이 타 언어로 말하는 은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이 은사가 더 이상 어떤 실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교회들이 이 은사를 소유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도들은 교회들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이 은사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은사가 결코 교회의 교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이 은사가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었음을 증언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명절이요 그들의 달력과 관련이 있으며 이런 의미 외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오순절 날에 있었던 성령님의 침례는 결코 오순절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그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명절이 이용된 것은 위에서도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바로 그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가 다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런 은사들 외에도 그 변천기에 교회에 임했던 은사들 중 여럿이 그 기간이 끝남과 더불어 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들 자체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였지만(고전12:28; 엡4:11-12) 이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신약 시대의 대언자들, 즉 성경을 기록한 이들도 다 은사였지만 성경기록이 완결됨과 동시에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 충분히 예견된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대언들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고전13:8).

바로 그 변천기에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일이 있습니까? 그때에는 감옥의 문이 기적적으로 열렸고 그 안의 죄수들이 풀려 나왔습니다. 또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대거나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행 5:15) 등을 통해서도 병이 낫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날에 이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지금 지난 20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오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안에는 사도 시대만큼이나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물리적 현상 혹은 표적에 의지하거나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대교는 의식적 종교로서 표적에 의지하는 반면에 기독교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주후 30년부터 70년까지 사도 시대의 그 40년이라는 변천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은혜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은혜를 붙잡지 못했을 때 그들은 결국 주후 70년에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유대교는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들

몇 해 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노스필드란 곳에서 스피어 박사는 ‘내부의 원’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강연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러 영역을 보여 주려 했습니다. 필자는 그의 강연의 요지를 다음과 같은 선도로 만들었습니다.

### 첫째 원: 500명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오백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지금 이때까지 남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형제란 단어는 이 오백 명이 신자들이며 믿음을 가진 자들로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이 원은 ‘믿음의 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구성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와 가까이서 동행하지 않고 멀리서 그리스도를 보며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 둘째 원: 70명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들 뒤에 주께서 다른 칠십 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도시와 장소로 그들을 둘씩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며(눅10:1)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것은 그들이 서로 위로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짝이 된 이들은 아마 받은 은사나 기질도 서로 달랐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와 노래하는 자로 짝을 이루어 자기들의 일을 조화 있게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디로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무엇을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 칠십 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눅10:17)

이 70명은 500명 가운데 봉사할 목적으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원은 ‘봉사의 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면 봉사의 직무에 적합한 일꾼은 대개 전체 교인 수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아마도 500명의 신자로 구성된 교회에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70명가량일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과 싸울 때는 어떠했습니까? 기드온에게는 32,0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삿7:1-8). 그러나 주님은 그 수가 너무 많으므로 그들이 싸움에서 이기면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자랑할 것을 알고 기드온에게 그들을 시험하여 봉사에 적합한 사람들만 뽑게 했습니다. 그 결과 기드온은 300명만 시험을 통과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숫자란 참으로 별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교회에서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사람들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만 봉사의 일에 쓰입니다. 구원을 받고 ‘믿음의 원’에 속하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봉사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 ‘봉사의 원’에 속하게 되는 영예를 얻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 셋째 원: 12명

셋째 원은 12명의 원입니다.

그분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매 그들이 그분께 오므로 그분께서 열두 명을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북을 선포도 하게 하며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막 3:1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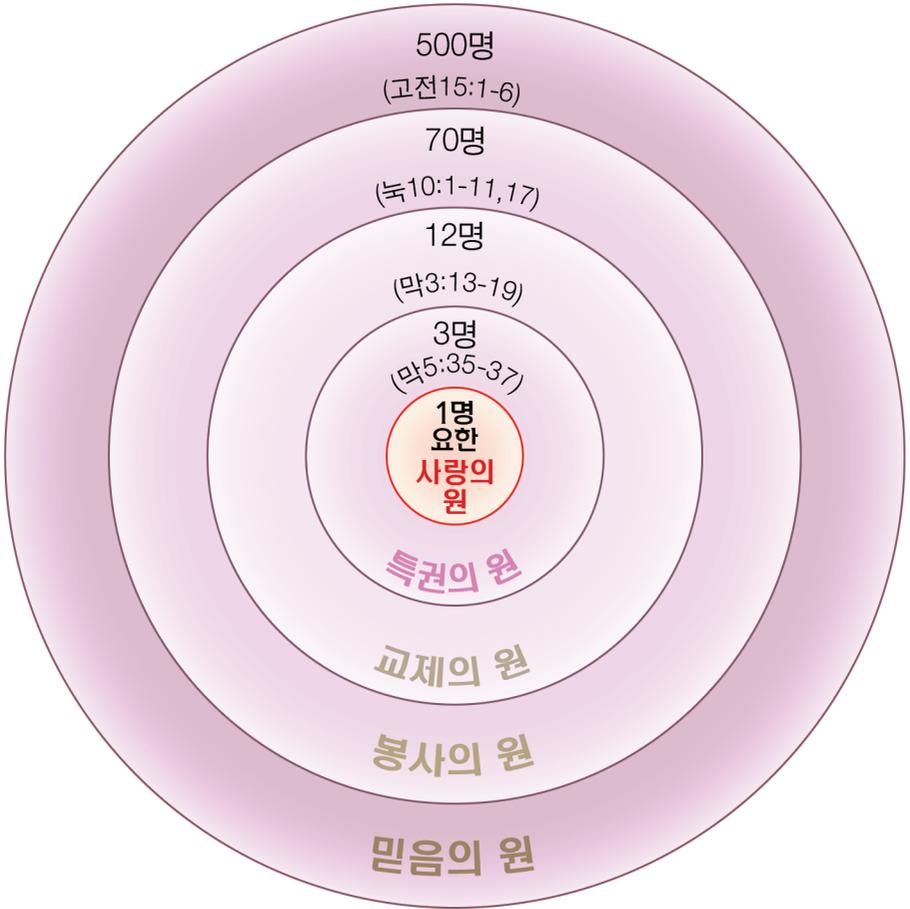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열두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그들을 내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고상하게 살며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예수님은 고독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교제를 그리워하셨고 자신이 계시던 곳을 그리워하셨다는 것이 그분의 기도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요17:5).

이 같은 외로움과 그리움을 이기기 위해 예수님은 열두 사도를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은 ‘교제의 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것은 단지 교제를 위한 이기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역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료들을 원하셨으며 70명을 세워서 보낸 것처럼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열두 명의 이름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들은 500명 중에서 선택되지 않고 70명 중에서 선택되었습니다. 선택받은 70명은 봉사의 직무에는 적합했으나 모두가 사도의 직무를 맡기에 적합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많은 일꾼이 있지만 이 중에서 특별히 몇 명만 집사와 같은 직분을 맡기에 적합합니다. 교회에 유익하고 목사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직분을 맡는 사람은 목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목사는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이 같은 교제는 서로에게 도움과 기쁨이 됩니다. 이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짝을 지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리스도와의 친밀도를 보여 주는 원들



그렇게 될 때 목사는 사역지로 그들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 넷째 원: 세 명

예수님은 특별한 경우마다 열두 사도 가운데서 세 명만을 따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항상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들은 특별한 자격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 자신은 몰랐지만 그들이 아주 특별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의 으뜸이 되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가 되며<sup>6)</sup> 요한은 교회에 대한 계시를 목격하고 기록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 이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확고히 믿으며 의심하지 않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아신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곳마다 이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 1. 아이로의 집

아이로라 하는 회당의 으뜸 치리자는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죽어 가는 어린 딸을 살려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의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무리에 휩싸여 시간을 많이 지체하셨기 때문에 아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그 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막 5:22-43). 이때 예수님은 호기심에 찬 군중들을 모두 내보내신 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죽은 딸의 부모만 데리고 아이가 죽은 채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슬픔에 잠긴 부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그 죽음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을까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활의 능력을 보여 주시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께서는 그 권능 안에 있는 자신의 신성을 그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 2. 변화산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곳은 변화산이었습니다(막9:1-10).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 주는 데 있었습니다.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미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보여 주고 또 자신이 육신으로 오기 전에 이미 존재한 것과 모세와 엘리야도 이미 자신을 알고 있었고 자신도 그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이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아이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과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한 것은 때가 되기 전에 자신의 신성이 알려져서 자신의 사역이 방해를 받거나 앓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3.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곳은 겟세마네 동산의 외진 곳이었습니다(막14:32-52). 다락방에서 주의 만찬을 함께 했던 제자들은 모두 겟세마

---

6) 저자가 말하는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로서 그는 초대 교회 설립 이후 약 14년이 지난 주후 44년경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고(행12) 그 뒤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회의를 주재하며 교회의 으뜸 지도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행15). 이 야고보는 네로의 박해로 주후 62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진다.

네 동산으로 예수님과 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동산의 구석진 곳으로 함께 갈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주님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겐세마네의 고통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성스러운 것이었기에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을 깨웠을 때에야 비로소 그분의 얼굴에 역력히 나타나 있는 고통의 표정을 보았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셋을 동산 안으로 데리고 가신 것은 그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 보여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를 몸소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실상 그날 밤의 광경은 현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축소판 그림입니다. 첫째, 그것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둘째, 잠에 빠진 교회와 셋째, 활개 치고 다니는 마귀를 잘 보여 줍니다. 따라서 세 명의 원은 ‘특권의 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사도가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과 고난이 나타난 특별한 곳에 함께 가도록 선택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 중 몇몇이 목사에 의해 선택을 받아(디모데전서 3장 참조)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신비들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성장해 간다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속으로 “나는 특권의 원에 속하기는 틀렸어. 우유부단하고 신뢰성이 없고 충동적인 사람이거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선택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들의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의 왕국에서 각기 그분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기를 원했던, 다분히 자기 본위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는 마귀가 그들을 밀 까부르듯 까부를 때에 그들에게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좋은 알곡의 성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 원에 들어갔을까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이 자신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만큼 헌신적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을 선택했습니다.

### 다섯째 원: 한 명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시니라(요13:34-35).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명령을 실천한 이가 단 한 명 있는데 그는 바로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노라고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요21:20). 사랑은 요한의 전 생애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요한1서 4장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무려 31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속한 이 원은 ‘사랑의 원’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담대히 맞섭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의 아이를 위해 가장 무서운 질병에도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겐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요한만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막14:50).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들어간 ‘또 다른 제자’입니다(요18:15). 예수님과 요한 간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어떤 사랑의 관계도 능가할 만큼 크고 깊었습니다. 교회의 목사도 자기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을 존경하고 신뢰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원에 속합니까? 가장자리에 있는 ‘믿음의 원’에 속합니까? 구원을 받은 500명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봉사의 직무에는 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70명 중의 한 사람으로 ‘봉사의 원’에 속해 주님의 일로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혹은 70명 중에서 12명으로 선택받아 ‘교제의 원’에 속해 있으며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목사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특권의 원’에 속해 있습니까? 혹은 당신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가 속한 ‘사랑의 원’에 속해 있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유용하게 주님께 드러질 수 있는가 또 얼마나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당신이 어느 원에 속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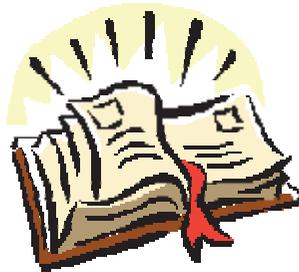


제2부

## 세대주의 바로 알기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Study to shew thyself approved unto God,  
a workman that needeth not to be ashamed,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2 Tim. 2:15).





## 세대주의 바로 알기

### 세대주의 개관

한국이나 미국이나 예외 없이 '세대주의'란 말을 언급하기만 하면 대개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대주의란 말은 호의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는 세대주의 성경학자들의 사역과 저술 등이 자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복이 되었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해 보려는 흥미를 처음으로 일깨워 준 성경 회의나 예언 집회 혹은 특별한 모임 등을 회상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세대주의란 말을 마치 재앙과 같이 여기고 이것을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도 하지 않으며 그것에 대해 들었다 하더라도 대개는 부정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세대주의의 가르침이 야말로 이단 가르침이라는 말도 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자들은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실하게 믿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룹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모든 교리와 마찬가지로 세대주의의 가르침 역시 조직화 과정과 발전 과정을 겪어 왔지만 그 안에서 가르치는 기본 특징들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대주의는 여러 차례 외부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아 왔으며 서투른 모방과 판에 박힌 비난 등은 세대주의의 관점을 제대로 보여 주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세대주의의 관점을 조롱하곤 했습니다.

장로교가 주축인 국내에서는 처음에 세대주의가 도입되어 종말론에서 표준이 되었으나 날이 가면서 칼빈주의가 확고하게 정착되면서 장로교는 고전적인 언약주의로 회귀하게 되었고 지금 웬만한 신학교에서는 세대주의를 '이단 교리' 혹은 '준 이단 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 교회가 신학적/목회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시한부 종말론 때문일 것입니다. 국내에는 우리 주위에 유행하고 있는 통속적 종말론의 해석학적 뿌리가 고전적인 세대주의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어느 정도 이 견해는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 교회에 유행하고 있는 통속적 종말론에는 크게 '신비주의적 종말관'과 '세대주의적 종말관'이 있으며 이 둘이 혼합된 경우도 있습니다. 펄시 콜레, 이장립 등이 주장하는 것은 신비주의적 종말론이며 헬 린제이, 콜린 데일, 찰스 라일리 등의 종말관은 세대주의적 종말관입니다. 전자의 문제는 세대주의의 어떤 틀을 유지하는 듯하면서도 하늘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직통 계시에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적 시한부 종말론은 진정한 의미의 세대주의적 종말론과 다릅니다. 미국의 정상적인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한국의 신비주의 종말론자들처럼 직통 계시를 믿고 생업을 버린 채 공동생활을

하며 흰옷을 입고 자정에 휴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과 달리 침례교가 주축인 미국에서는 1900년대 초반에 출간된 「스코필드 주석성경」(*Scotfield Reference Bible*)의 영향으로 건전한 세대주의가 거의 모든 신자들의 신학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화당 체제든 민주당 체제든 계속해서 중동의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근본 이유는 미국인들의 머릿속에 세대주의 신학이 알게 모르게 확고히 정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크고 권위가 있고 학구적이라는 신학교들 - 예를 들어 델러스, 탈봇, 무디, 그레이스, 펜사콜라<sup>1)</sup> 및 대부분의 침례교 신학교들 - 은 모두 건전한 세대주의를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에서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세대주의는 결코 이단이 아니며 서구에서 언약주의(갈빈주의)와 함께 신학의 골격을 이룬 건전한 신학 체계입니다. 제대로 신학을 공부한 목사나 신학자라면 누구나 이 점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세대주의와 언약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성경 해석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느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같은 성경 말씀이 달리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한 성경 해석 체계를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주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다만 끝 날에 이루어질 부분, 즉 종말론에서 성경 해석 방법의 차이로 인해 양 진영이 대립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천년 왕국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언약주의에서는 문자 그대로의 천년 왕국은 없으며 그것을 영구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봅니다. 반면에 세대주의에서는 그것이 문자 그대로 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달리 보므로 에스겔서 40-48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서로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된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언약주의적 해석입니다.<sup>2)</sup>

에스겔 47장: 여기에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예언되고 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큰 강이 되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나타난다(5절). 그리고 강의 왼쪽과 오른쪽에 나무가 심히 많고 강이 도달하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며 바닷물(사해)이 소생함을 얻는다고 한다(9절).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

1) 미국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시에는 러크맨이 운영하는 펜사콜라 성경신학원(Pensacola Bible Institute, PBI, [www.kjv1611.org](http://www.kjv1611.org))과 호르튼이 총장으로 있는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교(Pensacola Christian College, PCC, [www.pcci.edu](http://www.pcci.edu))가 있다. 국내에는 러크맨의 영향을 받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PBI를 가장 좋은 학교인 것으로 소개하면서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 PBI는 러크맨의 교회에서 밤에 모이는 야간 신학교에 불과하다. 물론 야간 신학교라도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면 좋은 목회자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PBI가 가르치는 극단적 세대주의는 미국과 한국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누구라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과 그들의 교리의 창시자 러크맨을 잘 알 수 있다. 반면에 PCC는 미국 내 보수주의를 이끌고 있는, 5,000여 명의 학생이 있는 크리스천 종합 대학이다. PCC에서 발행되는 홈스쿨링 교재인 '아베카북'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크리스천 교과서이다.

2) 이 글은 <http://blog.daum.net/11christ/10411012>에서 취했으며 저자는 김정우로 되어 있다.

수 있을까?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 사해까지 적시며 사해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고 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할까? 이 예언의 배후에는 명백하게 에덴동산 이미지가 깔려 있음을 주목하라. 에덴동산에 흐르는 물과 모든 나무와 산의 모티프가 에스겔서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기록이 말한 것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요7:38)고 말씀하심으로 에덴동산을 성령 강림으로 재해석하셨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며 강의 왼쪽과 오른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종류의 실과를 맺는다고 한다. 즉 에스겔의 상징적인 강이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에스겔은 에덴동산의 회복을 여기에서 바라보고 있지 문자 그대로 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올 것을 내다보고 있지 않다. 구약의 성전은 그 자체가 예표적이다.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를 본 딴 복사판이다(출 25:40; 왕상8:29-30). 성전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로서(히8:5) 하나의 모형으로 주어졌다. 이 모형은 그림자로서 솔로몬의 돌 성전은 보다 완전한 것이 나올 때 폐기될 수 있었다(히10:9). 이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실체가 나타나고(요1:14) 종말론적인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계22). 이 성경신학적인 맥락 속에서 에스겔서의 강물과 나무 이미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이처럼 언약주의자들은 종말과 이스라엘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해합니다. 반면에 세대주의자들은 천년 왕국 때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에 돌아와서 땅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나오는 물이 사해를 살리며 모든 지역을 옥토로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제 동일한 장로교 저자가 스가랴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스가랴서에 나타난 예언: 메릴 언거(Unger, 1978)는 스가랴서 전체가 메시아의 강림과 천년 왕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라는 관점 속에서 주석을 하고 있다. 예로서 2장 1-13절의 측량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환상은 ‘그 도시가 미래에 천년 왕국의 수도가 될 것’을 바라보고 있다. 즉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고 교회가 될 수 없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깨끗함을 받는 환상(3:1-10)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을 그리고 있다(55쪽). 11장은 미래에 거짓 목자, 즉 적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하며 12장은 미래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한다고 말한다(206쪽). 미래의 예루살렘이 다시 이방인들에게 포위될 것이며(12:1-9) 메시아 왕이 두 번째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이다(12:1-13:9).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승리를 거둘 것이나 메시아가 감람산에 오심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산이 변형되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다(14장). 따라서 14장은 전적으로 예언적이다(wholly prophetic). 이것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과거 역사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238쪽). “스가랴 14장은 현시대의 관점에서도 전적으로 예언적이다. 그 의미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석법은 문자적인 해석이다”(239쪽). 그리고 언거는 파인버거를 인용하고 있다: “이 장이 문자적으로 해석될 때 스가랴가 지금까지 계시한 것과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완성에 대한 예언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렇다면 스가랴서에서 감람산이 나누어지고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사해를 생명의 바다로 만드는 이미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알리는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요엘이 말세가 되어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일하시는 시대를

예언하면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았을까? 선지자는 신약 시대의 도래에 대해 상징과 비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 상징과 비유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선지자의 의미를 바로 캐어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목시 문학이라는 장르를 결정하는 것이 종말과 연관된 본문들을 이해하는 열쇠를 준다. 다니엘과 사도 요한은 고난 가운데서 꿈과 환상과 상징을 통해 하나님을 이기고 있고, 역사의 마지막에 개입하시며 그의 성도들을 신원하시고 그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말하고 있다. 목시 문학은 구체적인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종말론적인 최후의 승리를 제시하며 고난받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로한다. 신자들이 고난받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상징(symbolism)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위에서 보았듯이 언약주의의 요점은 구약이나 신약의 예언 부분과 이스라엘 관련 부분을 모두 상징을 통해 비유적 표현으로, 영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성경 해석 체계와 믿음을 가진 분들 중 상당수가 진지한 크리스천임을 인정하면서도 세대주의자들은 이 부분에 관한 한 그들의 진지함을 따르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믿습니다. 즉 그들은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로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 사해를 회복시키며 재림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오셔서 땅이 갈라지는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들은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우리 주님의 발이 올리브산에 닿는 것은 곧 사도행전 1장 11-12절에서 주님께서 승천하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 즉 올리브산에서 승천한 그대로 올리브산에 오신다는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 봅니다. 언약주의자들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고의로 무시하고 영해하여 모두 교회에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 세대주의에 대한 오해

사람이 조직적으로 만든 교리나 이론에는 언제나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며 세대주의 역시 이 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음은 세대주의를 공격하기 위해 언약주의자들이 지적하는 몇 가지 사실들입니다. 이 책을 전개하기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해 잠시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A. 세대주의는 최근에 생긴 교리로서 역사성이 없다<sup>3)</sup>

하나의 신학 체계로서의 세대주의의 기원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은 세대주의자들 도 대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대주의라는 신학으로 체계화된 초기의 개념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현대 세대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진 다비(John Nelson Darby, 주후 1800-1882)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인물들의 저술을 살펴보면 세대주의적 개념이 바로 그들의 관점의 일부였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많습니다.

마티(Justine Martyr, 주후 110-165)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트리포와의 대화」(*Dialogue with Trypho*)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항상 동일한 의를 가르치셨다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분명히 세대주의적인 개념들을

---

3) 역사성 부분은 라이리(C. Ryrie)가 지은 「오늘날의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 Today*, 1999, Moody Press)에서 발췌하였다.

보여 주었습니다.

이레니우스(Irenaeus, 주후 130-200)는 신약 성경 안에 네 복음서밖에 없는 이유들을 기록하면서 세대주의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주후 150-220)는 모세 세대뿐만 아니라 세 개의 족장 세대(아담, 노아, 아브라함)를 구분했습니다. “시대를 구분하라. 그러면 성경은 스스로 조화를 이룬다.”라고 주장한 어거스틴도 자신의 저작에서 세대주의에 적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희생 법규의 제정은 이전 시대에는 적절했지만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하나님께서 현시대에 맞는 변화를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각 시대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보다 무한히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분께서 더하시든 빼시든, 폐하시든 세우시든, 줄이시든 늘이시든 지 상관없이 그분은 변하는 것들을 창조하신 불변의 창조자이시며 시간의 여정을 통해 아름다움이 완성될 때까지 자신의 섭리 속에서 모든 사건을 명령하신다. 또한 이러한 시간의 일부인 세대들은 각각의 연속되는 시대에 잘 맞게 되어 있으며 형언할 수 없이 슬기로운 음악가가 지은 노래의 웅장한 멜로디처럼 끝이 나게 될 것이다. … 비록 세상 역사의 이전 시대의 한 기간에 그분께서 한 종류의 헌물을 요구하시고 그다음 기간에는 다른 종류의 헌물을 요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변함이 없다. 사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께서는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으시면서 연속되는 시대들의 변화들과 조화를 이루는 참된 종교, 즉 찬송받기에 합당한 참된 종교의 교리에 속한 상징적 행동들을 명령하신 것이다.

한 역사가는 피오레의 요아킴(Joachim, 주후 1135-1202)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세 시대 역사 이론, 즉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영과 의의 미래 시대로 나누는 이론은 19세기와 20세기 초의 미국 및 영국의 예언 저술가들이 퍼뜨린 세대주의의 원시적 형태인데 이 세대주의 역시 인류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단계들, 즉 세대들로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사도 요한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시대를 구분하여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으며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원시의 혹은 초기의 세대주의적 개념들을 주장한 사람들이라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종교 개혁 이후에 이르기까지는 훗날 세대주의로 체계화된 개념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종교 개혁의 중요한 교리적 문제들이 해결된 뒤에야 비로소 신학자들은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러한 문제들에 다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포와르(Pierre Poiret, 주후 1646-1729)는 프랑스의 신비주의 철학자로서 1687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자신의 유명한 저서 「하나님의 경륜」(*L'Oeconomie Divine*)을 처음 출간했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 예정론에서 발전한 것이지만 뒤에는 하나의 완성된 조직 신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의 책은 특별한 경륜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J. Edwards, 주후 1639-1716)<sup>4)</sup>는 영국 국교회의 칼빈주의 목사로서 1699년에 「모든 시대들의 전체 역사 혹은 개관」(*A Complete History or Survey of All the Dispensations*)이란 제목의 790페이지에 달하는 긴 책을 두 권으로 나누어 출간했습

4) 이 사람은 미국의 청교도 목사로 대각성 운동의 촉매가 된 조나단 에드워즈와는 다른 사람이다.

니다. 그의 저술 목적은 ‘창조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창세기 첫 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의 신앙/종교의 여러 가지 방법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의 이행을 다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저서 역시 세대주의적 골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작시자로 잘 알려진 와츠(I. Watts, 주후 1674-1748)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정해 주신 모든 종교와 그들을 향한 그분의 모든 세대의 조화」라는 제목의 40페이지 논고에서 세대들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정의내리고 자신의 세대주의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세대주의적 개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죄 세대 혹은 처음의 아담의 신앙
2. 은혜 언약의 아담 세대 혹은 타락 뒤의 아담의 신앙
3. 노아 세대 혹은 노아의 신앙
4. 아브라함 세대 혹은 아브라함의 신앙
5. 모세 세대 혹은 유대교 신앙
6. 기독교 세대

천년 왕국이 빠진 것을 제외하면 그의 체계는 현시대 세대주의자들의 체계와 동일합니다.

그 이후에 다비(John Nelson Darby, 주후 1800-1882)가 세대주의를 체계화하고 촉진하였지만 다비나 그가 속한 형제교회가 세대주의 체계에 내포된 개념들을 스스로 창안해 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개념들이 성경에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의 체계를 세웠을 뿐입니다. 다비는 성경 번역을 포함해서 권당 600여 페이지 분량의 책 40여 권을 지었는데 그의 작품들은 성경 언어 및 철학과 교회사 등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을 잘 보여 줍니다.

1900년대 이후로 스코필드(C. I. Scofield) 등이 전통적 의미의 세대주의를 확립하였는데 그의 체계는 다비의 체계와 달랐습니다. 스코필드의 체계는 와츠의 체계와 비슷하며 다비의 체계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가 다비에서 시작되어 스코필드에 의해 전수되고 대중화되었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역사를 통해 세대주의의 개념이 주후 100년경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현대적 의미의 세대주의라는 개념으로 정착된 것은 최근의 일이었으며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들이 종말론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교회들이 종말론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종말론과 관련된 특징들을 갖고 있는 세대주의 신학도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대순으로 볼 때 교리적 논의는 변증론, 하나님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그리고 종교 개혁 이후에 종말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조직적인 종말론이 최근에 정립되었다는 사실은 체계적인 세대주의가 비교적 최근에 정립되었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 말은 결코 종말론이나 원시적 형태의 세대주의가 종교 개혁 이전 시대에는 검토되지 않았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영역에서 교리의 체계적 발전이 그때까지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리의 발전 도상의 현대 시기에서 종말론에 대한 연구 노력으로 인해 세대주의의 특징들이라는 좋은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최근의 것이며 따라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1) 세대주의 개념들은 다비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의해 이미 가르쳐졌다.
- (2) 종말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대주의가 최근에 와서야 세밀히 검토되고 체계화된 것은 단지 종말론이란 신학 영역 자체가 최근에야 비로소 제대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대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 즉 세대주의는 최근의 것이며 따라서 역사성이 없다는 주장으로부터 얻게 되는 결론은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위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판결이 최종 권위가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된 것이든 최근의 것이든 모든 교리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성경의 계시라는 빛을 통해 시험해야만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천주교를 반대하는 이들은 세대주의가 예수회의 회원인 임파누엘 라쿤자가 만들었으므로 이것을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라쿤자가 7년 환난설의 주장자라고 말하며 천주교회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 혹은 기독교에 잘못된 교리 -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천주교 누룩 - 를 넣기 위해 이런 이론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천주교를 싫어하는 아일랜드의 개신교도들이 만들어 낸 이론입니다. 이들은 “천주교가 하는 것은 모두 틀렸다.”는 허수아비 이론을 가져다가 천주교에 반감을 가진 이들에게 주입하고 그들을 선동합니다. 천주교인들은 아주 강력하게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러면 천주교회가 삼위일체를 믿고 주장하므로 우리가 그것을 배격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천주교가 그것을 믿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7년 환난기 역시 성경이 이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7년 환난기를 믿으면 천주교의 예수회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시된 그대로 믿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역사의 판결이 아니라 성경이 최종 권위임을 믿으며 또한 이런 문제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지도 않음을 믿습니다. 어느 것이 바른가는 성경이 평범하게 밝혀 줄 것입니다.

- B. 세대주의는 인위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일곱 세대로 나누어서 궁극적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유대인에게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마지막 세대요 일곱째 세대인 ‘천년 왕국 시대’를 부각한다

뒤에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세대주의에서 ‘세대’(Dispensation)란 말은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나 계획이 이루어지는 동안의 확연히 구분되는 경영 체계 혹은 경륜’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보다는 경륜주의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영 체계가 지속되는 기간이 있어야 하므로 거기에서 파생되어 한 경영 체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우리말로 ‘세대’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경영 체계(세대)의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법을 바꾸신다.
2.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상응하는 계시가 필요하다.
3. 사람 편에서도 상응하는 반응이 있다.

위의 세 가지 주요 특징들 외에도 세대주의에는 다음과 같은 부차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 개의 경영 체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경영 체계는 이러한 부차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시험 -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
2. 책임/반응하기 위한 믿음
3. 사람의 실패
4. 심판 -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보여 주는 것

이런 면에서 세대주의를 들여다보면 세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경영 체계들과 이것들로 인한 시대들을 바르게 구분하고 성경 말씀을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데 있지, 결코 세대가 몇 개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세대를 나누는 방법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주의 깊게 읽은 독자라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인정하므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며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또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안식하며 더 이상 인간 제사장 체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 체계가 다음과 같이 다섯 개로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1. 아담의 타락 이전
2. 아담의 타락에서 모세까지(짐승의 희생)
3. 율법 -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4. 은혜 - 그리스도부터 현시대
5. 천년 왕국

위의 다섯 개 경영 체계 혹은 세대는 누구라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이 이러한 경영 체계의 앞뒤로 확연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결코 시대에 따라 구원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구원은 언제나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편 이 외에도 위의 둘째 기간인 ‘아담의 타락에서 모세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다음과 같이 2개의 다른 경영 체계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둘째 경영 체계는 좀 더 상세하게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2.1 아담의 타락에서 노아까지 -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 경영 체계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음.

2.2 노아부터 바벨탑까지 -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민족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 나가는 일이 시작되었으므로 새로운 경영 체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2.3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이 나오면서 새로운 경영 체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아마도 스코필드 이후의 근대적 세대주의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곱 개의 경영 체계/세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적했듯이 이 일곱 개 중 앞의 여섯 개는 주후 1700년경에 와츠가 제안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 일곱 개 외에도 어떤 분들은 7년 환난기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다른 경영 체계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의 경영 체계는 모두 아홉 개가 됩니다.

이렇듯 세대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대의 수에 대해서는 두 개에서부터 아홉 개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자들은 결코 인류 역사에서 일곱 개의 경영 체계만 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다만 성경에 확연히 구분되는 경영 체계들이 있으므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둔 채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C. 세대주의는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친다

뒤에서도 지적하겠지만 이것은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극히 일부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sup>5)</sup> 이들은 대개 구약 시대와 환난기에는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천년 왕국 시대에는 믿음이 필요 없고 단지 행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나누다가 스스로 거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의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곧 영생은 창조물이 창조자로부터 거저 얻는 것이지 자기 행위를 더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다 거저 주십니다. 사람의 삶에서 햇빛, 물, 공기같이 필수불가결한 것은 다 거저 주어집니다. 있어도 살 수 있고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들만 사람이 돈을 주고 사거나 힘을 들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진대 공기나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중한 영생을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주장은 이단 교리이며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은 결코 이런 의견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거저 얻는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첫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그들은 다 이 방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구원 방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저주의 말씀이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이다(갈1:8-9).

---

5) 이것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미국의 러크맨과 그의 추종자들을 들 수 있다.

## 세대주의의 이점

세대주의 신학의 가장 큰 이점은 성경을 문맥적으로 바르게 연구하는 일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18장 21-24절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가 자기가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내 모든 법규들을 지키며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범한 모든 범법들, 그것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자기가 행한 자기의 의 가운데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을 버리고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의로운 자가 자기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법을 행하고 사악한 자가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모든 의가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자기가 범한 범법 가운데서, 자기가 지은 죄 가운데서, 그것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많은 이들은 이 구절들을 인용하여 설교하며 이런 식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또 구원받은 뒤에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교리를 변호합니다. 그러나 성경 신자라면 누구나 성경의 모든 구절을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구절들의 문맥은 모세의 율법이며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런 구절들이 사람의 구원을 다루고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며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을 받고 순종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갈3:24).

또한 창세기 4장 9-12절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이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 9장 6절과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사람들과 다른 경영 체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은 변했습니다.

한국의 감리교나 성결교같이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선호하는 교회들은 마태복음 25장 31-46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용해 행위 구원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양에 속한 자들에게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마25:35-36)

문맥에 상관없이 이 구절들을 보면 주님께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신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해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자, 그러면 마태복음과 에베소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문맥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되는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 제자들은 그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시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리이까? 하니(마24:3)

여기에 대해 주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임할 대환난에 대해 말씀하시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은 '그때에'(then)라는 말과 함께 시작됩니다. 즉 열 처녀 비유는 세상 끝에 하늘의 왕국이 땅에 이루어지려는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 역시 이스라엘과 관계된 요엘서 3장에 나오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며 여기서 양에 속한 것으로 판명난 자들은 육체를 입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 불 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36-43절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문맥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결코 행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양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므로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마태복음 7장 15-23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나무가 좋으면 - 즉 믿음이 있으면 -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나쁘면 - 즉 믿음이 없으면 -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모두 불 속에 들어갑니다(마7:18). 물론 이것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이 구절은 문맥적으로 바로 그 위에 1-8절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10절은 8절에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여 자기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아무 때나 칼을 사용하라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잡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칼을 소유하라고 하셨습니다(눅22:36).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이 경고하는 바는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과 벌이는 전쟁에서 그와 함께 연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10장 5-6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도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지금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책임입니다.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에게만, 즉 유대인들에게만 가면 문제가 됩니다. 유대인을 향한 왕국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이 나올 때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결국 영적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그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입니다(고전15:1-4).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지상 사역의 시작부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고대하던 '하늘의 왕국', 즉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마3:2; 4:17). 물론 마태복음 10장도 같은 문맥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복음에는 우리 주님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왕국을 설립하니 회개하고 왕국을 받으라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이 진행되면서 유대인들은 조직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왕국은 연기되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37-3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자기를 배척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지상 사역 말기에 이르러 드디어 자신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우리 주님은 새로운 유기체인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교회는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21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이렇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신 뒤부터 우리 주님은 비로소 자신이 죽고 묻히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새로운 경영 체계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왕국을 기다리던 유대인 베드로는 22절에서 즉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을 꾸짖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 일이 주께 생길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주께 생기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으나

그러자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가리켜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인간/세상 경영 체계를 바꾸려 하는데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 일에 참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바꿉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것은 결코 구원의 방법이 다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인류의 역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 즉 구약의 대언자들이 끊임없이 선포한 ‘하늘에서 임하는 왕국’은 연기되고 교회라는 새로운 유기체가 생겨났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온 인류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 면에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엡2:11-12)

그러나 교회의 출생 이후에는 인류가 셋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고전10:32)

경륜주의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점진적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는 것을 바르게 보고 문맥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는 체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누구라도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이며 교회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회와 또 거기서 나온 프로테스탄트들은 대부분 이런 차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자기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한 ‘새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약 경륜의 제사장(사제, 신부), 성전(성당), 촛불, 물 뿌리는 것, 향 피우는 것 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세 암흑시대에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바티칸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것을 극도로 반대합니다.

감리교, 성공회, 장로교, 루터교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개신교 형제들은 1500-1600년경에 로마 천주교를 떠나면서 그들의 오류들을 대부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부하시고 교회를 택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들도 천주교회와 비슷하게 구약처럼 예식을 강조하고 유대인들의 할례가 성도들의 유아 세례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촛불과 향, 예전을 중시합니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들과 안식교 그리고 몰몬교 등도 구약의 이스라엘 체제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들을 대체하여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으므로 안식일을 지키고 각종 음식 규정을 지키며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류들의 문제는 한결같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자기들을 동일시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영 체계가 확연히 구별된다는 점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배척하고 죽인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맞아들일 때가 있음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찢은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슁 12:10).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신명기 28장 15-68절에 있는 불순종의 저주를 받고 있지만 그분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유대인들]이 너희[교회]로 인해 원수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 [유대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롬11:28-29).

사무엘기하 7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무조건적으로 맺으신 언약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1. 다윗의 가족을 통한 아브라함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삼하7:10)
2. 다윗의 왕좌가 그의 씨를 통해 영원히 확립되는 것(삼하7:13)
3. 죄로 인한 형벌은 있으나 약속의 취소는 없다는 것(삼하7:14-15)
4. 다윗의 집과 왕국을 영원히 확립하는 것(삼하7:16)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의 왕좌를 상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마 1:1) 이에 그분은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다윗의 왕국과 왕좌를 세우실 것입니다(사9:6-7).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29절은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옅으로 치워 놓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그들을 그들의 고토에 회복시키고 자신의 약속들을 문자 그대로 이룰 것을 보여 줍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프로테스탄트 형제들은 로마 카톨릭주의의 어거스틴 사상과 그것을 이어 받은 칼빈주의에 빠져 성경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 때에 다음과 같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1.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회복된다(슁10:6-12).
2. 이스라엘이 엄청난 심판을 받아 3분의 2가 죽고 오직 3분의 1만 주님의 구원을 받는다(슁13:8-9). 우리 주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대환난이라고 말한다(마24:21).
3. 이스라엘이 구속을 받는다(슁12:10-13:1).
4. 메시아가 재림하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쳐부수고 예루살렘에서 치리하신다(슁 14:1-21).

### 세대주의의 위험

세대주의라는 신학 체계가 성경을 바로 보게 해 주는 좋은 틀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이 체계를 너무 극단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극단주의자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이

체계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기본이 되는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어떤 세대에서는 믿음 외에 사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로 인해 충격을 받고 이 체계 전체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격하며 미국의 대부분의 세대주의 신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몇몇 과격한 이론들로 인해 어떤 신학 체계 전체를 나쁜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다음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로 인한 위험성과 그것에 대한 반론 및 해결책을 보여 줍니다.

#### A.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성경 신자들이 한 형태의 고정화된 특정 방식의 세대주의 교리를 믿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성경에는 물론 여러 개의 경륜이 있지만 성경 신자들이 한결같이 모두 어떤 사람의 특정 방식만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러크맨(Peter S. Ruckman)과 그의 추종자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세대주의를 믿지 않으면 모두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약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이단 교리를 믿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경륜주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성경에 몇 개의 경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모든 조직 신학과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 자체와 비교해서 시험해야 합니다(행17:11; 고전14:29; 살전5:21).

스코필드(C. I. Scofield), 라킨(Clarence Larkin), 웨이퍼(Lewis Sperry Chafer) 같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중에서 스코필드와 라킨은 그 시대의 신학을 반영하며 창세기의 재창조<sup>6)</sup>를 믿었습니다. 러크맨 같은 사람들은 이들의 신학에 ‘믿음 더하기 행위’라는 구원 방식을 유대인들에게 적용하여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러크맨이 운영하는 미국 펜사콜라 성경신학원 출신들은 한결같이 구원 방식이 시대마다 다르다는 교리를 강하게 주장하여 물의를 일으킵니다.<sup>7)</sup>

한편 최근에는 미국 델러스 신학교의 라이리(Charles Ryrie), 월브우드(John F. Walvoord), 펜테코스트(Dwight Pentecost) 등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모든 경륜을 통해 유일하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경륜주의 체계를 채택한다 해도 이스라엘과 교회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다 알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현시대에서 모든 질문을 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

6)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사람이 알 수 없는 오랜 기간이 존재하며 그 기간에 땅이 이미 한 번 멸절되었고 3절부터 나오는 창조 기사는 첫 창조가 아니라 이미 존재했다가 멸망한 옛 땅을 다시 창조하는 것(재창조)을 기술한 것이라는 믿음이다. 20세기 초에 진화론의 공세에 몰린 근본주의 크리스천들은 스코필드 등의 재창조 해석에 의지하여 창조와 진화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고 시도하였고 이 믿음은 오랫동안 많은 근본주의자들 사이에서 의심 없이 수용되고 공유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에 창조론을 지지하는 성경 과학자들이 많은 데이터를 제시하며 지구와 우주의 형성 연대가 성경 기사 그대로 6,000여 년 정도임을 보이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근본주의 학교에서 재창조가 아닌 창조를 믿고 가르치며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러크맨 추종자들은 대개 재창조를 믿음의 기초로 생각하고 있다.

7) 한국에서는 이송오씨가 대표로 있는 말씀보존학회가 러크맨주의를 그대로 답습하여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숨겨 놓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 B.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과격한 사람들은 불필요한 경륜을 나누고 성경의 모든 구절을 조각조각내고 만다

이런 체계는 흔히 ‘급진적 과격한 세대주의’(Hyper-dispensationalism)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 등을 급진적으로 과격하게 구분하고 조각냅니다. 여기에는 벌링거(E. W. Bullinger), 스태(Cornelius Stam)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펴니다.

- (1) 사복음서는 전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고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선포한 구원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과 동일하다고 말합니다(히2:3-4). 비록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민족에게 나타나시고 복음서와 서신서에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지만 히브리서 2장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들의 복음이 차이가 없음을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동일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시대에 직접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 (2) 바울에게 주어진 신비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계시된 것들과 다르며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만 수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서신 등은 신약 시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사도들(복수)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엡2:20).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언급하며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지 않습니다(벧후3:1-2, 15-16). 베드로와 바울은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최근에 스토퍼(Douglas Stauffer)는 러크맨의 교리를 토대로 지은 자신의 책 『One Book Rightly Divided: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Bible』(2000, McCowen Mills Publishers)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바울만 교회의 대변인이다(17쪽).
2.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실제로는 환난기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20, 27쪽).
3. 환난기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23쪽).
4.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치지 않는다(23, 29쪽).
5. 베드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26쪽).
6.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29쪽).
7. 요한일서는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56쪽).
8. 아브라함은 행위를 통해 자신의 구원을 유지하였다(175쪽).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구원론과 관련해서 ‘믿음 더하기 행위’ 공식을 주장하고 야고보서, 히브리서 같은 일반 서신들을 교회에 적용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순수해 보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보여도 그런 것은 다 불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이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C.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경륜과 경륜 사이에 변천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복음서는 한 경륜에서 다른 경륜으로 바뀌는 변천기 역사를 기록하므로 사복음서는 분명히 이스라엘과 교회를 위한 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으나(마2:2; 눅2:25-39)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의해 거부당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초점을 두시며(마16:18) 마지막 28장에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마태복음의 대상을 이스라엘로만 한정하면 주님의 뜻을 바로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것이 현시대 교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9장까지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므로 현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아주 독특한 사건이며 요엘서를 언급하면서 펼쳐지는 그 내용은 거의 유대인들의 예언 성취를 다룹니다. 또한 타 언어(방언)의 은사 역시 이스라엘을 위한 증거입니다(고전14:21-22).

한편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태어나서 구약의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8장 24-28절의 아볼로와 19장 1-7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구약의 방식으로 구원받았고 아직 신약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침례를 받기 전에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신약의 교리, 즉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교리를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대가 변하는 시기에 살았습니다.

D.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어떤 부분은 현시대와 상관이 없다고 믿으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구약 성경과 사복음서 혹은 사도행전이나 요한계시록 등을 이런 부류의 책으로 여기고 읽지 않으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말씀에서 현시대 크리스천들을 향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롬15:4; 고전10:6, 11).

E.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글자로 대하므로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한다

이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세세히 글자로만 대하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영적인 교훈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 바리새인들이 범한 것과 동일한 실수를 범합니다. 즉 경륜을 바로 나누어서 머리로는 성경을 이해하지만 영을 무시하기 때문에 권능이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글자로 성경기록을 주시고 경륜에 따라 바르게 성경을 보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은 성경기록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인데 이런 사람들은 글자만 논하다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놓칩니다. 그들의 영적 생활은 말 그대로 피폐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지적 교만으로 인해 자기와 조금이라도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분리하여 홀로서기를 하려 하므로 국내외에서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로 인해 성경 신자들에

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의 목적

이 책에서 우리는 경륜주의(세대주의)라는 신학 체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해석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의도를 시대를 따라 펼쳐 나가시는지 구체적으로 공부하려 합니다. 독자께서 부디 마음을 열고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의 성경 공부의 눈을 열어 준 이 신학 체계의 특징이 무엇이며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계시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롬15:4).*

## 세대주의는 무엇인가?

이 책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를 통해 세대주의의 특징들에 대해 자세히 공부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신학 체계도 완전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여기서 제시하는 세대주의 내용들이 완벽하여 이것들로 성경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감히 믿거나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경 해석 체계가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 줄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진리들을 볼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sup>1)</sup>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세대주의 신학 체계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여러 개의 기간으로 나눕니다. 지금까지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인류의 역사를 일곱 세대로 나누어 생각하고 설명하는 ‘고전적인 세대주의 체계’입니다. 이에 이 책에서는 그와 같은 고전적인 세대주의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완벽한 체계가 아닙니다. 세대주의에서 경륜은 꼭 일곱 개만 있어야 하지 않습니다. 두 개, 다섯 개, 아홉 개 등 여러 개의 경륜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륜의 개수에 상관없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한다는 세대주의의 본질은 동일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경륜들’(dispensations) 혹은 ‘세대들’에 관해 공부할 것입니다.<sup>2)</sup> ‘경륜’은 중요한 단어이기에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경륜’ 자체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차이점 인식

하나님은 변치 않고 동일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본래

---

1) 이 교제는 미국 코네티컷주 미들타운성경교회의 젤러(George Zeller)가 파슨스 목사의 도움을 얻어 만든 것이다. [www.MiddletonBibleChurch.org](http://www.MiddletonBibleChurch.org)에 본문(Shedding Light on the Dispensationalism)이 있으며 이 외에도 성경 공부에 필요한 고급 자료가 많이 있다.

2) 앞에서도 지적 했듯이 ‘dispensation’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경영 체계’이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보통 경륜이라고 부른다. 또한 한 경영 체계가 지속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여기서 세대 혹은 시대라는 개념이 나온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러한 경륜주의 신학 체계를 세대주의라고 부른다. 이 책에서는 경영 체계, 경륜, 세대 등을 혼용했고 또 경륜/세대로 표기한 경우도 있다. 부디 독자께서는 원래 ‘dispensationalism’이라는 말이 ‘경륜주의’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분의 모습과 다르게 변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불변하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걸쳐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분은 여러 시대의 여러 사람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방식이 바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들에게 큰 공활을 베푸사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영원을 상속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둘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바울과 아브라함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책임과 의무도 달랐습니다. 노아와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다른 방식도 달랐습니다. 노아의 의무는 방주를 짓는 것이었고 수백 년 뒤 사람인 솔로몬의 의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 계시되는 진리의 정도 차이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일시에 모두 주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다윗에게는 더 많은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구약 성도들에게 계시되지 않았던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마 13:17).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경의 모든 진리가 계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요16:12).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 주셨습니다(갈1:11-12; 엡3:3-5 참조).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죽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게 더 많은 진리를 계시해 주셨고 요한은 이것을 계시록에 기록하였습니다(계1:1-3, 9-12 등).

물론 이 같은 진리의 계시 방식은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당신에게 필요한 진리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한 번에 모든 진리를 알려 주십니까? 아니면 차츰차츰 알려 주십니까?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에게는 '젓'이 필요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단단한 음식과 고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고전3:1-2; 벘전2:2). 초신자가 깊은 영적인 진리를 모두 받는다 해도 그것을 소화해 내지 못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은 아직 기하학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하학은 나중에 배우고 먼저 더하기와 빼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책에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성경이 하룻밤

사이에 생겨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약 1,600년이라는 기간에 - 주전 1500년경에서 주후 100년까지 -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약 40여 명의 인간 기록자가 점진적으로 진보되는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 교회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도 성도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 심지어 복음서 한 권도 -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수 세기에 걸쳐 점진적이고도 진보적으로 계시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성경을 한 번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역사에 등장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아담: 제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성경 같은 것은 없었고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창 17:1; 18:1 등).

모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의 5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윗: 제 성경은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기, 사사기 그리고 제가 기록한 시편들이었습니다.

에스라: 제게는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침례자 요한: 제가 소유했던 성경은 전체 구약 성경이며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바울: 저는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 저는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었고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신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모두 합쳐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성경에는 다윗 시대의 성경보다 훨씬 많은 분량이 담겨 있습니다.

### 몇 가지 명백한 차이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항상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으며 사람들과 놀랍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경륜에 걸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엡2:8). 율법 이전 사람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창15:6)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롬4:3). 율법 시대에 살던 다윗도 그렇게 구원받았고(롬4:6) 신약 시대의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롬4:5)! 노아, 이사야, 베드로, 바울 등 천국에 간 모든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이같이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즉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값없이 부어 주신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과 호의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세대주의는 결코 시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롬11:6).

은혜에 행위를 더해 구원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아닙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속에서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각 시대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 혹은 각 시대를 경영하시는 -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당신은 교회에 갈 때 어린양을 가지고 갑니까? 어린양을 가지고 가서 당신의 죄로 인한 희생물로 그것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까?(레3:7; 4:32; 삼상7:9 참조)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들처럼 짐승을 희생물로 드립니까?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은 짐승을 희생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희생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런 경우도 고려해 봅시다. 오늘날 토요일(일곱째 날)에 일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율법에는 토요일에 일하는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이 있습니까?(출35:2 참조) 실제로 토요일에 나뭇가지를 줍다가 죽은 예가 민수기 15장 32-36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적인 교회에는 목사와 집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라고 불린 특별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입니다(벧전2:9; 계1:6).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부모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건 부모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유대인 사내아이의 부모에게 할례는 필수였습니까? 선택이었습니까?(창17:10-14 참조)

아담이 살았을 때는 먹어서는 안 될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창2:16-17). 그러면 지금도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때처럼 먹어서는 안 될 열매 곧 '금단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루신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십니까?

또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다른 신자들과 함께 주일에 모였습니까? 다윗이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까?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는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까? 솔로몬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막 16:15)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인식해야 할 차이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과 오늘날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시대에 속한 사람들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대마다 인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7절을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도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하늘의 왕국이 땅에 가까이 왔다.”는 하늘의 왕국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20절을 보면 부활 이후에 복음 선포 대상이 바뀌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을 보면 제자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도 때가 바뀌자 -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바뀌자 - 내용 면에서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 경륜 전후의 차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각각의 시대마다 핵심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놀라운 변화와 차이를 일으켰습니다. 다음을 살펴봅시다.

- 사람의 타락(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 노아 시대의 대홍수
- 바벨탑 심판
- 아브라함을 부르심(창12)
- 율법 수여(출19-20)
-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 성령 강림(행2)
-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이제 이 사건들 중 몇몇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어떤 차이가 생겨났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 A. 사람의 타락

타락

타락  
이전



타락  
이후



사람이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후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장 25절과 창세기 3장 7절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의 타락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까?(롬5:12 참조)

### B. 노아의 홍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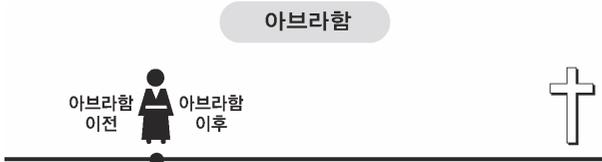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나무의 열매 같은 식물성 음식만을 먹었습니다(창1:29). 짐승도 역시 모두 채식을 했습니다. 홍수 이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창9:2-3). 그 이후로 지금은 사자 같은 짐승이 육식을 하지만 천년 왕국 시대가 되면 다시 예전과 마찬가지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됩니다(사11:6-9).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창4:15). 그러나 홍수 이후에 그분께서는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창9:6).

### C.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 전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창11:1). 그런데 사람들의 반역으로 인해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언어의 혼잡이 생겼고 그 결과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민족을 형성하여 여러 곳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창11:7-9). 바벨탑 사건 전에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 민족을 형성하면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의 민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들은 현대기적으로 창세기 11장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 D. 아브라함을 부르심



아브라함 이전에는 이방인으로 불리는 한 그룹의 사람들만 이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는 할례라는 표적이 없었고 그것을 행하라는 명령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에는 그것이 명령이요 표적이 되었습니다(롬4:9-12).

### E. 모세의 율법

#### 모세



모세 이전에는 글로 기록된 명령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이후에는 글로 기록된 명령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세 이전에는 명령에 의거하여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지만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모세 이전에는 음식물에 관한 상세한 규례가 없었지만(레11장)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율법 안에 그러한 규례를 포함시키셨습니다.

### F.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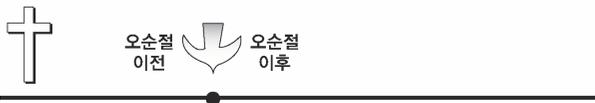
####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서 생기는 차이점 중 몇몇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 이전에서 십자가 이후로 옮겨가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즉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잠정적인 짐승의 희생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완전한 희생'으로 바뀌었습니다(히10:1-4). 제사장 체계 역시 아론의 제사장 체계에서 모든 성도의 제사장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십자가 이전에는 음식물 규정이 있었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그런 것이 폐지되었습니다(딤후4:3-5). 이 외에 또 다른 변화나 차이점들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G. 성령 강림

#### 오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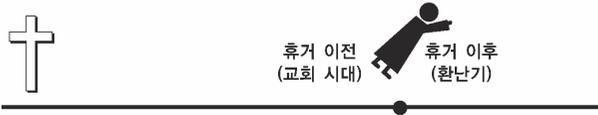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나 오순절 이후에는 그분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게 되었습니다(요14:17). 오순절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그룹의 사람들만 이 세상에 존재했지만 오순절 이후에는 사람이 유대인, 이방인, 교회의 세

그룹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고전10:32). 오순절 이전에는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없었지만 오순절 이후에는 교회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 H. 교회의 휴거

### 휴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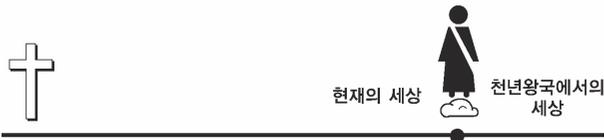
성도들이 채어 하늘로 올라감  
(요한복음 14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8절)



휴거 이전에는 교회, 유대인, 이방인의 세 그룹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휴거 이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이 땅에 남습니다. 휴거 이전에는 성령님이 자신의 성전인 성도들의 몸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고전3:16-17; 고전6:19-20). 그러나 휴거 이후에는 성령님이 여전히 이 땅에 계시지만 구약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지는 않습니다. 휴거 이후에 나오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며(살후2:4) 이것은 신자들로 구성된 영적 성전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돌과 나무 등으로 건축된 실질적인 성전입니다.

## I. 그리스도의 재림

###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이 도래할 시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마6:10). 그러나 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하늘의 왕국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왕국이 오게 될 때 세상은 지금과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상고하는 사람이라면 이 차이를 인지할 것입니다.

가령, 왕국 시대에 사는 짐승들을 생각해 봅시다(사11:6-9). 그때가 되면 짐승들의 습성이 바뀝니다. 사자 같은 육식 짐승이 채식을 합니다. 현 세상에는 사람들 사이의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마24:6-7). 그러나 천년 왕국 시대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미4:3). 거기서는 다시 전쟁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기 위해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에 대해 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막16:15 등). 그런데 과연 왕국 시대에도 이런 일이 필요할까요? 예레미야 31장 34절, 이사야 11장 9절 등은 이런 일이 필요치 않음을 보여 줍니다. 스가랴 13장 3절을 보면 이때에 대언을 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즉 대언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세대주의자<sup>3)</sup>란 성경을 믿고 역사를 통해 나타난 이 중요한 차이점들을 인식하게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처음에 등장했던 ‘경륜/세대’(dispensation)라는 단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의미부터 살펴봅시다.

### 경륜/세대의 뜻

경륜/세대 혹은 경영 체계 등으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 ‘dispensation’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그리스어 단어를 라틴어 별게이트 성경으로 옮기면서 사용한 ‘디스펜사티오’(dispensatio)라는 라틴어에서 나와 영어로 정착된 말입니다. 이 라틴어 동사는 ‘무계를 달아서 나누다’ 혹은 ‘배분하다’란 뜻의 복합어입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이 단어의 의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념이 들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

1. 나누어 주거나 배포하는 행위
2. 행정을 보거나 지휘를 하거나 혹은 관리를 하는 행위 혹은 물건들을 주거나 운영하는 체계
3. 어떤 요구 조건과 더불어 무엇인가를 분배해 주는 행위

이 단어의 용도를 신학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면서 위의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dispensation’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경륜/세대: 점진적 계시의 한 단계, 특정한 민족이나 기간의 필요에 특별히 부응하는 단계... 또한 어떤 제제가 널리 보급된 시대나 기간.

스코필드(C. I. Scofield) 같은 세대주의자들이 경륜에 대해 내린 정의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불만을 토로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 유명한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경륜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서 ‘경륜’과 ‘시대’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륜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는 ‘관리하다’, ‘규제하다’, ‘집행하다’, ‘계획하다’ 등을 의미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사람이 사는 집의 일을 나누다, 할당하다, 집행하다, 혹은 관리하다’를 뜻하는 여러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어입니다. ‘오이코노미아’(oikonomia)와 영어의 ‘economy’를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이코노미아’는 다음과 같이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oikos = 집(house)
2. nomos = 법(law)

따라서 이 단어는 ‘한 집안의 법’ 혹은 ‘집안 법’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가족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집안의 법’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집에는 구성원이 따라야 할 ‘집안 규칙’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당신에게 부여한 의무나 책임은 없습니까? 규칙을 어겼을 때 꾸지람을 듣지는 않습니까?

---

3) 원래는 경륜주의자라는 말이 더 맞지만 이미 국내에서 세대주의자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종종 세대주의자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경륜’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dispensation’ 자체는 신약 성경에 4번 나옵니다.

1.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dispensation)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엡1:10).
2.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dispensation)을 너희가 들었으리라(엡3:2).
3.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dispensation)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함인데(골1:25)
4.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겠지만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dispensation)이 내게 맡겨졌느니라(고전9:17).

‘dispensation’과 같은 어원을 가진 그리스어는 또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청지기직’(stewardship)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파피루스에 보면, 경영 체계를 집행하는 관리자(오이코노모스)는 재산의 청지기나 관리자 혹은 회계를 맡은 자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륜/세대’ 혹은 ‘경영 체계’란 의미의 dispensation의 중심 개념은 가정의 일을 관리하거나 집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 먼저 ‘청지기직’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 A. 청지기직

청지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즉,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소유 - 물건이나 재산 - 를 돌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지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청지기를 둘 만한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소유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말 10필과 보트 8대, 20만 평의 땅과 500두의 소, 3개의 풀장, 25대의 자동차, 8대의 트럭 그리고 하나의 유전(油田)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들을 잘 꾸리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지기는 관리자로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돌보는 책임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은 청지기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을 보여 줍니다.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것에 책임을 지는 신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나오는 청지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는 신실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은 창세기 3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6절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는 이 사람의 손에 맡겨졌습니다(창39:4, 6). 요셉은 자기 주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관리했으며 그의 주인인 보디발은 자기 집과 자기 재산이 ‘신실한 자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그저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이지만 그 집의 소유주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의 관리인은 요셉이고 집의 소유주는 보디발이었습니다. 그 집은 분명히 보디발의

소유이지 요셉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집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 B. 특권과 책임

보디발의 소유를 관리하는 요셉에게는 특권과 책임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자는 어느 시대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돌보는 데 대한 책임과 특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에 크고 놀라운 약속을 쥐어 주셨습니다(창12:1-3; 17:1-8). 또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거룩한 율법과 명령들을 주셨습니다(출19-21장).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받았습니다(엡3장). 믿는 이들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릴 권한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청지기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청지기직은 일자리를 얻은 사람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멋진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아무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직장에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런 직장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이 당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만 이 점포에서 일하면서 나오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많은 것을 배우겠고 값진 경험도 하며 다른 사람들과 일하면서 얻는 유익이 많을 것이며 시간에 따른 대가를 받습니다. 꾸준히 신실하게 일하다 보면 어느 날 승진도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일자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고용주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게으르고 출근 시간에 지각하고 고객에게 불친절하다면 어느 사장이 좋아하겠습니까? 점포의 주인은 당신이 신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맡은 것을 바르게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일을 잘 처리했다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청지기직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무언가를 맡기셨고 그것을 바르게 꾸려 가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요 특권임을 의미합니다.

## 청지기직 혹은 경륜이라는 단어의 성경적 용례

### A. 이 단어의 성경적 용례

신약 성경에는 ‘세대’란 단어가 여러 가지 형태로 20회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사 ‘오이코노메오’는 누가복음 16장 2절에서 ‘청지기가 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명사 ‘오이코노모스’는 10회에 걸쳐 사용되었으며(눅12:42; 16:1, 3, 8; 롬16:23; 고전4:1, 2; 갈4:2; 딤펴1:7; 벧전4:10) 로마서 16장 23절에서 ‘재무관’으로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개 ‘청지기’로 번역되었습니다. 또한 명사 ‘오이코노미야’가 9회 사용되었는데(눅16:2, 3, 4; 고전9:17; 엡1:10; 3:2, 9; 골1:25; 딤펴1:4) 이 구절들에서 이 단어는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청지기, 세대, 직분, 경영 체계, 위임, 일 등).

### B. 이 단어의 성경적 특징

이 단어에 대해 어떤 형식상의 정의를 내리기 전에 이 단어와 관련하여 신약 성경에 나타난 특징 중 몇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결코 세대주의

체계만의 특징들이 아니며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통해 관찰 가능한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두 비유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눅12:42; 16:1, 3, 8). 이 두 비유는 모두 청지기가 집안을 관리하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비유는 청지기직 혹은 경영 체계, 즉 경륜의 구성 및 배열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 줍니다.

1. 기본적으로 두 부류, 즉 의무를 부과하는 권세를 지닌 자와 이러한 명령을 수행할 책임을 지닌 자가 있다. 누가복음 16장의 비유에서 부자와 청지기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절).
2. 독특한 책임이 있다. 이 비유에서 청지기는 자기 주인의 재물을 허비함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실패했다(1절).
3. 책임뿐만 아니라 회계 보고도 이러한 구성 및 배열의 한 부분이다. 청지기는 어느 때라도 부름을 받아 자기의 청지기직 이행 실적에 대해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인은 자기가 청지기에게 맡긴 의무들을 그가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할 특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4. 현재의 경영 체계하에서 신실하지 못한 요소가 발견되면 언제라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 2절).

이 네 특징은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쓰였을 때 경영 체계상의 합의된 구성 및 배열이라는 개념에 포함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만 나옵니다. 다음의 용례들은 이 단어의 개념의 특징들을 보여 줍니다.

1. 사람들이 청지기 직무 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닌 대상은 하나님이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관계를 세 경우에 대해 언급한다(고전4:1-2; 딤후1:7).
2. 경영책임을 맡은 자들에게는 신실함이 요구된다(고전4:2). 이것은 어떤 도시의 재무관(청지기)이라는 중요한 직분을 맡은 에라스도에게 의해 잘 나타난다(롬16:23).
3. 청지기직은 정해진 시간에 끝날 수 있다(갈4:2). 갈라디아서의 해당 구절의 경우에는 다른 목적이 도입되면서 청지기직이 끝남을 보여 주며 또한 경영 체제가 시간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4. 세대들은 하나님의 신비,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특별한 계시와 관련이 있다(고전 4:1; 엡3:2; 골1:25).
5. 경륜/세대와 시대는 서로 관련이 있지만 이 두 단어를 항상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져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륜 혹은 경영 체제가 어떤 시간상의 기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은 서로 연관이 있다.
6. 사도 바울은 적어도 세 경영 체계 - 세대주의 가르침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세 세대 - 를 언급하고 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그는 “때가 충만히 찬 경륜 혹은 경영 체계”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은 미래의 기간을 가리킨다. 또한 에베소서 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혹은 청지기직’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바울이 선포한 내용을 강조한 것이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5-26절은 신자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계시된 현재의 세대보다 앞선 또 다른 세대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위의 여섯 경우 중 처음 두 경우에서 우리는 성경이 세대 혹은 경륜이라는 단어를 세대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은혜의 세대와 때가 충만히 찬 세대라는 기간에 대해 이야기함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세대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두 세대를 부르고 있으며 또한 셋째 세대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 경륜/세대 요약

이제 다시 '경륜'이라는 단어를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경륜'이라는 말은 '청지기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한 경영 체계는 한 청지기직인데 여기에는 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A. 집주인

청지기직이 있다면 집의 주인이나 소유주가 있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집안의 법'을 세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의무와 책임, 특권을 규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집의 주인이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히 3:4 참조).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창14:19, 22). 하나님이 소유주이시며 머리가 되십니다.

### B. 집

주인이나 소유주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주인이 그 규정을 집행하고 권위를 행사할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세상입니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이 주님의 것이며 세상과 그 안에 거거 거하는 자들도 그러합니다."(시24:1; 창18:25; 출9:29 참조) 세상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은 자신의 뜻과 지혜를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관할하십니다.

### C. 청지기

집주인과 집 말고 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는 신실하고 집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어떤 물건이나 직무를 맡습니다(사도행전 17장 30절과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에게 준 '집안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청지기가 '집안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곤경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곧 인류입니다(고전4:1-2; 딤후1:7; 벰전4:10).

이제 성경의 경륜과 관련하여 세 사항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집주인: 살아 계신 하나님
2. 집: 세상
3. 집의 청지기: 인류

## 경륜은 여러 개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집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안 규칙이

늘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동일한 세상에 살았지만 그들 각자에게 적용된 집안 규칙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집안 규칙은 베드로 시대의 규칙과 같지 않았습니다. 집안 규칙이 다르다면 경영 방식 혹은 경륜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A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B라는 사람의 집으로 일자리를 옮겨가면 B 집의 집안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집의 규칙 중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가정부는 B 집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경륜이 단순히 '집안 규칙' 이상의 어떤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각 경륜에 단지 규칙만을 주시지 않고 사람이 믿고 순종하고 다루어야 할 어느 정도의 진리도 주셨습니다. 규칙과 법에는 그것들에 상응하는 특권과 기회와 책임이 따르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사람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다른 집안 규칙'을 말한다고 해서 각 경륜에 주어지는 규칙과 책임과 특권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경륜이 바뀌어도 여전히 동일하게 남아 있는 규칙이나 특권이 있고 바뀐 것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화를 살펴봅시다. 김철수 씨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그에게는 세 가지 '집안 규칙과 특권'이 있습니다. 이는 그에게 세대 차가 나는 세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장남에게 좀 더 많은 것을 맡겼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권뿐 아니라 장남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부과됩니다. 여기 김철수 씨 집안의 '세 가지 규칙과 특권'이 있습니다. 이 예는 한 아버지와 나이가 서로 다른 세 아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 A. 열 살짜리 아들

- 부모에게 순종할 것
- 부모를 존경할 것
- 거짓말이나 도둑질하지 말 것
- 오후 8시 30분이면 잠자리에 들 것
- 매주 용돈이 지급됨
- 숙제에 대한 규칙을 준수할 것
- 차를 모는 특권은 주어지지 않음 등등

#### B. 열다섯 살 먹은 아들

- 부모에게 순종할 것
- 부모를 존경할 것
- 거짓말이나 도둑질하지 말 것
- 오후 10시에 취침할 것
- 매주 막내보다 많은 용돈이 지급됨
- 숙제에 대한 규정이 강화됨
- 아직 차를 몰 수 있는 특권은 없음 등등

#### C. 스무 살 된 아들

- 부모에게 순종할 것

- 부모를 존경할 것
- 거짓말이나 도둑질하지 말 것
- 취침시간에 대한 규정 완화
- 용돈은 없음 - 스스로 벌어서 쓸 것
- 졸업했기에 숙제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운전할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이 주어짐 등등

세 아들에게 공통된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까? 왜 그럴까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바뀌는 내용도 보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와 같은 원리가 경륜에도 적용됩니다. 앞에 나온 동일한 아버지(김철수 씨)에게 다른 시기에 태어난 세 아들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과 다른 때 태어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변하거나 새롭게 더해진 규정이나 책임이 있고 그대로 남은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기에 태어나 서로 다른 경륜에 살았던 세 사람을 비교해 봅시다.

#### D. 노아 - 홍수 이후 시대

-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특권과 믿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
-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창6:9)
-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히11:7과 비교)
-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야 함(창9:6)
- 짐승의 희생을 드림(창8:20)
- 안식일을 지키거나 사내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거나 믿는 이에게 물로 침례를 주어야 한다는 명령은 없었음

#### E. 다윗 - 모세의 율법 시대

-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특권과 믿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노아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됨)
-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
-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신8:1)
-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야 함(출21:12)
- 짐승의 희생을 드림(레1-5장)
- 안식일을 지키고 사내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야 했음(레12:3; 신5:12-14)
- 믿는 이에게 물로 침례를 주어야 한다는 명령은 없었음

#### F. 바울 - 교회 시대

-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특권과 믿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노아나 다윗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됨)
-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
-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요일2:3-5)
-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야 함(롬13:1-4)
- 짐승의 희생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음(히10장)

- 안식일을 지키라거나 사내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은 필요 없음
-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라는 명령을 받음(마28:19-20)

이처럼 세 경륜 속에서 꾸준히 남아 있으면서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이 보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바뀌거나 변화된 사항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경륜이나 청지기직이 바뀐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규정이나 조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령 어느 경륜에서나 거짓말, 살인, 도둑질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륜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이었습니다(히11장 참조). 즉 경륜이 바뀌어도 여전히 공통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뀐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도움이 될 만한 또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당신이 200년 전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에 TV나 자동차, 전기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생활 환경이 오늘날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세차하는 대신에 말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옷을 빨기 위해선 세탁기 대신에 빨래판과 물, 비누를 사용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에 편리한 자동 온도 조절 장치만 맞추어 놓으면 되는 대신에 밖에 나가 장작을 구해다가 불을 때야 합니다(물론 오늘날에도 장작으로 난방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때 살았다면 해야 할 일, 즉 책임이 달랐을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같은 것도 있겠지요. 가령 먹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200년 뒤에 살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대신에 다른 운송 수단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개인 컴퓨터를 소장하고 다루는 것은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변치 않고 남아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는 모두 동일한 집안 규정과 권리 아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같은 경륜에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그 규정과 권리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바울, 요한도 같은 규정과 권리 아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로마서에서 요한계시록 1-3장까지)에 그 규정과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들에게 속한 동일한 규정과 권리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같은 경륜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 일곱 경륜

고전적 세대주의에서는 인류 역사에 대개 다음과 같이 일곱 개의 경륜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경륜	요약
(1) 무죄(아담)	무죄 경륜은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막을 내린다.
(2) 양심(에녹)	사람은 이 경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양심 아래 살고 있다.
(3) 인간 정부 (노아, 홍수 이후)	사람은 이 경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 정부 아래 살고 있다.
(4) 약속(아브라함)	이 경륜 이후에도 약속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갈 3장).
(5) 율법 (다윗, 침례자 요한)	율법은 씨가 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하지만 십자가로 막을 내린다.
(6) 은혜(바울)	다른 경륜에도 은혜가 있었지만 이때에 가장 크신 은혜가 증언된다(엡2-3장).
(7) 천년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다른 경륜에도 있었지만 왕국 경륜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 온 세상 민족들을 치리하심으로 눈에 띄게 드러난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으로 이어진다.

무죄 경륜 전에는 영원 전 과거가 있으며 왕국 경륜 이후에는 영원 후 미래가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각 경륜의 이름 옆에는 그 경륜에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왕국 경륜은 아직 임하지 않았으므로 없음).

각 경륜은 하나님이 독특한 경영 방식과 특권을 허락하신 기간입니다. 물론 그 기간의 길이는 다 다릅니다. 각 경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규정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빛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책임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경륜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전 경륜에서보다 더 많은 진리의 빛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진보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점진적으로 진보적으로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이 계시됨을 의미합니다.

각 경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나오는 장들에서 설명될 것입니다(3장부터). 그때에 여기 기록된 내용들을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 네 가지 고찰 사항

각 경륜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살펴볼 것입니다.

### A.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 각 경륜이 시작될 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 당시 사람의 책임은 무엇이었는가?
-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계시를 내렸는가?
-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
-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 B. 사람의 책임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하셨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 C. 사람의 실패(혹은 각 경륜이 끝날 때 사람의 상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는 일에서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
- 사람은 집안의 규정을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우리는 각 경륜마다 사람이 비참하게 실패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사람은 위대한 구원자가 필요한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상기시켜 줍니다. 즉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 D.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무언가를 맡기셨는데 사람이 제대로 그것을 관리하지 못했다면 심판이 따릅니다. 우리는 각 경륜이 사람의 실패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맺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주의자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정말로 뜻하셨다고 믿으며 그분께서는 오직 자신이 뜻하신 것만을 말씀하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즉 세대주의자는 간략히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사66:1-2).

## 세대주의자는 누구인가?

지난 장에서 우리는 “경륜 혹은 세대란 무엇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 단어의 정의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바울이 다른 경륜에 살았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장에서는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세대주의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세대주의자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세대주의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청지기직을 이해하며 - 실로 하나님은 그에게 몇몇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셨다 -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신실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 모두 세대주의자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제1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명백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세대주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알아볼까요? 세대주의자는 적어도 네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 1. 세대주의자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명백한 차이점들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마지막 장에서 배울 텐데 세대주의자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시대마다 다름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구원 방법은 언제나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이라는 것도 압니다. 가령 다윗은 노아가 알지 못했던 진리를 알고 있었고 바울은 다윗이 들어 본 적도 없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세대주의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차이점을 인지합니다.

1. 사람의 타락 뒤에 생긴 차이
2. 대홍수 뒤에 생긴 차이
3. 바벨탑 심판 뒤에 생긴 차이
4. 아브라함을 부르신 뒤에 생긴 차이
5. 율법이 수여된 뒤에 생긴 차이
6.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뒤에 생긴 차이
7. 교회의 휴거 뒤에 생길 차이(요14:3; 살전4:13-18)
8.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뒤에 생길 차이(계12:7-12)
9. 천년 왕국이 끝난 뒤에 생길 차이(계20-22장)

우리는 나중에 각각의 경륜에 대해 배울 때 이 차이점들을 신중히 검토할 것입니다.

## 2. 세대주의자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한다

‘문자적’(literal)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과장 없이 혹은 상상하지 않고’라는 뜻을 지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자기가 읽은 단어들을 기본적으로 평범한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특별하게 문맥이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단어의 숨겨진 뜻을 파헤치려 하거나 없는 뜻을 만들어 내지 않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가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고쳐서 이해한다든지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을 뿐입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데 6일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창1장; 출20:11).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때 6일은 그냥 6일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대로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온 우주가 24시간의 하루가 여섯 번 지나면서 형성되었음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6일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날에는 이 ‘6일, 즉 여섯 날들’을 문자 그대로의 날들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창조의 날들은 말 그대로의 날들이 아니라 ‘경륜’ - 긴 기간의 시간을 가리키며 이 경우 ‘날=경륜’은 그 기간이 수천 년 혹은 수백만 년에 달합니다 - 이라고 말합니다. 즉 창조가 6개의 매우 긴 시대를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즉 “날은 날이 아니라 매우 긴 시대를 의미한다.” 등). 그러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6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를 다름 아닌 문자 그대로의 ‘6일’로 받아들입니다.<sup>1)</sup>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예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전반부의 2-7절을 읽어 보면 ‘천 년’이라는 단어가 여섯 번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 년 동안 땅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천 년’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쓰셨을까요?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천 년은 그냥 천 년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

1) ‘날’이라는 단어가 하루 24시간보다 더 긴 기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오는 ‘날’(a day)은 야곱의 고난의 때를 가리킨다. 이 날은 3년 반 동안 지속될 것이다(계12:6, 14). 또 “우리는 지금 은혜의 날에 살고 있다.”고 말할 때 이 은혜의 날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날을 뜻한다(벧후3:8-9). 이 날이 하루 24시간만을 뜻할까? 이진 어떤가? “조지 워싱턴은 자동차나 전화기 혹은 비행기가 없던 날(a day)에 살았다.” 아브라함과 모세, 바울도 ‘바로 그와 같은 날’(the same day)에 살지 않았는가? 여기서 ‘날’이라는 단어는 ‘시대’를 뜻하며 그래서 우리는 “조지 워싱턴은 차가 없는 시대에 살았다.”고 이해한다. 이 경우 ‘날’이 하루 24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맥으로 보아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날’이 복수(곧 ‘days’)로 쓰였거나 출애굽기 20장 11절(6일), 창세기 1장 13절(‘셋째 날’)처럼 앞에 수사가 붙을 경우 그 의미는 분명 하루 24시간이다. 더 자세한 것은 미들타운성경교회의 홈페이지에서 「6일 창조」(*The Six Days of Creation*)라는 책자를 참조하기 바란다.

지상에서 천 년 동안 다스리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 천 년에다 다른 의미를 붙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문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신문을 읽는 데 첫 면에 ‘부시 대통령 4일 예정으로 중국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고 합시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방문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거야. 중국도 실은 중국이 아니라 인도일 거야.” 이것은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해석입니다. 본래의 의미를 제쳐 둔 채 엉뚱한 의미를 취하면 당연히 말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중국’은 ‘중국’으로 ‘4일’은 말 그대로 ‘4일’로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이며 문자적인 방법이며 바로 이런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서 편지가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친구에게서 온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시다. “얼마 전에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어. 덕분에 이틀 동안 병원 신세를 졌지.”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겠습니까? 설마 ‘말’은 ‘코끼리’를 ‘다리’는 ‘머리’를 ‘이틀’은 ‘두 달’을 의미한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친구가 ‘코끼리’를 말하고자 했다면 왜 굳이 ‘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 A. 간단한 규칙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접하는 단어들을 - 그것들의 정상적인 의미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 항상 문자적이고도 자연스러우며 평범한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규칙이 있습니다. “평범한 의미로 말이 잘 통한다면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의 ‘날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자께서는 우주를 6일에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들’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천 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 년’은 그냥 ‘천 년’일 뿐입니다.

물론 가끔 성경을 읽다가 그 단어의 고유한 의미로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양들이 통과하는 실제 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요10:1, 2, 7). 그렇게 이해하려 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은 문을 통해 어떤 장소를 드나듭니다. 방에 들어가려고 해도 반드시 문을 열고 통과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다른 예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문자적인 포도나무가 아니며 제자들은 실제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구원자와 그를 믿는 이들을 보여 주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믿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즉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한 가지 예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빵을 취하사 제자들에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6:26). 그리고

잔을 취하시고 “이것은 내 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6:27-28). 그 빵이 정말 주님의 몸이었을까요? 그 잔이 실제 주님의 피였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실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것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으며 예수님도 이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 주며 말합니다. “이봐, 이게 내 아내야.” 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과연 한 장의 사진이 실제 자기 아내라고 말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는 그저 은유 혹은 환유라 불리는 수사법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는 실제 “이 사진에 내 아내의 모습이 있어. 내 아내 사진이지. 이 사진을 보면 내 아내를 떠올릴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것도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나의 몸을 나타내고 이 잔은 내 피를 보여 준다. 너희가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와 또 내가 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고전11:24-25).

## B.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억지로 우리 생각에 성경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놔두고 거기 있는 단어에다 이상하고 비밀스러운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기 바랍니다. 다윗은 냇가에서 돌 다섯 개를 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같은 구절을 가지고 전혀 들어 보지도 못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섯 개의 돌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돌은 용기를 상징하고, 둘째 돌은 믿음을 상징하며, 셋째는 힘을, 넷째는 승리를, 다섯째는 성공을 뜻합니다.”

과연 성경이 이 돌들에 대해 그렇게 말합니까? 돌은 그저 돌에 불과합니다. 이 돌들 중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다윗이 용기와 믿음을 겸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승리와 성공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장(삼상17)을 읽고서 알게 된 내용이지 다윗이 집어든 돌들에서 추론해 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어의 위치와 용례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단어에다 이상한 해석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 3. 세대주의자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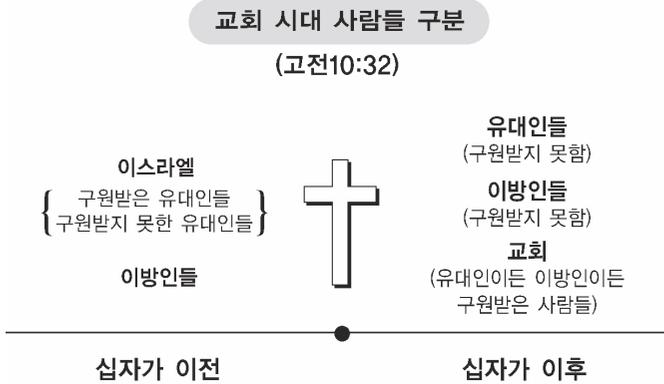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조심스럽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살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유대인들)이 교회의 일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수태가 되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상 속으로 태어났습니다(행2장). 그 이전에는 누구도 교회의 일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말합니다(롬9:4-5).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같은 사람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유대인’이라 불립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들을 통칭합니다. 즉 이방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입니다(엡2:11-12).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유기체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이사야는 모두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교회의 일부는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23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 사람이 구원받아 성령의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는 교회의 일부가 됩니다(고전12:13). 베드로, 요한, 바울, 디모데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즉 그들은 모두 교회의 일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의 일부가 됩니다.

다음은 이 점에 대해 도움을 주는 그림입니다.



위의 그림에 나오듯이 십자가 이전 시대 살았던 사람들은 교회의 지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당시에 수태되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가까운 미래에 자신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을 교회에다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신문에 철수가 부산행 무료 항공권에, 영희가 제주행 무료 항공권에 당첨되었다고 나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당신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영희가 부산에 가게 됐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이 일어나겠지요? 성경을 잘못 읽을 때에도 이 같은 혼란이 야기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이스라엘 각각을 향해 매우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임의로 취하여 그것들을 교회를 위한 것으로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철수의 부산행 티켓을 영희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대주의자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롬11장과 비교).

#### 4. 세대주의자는 성경의 한결같은 주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본다

각 경문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어떠한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가치, 중요성 등을 알리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사람과 천사들에게 알려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차이점을 공부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각 시대의 여러 사람을 향해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하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언가 공통된 것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시는 일을 말해 보기 바랍니다.

1. 여호수아기 4장 24절(여호수아 시대).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두려움과 위엄과 영광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2. 사무엘기상 17장 26절(다윗과 골리앗 시대). 하나님은 온 땅이 자신의 두려움과 광대함과 위엄과 영광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3. 열왕기상 8장 43절(솔로몬 시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두려움과 광대함과 위엄과 영광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4. 열왕기상 18장 36절(엘리아 시대).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두려움과 광대함과 위엄과 영광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5. 열왕기하 19장 19절(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은 땅의 모든 왕국이 자신의 두려움과 광대함과 위엄과 영광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6. 에스겔서 36장 23절(에스겔 시대).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교도들)이 자신의 두려움과 광대함과 위엄과 영광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7.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이제껏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두려움과 광대함과 위엄과 영광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 오셨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분께서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할 것이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것입니다(빌2:10-11).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주된 목적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요 3:16; 딤후2:4 등)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어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음을 잘 보여 줍니다(요일4:14; 비교 요3:17).

노아의 때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날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었습니까(벧전 3:20)? 단지 여덟 사람만 방주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모두 땅에서 멸망하였습니다(벧후3:6). 구원받은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오로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면 노아의 날에 하나님은 실패하신 셈이 됩니다. 성경은 지금도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말합니다(마7:14).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날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즉 자신이 거룩하고 죄를 미워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은혜로우심을 보여 주십니다(창6:8-9; 히11:7).

성경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어퍼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세대주의자는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모든 경륜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인식합니다.

## 5. 세대주의자가 아닌 사람들

앞에서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세대주의자는 아닙니다. 이른 바 ‘언약 신학’을 믿는 분들 - 대부분의 장로교인들 - 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륜들이 서로 구분된다고 믿지 않고 단지 두 개의 언약만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언약 신학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A. 언약 신학

언약 신학을 믿는 분들 - 개혁 신학을 믿는 다수를 포함함 - 은 인류에게 두 개의 언약이 주어졌으며 하나님은 이 두 언약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 (1) 행위의 언약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특별한 협정을 말합니다. 언약 신학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이 행위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의 언약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이다.
2. 이것에는 영생의 약속이 있다.
3. 아담이 이행해야 할 언약 조건은 완전한 순종이었다. 그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만 했다.
4. 불순종의 대가는 사망이었다(창2:15-17).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행위의 언약’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 (2) 은혜의 언약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둘째 언약인 은혜의 언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성난 하나님과 죄인 간에 맺어진 은혜의 협약입니다. 그 언약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약속된 구원자(창3:15)를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죄인이 영생을 얻기 위한 유일한 소망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 (3) 언약주의의 문제점

언약주의 신학자들의 말 중 상당 부분이 옳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길 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을 마련하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약주의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언약(특히 은혜의 언약)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언약이 것처럼 중요하다면 아마도 성경은 그것을 여러 번 언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행위의 언약’이나 ‘은혜의 언약’같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용어들은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며 성경의 용어는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언약을 언급하나 ‘행위의 언약’이나 ‘은혜의 언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창9:8-17)
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창17:1-4)
3.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출19:5-8)
4.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삼하7장)
5.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 ‘새 언약’이라고 불림 - (렘31:31-34)

이처럼 성경에 여러 언약이 있지만 ‘행위의 언약’이나 ‘은혜의 언약’은 나오지 않습니다. 언약주의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이 ‘은혜의 언약’에 비추어 이해하려 합니다. 또 어느 경륜에서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자신의 은혜로 길 잃은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자는 하나님께서 이보다 큰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곧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다음의 말씀들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 주셨고(엡1:6)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엡1:12).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엡1:14).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정죄받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피라오의 경우 - 롬9:17-22)! 사람이 구원받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 B.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극단적’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선, 한계를 넘어선, 극단적인’이란 뜻을 가집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는 경륜의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극도로 성경의 차이점만을 부각하여 혼란을 일으키곤 합니다.

다음 질문에서 주된 문제가 야기됩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은 언제인가?” 세대주의자는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행2). 극단적 세대주의자는 교회의 시작을 그 뒤로 봅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주후 47년경)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사도행전 28장(주후 60년경)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시작 시기를 늦추기 때문에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신약 성경의 몇 부분은 오늘날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그들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 침례는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다.
2. 주의 만찬은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다(모두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이렇게 말함).
3. 마태복음 28장 19-20절과 마가복음 16장 15-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다. 이 명령은 교회에 주어지지 않았다.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 13장이나 사도행전 28장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성경으로 간단히 증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에 사람들을 더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때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핍박은 사도행전 7장 58절; 8장 1-3절; 9장 1-2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사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때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다면 교회는 그때 이미 존재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핍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교회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이나 28장은 바울이 구원받은 뒤의 일을 다루고 있으므로 교회의 시작 시기가 될 수 없습니다!

## 6. 용어 이해

다음은 하나님의 경륜들을 보여 주는 그림이고 그 안의 번호들에 대한 설명이 밑에 있습니다.



1. 십자가 사건
2.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천(행1장)
3.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의 시작(행2장)
4. 교회 시대(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됨 - 행2:47; 고전12:13 참조)
5. 교회의 휴거(요14:3; 살전4:13-18) -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감
6. 7년 환난기(땅에 큰 고통이 임하는 때) - 후반부 3년 반은 흔히 ‘대환난’으로 불림(렘 30:7; 마24:21)
7. 환난기의 중간(단9:27; 마24:15)
8.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임하심(마24:30; 계19장)
9.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천 년 동안 통치함(계20장)

전 장의 그림을 이용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봅시다.

질문 1 -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전 장 그림의 5번 참조)

휴거의 시기에 대한 견해

환난 전 휴거(*) <sup>2)</sup> (Pre-tribulation Rapture)	7년 환난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
환난 중간 휴거 (Mid-tribulation Rapture)	7년 환난기 중간에 교회가 휴거된다.
진노 전 휴거 (Pre-wrath Rapture)	7년 환난기의 3/4 즈음 되는 시점에서 교회가 휴거된다.
환난 후 휴거 (Post-tribulation Rapture)	7년 환난기 이후에 교회가 휴거된다.

질문 2 -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다시 오시는 때는 언제인가?(전 장 그림의 8번 참조)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

전천년설(*) (Premillennialism)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년 왕국 이전에 이 땅에 오신다. '천 년'(millennium)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실제의 천 년의 기간을 가리킨다.
후천년설 (Postmillennialism)	복음이 선포되어 사람이 왕국에 들어오고 지상 왕국이 세워진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신다.
무천년설 (Amillennialism)	'왕국'이나 '천 년'은 실제로 없으므로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문자적인 지상 왕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현재적으로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왕국을 묘사한다.

2) 위의 표에서 (\*)는 성경적인 견해를 가리킨다.

## 무죄 경륜

서로 다른 경륜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최초의 현장으로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수천 년 전 아담과 이브가 창조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 1.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 A.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었다

창세기 1장 26-27절은 사람의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형상은 대부분의 동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8-21절을 보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까? 이 동전을 들여다볼 때 그들은 누구의 얼굴을 보았습니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동전에는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까? 누구 얼굴입니까? 만 원짜리 지폐에는 누구의 모양과 형상이 있습니까?



아담은 다음과 같은 것을 알고 보여 줄 기회가 있었다.

↓

- 하나님의 진리
- 하나님의 선하심
- 하나님의 죄 없으심
- 하나님의 의
- 하나님의 거룩하심
- 하나님의 사랑
- 하나님의 신실하심
- 하나님의 순결함

아침에 거울을 들여다볼 때 누구의 형상이 보입니까? 거울이 당신의 모습을 반영합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의 형상은 거울 속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26-27절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함과 하나님을 반영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의무였습니다. 아담은 거울, 즉 하나님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비춰 주는 거울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담에게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권한이 주어졌습니다(창1:26). 하나님은 아담을 땅에 있는 '만물의 왕'(사자가 아님)으로 만드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복이 아담과 이브에게 임하였습니다(창1:28).

## B. 하나님은 죄인을 만들지 않는다

창조의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모든 것(아담도 포함)을 보시니 그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창1:31).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죄인을 지으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담은 창조된 뒤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안에 악한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무죄하였습니다.

'무죄하다' 혹은 '천진난만하다'는 말은 '죄로부터 자유하다', '죄가 없다', '잘못되지 않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처음에 아담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슨 범법이나 죄를 범하지 않았기에 '무죄'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아담의 마음은 지금 사람들같이 악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즉 악과 친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해도 사실 그것은 진리입니다(요일1:8과 비교). 또 그는 "나는 죄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요일1:10과 비교). 그것은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같이 말한다면 우리 역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담은 죄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웠고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또한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을 만한 죄가 그의 삶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사59:2와 비교).

아담은 완전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세상은 오늘날과 같이 죄로 인해 저주받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살았던 세상에 범죄가 있었습니까? 질병이 있었습니까? 죽음, 가난이 있었습니까? 아담이 살았던 세상은 현 세상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였습니다(창3:1; 계12:9). 사실 마귀도 처음에는 선한 존재였으나 '하나님과 같게 되려는 불법'을 마음속에 품은 이후로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 2. 사람의 책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책임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맡은 청지기직은 어떤 종류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손에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아담이 무엇을 해야 했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는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아담은 에덴동산을 가꾸고 지킬 임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은 또한 아담이 받은 권리를 보여 줍니다. 아담이 받은 것은 모든

종류의 맛있는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아담은 사과나 오렌지나 복숭아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물에 거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종류의 과일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아담의 책임이 나옵니다. 그는 특별히 조심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매우 간단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의 의무는 동산 중앙에 있는 특별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창2:9). 그것으로 하나님은 아담의 순종 여부를 간단히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아담아, 내 말에 순종하려느냐?”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은 그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 열매를 먹을 경우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 3. 사람의 실패

아담이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을 어기고 타락하게 된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발견됩니다(창3:6).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명령을 어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담은 생명 대신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따르면 사탄에게 속은 것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까? 이브입니까? 이 말씀은 속은 장본인이 아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아담은 마귀의 꾀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있었고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죄에 빠졌으므로 그는 유죄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죄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 4. 하나님의 심판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그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3장 22-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런 까닭으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이브는 더 이상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룹이라 불리는 천상의 창조물을 동산 동쪽에 두셔서 화염검으로 사람이 다시 이곳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 5. 아담의 죄의 결과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마지막 두 단어는 “그가 먹으니라.”인데 이 두 단어는 세상을 통째로 바꾸어 버린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인류에게 일어난 어떤 재앙보다 더 혹독하고 광범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는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 중 몇몇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롬5:12).
2. 고되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창3:19).
3. 출산에 고통과 슬픔이 따랐다(창3:16).
4.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롬5:19).
5.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았다(롬5:18).
6. 땅이 저주를 받았다(창3:17-18).

오늘날 우리는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죄인들로 복적대는 사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두 단어로 구성된 창세기 3장 6절의 마지막 말씀의 결과입니다.

경찰, 의사, 판사, 군인, 목사, 선교사, 장의사, 형사, 생명 보험 컨설턴트, 간호사 같은 직업을 살펴봅시다. 아담의 죄로 인해 결국 이런 직업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감옥, 장례식장, 묘지, 자동차의 안전장치, 병원 등도 아담의 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대인 관계 등을 보기 바랍니다. 사람의 타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아담의 죄가 인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냥 한 개비의 불씨가 떨어져도 숲은 잿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롬5:12).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아담의 타락 안에서 우리가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한 끔찍한 결과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이 일 후 수천 년 뒤에 또 하나의 엄청난고 광범위한 성격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롬5:19).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고전 15:22).

사망은 아담에게서 오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 A. 손상된 형상

아담이 죄를 짓자 아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일그러지고 손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표면의 형상이 닳아 없어진 동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처럼 죄도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쳐 놓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담은 하나님을 나타내기는커녕 죄와 자아와 사탄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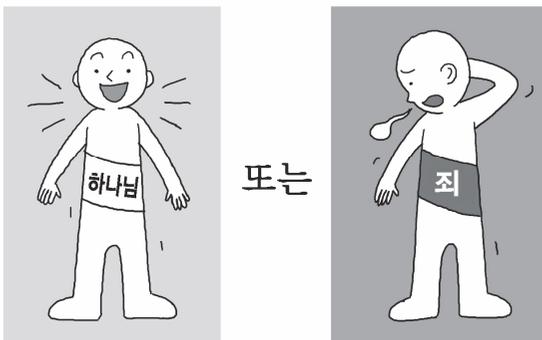
사람은 본래 무언가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 사람의 혼은 천진무구하고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보여 주며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 모든 것이 엄청나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혼은 죄 안에 있고 죄로 인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쁜 것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게 되면 그는 새 본성과 옛 본성을 동시에 지니게 됩니다(엡4:22-24). 따라서 구원자를 드러낼 수도 있고 죄와 자아와 사탄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둘 중 하나를 나타낸다.



타락 이후 아담은 출생을 통해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자녀들은 무엇을 드러내었을까요? 답은 창세기 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백삼십 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창5:3)

셋은 누구의 거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담입니까? 만일 우리가 셋을 본다면 누구의 형상과 모양이 보이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 모두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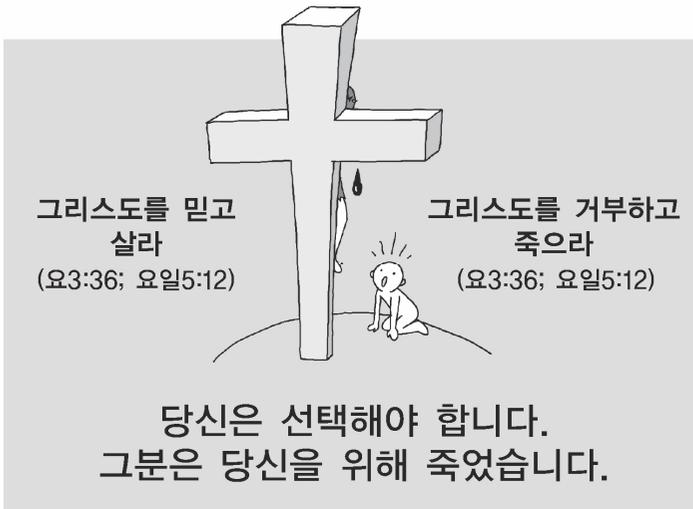
죄인이 죄와 자아와 사탄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 구원받지 못한 상태 -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 구원받은 상태(고후5:17) -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이 됩니다(엡4:24; 골3:10).

### B.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생명과 사망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신30:19). 그러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선택은 무엇입니까(신30:19)?

아담의 결정은 나무 -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 에 달려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결정도 나무에 달려 있는데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나무입니다(벧전 2:24).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양심 경륜

지난 장에서 우리는 사람의 타락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아담에게 매우 단순한 명령을 주셨지만 아담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로마서 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나면서부터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경륜은 보통 ‘양심 경륜’이라 불립니다. 이 경륜은 앞선 경륜처럼 사람이 무죄한 상태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창6:8). 양심 경륜은 아담의 타락에서 홍수 때까지 이어집니다.

### 1.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아담이 먹지 말라고 명령받은 나무의 이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창 2:17).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이브를 유혹하려고 접근했습니다. 사탄이 노린 것은 이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무언가 빠뜨린 것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마귀는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열매를 먹는 날엔 세 가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1) 너희 눈이 열리고 (2)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3)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마귀는 아담과 이브가 그 열매를 먹음으로 무언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들에게 심어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 생기는 손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창2:17). 유혹은 쥐뿔이나 낚시 바늘과 같습니다. 쥐뿔에 있는 미끼나 낚시 바늘 끝에 달려 있는 벌레는 쥐와 물고기에게는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쥐와 물고기는 이제 곧 무언가 얻겠구나 생각하지만 실은 실패하고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브는 뱀에 걸렸고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고 기록합니다. 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열매를 따먹기 전과 후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리므로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창2:25와 비교).

군이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이 죄를 지었음을 말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즉시 무언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창 3:7)! 그들 스스로 선이 아닌 악을 행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지었음을 안

아담과 이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와 죄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돌이키기엔 때가 너무 늦어 버렸습니다. 과거의 행복과 현재의 비참함이 교차했습니다. 스스로 놓쳐 버린 선과 저질러 놓은 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경험하신 적이 없지만 악에 대해 훤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악을 알게 된 것은 경험을 통해서였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은 악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뜨거운 난로를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는 어느 날 난로를 만지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난로란 것이 만지지 않으면 따뜻하고 좋은 것이지만 만지면 위험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져 보고 고통을 경험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은 뒤에야 비로소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창3:22).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에서 먹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 A. 양심이란 무엇인가?

아담과 이브의 경우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자각이나 인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삶 속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가 그것을 깨닫고 고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범했을 때 그가 잘못을 알고 죄책감을 느끼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여전히 즐겁다면 그는 완전히 구제불능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신체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알려 주는 장치를 우리 몸 안에 두셨습니다. 이 장치를 우리는 '신경'이라고 합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다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신경이 사람에게 해롭습니까? 이롭습니까? 물론 누구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신경을 주셨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뜨거운 난로에 손을 갖다 대었는데 아무런 고통이 없고 난로가 뜨겁다는 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손은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런 경우는 없는데 이는 우리의 몸의 신경이 작용을 하여 급히 뇌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아야, 빨리 난로에서 손 치워! 아프단 말이야!" 또 만일 신경이 없다면 혀를 꺾처럼 씹어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니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혀를 한 번 정도 깨물 수 있지만 대개 그것으로 끝납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의 감각 기관을 통해 신체의 이상 여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혼의 이상 여부를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몸의 '신경'에 해당되는 혼의 감각 기관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은 무언가가 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때 그것을 알려 줍니다. 양심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나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알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물론 선과 악을 알지도 못합니다. 짐승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대로 살아가며 이따금 훈련을 통해 특정한 행동 양식을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처럼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가 먹이가 아닌 것을 먹고 거실 카펫을 더럽힌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상기하도록 훈련시킬 수는 있습니다.

양심은 사람이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담 스스로가 자기 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는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담, 넌 유죄야! 넌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 창세기 3장 7절 말씀대로 아담은 자기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 B. 계기판의 빨간 불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두신 ‘경고 장치’와 같습니다. 차에 이상이 있을 때 그것은 이상이 있으니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양심은 자동차의 계기판에 있는 빨간 불에 비할 수 있습니다. 이 불은 경고 장치로 차에 장착되어 있는데 운전자에게 엔진이 과열되었거나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려 줍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무언가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지혜로운 운전자라면 경고를 받아들여 무언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즉 차의 뚜껑을 열고 수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운전자는 “계속 깜박거리는 저 빨간 불 때문에 귀찮아 죽겠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망치를 가져다가 그것을 박살냅니다! 그러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것은 신경이 죽은 손으로 뜨거운 난로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빨간 불이 깜박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 운전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차를 몰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운전자는 빨간 불이 자기의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양심에도 이런 ‘망치 요법’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지적을 받으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양심이 가져다준 나쁜 감정을 떨쳐 버리려고 애씁니다. 망치로 계기판을 박살 낸 운전자처럼 말입니다. 각종 약품, 마약, 알코올, 혹은 충격 요법이나 기타 여러 방법을 사용해 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담이 그때 술 취한 상태였다면 나쁜 기분은 들지 않았을지 모르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주먹으로 빨간 불을 계속 친다면 빨간 불이 더 이상 점등되지 않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러면 자체 고장으로 더 이상 차의 고장을 감지할 수 없게 됩니다. 엔진이 과열되든 팬벨트가 끊어지든 빨간 불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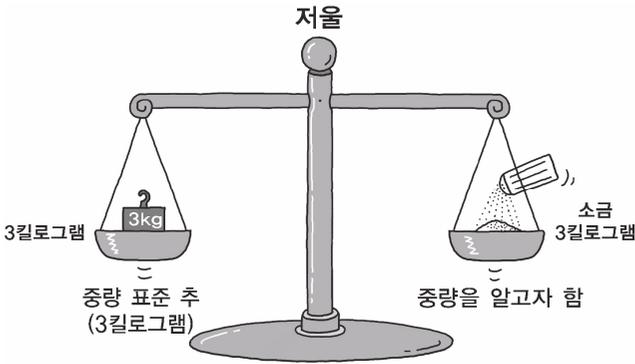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딤후4:2).

여기에 나오는 영어 단어 ‘sear’는 ‘낙인을 찍다, 강한 열로 태우다, 지지다’는 뜻을 가집니다. 사람의 양심에 죄의 화인(火印)이 찍히면 그 양심은 죄를 깨닫게 하거나 판단하게 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양심이 너무 상하면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차에 이상이 있는데도 작동하지 않는 빨간 불과 같습니다.

### C. 저울

양심은 또한 저울에 견줄 수 있습니다. 즉 양심은 자아의 판단을 재는 저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나 말들을 저울에 달아 보아야 하며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행동이 바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바른 답을 대기 위해선 정확한 저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저울의 정확성이 표준 추의 정확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표기된 표준 추의 무게는 3킬로그램인데 실제 무게는 2킬로그램이라고 합시다. 실제 저울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몇 킬로그램의 소금이 접시에 놓여 있었습니까? 2킬로그램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실제 소금의 무게가 2킬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소금이 3킬로그램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진짜 3킬로그램의 소금을 오른쪽에 있는 접시에 올려놓는다면 양팔 저울은 오른쪽으로 기울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추의 무게가 2킬로그램에 불과하므로 결국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양심도 이 양팔 저울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달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진리의 표준이 필요합니다. 만일 양심에 바른 정보나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제대로 무언가를 측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틀린 것을 바르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바른 것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양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 움직입니다. 양팔 저울은 정확한 추가 있어야 제대로 작동하는 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면 할수록 그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저울도 정확해집니다.

### D. 대개 양심은 잘 작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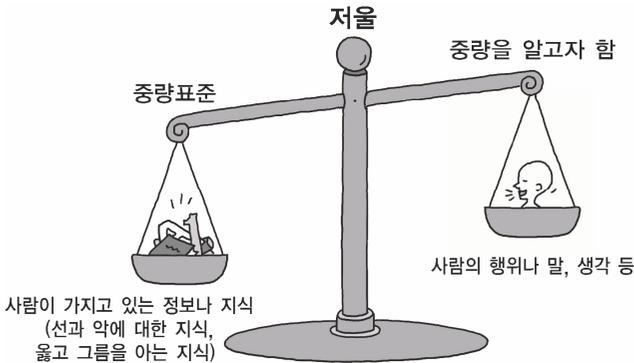
하나님은 사람 안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 기본 지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비추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서 나타나듯 사람의 양심은 이 지식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출20장)과 또 다른 율법들을 주셨고 이로써 그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령 그들은 살인과 도둑질, 탐욕은 나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이 로마서 2장 14-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롬2:14). 이들은 심계명이란 것은 구경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 14-15절은 이방인들도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록된 율법이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행했을 때는 양심이 갈채와 격려를 보내고, 나쁜 일을 행했을 때는 양심이 정죄하고 야유를 보냅니다. 그들의 양심, 즉 ‘혼의 신경’은 잘 작동합니다.

기록된 율법이 없어도 사람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1) 아비멜렉, 너그러운 왕

창세기 26장 6-16절에는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이방 왕인 그에게는 성경은커녕 심계명도 없었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말했습니다(창26:7). 뒤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매우 근심했습니다. 자기 사람 중 한 사람이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게 되면 그것은 곧 간음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이미 결혼한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아비멜렉은 간음이 나쁜 것임을 알았습니다(창26:10-11). 비록 그가 구원받지 못했고 심계명도 없었지만 간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작용하여 그의 양심은 이미 결혼한 여자를 취하려는 생각을 정죄하였습니다.

## (2) 멜리데의 야만인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우리는 멜리데 섬에 사는 친절한 원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역시 구원받지 못했으며 그들에게는 성경도 십계명 사본도 없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기록된 법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도 마음에 새겨진 법이 있었습니다. 독사가 바울을 물자(행28:3) 이를 본 야만인들은 그가 죄인임에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행28:4). 원주민들은 살인이 나쁘다는 것과 살인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뱀에 물린 바울을 보고 그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행28:5-6) 선과 악에 대한 그들의 개념만은 옳았습니다.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작용하여 그들은 살인이 악하다는 것을 제대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곧 구약의 율법을 직접 받은 유대인들과 구약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 E. 때로는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먼저 나왔던 빨간 경고등을 생각해 봅시다. 본래 이 경고등은 잘 작동하여 사람들에게 차에 이상이 있음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등이 틀린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가령 폭우로 전선이 젖었다고 합시다. 이 때문에 차에 이상이 없는데도 경고등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빨간 불이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를 보내므로 뚜껑을 열고 살펴보지만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이상은 차에 생기지 않고 경고등에 생겼습니다.

이처럼 양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8절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 먹기를 꺼려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고(고전 8:7) 좀 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그들은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했기에 음식물을 먹는 순간 양심이 그들을 정죄하고 죄책감을 갖게 했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레를 밟아 죽이거나 파리를 잡았을 경우에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 삼지 않아도 될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이 점에서 그들의 양심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돼지를 잡습니다(짐승을 학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회심 이전 다소의 사울(바울)의 양심은 그릇된 정보를 보내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행26:9-11). 실제로 사울은 그리스도인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요16:2와 비교). 하지만 나중에 바울은 정말로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받게 되고(행9장)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선과 악을 알며 양심도 제대로 된 신호를 보냅니다.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 자손들도 잘 작동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예리한 지각이 있었습니다.

## 2. 사람의 책임

사람은 선과 악을 알았습니다(창3:22). 지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했습니다. 즉 양심이 좋다고 인정하는 것을 하고 양심이 정죄하는 것은 피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을 보기 바랍니다. 아벨은 선을 행했고(히11:4) 가인은 악을 행했습니다(요일3:12와 비교). 그런데 잘못 행한 가인은 화를 냈고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이런 나쁜 느낌은 그의 양심이 보낸 것이며 그는 이것을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수리가 필요함을 보여 주는 이상 현상이 그의 삶 속에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서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창4:6-7). 가인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었습니다(창4:7). 가인에게는 잘 행할 책임, 즉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는 것은 그를 덮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야수처럼 죄, 즉 가인의 옛 죄성이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잘 행하지 못했습니다(창4:8-9).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와 자기 양심의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 3. 사람의 실패

창세기 6장에는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지독한 실패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의 사악함이 심히 컸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겨난 생각은 항상 악했습니다(창6:5). 또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했습니다(창6:11). 부패는 예외 없이 어디서나 볼 수 있었고 모든 인류에게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입니다(창6:12). 이 어두운 시대에도 몇몇 빛나는 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행했던’ 소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7절에는 이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세 사람, 즉 아벨(창세기 4장), 에녹(5장), 노아(6장)가 나옵니다.

그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유다서 14-15절에는 하나님을 따른 에녹이 당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이란 단어가 네 번이나 나옵니다. 에녹은 이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에 살았던 매우 경건한 사람(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 4. 하나님의 심판

이처럼 부패된 세상을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창7:11-12, 23). 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여덟 명이었습니다(벧전3:20; 벧후2:5). 하나님은 이와 같은 홍수의 심판을 다시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창9:11, 15-16).

### 5. 이 경륜은 끝났으나 양심은 지속된다

비록 양심 경륜이 막을 내렸지만 사람은 계속해서 양심 아래 살고 있습니다. 양심은 사람이 산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포함한 모든 경륜에서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홍수 이후의 율도 악을 멀리했습니다(롬1:1). 이러한 의무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롬12:9; 벧전3:11).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양심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안내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성경)입니다. 성경이 선과 악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말씀(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7:17).

우리의 저울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저울에 참되고 바른 표준이 놓일 때 우리는 정확히 무게를 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게 되면 그 말씀에 따라 그의 생각들은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입니다(롬2:15). 바꾸어 말해 바른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울은 매우 정확해질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나오는 ‘행복한 사람’이란 양심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양심이 정죄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청신호를 보내는 일만 해야 합니다. 붉은 신호나 노란 신호를 보내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롬14:23)는 말씀은 사람이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고 믿으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당신의 양심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양심이 약하고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부가적인 지식과 정보로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이라고 생각한 것이 전혀 잘못이 아님을 알게 될 수도 있고 바르다고 믿고 행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르다고 믿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 바르다고 믿는 일만 행한다!”는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당신의 양심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선과 악에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옳고 그름을 저울질할 필요가 있을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저울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이 정말 바른 것과 그른 것을 알아내기 위한 것입니까? 당신은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저울에다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른처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게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어 가도 별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좀 더 자라면 이런 일을 행할 때 양심이 그를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자라서 이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저울이 정확한 저울이 되기를 바라야 하며 더욱 주의하여 우리가 아는 대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합니다.

## 인간 정부 경륜

앞 장에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실패를 배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홍수 이후의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륜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신 새로운 진리나 책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행하는데 성공하였습니까?

인간 정부 경륜은 홍수가 끝난 때(창8-9장)부터 바벨탑 사건(창11장)까지의 기간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이 흥미로운 경륜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 1.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뒤에 살아남은 사람은 여덟 명이었습니다(창8:15-16, 18; 뱀전3:20과 비교).

창세기 6장 9절에서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이 노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네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왜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노아는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며 그것에 의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창15:5-6).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은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진실로 의로운 이는 단 한 분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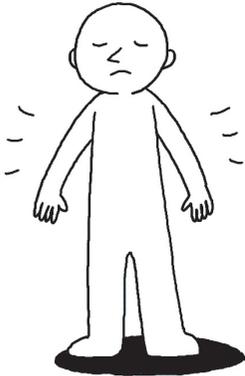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2:1).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셔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5:21).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의롭다고 보십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불의한 자**

"의로운 자는 없으나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롬3:10)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고후5:17)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롬3:22)

대홍수 뒤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덟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성경에서 확인해 보시다.

1.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들이 항상 확신해도 되는 일들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들 중 몇 가지가 창세기 8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겨울 다음에는 항상 봄이 옵니다. 봄 다음에는 여름이 옵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찾아옵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절기나 밤낮의 주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은 땅이 있을 동안 지속될 것이므로 그분의 약속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2. 창세기 9장 2절에 따르면 짐승과 날짐승과 물고기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은 육식을 하도록 처음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창9:3).

3. 하나님은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창9:11-15). 물론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지역에서 다시는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매년 세계 각 지역에서 국지적인 홍수가 발생합니다. 단지 땅의 모든 사람을 휩쓸어버린 노아 당시의 전 세계적인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창11:1과 비교).

## 2. 사람의 책임

창세기 8장 17절에는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은 짐승들이 나옵니다. 이 창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들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창9:1). 창세기 9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손을 낳고 번성하여 땅에 복적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나온 대로 사람들은 땅을 채우는 대신 한 곳에 모여 살고자 했습니다(창11장).

### A. 인간 정부의 책임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에 커다란 가치를 두셨습니다. 사람이 잔인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엄청난 범죄 행위가 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법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창세기 9장 6절이 진정 의미하는 바는 살인자, 즉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이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그의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사형 제도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매우 값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창 9:6).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앗아가는 사람은 가장 심한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 B. 사형 제도

범죄를 처벌하는 데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형벌은 사형입니다. 사람이 죽음만큼 무서워하는 것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죽음이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범죄자로서 누군가를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잡히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 범인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도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직접 살인자를 처벌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피를 흘린 자, 즉 살인자는 내가 직접 죽이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잘못된 사람을 벌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창4:15). 그러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이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사람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부를 두셔서 범죄를 처벌하는 권리와 책임을 정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심지어 사형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큰 복이었는데 그 이유는 첫째 행악자를 벌할 수 있고, 둘째 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며 - 왜냐하면 아무리 범죄자라도 자기 생명을 앗아갈 만한 일을 선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셋째 무죄한 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 제도는 모세 때에도 있었습니다(출21:12, 15-17).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사람을 쳐서 죽인 자, 부모를 치는 자, 사람을 흠쳐서 파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등은 죽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정부는 사형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로마서 13장 1-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 나오는 인간 정부는 일반적으로 선에 대해 보상하고 악을 응징합니다. 법을 잘 준수하는 시민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긴 사람은 곤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그는 두려워해야 합니다(롬13:4).

로마서 13장 4절은 정부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역자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직접 처벌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 땅에 임할 천년 왕국 때에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그분은 주로 자신의 사역자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경찰, 판사, 정부 관료들을 사용하셔서 범죄자를 처벌하십니다. 이것이 인간 정부의 책임입니다. 때로 정부가 칼을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롬13:4). 물론 여기서 칼은 사형 도구를 나타내며 오늘날에는 칼 대신에 전기의자나 가스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행 25:11). 그리스도 곁에서 죽은 범죄자 중 하나는 자신이 자기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눅23:40-41). 심지어 미개한 야만인들도 살인자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행28:4).

성경은 모든 사람이 범죄자이고 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롬6:23). 로마서 1장 29-31절에 나오는 죄의 목록을 살펴봅시다.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들이요,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며 본성의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긍휼이 없는 자들이라.

당신도 이 중에 하나를 범한 적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32절은 이 같은 일을 범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딤후1:15).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처형당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사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롬6:23; 5:8; 벰전3:18). 누구나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그분께서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죽이는 대신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고전15:3)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3. 사람의 실패

우리는 노아의 날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단지 8명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들이 짐승들 외에 방주 안으로 들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지독한 질병이라 할 수 있는 죄, 즉 마음의 병이 그것입니다(렘17:9). 각 사람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 20-21절은 의로운 노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잘 보여 줍니다.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떨지 않은 채 있었다니

노아의 가족들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도  
부모와 같은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는 많은 손자들이 있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증손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처음의 여덟 혼은 수많은 사람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살던 아라랏산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창8:4).  
아라랏은 땅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방주가 처음 머물렀던 곳입니다. 시날 땅은 두 개의  
큰 강, 즉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지대의 땅입니다.  
그들은 이곳을 자기들의 거처로 삼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는 단 하나였습니다(창11:1). 단일 언어는 연합을 쉽게  
하지만 여러 언어를 사용하면 연합이 어렵습니다. 가령 파티에 초대받은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이  
참석해서 파티가 시작되면 이 사람들이 몇 그룹으로 나뉘겠습니까? 시날 사람들은 함께  
작정하고 대형 건축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창11:3). 당시 그 지역에는 커다란 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도시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와 그리스의 사원들은 돌로 지은 것입니다. 돌이 없었지만 대신 그들은 엄청난  
양의 진흙을 가져다가 벽돌을 만들었고 아스팔트(역청)를 접착제로 썼습니다. 보통 벽돌은  
햇볕에 말립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람들은 돌과 같은 강도를 얻기 위해 벽돌을 구웠습니다  
(창11:3).

건물을 짓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크신 하나님을 위해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왕상6장).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 건축물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있기를 거절했습니  
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도시와 큰 요새 등을 짓고 자신들을  
위해 이름도 지었습니다(창11:4). 그들이 원치 않았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원치 않았습니다(창9:1-7). 사람들은 연합을 원했고  
큰 도시를 지어 땅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 4.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 도시, 요새, 그들의 악한 계획 등  
모든 것을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이제 그들이 하지 못하게 막지 못하리라(창  
11:6).

죄인들이 모여 연합하게 될 때 그들이 행할 악이란 상상을 초월한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건축 계획은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지하지 않으셨다면, 즉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죄악은 깊어만  
가고 사악함은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창11:6).

만일 부모님이나 경찰, 선생님, 법률, 양심이 없다면 당신은 어떤 나쁜 일, 즉 죄를

행하려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들이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며 벌 받는 일도 없다면 무엇을 행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같은 일을 못하도록 제지할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줄에 묶여 있는 위험한 개를 생각해 봅시다. 줄은 개를 붙잡고 있는 제어기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줄이 없다면 개는 마음대로 사람에게 해를 줄 것이며 그로 인해 말썽이 생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인간 정부 - 경찰, 판사, 법 등 - 를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제지하십니다.

바벨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창11:7). 갑자기 언어가 하나에서 여러 종류로 불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대략 3,000종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의 건축 계획은 무산되었고 그 도시는 혼란/혼잡을 의미하는 바벨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창11:8-9).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함께 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세상으로 흩어져서 땅의 여러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들 혹은 민족들의 시작입니다(창10:5, 20, 31, 32).

여러 나라가 있을 때는 특별한 위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강성한 나라 없이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이 뭉치게 되면 참으로 위험한데 이는 모든 힘이 한 사람의 사악한 독재자의 손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현시대 경륜의 마지막에 세계가 연합하여 한 지도자와 한 정부 아래 있게 될 것이며 누구든 이 사악한 체제에 순응하지 않으면 죽음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계13장).

현 세상에서 우리는 바벨에 입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다양한 수업은 우리에게 바벨탑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말이 다르므로 각 나라마다 성경을 번역해야 하고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또 음식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단일 세계 정부 구축이 한층 가까워졌음을 보여주는 사건들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의사소통 분야에서 지구촌 시대를 실감케 해 주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운송 수단 분야는 어떻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인간 정부의 권력을 잡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사2:1-5; 9:6-7; 33:22; 렘23:5-6).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그 의로운 분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왕이고 치리자이십니다. 당신은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정부에다 맡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름대로의 삶을 살려고 합니까?

## 5. 오늘날 나의 책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부 아래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의 정부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한국) 정부의 관할 아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정부 아래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 A.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쏟아 ‘왕(대통령)들과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딤후2:1-2). 당신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시장이나 관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까? 경찰, 소방대원, 판사,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까? 그들이 자기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정의 편에 서서 악에 맞서고 약자를

보호하도록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까?

## B. 가능한 한 훌륭한 시민이 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빌3:20).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미국(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하고 법을 잘 준수하는 정부의 방침에 잘 따르는 시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롬13:1). 선량한 시민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롬13:3).

사람의 정부, 사람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 이 말은 순종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세상 권력자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명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만일 사람의 법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라고 말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권력에 순응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례 두 가지를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1) 구약의 다니엘

다니엘서 6장 7-9절에는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이 내려진 사건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 법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다(단6:10). 다니엘의 정부는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바른 것이었습니다.

### (2) 신약의 베드로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우리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이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막16:15).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도인은 정부의 방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문제가 된다면 그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 C.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법을 어기지 말라

만일 어떤 사람이 법을 어기고 나쁜 일을 했다면 그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롬13:4).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할 목적으로 인간 정부를 두셨습니다. 당신이 법률을 어기고 범죄자가 된다면 아마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당신이 만일 살인, 절도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때로 한 나라의 정부가 그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들은 실제 죽어 마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좀처럼 사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종종 범죄가 응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론 살인자와 다른 범죄자들이 체포되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패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범인은 자기가 형벌을 면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는 언젠가 진짜 심판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가 이생에서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내생에서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롬2:3). 사람과 치리자는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 D.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거나 법을 어긴 일도 없는데 단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벧전3:17; 4:14, 16). 심지어 사도 바울도 로마 정부에 의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죄목이 무엇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죄목이란 그저 그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믿는 이가 잘 행한 것으로 인해 고난받을 때가 있음을 알면 이에 대해 울부짖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마5:10-12).

성경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른 것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벌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필요할 때 그들을 도우십니다. 이때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것이 잘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어야지 죄들로 인한 고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벧전 3:17). 그리스도인이 은행을 털다가 붙잡혔다고 합시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소시키면 되겠습니까?

당신의 정부를 고맙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지만 정부는 인간의 유익과 보호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 감사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입니까(골1:13)? 왕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십니까? 당신은 미국(한국)의 일부입니까? 당신은 나라의 법령에 순종하십니까? 당신은 법, 경찰, 군인 등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그들을 존경하십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또 경건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딤후2:2)? 많은 국가에서 허용되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제7장

# 약속 경륜

바벨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0장에서 그 나라들 가운데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특별히 5절, 20절, 31-32절).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민족의 조상이 될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창12:1-3;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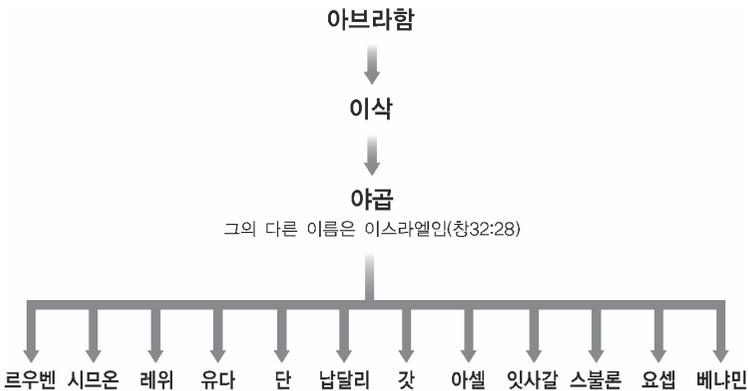
이때부터 하나님은 다음에 나오는 이들을 매우 특별히 다루셨습니다.

한 사람 — 아브라함

한 가족 — 아브라함의 가족

한 민족 —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민족(이스라엘)

아브라함의 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열두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이스라엘 자손)가 나옴

### 1.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장소에서, 즉 그의 고향과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떼어 내어 새로운 장소로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집을 떠나, 당신의 나라와 부모와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모두 떠나 전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낯선 장소로 가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당신에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 그리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기 24장 2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창 11:27 참조). 우리는 데라가 유프라테스강 저편에 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수24:2 후반부 참조).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참되신 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들은 있지도 않은 거짓 신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거짓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거짓 종교에서 사람들을 불러내기를 원하십니다(살전1:9).

창세기 12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같은 약속은 땅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주어진 약속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갈3:16과 비교).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창세기 12장 2-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에는 “무언가를 하리라.”와 “무언가를 하지 않으리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을 위해 행할 일들을 말씀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내용을 알아봅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 내가 너로부터(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창12:2): 이 민족은 뒤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리게 되었다.
2.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창12:2):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미칠 것을 말씀하셨다.
3.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창12:3):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친구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적을 저주하시리라는 의미이다.
4. 네 안에서(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창12:3):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어느 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마1:1)가 나올 것이고 그분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구원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요일4:14).

이 두 구절(창12:2-3)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1. 민족(2절)
2. 복(2절)
3. 보호(3절)
4. 구원(3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었고 그대로 행했습니다(창12:4; 히11:8).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약속이 창세기 13장 14-17절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과 그의 후손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는 이 약속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강, 즉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강에 이르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성경 지도에서 이 두 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창세기 17장 5-8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차례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자손)와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에게 네가 나그네로 있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존하는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창17:8).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주셨습니다(창26:1-5).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창28:10-15).

이 세 사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매우 특별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행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지지 못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므로(딤후1:2; 히6:18), 사람이 아니므로(민23:19), 약속하신 것을 이행할 능력이 있으므로(롬4:21), 신실하시므로(히11:11) 항상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 2. 사람의 책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손에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남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사람에게는 그것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사람은 그 약속을 꼭 붙잡고 부동켜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히11:13).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믿는다. 그걸로 끝이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라는 것을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5장 5-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 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을 세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5절). 아브라함이 별을 다 셀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주에는 수많은 별이 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 숫자는 더 많아집니다. 가까이 보면 더 많은 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별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창15:6).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창22:17의 약속 참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그들의 수는 모두 70명에 불과했습니다(출1:5). 이는 충분히 셀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창대한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7-12절, 20절; 5장 5절과 사도행전 7장 17절을 읽고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유대인, 즉 아브라함의 자손은 수천만 명에 이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행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롬4:20-21)

또한 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해 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체류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게 복을 주리라. 또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네 씨에게 주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할 것이며 또 내가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네 씨에게 주리니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 즉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 바로 복의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대개 곤경에 빠졌습니다. 가령 그들은 이집트나 바빌론에서 노예 상태로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이 땅에 머물며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했습니다.

### 3. 사람의 실패

#### A. 아브라함의 실패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창15:6).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에 있어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 사래를 통해 아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신 사래의 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물론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롬4:20-21).

#### B. 이삭의 실패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동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아이가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창25:21-23). 그러나 이삭은 맏아들인 에서를 좋아했습니다(창 25:28). 이삭이 축복하기로 한 아들은 에서였지만(창27:1-4)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즉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이삭은 속아 부지중에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진상을 알게 된 이삭은 더 이상 하나님께 반박하지 않고 그분에게 순응했습니다.

이삭이 몹시 심하게 떨며 이르되,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온 자는 어디 있느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으니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니라(창27:33).

하나님은 “내가 야곱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삭도 결국 이에 동의하여 “야곱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지 않고 동의합니다(히11:20).

### C. 야곱의 실패

거듭거듭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창28:13-15; 32:24-29; 35:9-12). 그러나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갈 정도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서 내 자식들을 빼앗아 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너희가 베나민을 빼앗아 가려 하니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하매

이제 야곱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그는 이제 막내인 베나민마저 잃어버리고 아들 시므온도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걱정하였습니다. 야곱은 절망 중에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는도다!”(창42:36)라고 외쳤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믿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저주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야곱은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고 결국 야곱은 요셉을 포함하여 자기의 열두 아들이 모두 살아 있음을 발견합니다. 모든 일이 야곱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복과 선을 위해 함께 협력한 것입니다(롬8:28). 사실 고난 중에 그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후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 D. 야곱의 아들들의 실패

이 장의 맨 앞에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열 명의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에게 무서운 일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으나 요셉이 결국 이집트에 노예로 팔린 것으로 일이 끝납니다(창37:28). 그리고 그들은 야곱을 속여 자기들이 한 일을 은폐하였습니다(창 37:31-34). 이 모든 일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더 축복하므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생겨났습니다.

이 열 명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은 요셉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모두 주어진 약속임을 그들은 기억했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요셉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록 요셉이 특별한 대우를 받지만(창37:3) 우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모두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거야. 인내를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를 기다리자고!” 그러나 그들은 참지 못했습니다.

#### E. 이스라엘 자손의 불신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는 데 실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구절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한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1. 이집트 탈출 뒤 파라오가 추격하자 곧바로 이집트로 가겠다고 불평함(출14:10-14)
2.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자 즉시 불평함(출15:23-26)
3. 먹을 빵이 없다고 불평함(출16:1-8)
4. 호렙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함(출17:1-7)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 4. 하나님의 심판

요셉의 형들이 그를 이집트로 팔 때만 해도 나중에 자기들의 자손들이 모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집트의 노예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2-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악몽을 꾸니다(12절).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자손)가 남의 땅(이집트)에서 그 땅 사람들을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네 세대, 즉 400년 동안 거기서 고통을 받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창15:13, 16). 그 뒤에 하나님은 자신이 이집트 땅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구해 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창15:14).

창세기 46장 3-4절, 27절에는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주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집트를 포함한 중동 지역에 7년간의 극심한 기근이 있을 때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야곱의 열두 아들이 모두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그 땅의 노예가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국고 저장 도시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극심한 노역으로 인해 그들의 삶은 날로 어려워졌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재료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예전과 동일한 양의 벽돌을 만들라는 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의 날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생활로 인해 부르짖었고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출2:23-25; 행7:34). 오직 하나님만 이 끔찍한 속박의 삶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 중간에도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몇 가지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6-8절을 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취해 나에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라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내가 하리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일곱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속박의 땅에서 구출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 탈출을, 여호수아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진입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긴 적도, 취소한 적도 없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고용된 사람이 있었습니다(민23:7-18). 그의 이름은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데도.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오? 그분께서 이르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약속하면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 5.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기 바랍니다. 약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 약속들에다 믿음을 함께 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히4:2).

여기 씨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땅에 심기면 싹이 나고 가지를 내며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씨를 식탁에 둔다든지 다른 단단한 표면에 놓게 되면 그것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마음 깊이 심겨야 하며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네 외투 주머니에다 20달러를 넣어 둘 테니까 마을에 내려가서 쓰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시다. 당신이 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마을에 내려가도 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없다고 생각한 돈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믿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돈을 쥐고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누가 봐도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거머쥔 다음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약속에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 영생의 약속(요5:24; 요일2:25)
2. 구원의 약속(행16:30-31; 롬10:9, 13)
3.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행3:19; 행10:43)
4.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보장과 안전의 약속(요10:28-30; 롬8:1, 38-39)
5. 하나님의 돌보심의 약속(벧전5:7)
6.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의 약속(마28:20; 히13:5)
7.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리라는 약속(시23:1; 빌4:19)

8. 강건함의 약속(사41:10; 고후12:9-10; 빌4:13)
9. 도움의 약속(사41:10, 13; 히13:6)
10. 용서와 죄 씻음의 약속(요일1:9)

당신은 매일의 삶에서 이런 약속들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외에 생각나는 또 다른 약속은 없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는 어떤 약속들이 나올까요?

남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두려울 때,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울 때,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너무 어려운 일이 맡겨졌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죄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우리는 위에 있는 열 가지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히11:6).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친히 행하리라고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고 그분의 약속은 참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요일12). 믿음은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 율법 경륜

율법 경륜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데서부터(출19-20장)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오순절에 교회가 출생할 때 끝이 납니다(마27장, 행2장). 따라서 율법 경륜은 대략 1,500년의 기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구약 성경의 거의 모든 책이 이 기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자손은 한 민족으로 성장하여 여러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율법 밑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광야 생활(모세)
- 정복(여호수아)
- 사사기(재판관들)
- 열왕기
- 포로(아시리아와 바빌론)
- 고토의 회복(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 사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

율법 경륜에는 모세, 여호수아, 삼손,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침례자 요한과 같은 주요 인물이 살았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이 이 율법 경륜에 살았습니다.<sup>1)</sup>

### 1.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의 집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출20:2).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창15:13).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속박의 땅에서 구출하셨습니다(출14장). 이스라엘 자손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목격하였습니다(출14:30-31). 이렇게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심을 유감없이 보여 주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으로 이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지난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할 책임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8, 17절에는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

---

1) 심지어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신약 시대를 여셨다(롬10:4; 갈4:4).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신약 시대는 십자가 이후부터이다(마26:26-29; 히9:15-17).

로라면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죽게 됩니까?  
자, 여기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했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이 자기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출3:8, 17)
2.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신 것(출14장 - 홍해를 건넌 사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놀라운 권능을 목격한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불신을 보여 주는 예들입니다.

(1) 출15:22-26(홍해를 건넌 뒤 셋째 날) - 물이 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그분께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그분께 불평했습니까?

(2) 출16:1-5(홍해를 건넌 지 한 달 뒤) - 먹을 것이 없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아니면 불평했습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까(3절)?

(3) 출17:1-7 - 물이 없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수 있음을 그들은 믿었습니까?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가리라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외쳤습니까(3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모든 필요를 채우리라는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까(7절)?

#### A. 시내산의 이스라엘

이집트 탈출 뒤 셋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의 언저리에 도착했습니다(출19:1-2).<sup>2)</sup>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과 명령을 주고자 하신 장소입니다. 시내산 도착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요약하며 나오는 두 단어는 “...을 너희가 보았느니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출14:30-31). 하나님께서 어떻게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는지 보았습니다(출15:25). 하나님이 사막 한 가운데서 어떻게 먹을 것을 주셨는지 보았습니다(출16:11-15).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출17:6). 그들은 불평과 불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공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거듭거듭 목격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려는 장면이 나오니

---

2) 이스라엘은 초실절(그들의 달력으로 1월 17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에 율법을 받음(참고로 유월절은 1월 14일임). 오순절은 현재 달력에서는 6월 초순경임.

다. 흔히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이름을 따라 ‘모세의 언약’이라 합니다.

이 언약의 조건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만일 이스라엘이 언약에서 그들이 맡은 부분을 이행하면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 소유 모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출19:5).

이스라엘이 순종하였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협약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자기 몫을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출 19:8).

## B. 자기 확신의 위험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백성은 한목소리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들은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후에 모세에게서 율법을 받았을 때도 그들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출24:3).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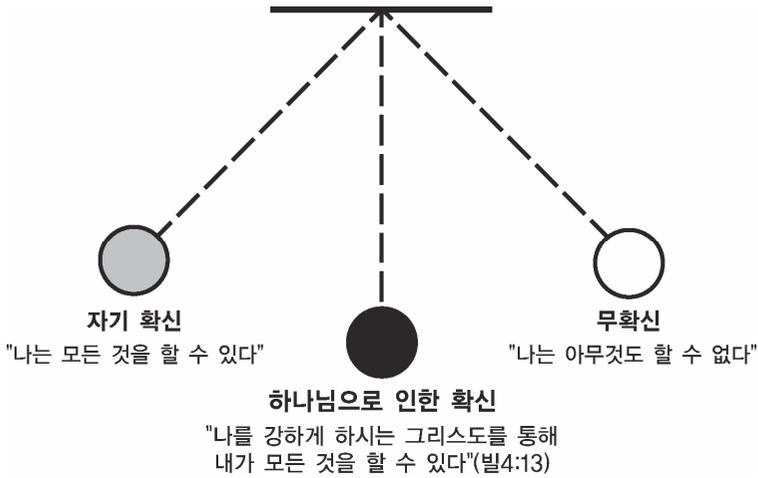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치게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안에 주님께 순종할 만한 힘이 없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5장 27-29절을 봅시다. 이때에도 그들의 자기 확신은 매우 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의 문제는 ‘마음’에 있었습니다(29절). 말과 마음이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28절). 그들의 마음은 불순종에 더 가까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 하나님은 백성이 얼마나 명령에 잘 순종할 수 있는지 보시려고 한 가지 시험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모으는 일에 대한 매우 단순한 규칙을 주셨습니다. 첫째 규칙은 출애굽기 16장 19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단순히 ‘다음 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단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출16:20). 둘째 규칙은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출16:22-26). 그들은 처음에 이것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출16:27).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과 출애굽기 24장 3, 7절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은 달리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의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사악하고 반역하며 죄로 가득합니다. 우리 자신은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저희는 만나를 모을 때 주셨던 두 가지 규칙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사 힘을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실패하고 맙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자기 확신도 문제지만 확신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왔다 갔다 움직이는 시계의 추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두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움과 조력 없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요15:5).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 없이는 저희가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일하셔야만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31절과 마가복음 14장 66-72절을 보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베드로의 확신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확신이 아니고 베드로 자신의 확신이었습니다.

### C.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이라는 독특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어느 민족도 받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신4:5-8).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잘 알려진 것이 십계명입니다(출20장, 신5장). 그 외의 명령들을 알고 싶다면 출애굽기 21-23장을 보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구분하여 총 613개의 율법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삶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sup>3)</sup>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나산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첫 사람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창2:17). 노아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에 그의 자손들도 명령을 받았습니다(창9:1-7).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명령을 주셨습니다(창17:9-12). 시나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법이나 명령이 있었습니다(출15:26; 출16:28).

하나님은 시나산에서 율법을 수여하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어떤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나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 부르셨던 특별한 의미의 법이었습니다(출19:5). 여기에는 십계명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지침과 규정과 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민족, 즉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출19:3; 20:2). 이집트 사람, 가나안 사람, 그 외 세상의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모세와 이스라엘과 맺었습니다(출

3) 613개는 두 가지 형태, 즉 "...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365개)과 "... 하라"는 긍정 명령(248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365는 일 년의 날 수이며 248은 사람의 뼈마디 개수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365일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뺏속에 넣고 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34:27). 수많은 법과 명령을 포함한 이 특별한 꾸러미는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 외의 다른 민족은 어떤 율법도 받지 못했습니다(신4:8).

## 2. 사람의 책임

하나님은 거룩한 율법을 이스라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엄청난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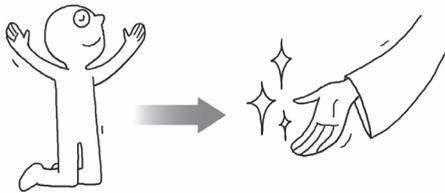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 소유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시니라(출19:5-6).

신명기 6장 1-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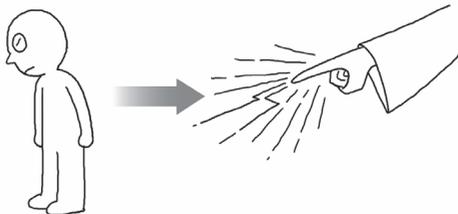
한편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이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요, 또 네가 살아 있는 모든 날 동안 네가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들과 명령들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네 날들이 길게 되리라.

모세 언약의 조건에 따르면 순종에는 복이, 불순종에는 저주가 따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이 조건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순종(신명기 28장 1절)에는 축복이 따른다(2~6절)



불순종(신명기 28장 15절)에는 저주가 따른다(15~19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게 살도록 이 명령들을 주셨습니다(신6:24).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이 율법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 15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백성들은 한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출19:8; 24:3, 7).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 즉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어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 즉 모두를 지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전적인 순종을 기대하십니다(마28:20).

### A. 실패했을 때의 행동 지침

하나님은 그 누구도 -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인간도 실패하고 불순종과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가령 구약 시대에는 모세의 법에 따라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희생물로 바쳐야 했습니다(레1-5장).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에 따라 각각의 희생에 맞는 짐승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지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 그는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요일1:9).

우리가 제단에 짐승을 희생물로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한 희생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요일1:9).

## 3. 사람의 실패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분명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정말 이 말대로 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 언약을 깨뜨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나긴 반역과 불순종의 기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지체 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시나이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십계명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출20:3-5와 비교). 그 뒤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네 신들이니라, 하였도다, 하시고(출32:8)

사사(재판관)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습니다(삿21:25). 왕정 시대의 대부분을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며 보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상들 곧 전에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 일을 행하지 말라,

하시며 경고하신 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더라(왕하17:12).

열왕기하 17장 7-19절에도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가 나옵니다(특히 15, 19절).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자기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행2:22-23; 살전2:15). 더욱 슬픈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소행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뜰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는데 이는 빌라도가 이방인이어서 그의 뜰에 들어가면 몸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매달아 죽이려 했습니다.

이는 마치 다음에 나오는 경우와 같습니다. 한 은행 강도가 은행 문에 들어섭니다. 그는 은행 안에 먼지를 들이지 않으려고 도어 매트에서 자기 구두를 조심스럽게 닦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행 문을 들어선 그는 갑자기 은행 창구 직원을 총으로 위협하고 10만 달러를 갖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24절에서 이 같은 사람들을 적절하게 묘사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렌지 주스에 조그만 벌레가 있음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벌레를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자기 오렌지 주스에 낙타가 들어 있는데도 별로 개의치 않고 낙타와 주스를 한 번에 꿀꺽 삼켜 버립니다. 빌라도의 뜰에 들어서는 것은 앞에 나온 작은 벌레와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것은 낙타와 같습니다.

물론 이 말이 모든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과 명령들을 지키는 데 필요한 힘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부모는 이 같은 방식으로(눅1:5-6)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 4.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른다고 배웠습니다(신28:15).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확히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명기 28장 16-26절에 나오는 저주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큰 심판 중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아시리아 포로

- 주전 721년
- 북 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강력한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 포로로 잡혀감
- 왕하17:3-6 참조
- 심판의 이유: 왕하17:7-18

##### B. 바빌론 포로

- 주전 606년 (주전 586년 성전이 무너짐)
- 남 왕국 유다가 강력한 바빌론 군대에 의해 포로로 끌려감
- 왕하25:1-11 참조
- 심판의 이유: 대하36:14-17

### C. 로마 군대의 예루살렘 파괴

- 주후 70년
- 예루살렘과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고 유대인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짐
- 마23:38; 24:1-2 참조
- 심판의 이유: 마23:37; 27:23-25; 요1:11

### 5.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다. 믿는 성도가 자신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것입니다(요14:15, 21, 23).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다(요15:14).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행해야 합니다(눅6:46).

우리의 놀라운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에베소서 4-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명령들도 지켜야 합니다.

순종의 일 순위가 되는 하나님의 첫째 명령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행16:31; 요일3:23 전반부).

당신은 이런 명령들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가득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거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스도 인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이는 결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사 우리가 원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힘을 주심으로 자신의 참된 기쁨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빌2:13).

그리스도 없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실패뿐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라면 해 낼 수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우사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로서 합당하게 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벧전1:14)!

## 율법의 역할과 목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므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율법을 준수한 사람입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까? 율법을 어긴 대가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율법을 거울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 정말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율법과 명령들을 완전히 지키고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들에 대해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 1.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한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왔습니까? 어겨 왔습니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가장 큰 명령은 어떤지 살펴봅시다. 이것은 ‘모든 율법의 제왕’으로서 마태복음 22장 36-38절에 나와 있습니다(신6:5 참조).

[한 율법사가 이르되,] 선생님이어,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당신은 이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당신의 생활에서 으뜸가는 자리에 계십니까? 항상 ‘첫사랑’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물이나 사람이 당신의 첫 자리에 와 있습니까? 과연 당신은 최고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며 삽니까?

#### A. 자가 진단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중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일단 그중에 5가지만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자기를 진단해 보기 바랍니다.

1. 첫째 명령(출20:3) - 나는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나는 항상 주님을 우선하였다. 나는 결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2. 셋째 명령(출20:7) - 나는 결코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거나 생각 없이 내뱉지 않았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일컬었다.

3. 다섯째 명령(출20:12) - 나는 항상 내 부모를 공경하고 가장 높이 모셨다. 나는 부모에게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렸을 때에도 매를 맞은 적이 없다.
4. 여덟째 명령(출20:15) - 나는 결코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다. 내 것이 아닌 것에 손댄 적은 한 번도 없다.
5. 아홉째 명령(출20:16) - 나는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한 적이 없다. 나는 결코 다른 사람에 대해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한 적이 없다. 나는 결코 거짓말한 적이 없으며 항상 모든 일에 정직했다. 나는 진실만 말한다.

어떻습니까? 당신은 율법을 어겼습니까? 지켰습니까?

율법에서 몇 개는 지키고 몇 개는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된다.”고 기록합니다.

위의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합시다. 그는 자신이 어긴 하나의 명령 외에는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0절은 비록 그가 겨우 하나를 어겼지만 여전히 율법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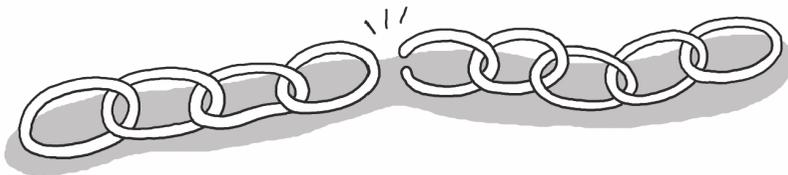
아버지가 자기의 십대 아들에게 ‘잔디 깎아라, 세차해라, 담장 칠하고 쓰레기 비워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잔디를 깎고 세차하고 담장을 칠합니다. 그러나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하나 빼고 다 했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아들입니까? 불순종하는 아들입니까?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불순종했습니까?

사람이 단 하나라도 율법을 어기면 그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여기 사슬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 고리 중 하나가 끊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끊어진 사슬입니다.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음을 한 적은 없습니다(약2:11). 그래도 율법은 그를 범법자로 규정합니다.

고무 밴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가위로 그것을 열 토막 냅니다. 고무 밴드는 끊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한 군데만 자릅니다. 이 고무 밴드도 역시 끊어진 고무 밴드입니다.

### 사슬이 끊어짐



로프에 몸을 내맡긴 채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로프가 다섯 군데 끊어지면 그 사람은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사람이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까? 로프가 끊어지는 건 한 군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십계명만이라도 완벽히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벽히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도다.

율법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유일한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같은 진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바로 그는 참되며 그의 안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가 있다고 확증하겠느냐? 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요8:46)

예수님은 완전히 무죄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19절 말씀대로라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 B. 율법은 나쁜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진단해 보면 우리가 모두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합니다(롬7:12). 율법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자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율법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보여 줍니다. 문제는 죄인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씻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본다고 합시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울이 왜 이래? 내 얼굴이 더럽게 비치잖아!” 그러나 실제로 거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얼굴이 더러울 뿐입니다. 좋은 거울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율법도 죄인에게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롬7:14 -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내게 있다!).

## 2. 율법을 어긴 대가는 죽음이다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잡혔다고 합시다. 분명 거기엔 처벌이 따릅니다. 만일 부모님이 과속으로 걸렸다고 합시다. 분명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십계명이 주어진 이후에 나오는 출애굽기 21장을 보기 바랍니다. 12, 15-17절에는 율법을 어긴 자들이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31절에는 죄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들이요,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며 본성의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공홀이 없는 자들이다.

이 세 절에 당신에게 해당되는 죄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32절은 이 같은 죄에는 분명히 형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삯은 사망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 즉 죄인은 죽어 마땅합니다. 율법을 어기면 그 형벌로 죽게 되고 이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어긴 죄인에게는 죽음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율법 파괴자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복의 말씀으로 다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롬3:23). 복은 사람에게서 떠나고 대신 율법을 어긴 데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이제 소망이 있습니까?

### 3. 기쁜 소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죄인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갈3:13).

이 땅에 있는 모든 범법자들, 즉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어긴 자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딤후1:15).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당신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믿으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롬6:23). 당신은 이 선물을 받았습니까?



#### 4.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 젊은 부자 관원(마19:16-22)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했다고 합시다(마19:16).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은 대체로 이렇게 대답하겠지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요3:16; 요6:47). 그러나 예수님은 젊은 부자 관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대로라면 영생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앞에 나온 두 답이 모두 맞습니다. 영생을 얻는 데는 두 길이 있습니다.

1. 하나님의 명령들을 모두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하나님의 율법을 하루 24시간 평생토록 완전하게 지킴으로).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2.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가장 훌륭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형편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 가는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젊은 부자 관원이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여 주려 하셨습니다. 그 관원은 자신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마19:17-20). 당신은 정말 그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관원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명령들을 지키므로 선하다고 생각함으로 스스로 속아 넘어갔고 결국 자신을 정죄에 넣을 정도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함으로 그는 자신의 악한 면을 보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제 이 청년은 범법한 죄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38절에 따르면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까? 아니면 자기 소유를 더 사랑했습니까(마19:21-22)? 실제로 그는 이 중대한 명령을 어겼습니다.

## B. 어떤 율법사(눅10:25-29)

이 율법사, 즉 모세 율법의 전문가의 질문은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되물으셨습니다(눅10:26-27). 그러자 율법사는 율법의 가장 큰 명령, 즉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도다. 이것을 행하면 네가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행해야 합니다.

1.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라.
2. 이웃을 완전히 사랑하라.

그런데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두 일을 완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완벽히 사랑하거나 이웃을 완벽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다면 구원자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은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갈2:21). 오직 범법한 죄인만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는 의로운 자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로운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롬3:10)?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모두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 5. 율법의 목적

율법의 목적이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즉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
2. 율법의 목적은 사람에게 그의 죄를 보여 주는 것이다(죄를 알게 하는 것, 롬7:7-14 참조).

더러운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얼굴에 묻은 것은 죄와 같고 거울은 율법과 같습니다. 거울의 목적은 그 사람에게 그의 더러움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얼굴을 씻으려고 거울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울은 다만

세수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율법도 이처럼 죄를 씻어야 할 필요를 보여 줍니다. 율법 자체가 죄를 씻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요1:29). 거울이 우리를 세면대로 인도하듯 율법도 우리를 어린양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 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함이라(갈3:24).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죄 씻음을 받고 용서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셨습니다(롬8:3). 어린양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나 사람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할 수는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씻을 수 없지만 죄를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거울은 얼굴을 씻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여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 6. 사랑의 법

마태복음 22장 36-40절에 따르면 모든 율법은 두 가지 간단한 명령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롬13:8-10 참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롬13:10).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지키고 성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범법자가 아니라 준법자입니다.

십계명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출20:3)?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겠습니까(출20:4-5)?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겠습니까(출20:7)?

정말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를 죽이겠습니까(출20:13)? 진정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의 것을 훔치겠습니까(출20:15)? 율법의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되고 성취됩니다(갈5:14).

너무나 간단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하지만 사람에게서는 이런 사랑이 결코 나오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신자의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 스스로 사랑을 행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율법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실 유일한 분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을 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나는 사랑을 만들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님 안에서 걷고 있고(갈5:16)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천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달려라, 존, 달려! 율법이 명한다!

그러나 내게 발이나 손을 주지 말고 복음이 가져다주는 훨씬 더 위대한 소식을 다오.

그것으로 내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리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당신은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나오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혹은 어떻게 그 일이 불가능합니까?

## 은혜 경륜

이제 우리는 여섯째 경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경륜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속됩니다. 8장까지 우리는 과거에 있던 경륜들을 살펴보았으나 이 장부터는 보통 '은혜의 경륜'이라 불리는 현시대의 경륜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경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현재의 경륜(칭지기직)에 대해 언급합니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베드로는 성도들의 칭지기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벧전4:10).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약속을, 모세에게는 거룩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알려 주십니다. 현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은혜를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자신의 은혜를 보이셨습니다(창3:21).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로우셨고(창6:8) 홍수 이후에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리라고 하심으로 전 세계에 자신의 은혜를 보이셨습니다(창9:11).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침례자 요한에게도 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가장 돋보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의 물줄기, 즉 모든 경륜에 걸쳐 면면히 흘러 내려온 물줄기라고 한다면 오늘날 그 은혜의 물줄기는 전에 볼 수 없이 엄청나게 불어나 커다란 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은혜는 흐르는 차원을 넘어서서 범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풍성한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풍성합니다! 현재 우리 주님의 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딤후전1:14).

종종 우리는 물이 흐르는 시내를 보지만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가 불어나 둑까지 범람하게 된다면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도 범람한 강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약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은 자신이 알려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경륜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우리는 거둬거둬 다음과 같은 표현을 접하게 됩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네 한가운데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라. 내가 그녀 안에서 심판을 집행하여 그녀 안에서 거룩히 구별될 때에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니(겔28:22, 23, 24, 26 등)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역사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심으로 죄를 미워하는 심판자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신실한 주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권적 하나님이십니다(창50:20). 홍해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과 구원을 보여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자신의 거룩함을 보이셨습니다. 역사를 통해 줄곧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의 부요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받아 주시는 은혜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보여 주려 하십니다(엡1:6). 살아 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은혜의 물줄기를 넘쳐흐르게 하여 모든 이가 거기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는 중요한 단어로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를 뜻합니다. 이 은혜는 종종 ‘합당치 못한 자가 받는 호의’라 불리는데 이는 하나님의 호의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당치 않은 친절, 과분한 친절, 받을 가치가 없는데도 주어지는 친절’로 정의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친절은 결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집니다.

성경은 이 은혜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 A. 에베소서 2장 7절 - 문맥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 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 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은 자들에게도 친절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엡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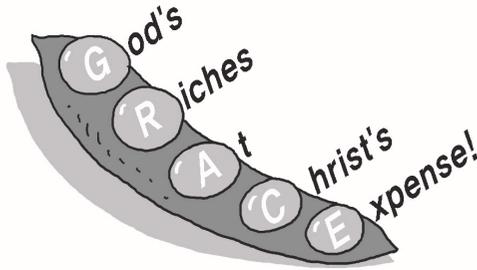
#### B. 디도서 3장 4절 - 문맥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음(딤후2:11; 3:7 참조)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은혜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디도서 3장 3절에 묘사되어 있는 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친절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 왕과 절름발이 므비보셋의 이야기에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삼하9장). 다윗 왕은 므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삼하9:7, 13). 므비보셋은 자기가 그런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8절).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풀

것은 르비보셋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7절).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십니다(엡4:32).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은혜로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하나님의 부요함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갈보리 십자가만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터져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죄인들에게 부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푸실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 죄를 심판하기 위해 우리를 심판석 앞에 세워 두고 모두를 정죄하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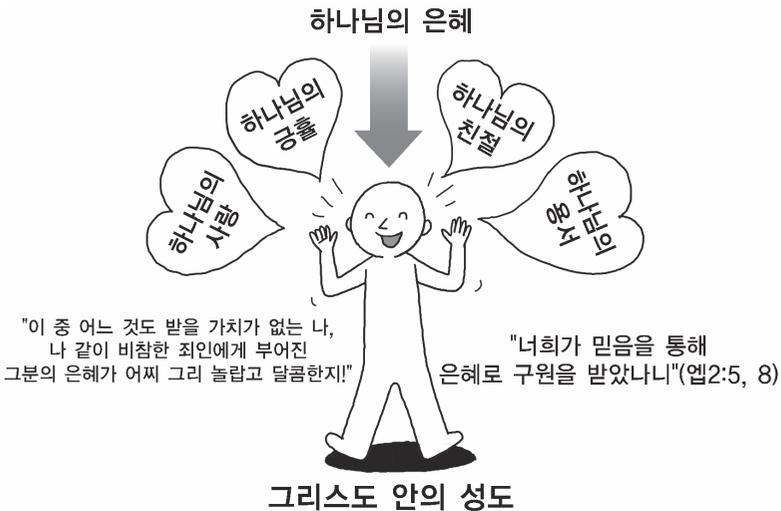
**죄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좋은 소식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값없는 지불로 보시고 완전히 흡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자신을 믿는 이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친절을 부어 주십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내 자리에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고후5:21)**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자신의 호의와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 1.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은혜 경륜이 시작될 당시에는 죄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유대인 민족의 대부분이 자기들의 구원자 메시아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요1:11). 불신과 죄로 눈먼 그들은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사람은 더없이 암울한 죄의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지 유감없이 보여 주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의 은혜의 위대함을 보여 주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 훨씬 큼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으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롬5:20)

이는 율법이 죄를 더 죄 되게 보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죄의 진상을 낱알이 보여 주는 확대경과 같습니다. 율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이 책의 7, 8장 참조). 율법은 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죄로 가득한지 보여 주는 거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넘쳐도 은혜는 그 이상으로 넘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계기로 자신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보여 주십니다.

값비싼 다이아몬드나 보석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보석의 아름다움과 빛깔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배경의 선정도 중요함입니다. 보석의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배경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가 내는 찬란한 빛깔을 드러내시려고 검은 배경을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혜가 사람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큰 죄인이지만 우리에게는 더 크신 구원자가 계십니다! 죄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자신의 은혜’를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롬5:20).

이스라엘이 자기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죄가 그 끔찍하고 추한 본색을 드러낼 때,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자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상을 멸하셨습니까? 모두를 심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매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계 방방곡곡 누구에게나 그 손길을 내밀기 시작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구원자에게 나아가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상형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계22:17).

세상이 죄로 인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은 은혜의 홍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딤후2:11).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요한복음 1장 16-1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총만하심에서 받았으므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

구약 시대에도 은혜를 주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 은혜를 대체하는 더 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는 또한 은혜 위의 은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해변에서 '파도 위에 파도'가 부서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의 물결과 같습니다. 파도 위에 파도가 끊임없이 부서지듯 하나님의 은혜도 한량없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준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롬5:17)! 이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모두 주어진 것입니다.

#### A.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상태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유죄이며(롬3:19), 불순종의 자녀요(엡2:2), 진노의 자녀이며(엡2:3), 죄 가운데 있고(엡2:1), 잃어버린 자들이고(눅 19:20), 선하지 않고(롬3:12), 불의하며(롬3:10)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죄인입니다(롬 3:23).

이런 상태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딤펴전1:15).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고자 하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롬6:23, 롬5:15-18 비교)! 이 선물을 사람이 벌어서 얻거나 사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저 주어지는 은혜입니다(롬5:15).

## 2. 사람의 책임

#### A.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책임

한 억만장자의 손에 지금 백만 불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당신에게 주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거절하고 걸어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백만 불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롬6:23). 이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입니다. 한 찬송가 작사자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놀랍고 무한하며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믿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어졌네.  
그분의 얼굴 보기를 갈망하는 자여!  
이 시간 그 은혜를 받지 않으려는가?(줄리아 존스톤)

하나님은 이 선물을 억지로 주시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제시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요1:12). 요한복음 3장 16, 18, 36절에 따르면 오늘날 사람의 책임 혹은 의무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게 주신 명령은 자신의 아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요일3:23). 당신은 이 명령에 순종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았습니까?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발견하셨습니까?

## B. 구원받은 자들의 책임

살아 계신 하나님은 친히 놀라운 은혜를 보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사람들과 천사들이 자신의 은혜가 어떠한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산에서 볼 수 있을까요? 바다에서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려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는 진열장과 같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진열장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진열장 위에는 각양 물건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이들은 박물관에 있는 진열장처럼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는, 걸어 다니는 진열장입니다. 비단 지극뻔 아니라 다가올 영원 경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 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 주려 하심이라(엡2:7).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는 전시품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은혜를 천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사실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권력들과 권능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이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주는 교실이고 하나님은 교사이며 천사들은 학생이고 과목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이며 학습 목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바로 교회, 즉 믿는 이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같은 죄인들에게 그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에 놀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고전15:10). 실로 바울은 큰 죄인이었습니다(딤후1:13-15). 그러나 바울에게는 위대한 구원자가 있었습니다(딤후1:15). 하나님은 바울에게 오래 참으심과 은혜를 보여 주셨습니다(딤후1:16). 디모데 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은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자신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 주는 트로피이다. 내게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리라!

성도라면 바울의 고백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면 당신에게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면 당신 같은 죄인도 분명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는 자로서 나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네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한다(행13:43).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했을 때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며 은혜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해야 합니다.

(2)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행20:24).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명백히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3)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한다(벧후3:18).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벧전2:3). 음식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을 맛보게 되면 계속 먹게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맛본 것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행20:32). 우리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합니다.

(4) 죄 안에 거하지 말아야 한다(롬6:1-2).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짓고 자기 맘대로 살지 그래요? 그러면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지 않겠어요? 당신이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보여 주실 겁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할 이야기입니까(롬6:1-2)?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어쨌든 하늘에 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을까요(딤후2:11-12)?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수록 그는 은혜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 3. 사람의 실패

#### A.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실패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거저 주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만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마7:13-14).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고 그리스도께서 왕과 주님으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눅19:12-14).

은혜의 경륜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십니다. 현재 하나님은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짓는다고 해서 곧바로 그를 쳐서 죽이지 않으십니다. 다만 심판 때까지 오래 참고 계십니다.

무신론자인 잉거솔(Robert Ingersoll)은 강연을 끝낸 뒤 자기 호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신성 모독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쳐서 죽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에게 5분의 여유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날 내려치고 내 혼을 저주하겠지요” 시계의 초침은 돌아가고 장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들 긴장하였고 기절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5분이 되자 잉거솔은 재빨리 시계 뚜껑을 닫고 호주머니에 집어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가 내 말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잉거솔이 정말 하나님이 없음을 입증했을까요? 실제 이 불신자가 입증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가 입증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은혜의 경륜에 살고 있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잉거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사 양반은 자기가 하나님의 인내를 5분 만에 바닥나게 하리라고 생각했나 보군요.” 이것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판단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다고 은혜의 날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잉거솔을 쳐서 죽게 하실 때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있기 전에도 120년 동안 은혜의 기간이 있었습니다(창6:3).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기다리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120년의 은혜의 기간은 끝이 나고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창7:16).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였느니라(눅17:27).



## B. 구원받은 자들의 실패

신자들이도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지 못했습니다. 가령, ‘중세 암흑기’ 동안 교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원이 어떤 노력과 수고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구원이 값없는 선물이라는 가르침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마땅히 ‘은혜의 복음’을 알려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도처에 영적인 어둠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로마 카톨릭교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종교 단체들이 구원이란 선행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수가 진리에서 돌아서서 거짓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 4.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은혜의 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음을 멸시한 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롬2:3, 5). 그날이 오면 모든 믿지 않는 세상과 한때 진리를 안다고 고백했으나 실제로는 믿지 않고 뒤에 진리에서 돌아서는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딤후4:1; 딤후3:5; 4:3-4 참조).

노아 시대에 120년의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날은 이보다 더 길지만 - 현재까지 약 2,000년이며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모름 - 끝날 때가 올 것이며 하나님은 다시 한 번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의 때, 즉 현대의 은혜의 경륜이 끝나면 가장 극심한 심판의 때인 환난기가 닥칠 것입니다. 이런 큰 환난은 전에 있지 않았습니다(마24:21). 11장에서는 이 환난기를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위험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를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당신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 제11장

# 교 회

10장에서 살펴본 대로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경륜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륜에서 하나님은 무언가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다음 경륜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잠시 서서 현재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이 장차 하실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중요한 말씀에서 우리는 최소한 네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가이시다.
2. 건물은 반석 위에 세워진다.
3. 교회가 바로 그 건물이다.
4.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건물을 맡아 그 누구도 파괴하지 못하게 지키신다! -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는 무언가를 짓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무언가를 짓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분께 특별한 것이며 그분 자신의 소유입니다(마16:18). 이 건물은 독특합니다.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생명 없는 철근이나 시멘트, 벽돌이나 나무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살아 있는 돌들로 지어졌습니다(벧전2:5). 이 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님이요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 1. 그리스도의 몸

이미 살펴본 대로 교회는 건물로 묘사됩니다. 즉 교회는 살아 있는 신자들이 만들어진 건물입니다(벧전2:5). 교회는 건물로 묘사될 뿐 아니라 몸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 1. 에베소서 1장 22-2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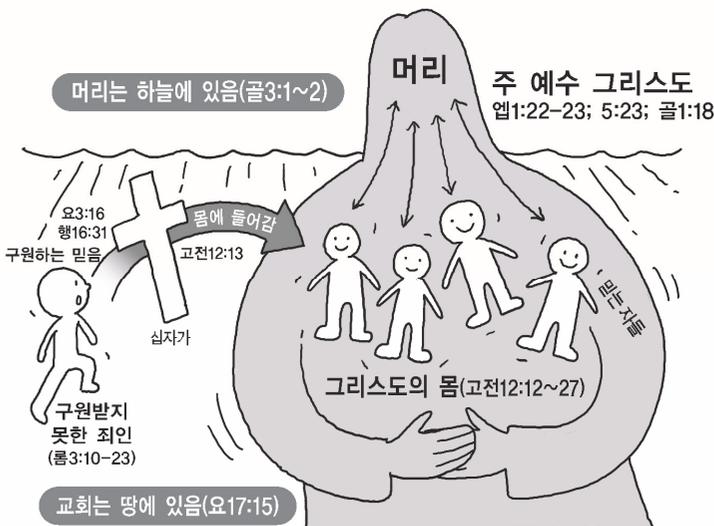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총만이니라.

## 2. 골로새서 1장 18절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 구절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이 몸의 지체들입니다(고전12:27). 그러면 이 몸의 머리는 누구입니까(골1:18)? 교회는 살아 있는 지체들로 구성된 살아 있는 유기체(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참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 건물의 ‘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다음 그림을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둔다(침례의 의미-고전12:13).

이 그림에서 보듯이 머리는 하늘에 있고(골3:1-2) 교회는 땅에 있습니다(요17:15). 교회의 각 지체는 머리와 다른 지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 침례의 의미로 보았습니다(고전12:13).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구원자를 믿었습니까? 오늘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교회라 불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 2. 성령 강림

교회가 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지어졌을 때 교회는 없었습니다. 노아의 날에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등도 모두 믿는 이들이었지만 교회의 지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활동하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도 교회는 없었습니다.<sup>1)</sup>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태동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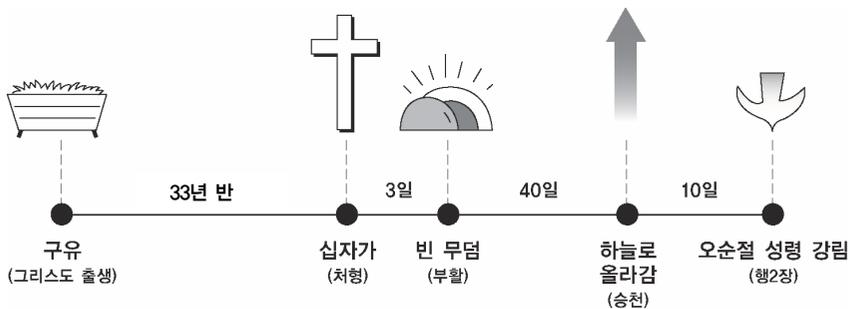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어느 특정한 날 성령님께서 신자의 마음에 거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16장을 한번 훑어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위로자’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요14:16). 이 위로자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위로자’라는 단어는 ‘돕는 자’란 뜻이며 이 성령님은 ‘당신 편에서 당신을 돕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분’을 말합니다.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불립니다(요14:17). 또 요한복음 14-15장에는 그분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 8, 13절을 보기 바랍니다. 이 구절들은 성령님께서 오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며(요14:16), 그들과 함께 거하고(요14:16), 그들 속에 내주하며(요14:17)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요15:26), 그들을 인도할(요16:13)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바로 그날 교회가 눈에 보이게 탄생하고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믿는 성도 안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야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요14:16-17).

성령님은 오순절이라는 특별한 날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특별히 2장의 첫 부분). 다음 그림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의 시간적 경로를 보여 줍니다.



1)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때부터 -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후부터 - 교회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이번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듯이 보편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존재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

바로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오셨고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에게 오셔서 그 안에 사시게 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좌에서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으신 날을 기억나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이것은 다른 말로 성육신이라 불립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 안에 거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요1:14; 딤후3:16).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이처럼 오순절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께서 몸 -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 - 안에 거주하게 되신 날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날은 성령께서 믿는 성도 안에 거주하려 오신 날이고 교회가 태동한 날입니다.<sup>2)</sup>

### 3. 몸(건물)에 더해짐

사도행전 1장 15절에는 120명의 제자들(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드디어 성령님께서 오셨고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교회가 처음 생긴 날, 첫 구성원들의 수는 120명 정도였습니다! 즉 120개의 살아 있는 벽돌로 된 교회라는 건물이 섰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하였고 많은 백성이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 건물에 3,000개의 벽돌이 더해졌습니다(행2:41). 그것으로 교회 건축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믿는 자들을 교회에 더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 벽돌이 건물에 더해졌습니다. 즉 새로운 지체들이 몸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의 숫자가 5,000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건물에 벽돌을 더하셨습니다(행5:14; 11:24).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교회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이 건축 계획은 끝날 것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에 더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

2) 교회가 오순절에 시작되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교회가 사도행전 2장(오순절)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래 시제를 쓰셨다. 어떤 이들은 교회의 치리를 보여 주는 마태복음 18장 15-20절을 인용하며 이때 교회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의 시제도 모두 미래를 보여 주는 will, shall이다(마18:15-20). 그때에는 교회가 아직 없었으며 따라서 이 구절들은 미래의 어느 때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의미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사람이 성령의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올 때에 교회의 지체가 된다고 말한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 침례를 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이 침례가 미래에 있을 것으로 나온다(아직 일어나지 않았음).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이 침례는 미래의 일이다. 이때에 우리 주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며 며칠 뒤에 이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며칠 뒤에 - 정확히 10일 뒤 - 성령님께서 오셨다(행2). 사도행전 11장 15-17절을 보면 이 침례가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일어났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교회) 안으로 옮기신 때도 바로 이날이다. 그래서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 우리는 그때에 교회가 눈에 드러나게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행2:47).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 4. 하나님의 신비

에베소서 3장 5-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한 신비에 대해 썼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상령*을 통해 이제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 신비는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 안에 숨겨져 온 것입니다(엡3:9).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를 바울에게 알려셨을까요? 아니면 비밀로 하셨을까요(엡3:3)?

한 소년이 주머니 안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소년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그것은 그의 주머니에 숨겨진 그 무엇입니다. 소년이 그것을 꺼내 보이기 전에는 아무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한 가지 ‘신비’를 갖고 계셨습니다. 즉 아무에게도 말해 주지 않은 무엇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어 두었습니다. 아담은 이 신비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도 그랬습니다. 침례자 요한도 ‘하나님의 호주머니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 이르러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를 계시하셨습니다(엡3:3). 오늘날 하나님은 한때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있던 것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십니다(엡3:9).

이 신비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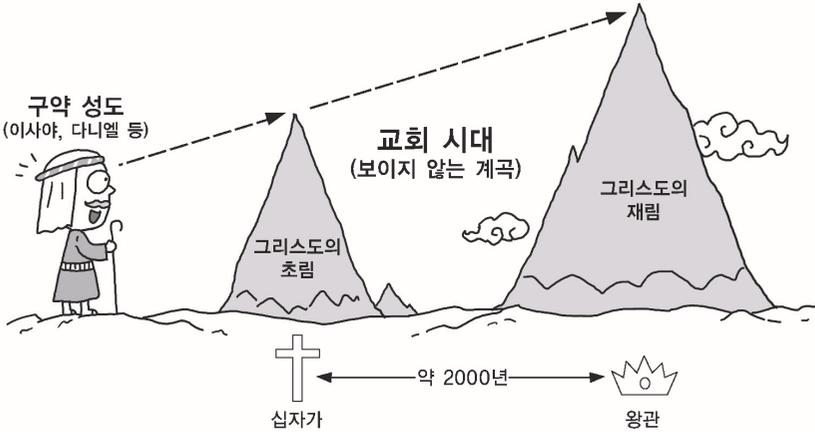
이 놀라운 신비는 바로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이 함께 연합하여 한 몸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엡3:6)!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의 몸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27절도 이 신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은 그 신비가 ‘이방인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골1:27).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살아 계십니다! 즉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립니다(딤후3:15). 하나님께서 거기 사시니 그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 5. 구약 시대(십자가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다

교회에 대한 진실은 이전의 여러 경륜에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골1:26). 구약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몸속에 거하시리라는 내용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어느 날 메시아가 죽으시리라는 것은 알았습니다(시22; 사53; 단9:26). 또 메시아가 왕으로 온 땅을 치리하고 다스릴 것을 알았습니다(사9:6-7; 렘23:5-6; 단7:13-14; 미5:2).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산봉우리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처음 볼 때는 분명 하나의 산봉우리였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계곡을 두고 두 개의 산봉우리가 겹쳐 보인 것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미래를 바라볼 때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기 바랍니다. 그는 두 개의 산봉우리, 즉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볼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있는 계곡, 즉 교회 경륜은 볼 수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계곡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이 역사(과거)였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언(미래)이 될 것입니다. 그 중간 계곡은 교회 시대 혹은 은혜 경륜 혹은 성령 시대라 불립니다.



## 6.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는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셨습니다? 어디서 자신의 임재를 보이셨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게 보이셨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4-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각적 현현인 영광이 성막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라 불리는 이 특별한 장막에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이 성막을 채우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거하셨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나타난 곳은 어디이며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집 곧 성전을 채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이라 불리는 특별한 건물에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거하셨고 그곳을 자신의 거룩한 임재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보는 것임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요2:19-21).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는 성막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습니다. 마지막 유대 성전이 주후 70년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또 현재 그리스도께서도 더 이상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임을 보여 줍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성도들)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교회)을 자신의 영광으로 채우십니다(엡1:22-23).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딤후3:15)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거처입니다(엡2:22). 현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자신을 알리고자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교회) 안에 사신다면 각 성도 안에도 살아 계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말이나?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고전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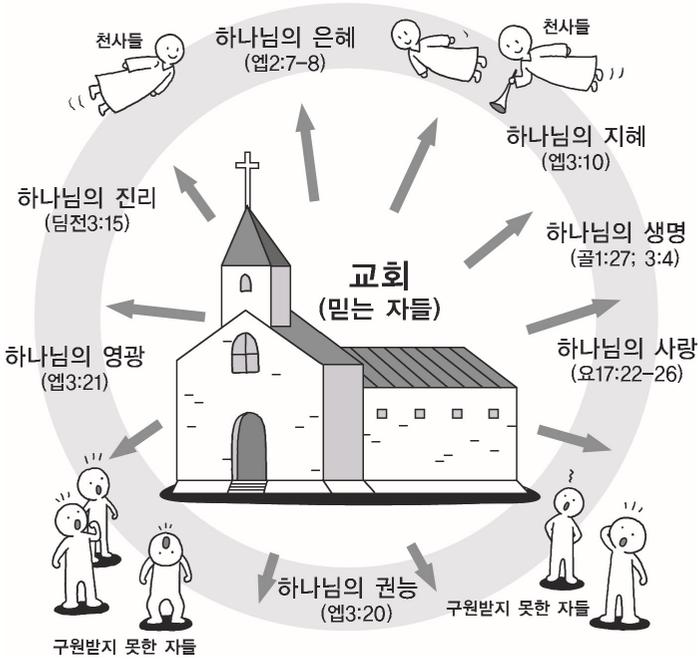
당신은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사신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이 사실이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까? 그분이 당신 안의 거주자, 즉 당신 마음에 거주하고 사시는 분이려면 또한 마땅히 그분이 당신의 주인, 즉 당신의 삶과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 주는 장소입니다. 교회가 있기에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그분의 살아 있는 몸(교회)을 보고 살아 계신 하나님과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령 당신이 문 밑에서 살랑대는 고양이 꼬리를 본다면 문 건너편에는 고양이가 있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그리스도의 몸(믿는 자들)이 바르게 살아 있음을 볼 때 머리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는구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몸이 있으면 머리도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협동 작업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각 지체는 주님 안에서 건강한 상태로 자라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같이 되어야 합니다. 지체들이 건강할수록 몸도 건강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건강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건강한 신자가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신은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관한 한 당신은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방해만 하고 있습니까?



## 7. 건물이 완공되는 날

오순절 사건이 주후 30년경에 일어났으니 교회 탄생한 지 거의 2,000년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줄곧 자신의 교회에 사람들을 더해 오셨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교회가 완성될 것입니다. 마지막 ‘벽돌’이 놓이는 순간 건물은 완공될 것입니다. 언젠가 교회의 마지막 지체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가 완성되는 날, 무언가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흔히 ‘휴가’라고 불리며 이것은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요14:3; 고전15:51-52; 살전4:13-15; 딤펴2:13). 이 놀라운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교회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마 지금쯤 교회의 ‘첨탑’을 올리는 단계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첨탑이 서게 되면 교회는 완성되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을 하늘로 데려갈 것입니다.

당신은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의 지체입니까? 구원받기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은혜의 경륜인 오늘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요일2:28)?

예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위해 오신 다음 세상에는 곧 7년 동안의 환난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환난의 시기에 대해 성경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자는 하늘에 가지만(요

14:1-3; 계3:10) 그렇지 않은 자는 온 땅에 닥칠 환난의 때에 들어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 8. 교회에 대한 부가 설명

교회로 번역된 그리스말 ‘에클레시아’는 신약 성경에서 모두 117회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종교적 모임이나 일반 모임을 뜻하였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2, 39절 등에서는 ‘무리’ 혹은 ‘집회’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대개 종교적 예배자들의 지상 모임을 뜻하였고 그래서 심지어 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모임도 광야의 교회라 불렸습니다(행7:38). 물론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세우신 신약 교회가 아닙니다(마16:18; 고전6:4).

대부분의 신약 성경 용례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세워진 신약 교회를 뜻합니다. 또 신약 교회의 의미로 쓰인 교회의 경우 대부분 한 지역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뜻하였고 로마,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교회 등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교회가 다 지역 교회(Local church)였습니다. 한편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우주적인 교회’(Universal church),<sup>3)</sup> 즉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교회도 몇 군데 발견됩니다(엡1:22-23; 히12:23 등).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엡1:22-23).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했을 때 이것도 전 우주적인 교회, 즉 그분의 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부활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로 구성된 ‘전 우주적인 교회’가 있음이 분명하지만 ‘전 우주적인 교회’를 강조하다 보면 지역 교회의 모임과 제도를 모두 무시하는 폐단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역 교회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 교회에 속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며 주일에도 강이나 바다나 산에 가서 놀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보편적 교회론을 펴면서 심지어 종교 통합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 ‘전 우주적인 교회’라는 개념 자체를 가르치지 않거나 성경에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우주적 교회는 없고 오직 지역 교회만 있다고 주장합니다.<sup>4)</sup>

3) 여기서 ‘전 우주적인’, ‘보편적인’을 뜻하는 ‘Universal’이라는 단어는 과거에 ‘카톨릭’(Catholic)으로 표현되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현재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 말하는 ‘자기들만의 유일한 카톨릭교회’와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즉 ‘카톨릭’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시대가 바뀌면서 변하여 서로 다른 것을 뜻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요한일서 같은 일반 서신을 영어로 ‘Catholic epistles’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결코 이런 서신들이 천주교회의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을 뜻하지 않고 지역과 출신 배경,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서신을 뜻한다.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지금 이것들은 ‘일반 서신’(General epistles)이라고 불린다. 이와 비슷하게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 역시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를 뜻하지 않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한다.

4) 역사를 통해 교회 문화가 정착되면서 현대에는 교회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려면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 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고전12:12-13).

잘 아는 바와 같이 성령 침례는 분명하게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따르면 사도행전 2장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를 비롯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이미 구원받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즉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 침례와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데 반해 처음의 120여 명의 경우에는 구원과 성령 침례가 다른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건전한 세대주의자들은 변천기의 특징을 들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즉 오순절 이전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경우를 오순절 이후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경우처럼 취급할 수 없고 이것을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사도행전에는 이와 같은 변천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변천기를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 침례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들의 대부분은 지역 교회와 전 우주적 교회가 존재함을 인정합니다.

반면에 지역 교회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120여 명의 사람들 자체가 이미 교회였으며 따라서 성령 침례가 교회에 속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고린도전서 12장은 모든 신약 교회에 적용되지 않으며 단지 고린도 교회라는 한 지역 교회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성령 침례를 강조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교회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지역 교회만을 주장하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의 명백한 진리, 즉 성령 침례를 통해 그분의 몸으로 들어온다는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지역 교회를 주장하고 오순절 이전의 교회를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어떤 하나에 집착하여 성경을 균형 있게 보지 않으려 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 교리도 고린도 교회에만 적용해야 하고 다른 교회에는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주장을 펴기 위해 이렇게 보편적인

---

처음에는 이 땅의 지역 교회에 거의 100% 믿는 사람들만 존재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는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의 교회는 여기에서 설명한 ‘성경적 의미의 교회’가 아니다. 성경에 정의된 교회는 지역 교회든 전 우주적 교회든 모두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의 모임이다. 그러므로 원칙대로라면 이 땅의 모든 지역 교회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하는 데는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공존한다.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되었기에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성도들은 초기부터 100% 믿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지역 교회를 형성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천주교회 같은 제도권 교회에 의해 이단이라 불리며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사람의 한계로 인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 교회에는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자들도 버젓이 믿는다고 고백하며 정식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또 많은 경우 지역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에 전 우주적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곧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먼저 오순절 날 베드로의 말을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 즉 베드로를 포함한 120명에게 - 더해졌다고 기록합니다(행2:41). 교회에 더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다고 기록합니다(행2:47). 즉 120여 명과 3,000명이 교회를 형성한 이후에 드디어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처럼 신중하게 기록된 누가의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 우리는 변천기를 인정하면서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침례와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성경에 언급된 교회의 대부분이 지역 교회이지만 여전히 전 우주적인 교회가 있음을 인정하되, 몸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며 이루어야 할 교회는 전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고 지역 교회이므로 여기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지역 교회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합니다.

요약하자면 오순절 이후의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하여 성령 침례를 받아 한 몸, 즉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고전12:13, 27-28; 참조 엡1:22-23; 5:30-32; 골1:18). 물 침례를 받아 교회(그분의 몸)에 들어오지 않고 성령 침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옵니다. 물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행위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 구원받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교회의 출생에는 반드시 성령 침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침례자 요한에 의해 처음 예언되었습니다(마3:11; 막1:8; 눅3:16; 요1:33). 그는 자신은 물 침례를 주지만 주님은 성령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성령 침례가 미래에 있을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 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미래의 일을 말씀하셨고 부활한 뒤 승천하기 바로 전인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여전히 성령 침례가 미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때까지는 변천기에 있던 120명을 - 이들은 예외였습니다 -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분의 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고전12:13). 이때에 주님은 며칠 지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고 실제로 10일 뒤에, 오순절에 그 일이 발생하였지만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침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에서 고넬료가 성령 침례를 받았으며 그와 동일한 일이 오순절에 발생했음을 보여 줍니다(행11:15-16).

교회의 출생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만 가능함을 보여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23절이 그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는데 이것은 그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몸인 교회는 머리가 있기 전에 생길 수 없습니다(요7:39).

지역 교회는 침례를 받은 신자들로 구성되며 믿음의 약속과 복음의 교제로 이루어진 조직으로서 그리스도의 규례를 준수하고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 선물(은사)이나 특권을 발휘합니다(행2:41-42; 20:17-28; 고전11:2). 교회의 참된 사명은 단체 사회 활동이 아니라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롬15:26). 지역 교회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계급 체계를 거부하며 완전히 독립된 자치권을 갖습니다. 교회의 유일무이한 감독자는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 법정에서 서로를 소송해서는 안 됩니다(고전6:1). 성경이 말하는 참 교회는 믿음의 수호와 복음의 진보를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하며 이런

협력의 분량이나 방법은 각 지역 교회의 권한에 맡겨집니다. 그리고 회원 문제, 정책 문제, 행정, 양육, 자선 등도 각 지역 교회가 사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 대해 나그네요, 순례자요, 대사요, 증인이 됩니다(고후5:18-20; 벧전1:17). 그리고 그들의 삶의 첫째 목적은 선교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마28:18-19; 막16:15; 요17:18; 행1:8).

지역 교회의 직분에는 목사<sup>5)</sup>와 집사가 있으며 그들의 자격이나 요건 그리고 의무는 성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딤후3:1-13; 딤후1:5-11). 또한 교회에는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는 두 규례만 있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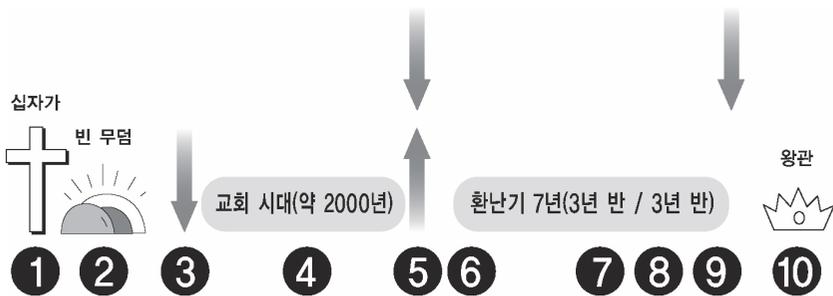
---

5) 성경에서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사람이 맡는 다양한 직분을 가리킨다.

## 제12장

# 환난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신 직후에 환난기라고 알려진 7년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7년은 ‘다니엘의 70번째 이레’(단9:24-27)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한 주는 7일이 아니라 7년입니다. 이 7년의 후반부 3년 반은 종종 대환난기로 불리는데(마24:21) 이는 그때가 세상이 전에 겪어 보지 못했던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기가 끝나자마자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이라는 커다란 사건이 생깁니다(마24:29-30). 도움을 위해 다음 그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위 그림에 나오는 번호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아래에 차례로 나와 있습니다.

1. 그리스도의 죽음(롬5:8; 고전15:3; 벰전3:18)
2. 그리스도의 부활(롬1:4; 고전15:4)
3. 오순절 성령 강림(행2장):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탄생일
4. 현재의 교회 경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건축하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불러내고 계심(행15:14).
5.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교회는 ‘채여 올라가’, 즉 휴거되어 공중에서 서로 만나는 때(살전4:13-18): 이 사건은 교회의 휴거라 불리며 교회 시대의 종지부이다.
6. 환난기 혹은 다니엘의 70번째 이레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모종의 언약(협약)을 맺음으로 7년이 시작된다(단9:27).
7. 7년 중간에 이 언약(협약)이 깨어지고 ‘죄의 사람’(적그리스도)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단9:27; 마24:15-21; 살후

2:3-4).

8. 예수님께서 ‘큰 환난’(마24:21)이라고 말씀하신 나머지 3년 반: 전무후무한 재난의 때로서 사탄의 활동이 가장 극심한 때가 되며(계12:2-12) 사탄의 사람(죄의 사람)이 땅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계13:1-10).
9. 환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큰 영광으로 땅에 오심으로 끝날 것이다(마24:29-30; 계19:11-16).
10.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왕국을 세우실 때, 흔히 천년 왕국 기간으로 불린다(계20장).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환난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 9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요한계시록 4-9장이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환난기가 있을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 일들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가령 요한계시록 8장 7-12절에 등장하는 심판이나 역병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직 세상은 이런 역병을 겪어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며 성전에서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았습니까(계13:1-12)? 온 세상이 한 사람의 형상에게 경배하라고 강요받은 적이 있었습니까(계13:14-15)? 모든 사람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야 하며 그것이 없이는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던 때가 있었습니까(계13:16-17)? 과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앞 단락 첫 부분에 나왔던 성경 말씀들은 모두 문자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은 분명히 아직 땅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미래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세대주의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환난기도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30절에는 이 환난의 시기가 끝나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임하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면 당연히 환난기도 미래의 일입니다.

이 환난의 때가 어떻게 다른 경륜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7년 환난기는 대개 독립된 경륜 혹은 세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 7년은 정확히 은혜 경륜과 왕국 경륜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대개 성도들은 이 7년 환난기를 은혜 경륜의 끝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1. 환난기와 다른 경륜과의 조화

환난기는 인류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7년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환난기가 어떻게 다른 일곱 경륜과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봅시다.

#### A. 무죄 경륜

무죄 경륜 동안 우리는 사람이 최상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결백하고 죄가 없는 존재로서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달콤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반대로 환난기 동안 우리는 사람이 최악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로 가득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환난기는 불법과 무법이 난무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살후2:7).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절한 세상을 향해 진노를 부으시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심판의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계9:20-21; 16:9, 11).

아담이 무죄한 상태에서 타락한 이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람은 죄에 더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7년에 이르게 될 즈음에는 인간의 사악함이 극에 달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땅에서 날땀 것이고(계12:12)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지만(렘17:9) 특히 환난기 동안 하나님은 이 사악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기 동안 우리는 아담의 자손들이 최악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 B. 양심

성경은 양심 경륜에 살았던 사람들과 환난기 후반부에 살게 될 사람들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날들이 어떠했던 것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마24:37).

이 말씀은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양심 경륜 시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살게 될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양심 경륜에서 홍수로 멸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살게 될 사람들에게 심각한 경고가 됩니다.

노아의 날	환난기
사람의 사악함이 크게 됨(창6:5).	사람의 사악함이 매우 크게 됨
사람들은 일상사를 계속함(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등등).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음(마24:38).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경건하게 살 것임.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할 것임.
사람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마 24:39)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홍수).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고(그리스도의 재림) 사람들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마24:40-41; 눅17:30-37).

### C. 인간 정부

환난기 동안 세상은 인간 정부의 최악의 상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사람이 지배하는 단일 세계 정부입니다. 바벨탑 사건(창11)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자 했던 것을 배웠습니다(창11:6). 주님은 죄인들이 모여 연합하게 되면 넘쳐나는 악을 막을 도리가 없음을 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땅의 여러 곳으로 흩으셨습니다. 이리하여 여러 민족이 탄생되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있어도 별 탈이 없었던 것은 민족 간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특정

지배 민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이 함께 연합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데 이는 모든 권력이 한 명의 사악한 자의 손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이처럼 바벨탑의 건축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 일을 허락할 때가 올 것입니다. 죄인들이 바벨에서 이루고자 했던 일이 드디어 환난기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비록 바벨에서는 실패했지만 환난기에는 마귀의 사람(죄의 사람)의 손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강력한 세계 통치자가 요한계시록 13장 1-10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는 '짐승'이라 불립니다. 마귀가 이 사람에게 권력을 부여할 것입니다(계13:2; 12:9). 그러면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라며 경배할 것입니다(계13:3-4). 누가 능히 이 사람과 싸울 수 있습니까(계13:4)?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을 것입니다(계 13:8, 15). 이 자는 강력한 권력으로 세계 경제를 주무를 것입니다(계13:16-18)!

하나님은 자신이 땅을 다스리시기(천년 왕국 경륜) 전에 이 사람이 땅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단일 세계 정부가 이 사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단일 세계 정부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 주는 사건이나 표적들이 많습니다.

#### D. 약속

6장에서 공부하였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결국 이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기 동안에 우리는 유대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셔서 환난이 끝날 즈음에는 이들이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은 환난기를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야곱에게서 나온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어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귀와 마귀의 통치자는 이스라엘을 파괴하려 들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슬프도대! 그 날이 커서 어떤 날도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니라.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렘30:7).

계시록 12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자'로, 마귀는 무시무시한 '용'으로 등장합니다. 환난기 동안 용은 여자를 핍박하려 합니다(계12:13). 그러나 용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여자를 보호합니다(계12:14-17).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요1:11). 그러나 환난기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세상에 임하실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초림 때처럼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고 그분께 돌아가 구원을 받습니다(슌12:9-11; 롬11:26-27). 환난기의 어려운 날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특별히 일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 E. 율법

환난기 동안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어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8절에 따르면 환난기 동안 세상은 불법과 무법의 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통치자는 '저 사악한 자' 혹은 '저 무법한 자'로 불립니다. 미래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철저히 짓밟을 것입니다.

율법의 첫째 및 둘째 명령은(출20:3-5) 하나님 자리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우상, 형상, 성상이나 거짓 신에게 절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함으로써 이 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출32).

환난기에 사람들은 그때까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우상 숭배 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불과한 자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살후 2:4).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사람의 형상이나 동상이 굉장하게 세워질 것입니다(계13:14-15). 이 형상에 절하기를 거부한 자는 모두 죽게 됩니다(계13:15). 땅에 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경배하게 됩니다(계13:8).

## F. 은혜

환난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세상에게 부여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위대한 은혜의 때, 즉 현재의 교회 경륜 뒤에 곧바로 큰 심판의 때(7년 환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에는 그때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과 역병이 세 형태로 나옵니다.

1. 일곱 봉인 심판(계6; 8:1)
2. 일곱 나팔 심판(계8; 계9; 11:15)
3. 일곱 금병 심판(계16)

이 끔찍한 심판들은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보내신 역병을 떠올리게 합니다(출6-12장). 단 차이가 있다면 모세 때는 역병이 이집트 땅에만 임했지만 환난기에는 그것이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시험할 것입니다(계3:10). 역병이 임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깨어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며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계9:20-21).

비록 환난기가 심판의 때지만 그때도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때에도 한 줄기 빛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손을 내미시고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환난기에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는 적어도 144,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계7:4). 9절에는 또 다른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몇 명입니까?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기간에서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14절). 환난기에 어떤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그때에는 다시 왕국의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마24:14).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 천사까지 동원될 것입니다(계14:6-7).

## G. 왕국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 마지막 경륜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환난이 끝나면 왕께서 땅 위에 직접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마24:29-30).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가 끝나면 가장

복된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천둥을 동반한 폭풍우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폭풍우가 다가오면 사방은 어두워지고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폭풍이 금방 지나가서 해가 나고 고요함과 평온이 천지를 감싸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늘에는 무지개도 보입니다. 환난기라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 지구의 모습도 이리할 것입니다. 의의 태양이 나올 것입니다(말4:2).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와 복의 때가 시작될 것입니다. 전에 없었던 놀라운 때가 될 것입니다. 최악과 최선이 교체되는 순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입니다(마6:10).

## 2. 특별한 고통의 때

환난기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가 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이미 여러 번 어려운 시기를 거쳐 왔습니다. 거기에는 무서운 전쟁(세계 대전을 포함하여), 극심한 질병, 박해, 독재자의 폭정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해도 앞으로 다가올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악의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이제껏 겪었던 것이 보통 회오리바람이었다면 이번엔 초강력 회오리바람입니다!

여기 환난기가 유례없이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되리라는 것을 보여 주는 세 구절이 있습니다.

1.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어떤 날도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날은 곧 야곱[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니라.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렘30:7).
2.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들[유대인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단12:1).
3.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마24:21).

## 3. 환난기는 잠시 동안이다

이 엄청난 환난기에 대한 내용 중 그나마 가장 좋은 소식은 이 시기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환난은 3년 반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환난기 동안 땅에 살게 될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늘리지 않고 단축하실 것입니다(마24:22).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곧 끝나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4년제 대학에 들어갈 때에 큰 환난이 시작된다면 졸업하기 전에 그것이 끝날 것입니다.

### A. 환난의 기간

다니엘서 9장 25-27절은 70이레에 대해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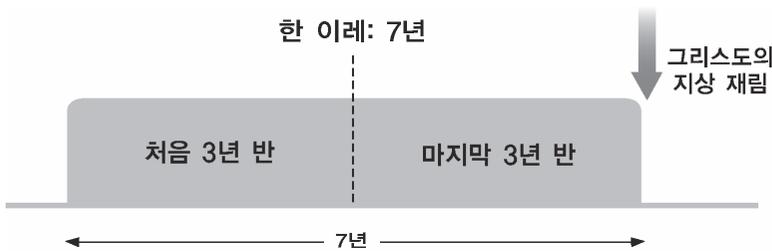
25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있을 것이며 참으로 고난의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26 육십이 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sup>27</sup>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여기서 27절은 ‘한 이레’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한 주간을 의미합니다. 이 한 주는 매우 특별한 주간입니다. 보통 일주일은 7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말한 한 이레, 즉 한 주는 7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루를 일 년으로 계산한 일주일을 말했습니다. 결국 7년이란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있을 7년에 대해 말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그 이레의 한중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주간의 길이가 7년이라고 할 때 그것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면 3년 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씀하신 큰 환난의 기간은 후반기 3년 반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실제로 큰 고통을 겪는 기간이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3년 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3년 반의 기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 1,260일(계11:3; 12:6)
2. 마흔두 달(계11:2; 13:5)
3. 한 때, 두 때, 반 때(계12:14) -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며 반 때는 반년이므로 모두 3년 반이다.
4. 짧은 때(계12:12)

## B. 환난기의 주요 인물

환난기를 주도하는 주연급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죄의 사람(짐승 혹은 적그리스도라 불림, 계13:1-10; 살후2장)
- 거짓 대언자(둘째 짐승으로 불림, 계13:11-18)
- 용(혹은 마귀, 계12장)
- 심판자 하나님(계6, 8, 9, 16장)
- 이스라엘 민족(혹은 여자, 계12장)
- 세상의 여러 나라들(슌12:9; 14:2)
- 오실 왕(계4-5장; 19:11-16)

환난기 동안 등장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세상에 임할 환난과 고통의 때로부터 교회를 때어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뒤 요한계시록 4-19장까지는 환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교회가 이미 휴거되어 없으므로 교회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계4-19장). 물론 ‘교회’라는 단어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7년 환난기 전에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C. 두 가지 실례

1. 에녹의 예(창5:21-24; 히11:5) - 에녹은 심판(홍수 심판)이 오기 전에 땅에서 옮겨졌다. 에녹은 오늘날을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 즉 교회의 지체들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심판의 때(환난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를 옮기실 것이다.
2. 노아의 예(마24:37-41) - 노아는 심판(홍수)을 통과하고 살아남았다. 이런 면에서 노아는 환난기 동안 구원받고 살아남아 본래의 몸으로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예표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 말씀하셨다.

### 4. 이때에도 소망이 있는가?

휴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휴거 이후에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한 번 구원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이후에 다시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에 대한 근거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12절을 듭니다. 그들은 휴거 이전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 보지 못한 사람만 환난기 동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12절은 실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즉 그것은 휴거 이전에 진리를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난기에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고의로 죄의 사람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살후2:3-9).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말, 즉 죄의 사람에게 경배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믿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죄의 사람에게 경배합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짐승의 표를 받고(계14:9)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계14:10-11). 환난기 동안 의도적으로 죄의 사람에게 자신을 내맡긴 자들은 모두 심판과 정죄를 받습니다(살후2:12). 결국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12절의 등장인물들은 흑과 백이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는

때에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든지(계14:6-7), 죄의 사람에게 경배하든지(계14:9-11)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신중히 기억해야 합니다.

1. 인류 역사의 어느 때를 살든지 진리를 거절하면 매우 위험하다.
2. 구원의 때는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다. 오늘 구원받지 않으려 하는데 내일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3. 오늘날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어렵지 않은 때, 즉 핍박이 거의 없는 때에도 안 믿으려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어려운 때, 즉 믿는 자들이 극심한 핍박을 겪는 환난의 시기에 믿으려 하겠는가?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믿음을 지키려다 순교할 것이다. 오늘 복음을 거절하면 내일도 그럴 것이다. 휴거 이전에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 장차 환난기 때 죄의 사람에게 경배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의 불신자는 대개 내일의 불신자로 남기 때문이다.
4. 우리는 한때 진리를 강력히 거절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다소의 사울을 생각해 보라!
5.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한다! 앞에서 배운 환난기가 바로 내일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휴거는 우리가 사는 현시대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곧장 환난기가 시작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오늘 믿는 이들에게 오신다면(요14:3; 살전4:13-18) 당신도 하늘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구원받았습니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미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성경 교사에게 찾아가기 바랍니다. 그들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왕국 경륜

이제 우리는 일곱 경륜 중 마지막 경륜을 공부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마6:10).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이 올 것입니다(계11:15). 그때는 사람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입니다(마6:10). 오늘날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고 장차 땅에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여러 세기 동안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어 왔습니다. 전쟁도 범죄도 굶주림도 질병도 없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은 10년 내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앞 장에서 우리는 유례없는 고통의 때, 즉 환난기(마24:21)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최악의 순간이 지난 뒤에 최고의 순간이 오리라는 것을 아십니까? 고통의 환난기가 끝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마24:29-30). 이것은 ‘더 나은 세상’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전에 없던 복과 번영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 1.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천년 왕국은 어떨까요? 오늘날에 비해 그 상태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미래 왕국에 있을 생명은 어떨까요? 이 ‘더 나은 세상’을 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왕국 기간에 있을 일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A.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신다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속14:9).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이 왕을 섬깁니다(단7:14).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사2:3). 왕국 시대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정부는 ‘신정 정치’ 형태,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오르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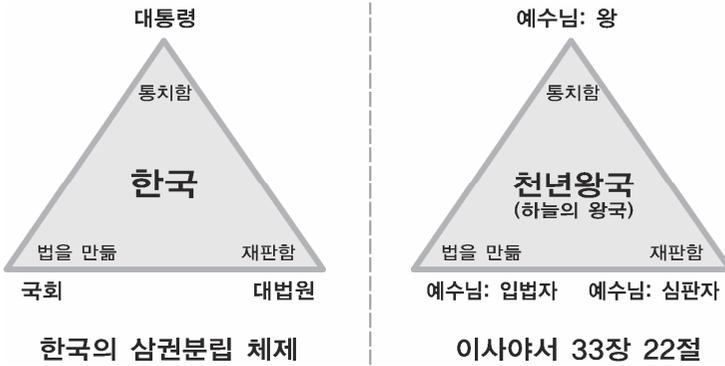
#### B.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통치자가 되신다

역사를 통해 악명 높은 통치자들(헤롯 대왕, 히틀러 등)이 있었습니다. 다수가 잔인하고

이기적이며 교활한 야심가들이었습니다. 최고의 통치자나 대통령이라 해도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왕국 경륜에서는 완전한 통치자가 다스릴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재판자시요, 주께서 우리의 입법자시요, 주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사33:22).

그분은 완전한 재판관(대법원장)이요 완전한 왕(대통령)으로서 완전한 법(국회)을 제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법원장, 국회의장, 대통령을 겸하게 될 것입니다!



C.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공평과 의로 다스리신다

왕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릴 것입니다(사11:4-5). 왕의 말이나 행동은 항상 공정하고 의롭습니다!

D. 땅에 평화가 있다

그분께서 땅끝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곧 활을 꺾고 창을 동강내며 병거를 불태우시는 도다(시46:9).

지금도 그렇습니까? 왕국 경륜 동안에는 군대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사2:4). 전쟁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될 터인데 이는 평화의 통치자(사9:6)께서 왕좌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E.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된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과 그분의 어떠한 대해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국 시대에는 달라집니다. 그때에는 완전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자신이 땅을 다스리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것입니다(사2:3). 거짓 종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만 가르쳐집니다. 모든 사람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합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선교사가 없습니다(렘31:34). 온 세상이 주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사11:9). 오늘날에도 그렇습니까?

## F. 사탄이 돌아다니며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다

계시록 20장에는 왕국 시대가 1,000년 동안 지속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1,000년이라고 기록된 구절을 적어 보기 바랍니다. 모두 여섯 번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왕국 경륜은 종종 ‘천년 왕국’으로 불립니다. 이 1,000년 동안 마귀는 ‘바닥없는 구덩이’, 즉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계20:1-3). 마귀는 천년 왕국 내내 ‘감옥’에 갇혀있을 것입니다. 왕국 시대 동안에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적용됩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이브 이후로 사탄은 줄곧 이 땅에 문제만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왕국 경륜 동안에는 이 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선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G. 척박한 땅이 비옥하게 된다

이사야서 32장 15절은 광야(사막)가 옥토가 되리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새로운 광경이 이사야서 35장 1-2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막에 꽃이 피고 짙이 내려면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막에 많은 양의 물을 대실 것입니다(사35:6-7).

## H. 질병과 아픔이 사라진다

오늘날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병이나 질환이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4:23-24). 장차 올 왕국에서는 “내가 병들었노라!”라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사33:24). 그날에는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입니다(사29:18; 35:5-6). 오는 왕국의 백성들은 놀라운 건강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 I.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다(약 1,000살까지 살게 됨)

지금 당신은 100살 된 사람을 아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노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런데 왕국에서는 100세 된 사람이 아이라고 불립니다(사65:20)!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게 됩니다(사65:22). 많은 나무들이 몇백 년이나 되는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국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은 매우 깁니다. 물론 왕국 경륜 동안에도 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사형으로 벌하시겠지만(사65:20) 왕을 거역하거나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천년 왕국 내내 살아 있을 것이며 그들의 수명은 969세를 산 므두셀라처럼 길게 될 것입니다(창5:27).

## J.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생긴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1장 6-9절과 65장 25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짐승들도 이렇게 유순합니까? 만일 지금 이리와 양을 함께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독사와 어린아이를 함께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천년 왕국에서는 짐승 세계도 변화를 맞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이 왕국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가 왕국이고 왕국이 교회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순 없습니다. 이제껏 성경이 말하는 왕국 경륜의 특징을 살펴보았지만 그 어느 것도 오늘날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장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을 다스리실 때 성취될 것입니다.

## 2. 왕국 경륜과 다른 경륜들과의 관계

그러면 이 왕국 경륜이 다른 여섯 경륜과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비교해 봅시다.

### A. 무죄 경륜

무죄 경륜과 왕국 경륜은 여러 면에서 흡사합니다. 두 경륜 모두 사람이 놀라운 세계, 이상적인 환경을 누립니다. 타락 이전의 에덴이나 왕국에서 사는 것은 어쨌든 즐거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장차 왕국에 살게 될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세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유리한 점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최악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왕국 경륜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왕국 경륜 백성들도 아담과 이브에게 없었던 유리한 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곧 사탄의 활동이 그 시대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천 년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계20:7). 좀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B. 양심 경륜

양심 경륜에 사람들의 사악함이 커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창6:5). 그러나 왕국 경륜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의가 온 땅에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사11:4-5). 왕의 다스림으로 공개적인 반역이나 사악함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 C. 인간 정부 경륜

왕국 경륜에서는 최선의 정부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앉으셔서 이상적인 왕이요 완전한 통치자로 군림하실 것입니다. 이제껏 어디에도 완전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인간 통치자들은 늘 실패만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해낼 것입니다.

### D. 약속 경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거나 그 약속이 파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은 왕국 경륜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성취됩니다. 약속대로 왕국 경륜에서는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된다(창12:2).
-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창12:2).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우러러보고 존경한다(슥8:23).
-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게 된다(창15:18).
- 이스라엘의 수도가 세계의 수도가 된다(사2:1-3).

이외에 예레미야 31장 31-34절(새 언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실 복이 나와 있습니다.

## E. 율법 경륜

왕국은 법이 없는 경륜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격한 법이 시행될 것입니다. 왕국 경륜이 시작되면서 거기에 들어간 첫 세대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마25:34). 그러나 이 기간에 거기서 태어나는 세대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갖게 될 것입니다(렘31:33).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위한 마음을 갖고서 바른 것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 경륜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습니다. 다수가 길으로는 법을 따르는 척하겠지만 자원하는 마음에서 따르지 않고 법을 어겼을 때 받을 형벌이 두려워서 따릅니다. 왕국 경륜에서도 다수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천 년이 끝난 뒤에야 드러납니다(계20:7-9).

## F. 은혜 경륜

왕국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그리스도)은 그때에도 자신의 죽음의 표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눅12:10; 13:6; 요20:25-27). 이로써 사람들은 인류의 죄를 위해 드러진 은혜의 희생물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념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은 짐승의 희생을 다시 드릴 것입니다(렘40:39-43; 43:18-25 등).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렘31:34).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교회의 지체들을 자신의 은혜의 트로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 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 주려 하심이라(엡2:7).

한마디로 왕국 기간은 땅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 구현되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때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전쟁과 범죄, 질병, 가난의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세상은 의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완전한 정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면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 3. 왕국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간다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왕국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사람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sup>1)</sup>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

1)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메시아 왕국을 주러 왔으나 그들은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온 민족이 그분을 거절하였다. 이에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여러 차례 저주하신 뒤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까지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 뒤 24장에서 제자들이 나아와 세상 끝의 표적들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하자 그분은 24장과 25장에서 천년 왕국 바로 전에 있을 대환난과 민족들의 심판을 이야기해 주셨다. 즉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는 24장의 대환난 이후에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가리는 심판에 대해 말한다. 이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첫 사람 아담의 육신을 입은 채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낳는다.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마25:34).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25:41).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41-42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모든 사악한 자들이 땅에서 쫓겨나 불 용광로 속으로 던져지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남아 왕국의 일부가 될 자들이 누구입니까? 의로운 자들입니까? 불의한 자들입니까(마13:43)? 마태복음 13장 49-50절은 천사들이 의인들과 악인들을 가려내어 악인들은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상고해 보면 왕국이 시작될 때 땅에 남은 자들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악인들(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멸절되고 의인들(구원받은 자들)만 남습니다.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원자요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4. 사람의 책임

천년 왕국 시대에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천 년이란 기간은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나 성년이 되고 엄청난 인구를 이루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아기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지만 왕국 시대에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아기들이 태어나고 자라나 땅을 덮게 될 것입니다.

첫째 세대(부모)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로 인해 둘째 세대(자녀들)가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날 부모가 믿는 사람이면 자녀들도 믿는 자로 태어납니까? 구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요1:13). 물론 부모가 자녀들에게 구원에 대해 가르칠 수는 있지만 믿는 것은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원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성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와 상관없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시 51:5).

이제껏 태어난 모든 아이들 -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 은 모두 아담의 사악함과 죄성을 타고났습니다. 구원을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타고납니다. 왕국 경륜에 태어난 아이들도 이처럼 사악하고 죄악으로 찬 마음을 타고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행16:30-31). 마찬가지로 왕국 경륜에 태어날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왕을 신뢰하고 왕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도록 허락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 중 여럿이 그리스도를 믿겠지만 모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왕께 순종하고 그의 규정에 따르나 속으로는 왕을 반대할 것입니다(막7:6). 이들은 왕

앞에서 무릎 꿇을지도 모르나 마음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가끔 부모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지만 사실 체벌이 무서워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부모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입니까? 아니면 내적인 마음의 자세입니까 (시51:6)?

왕국 시대에도 하나님의 원수들은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치 않으면서도 왕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대함과 권능 때문에 감히 불순종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적대감을 품고 있지만 겉으로는 왕을 존경하고 섬기며 왕의 명을 따르는 척합니다.

## 5. 사람의 실패

왕국 시대에도 공개적으로 그릇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신속히 그들을 벌하지 않습니다(사65:20).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한 자들을 왕은 즉시 벌하지 않습니다(슌14:16-17). 왕국 경륜에서는 불순종의 대가를 즉시 치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천 년이 지난 다음에야 나타납니다. 천 년이 다 차서 만기가 되면 하나님은 사탄을 다시 풀어 줍니다(계20:7). 그러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따릅니다(계20:8). 이 마지막 대반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습니다. 사람이 바닷가의 모래를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천 년이 끝난 뒤 사탄을 따르게 될 사람의 수를 헤아릴 수 있습니까(계20:8)? 감옥에서 풀려난 사탄은 악으로 치우치기 쉬운 인간의 마음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을 이용해 간단히 왕께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도록 하기 위해 민족들을 모읍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천 년이 끝날 때 죄로 가득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맙니다. 반역으로 가득한 그들의 마음이 기회를 얻어 밖으로 표출되고 적나라하게 그 진상을 드러내고 맙니다. 사람의 죄성이 완전히 노출되고 빛에 의해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 6.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곧장 처벌을 받습니다(계20:9). 하나님께서 즉시 이 반역을 간단하게 평정하지만 반역의 대가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속인 마귀는 불 호수로 던져집니다(계20:10). 마귀는 자신의 영원한 처소로 들어갑니다(마 25:41).

이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 심판: 옛 하늘과 땅은 타서 없어진다(벧후3:10-13; 계20:11).
2. 크고 흰 왕좌 심판: 이때 모든 경륜에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 부활하여 자기들이 거절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계20:11-15).
3. 새 하늘과 새 땅: 이로써 경륜들이 모두 끝나며 이때부터 영원한 세계이다(계21-22장).

## 7. 주요 교훈

### A. 사람은 자기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

사람은 항상 자기 문제를 남 탓 혹은 환경 탓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이브는 뱀 탓을 했고(창3:13) 아담은 이브 탓을 했습니다(창3:11-12). 과오를 남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왕국 경륜에는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스스로 책임지며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못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문제의 근원을 사회에다 돌립니다. “필요한 건 이게 전부야. 가난을 없애고 나은 주거 환경을 구축하며 질병과 범죄를 추방하는 거야. 이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완전한 환경만 조성할 수 있다면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야. 사람은 본래 선한데 사회 환경이 사람을 그 모양으로 만들고 말았지.”

왕국 경륜에서 사람이 사회를 탓할 수 있습니까? 정부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때의 정부가 완전한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때에는 최고의 교육 환경이 제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데 이는 온 땅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사11:9). 사탄을 걸고넘어질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사탄의 활동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왕국 경륜에서는 비난의 화살이 오직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자신의 책임입니다!

### B.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다

왕국 경륜에서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진리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오?

사람의 문제는 마음입니다!

왕국 경륜을 공부하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최선의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 의복, 주거 환경, 게다가 질병도 없고 최고의 교육과 이상적인 사회 이 모든 것을 합해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왕국 경륜도 여느 경륜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언제나 사람이 해결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을 맡기게 되면 외적인 문제나 환경도 하나님 안에서 얻는 즐거움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되면 제아무리 삶의 환경이 좋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면 최악의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C.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이시다!

왕국 경륜에 접어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심이 더욱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사회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정부도 구원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완벽한 환경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의 필요를 채우는 궁극적인 해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마지막

반역(계20:7-9)에 참여한 사람들도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의 구원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이고 이에 대한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다!**

**원인은 죄에 있고 해결책은 그리스도께 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마음에 구원의 일을 일으키신 적이 있습니까?

## 8. 왕국에 대한 부가 설명

오늘날에는 성경의 예언들이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 파괴될 때 모두 성취되었다고 잘못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언을 모두 과거의 일로 여기고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들을 다룰 때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신학적으로 이들은 과거주의자들(Preterists)이라 불립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王權)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16:28).

위의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왕국에 임하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과거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주후 70년에 모두 성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은 주후 70년에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이 열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1.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직접 땅에까지 내려오시므로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마24:25-30; 계1:7).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도 그때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2.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땅의 모든 나라에서 자기들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옵니다(사43:5-7; 렘16:14-15; 23:7-8; 31:7-10; 겔11:14-18; 36:24; 마24:31).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잡혀서 죽임을 당하거나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3.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땅에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시46:9; 사2:4; 미4:3; 스9:10).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 군인들에 의해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4.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왕국이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행1:6). 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 다스릴 것입니다(사9:7; 렘17:25; 23:5-6; 33:15; 호3:4-5; 암9:11-15; 눅1:32-33).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어떤 왕도 왕좌에 앉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5.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크게 구출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렘30:7-9; 겔34:25-31).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40년 전에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큰 심판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6.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성소, 즉 그분의 성전이 그분의 백성들의 한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겔37:26-28; 40:5-43:27).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성전은 파괴되어 그들은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7.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일어나고 짐승의 희생을 다시 바치게 됩니다(겔44:1-46:24).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 사람들은 성전을 파괴하고 짐승의 희생을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8.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열두 지파의 수대로 열두 개로 나누어 소유합니다. 물론 이렇게 열두 지파별로 나누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나눈 것과는 다릅니다 (Arnold G. Fruchtenbaum, *Footprints of the Messiah*, p. 328). 왕국에서 열두 지파가 차지할 몫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 48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 지파는 성전의 북쪽을 차지하고(겔48:1-7) 나머지 다섯 지파는 남쪽을 차지합니다(겔48:23-29).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 살아 있던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거나 온 세상으로 분산시켰습니다. 그 뒤 1,900여 년이 지나서 일단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유대인 국가를 세웠습니다.
9.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평화의 메시지가 있습니다(사52:7-10). 이 메시지는 평화의 소식과 메시아가 시온에서 통치한다는 소식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소식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는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 나쁜 소식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심판과 파괴와 멸망과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10.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사35장). 이때에는 사막이 옥토가 되고(1-2, 6-7절)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하러 오며(3-4절) 다리를 절거나 못 보거나 못 듣는 자들이 치유를 받고(5-6절) 들짐승이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9절)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 사람들의 침략에서 겨우 벗어난 유대인들마저도 기쁨과 즐거움 대신 슬픔과 한숨을 갖게 되었습니다(사 35:10 비교).

마태복음 16장 28절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는 17장을 보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며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것'은 왕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형을 목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 16-1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주님의 변형을 가리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변형은 실제 우리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권능 있게 왕국을 세우러 오시는 일을 예표로 미리 보여 주신 것입니다.

##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살다 보면 구분해야 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즉 어떤 것들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뱀은 다 그제 그거라고들 하지만 물려도 무해한 누룩뱀과 치명적인 방울뱀은 구별해야 합니다. 다 같은 버섯이라 하더라도 버섯을 따는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독버섯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미국)는 여러 전쟁을 겪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은 각각의 전쟁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전쟁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되어 버리면 그의 역사 점수는 안 봐도 뻔합니다. 전쟁들은 각각 다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장소도 다릅니다. 본토에서 일어난 전쟁이 있는가 하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것도 있습니다. 적들도 다 다릅니다. 미국은 한 번은 영국과, 한 번은 독일과, 한 번은 일본과 싸웠습니다. 각 전쟁의 내용을 잘 알게 되면 전쟁 간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혼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며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인식한 데 있습니다. 즉 차이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혼동하는 주제를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란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고전14:33). 이 주제에 대해 성경은 혼동이 아니라 명백한 빛을 던져 줍니다. 성경은 마치 우리나라가 싸웠던 각 전쟁의 차이점을 잘 설명해 놓은 역사책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초림과 재림 주제를 조심스럽게 살펴봅시다.

###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갈보리로 가시기 전날 밤 주님은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4:3). 주님은 한 번 오셨으나 또다시, 즉 두 번째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 그리스도께서 두 번 오신다고 가르칩니다. 초림은 지나간 역사이고(이미 이루어졌음) 재림은 미래입니다(아직 일어나지 않았음). 오늘날 우리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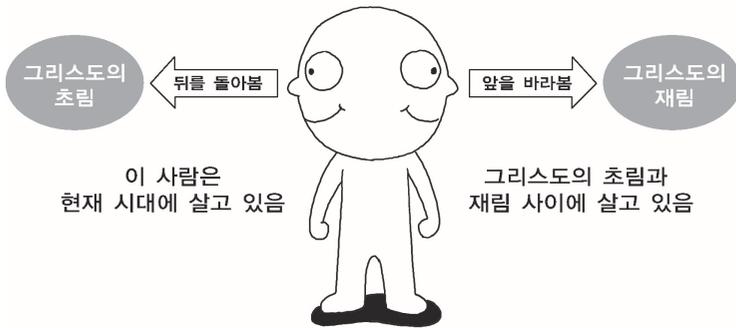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있던 지 40일이 지난 뒤에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행1:9). 예수님께서 땅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은 예수님의 초림이 끝났음을 보여 주는 표시입니다. 그다음 나타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알려 준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행1:10-12)?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처음 오셨고 또 두 번째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11절로 본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그분은 위로 가셨다.	그분은 아래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땅을 떠나 하늘로 가셨다.	그분은 하늘을 떠나 땅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구름 가운데서 올라가셨다.	그분은 구름 가운데서 오실 것이다.
그분은 부활한 실제 몸을 입고 가셨다.	그분은 부활한 실제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사람들이 그분이 떠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그분이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하늘로 가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늘에서 다시 오실 분은 동일한 예수님이시다. 땅을 떠나 하늘로 가신 동일한 분이 다시 땅으로 오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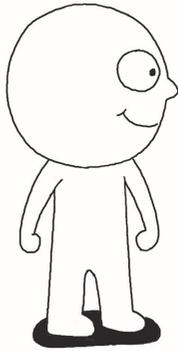
A.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은 뒤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라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이사야 당시의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때는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입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되돌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앞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을 보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그리스도)가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메시아를 영광의 왕이요 온 세상을 다스릴 자로 묘사한 구약 말씀도 있고 그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혼동하게 되고 이 말씀들이 마치 두 인물을 묘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재림

모세, 다윗 같은 구약 성도들은  
앞을 바라보았으며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모두  
미래의 일이었다.

다음은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프루텐바움(Arnold Fruchtenbaum)이 쓴 글입니다(*Jesus Was A Jew*, 23-24쪽).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해하기 힘든 패러독스에 사로잡힙니다. 즉 거기에는 알기 어려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대언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 두 종류의 예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한편으로 수치를 당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결국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를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 대언자들은 이 죽음이 유대인들의 죄들로 인한 대신 속죄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모두 쳐부수고 승리하는 왕으로 임하여 평화와 번영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모습의 메시아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언의 두 줄기입니다. 탈무드를 만드는 동안 우리 유대인 랍비들은 메시아 예언에 대해 많이 연구했고 “대언자들이 두 명의 메시아에 대해 선포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 메시아는 요셉의 아들 메시아(Mashiach ben Yoseph)라 불렀고 첫째 메시아 이후에 왕으로 오는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 메시아(Mashiach ben David)라 불렀습니다. 이 둘째 메시아는 첫째 메시아에게 생명을 주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웁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구약 성경이 이처럼 메시아 예언의 두 줄기를 보인다는 것만을 인지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두 명의 메시아가 있다고 분명히 보여 주지 않습니다. 사실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동일한 부분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런 예언들이 모두 한 메시아를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랍비들은 두 명의 메시아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두 메시아가 있지 않고 동일한 메시아가 두 번 오십니다.

- (1) 초림 -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 분으로 나옵니다.
- (2) 재림 - 메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릴 영광의 왕으로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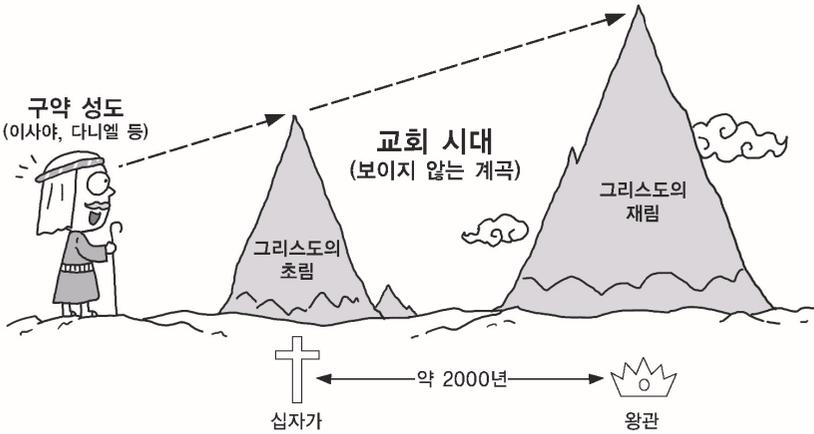
메시아의 오심을 다루고 있는 다음의 구약 성경 구절들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메시아를 말하는 구절이면 ‘고난’, 영광의 왕을 묘사하는 구절이면 ‘영광’이라고 구절 뒤에 표시하기 바랍니다.

1.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다.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니라(단7:14). ( )
2. 그의 정권의 확장 and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사9:7). ( )
3.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둘러막으며 내 손과 발을 찢었나이다(시 22:16). ( )
4. 네 눈은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왕을 보겠고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볼 것이며... 오히려 거기에서는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해 넓은 강들과 시내들이 있는 장소가 되실 것이요, 그 안에서는 노 젓는 큰 배가 다니지 못하며 화려한 큰 배가 그 옆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사33:17-22). ( )
5.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심히 놀랐느니라(사52:14). ( )
6.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사53:3). ( )
7.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번영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할 것이며(렘23:5) ( )
8. 육십이 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단9:26). ( )
9.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나*를 몹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노략물을 나누리니 이는 그가 죽기까지 자기 혼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사53:12). ( )
10.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가지고 오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시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사40:10). ( )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가 두 번 오는 것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구약 성도의 경우 메시아의 강림은 멀리 보이는 하나의 산봉우리와 같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 2,000년의 골짜기를 두고 두 개의 산봉우리가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들을 읽어

보고 그것이 초림에 해당되는 말씀이면 끝이다 ‘초림’이라 쓰고 재림에 해당되는 말씀이면 ‘재림’이라고 쓰기 바랍니다.



1. 그러나 너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미5:2). ( )
2.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연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사 9:6-7). ( )
3.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 된 자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놓임을 포고하게 하려 하심이요, 주의 받아 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며(사61:1-2; 눅4:18-19와 비교) ( )
4. 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의 딸아, 큰 소리로 외치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오느니라. 그는 의롭고 구원을 소유하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느니라... 그가 이교도들에게 평화를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슌9:9-10; 마21:1-7과 비교). ( )
5.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막에 큰길은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돋아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사40:3-5; 막1:3과 비교).  
( )

6.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使者)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主)가 갑자기 자신의 상천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오리라. 그러나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그가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현물이 옛날과 이전 시대에 주에게 기쁨이었던 것같이 그렇게 기쁨이 되리라. 내가 심판하려고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니 곧 내가 마법사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과 품삯으로 품꾼을 억누르고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를 압제하며 타국인을 외면하여 그의 권리를 빼앗고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적할 신속한 증인이 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말3:1-2; 4:5; 막1:2; 마17:3, 10-13과 비교). ( )
7. 보라, 내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아굽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눅 1:31-33). ( )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까?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약 시대 성도도 어려운데 구약 시대 성도가 이 말씀들을 읽었다면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그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두 번 오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둘을 구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다음 구절들을 찾아보고 초림이면 숫자 1을 쓰고 재림이면 숫자 2를 쓰기 바랍니다.

	구 절	답		구 절	답
1	딤후1:15		11	약5:8	
2	요3:17		12	벧후3:4	
3	요14:3		13	요12:47	
4	마16:27		14	요18:37	
5	눅19:10		15	계22:20	
6	마24:30		16	요1:14	
7	요일4:2; 5:20		17	딤후2:13	
8	행1:11		18	갈4:4	
9	계19:11-16		19	계1:7	
10	요10:10		20	요6:38, 41, 42,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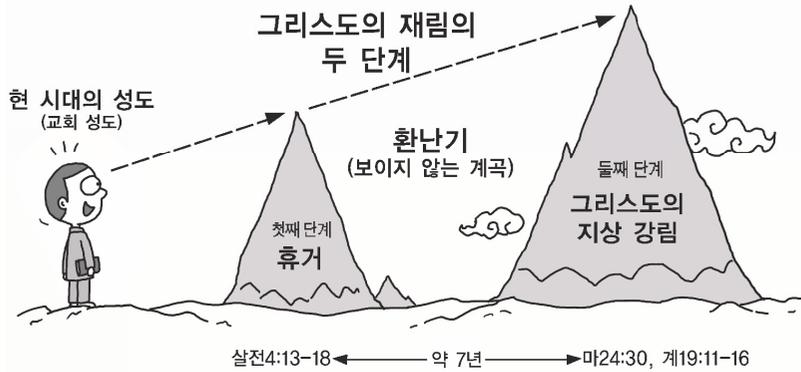
이 성경 말씀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초림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음 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비교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초림은 역사적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미래적 예언이다.
이미 일어났다.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과거에 발생했다.	미래에 발생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요일4:2).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요14:3).
십자가	왕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재판관이요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기 위해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기 위해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마1:21).	그리스도께서 왕들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계19:16).
당신은 어떤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맞이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그분을 심판자로 맞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자로 오셨다(요3:17).	사람의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다(유14-15).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절했다(요1:11).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맞을 것이다(슌12:10; 마23:39; 롬11:25-27).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눅2:7).	정복자로 오실 것이다(계19:11-16).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온유하신 모습으로 오셨다(마21:1-5).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고 권능 있게 오실 것이다(계19:11).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오셨다(롬5:1; 엡2:13-19).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오실 것이다(사9:6-7; 슌9:10).
초림 당시 정권은 사람의 손에 있었다(헤롯 대왕, 로마 제국 등).	재림 때에 정권이 그리스도의 손과 어깨에 놓일 것이다(사9:6-7).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다(마27:20-25).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죽이실 것이다(살후1:7-10).

### 예수님의 재림은 환난 전후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또 구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두 단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소위 휴거라 불리는 공중 강림이고 둘째는 7년 환난 뒤에 있을 지상 강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페이지의 그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림과도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 표는 재림의 두 양상을 비교한 것입니다.

	휴 거	지상 강림
시기	환난 전(계3:10)	환난 후(마24:29-30)
속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들이 깨닫기 전에 일어난다(고전15:52).	세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일어난다(마24:27; 계1:7).
표적	표적은 없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예: 추수 감사절같이 명절이 가까웠음을 보여 주는 표적이 거의 없는 일반 휴일과 비슷함.	많은 표적들(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8절에서 이 표적들에 대해 언급하셨다. 예: 크리스마스같이 표적이 많은 휴일과 비슷함.
그리스도를 보는지 여부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요일3:2).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계1:7). 이 광경을 놓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마24:24-27).
장소	공중(살전4:17) 그리스도께서 땅에 내려오지 않는다.	지상(슌14:4; 행1:11)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에 내려오신다.
신자와 불신자	믿는 이들은 하늘로 갈 것이고(에녹처럼), 불신자들은 땅에 남아 있을 것이다(살전4:13-18).	믿는 이들은 땅에 남아 있을 것이고(노아처럼), 불신자들은 심판에 넘겨질 것이다(눅17:34-37).
목적	신부인 교회를 영접하는 것(요14:3)	자신의 왕국을 받는 것(눅19:12)

휴거와 지상 재림은 추수 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들어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중순부터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크리스마스(12월 말)가 머지않았음을 알리며 또 동시에 추수 감사절(11월 말)이 더 가까이 왔음을 알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지상 재림의 표적들을 볼 때 휴거가 더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휴거가 약 7년 먼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 세대주의 요약

지금까지 우리는 세대주의라는 신학 체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해석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의도를 시대를 따라 펼쳐 나가시는지 구체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Dispensation’이라는 말은 원래 ‘한 집안을 다스리는 규칙’을 뜻하며 여기서 경영 체제라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신학에서도 이 말은 경륜 혹은 경영 체제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세대주의자든 언약주의자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경영 체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경영하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라 시대를 통해 여러 가지로 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경영 체제는 그 체제뿐만 아니라 그 체제가 지속된 시간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영어 사전 등은 ‘Dispensation’이 어떤 기간을 뜻한다고 분명히 정의합니다.

그 결과 영미권에서는 흔히 과거의 구약 시대를 ‘Jewish dispensation’, 지금의 교회 시대를 ‘Christian dispens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 체제 혹은 시대’와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 체제 혹은 시대’를 뜻합니다. 한국의 신학계에서는 ‘Dispensation’을 주로 시대적 개념으로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체계를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원래는 경륜주의라는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언약주의와 더불어 서구 사회에서 가장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 양대 정통 신학 체계입니다. 침례교가 강한 미국에서는 근본주의적인 대부분의 신학교가 세대주의 신학 체계를 가르칩니다. 반면에 언약주의는 장로교회에서 인정받는 신학 체계로 칼빈주의 혹은 ‘칼빈식 성경 해석 체계’를 뜻합니다. 한국에는 처음에 장로교회가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굳혔으므로 언약주의 세력이 강했지만 원래 초창기에는 한국의 장로교회들도 대개 세대주의적 예언 해석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통 언약주의를 선호하는 신학자들이 늘면서 이제는 칼빈 신학을 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세대주의를 ‘준 이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이단이나,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들어 세대주의자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믿는 사람들로 인식되어 비난을 받아 왔지만 실제로 건전한 세대주의자들 중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과 더불어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 있지 않은 이단 교리입니다. 어느 체계에서나 극단적인 요소나 주장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기에 우리는 세대주의 신학 체계에서도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결코 이것은 세대주의를

대표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대주의 체계에서는 반드시 일곱 개의 세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함을 보여주며 이러한 계시의 발전에 따라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경영 체계가 변했음을 보여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대의 개수는 결코 세대주의의 특징이 아니며 성경을 연구하는 개개인의 선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역사적 경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교회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세대주의는 언약주의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언약주의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천주교회의 어거스틴 신학에서 나와 칼빈을 거쳐 정착된 '이스라엘 대체 신학'입니다. 칼빈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랑 민족에 불과했고 그래서 전 유럽에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던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 돌아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은 그 누구도 상상하거나 심지어 인정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나온 성경 주석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자들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 해석에 따라 그 당시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줄기차게 외쳤고 때가 오자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세대주의자들은 천년 왕국과 같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나머지 예언들도 문자 그대로 모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17세기 칼빈 시대의 언약주의라는 틀에 박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관련된 성경의 예언을 영적으로 보려는 시도들은 모두 폐기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을 것을 강조하는 세대주의는 성경을 바로 보게 하는 힘을 키워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특정 교단이나 교회의 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살다 보면 구분해야 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즉 어떤 것들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성경을 바로 나누어 보면 이 시대에 주어지지 않은 약속들을 취해서 이 시대에 적용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특히 구약 성경을 QT용으로 읽는 데서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성경 말씀이 주어진 대상과 그 말씀의 1차적 의미, 즉 문자적/문법적/역사적 의미를 전혀 구하지 않은 채 영적으로 내 생활에만 적용하려는 QT식 해석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1차적인 뜻을 모른 채 내게만 영적으로 적용하면 사람마다 같은 구절을 달리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을 강해해도 목사마다 해석이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혼동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는 1차적으로 단 하나의 뜻만 있습니다.

끝으로 세대주의가 배격을 받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하였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함을 온 세상에 보여 준 샘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친백성인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마귀의 증오는 역사를 통해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백성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땅을 잃고 온 세상에 흩어져 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학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마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반유대주의’(Anti-Semitism)를 일으켜 공공연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러한 ‘반유대주의’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로 절정에 다다랐고 앞으로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더 유대인들은 곳곳에서 더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팔레스타인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인 유대인들에게 영원토록 조건 없이 주신 그들만의 보금자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학 체계는 세대주의밖에 없습니다. 다른 체계는 항상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천주교 신학과 유사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지금 중동에 서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씨로서 구약의 예언을 이를 대상으로서의 이스라엘임을 굳게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정서가 고양되고 이스라엘을 변호하는 정부나 민족이나 신학 체계는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은 그 민족이 창건된 이래로 전혀 없었던 대규모의 환난이 될 것입니다(렘30:7; 단12:1; 마24:20-22). 이와 같은 성경의 예언을 우리의 주변 상황과 신학 체계에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과 그 나라의 권리를 옹호하는 세대주의 신학 체계가 어떤 비난을 받을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신학 체계입니다. 어느 면에서 이것은 어떤 교단이나 교파의 정형화된 신학 체계가 아니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문맥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들을 하나의 간결한 형태로 모아 놓은 성경 그대로의 신학 체계입니다.

우리는 이 책의 내용이 100% 옳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구약에 기록된 참 이스라엘을 돕고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베풀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창12:3). 성경을 문자적으로 바르게 읽고 시대와 대상을 구별하여 바르게 해석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주님께서 화평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화평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갈 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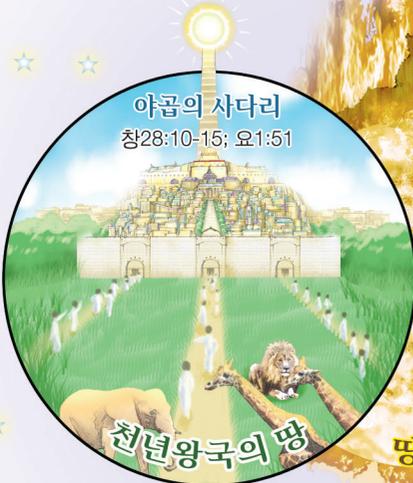
# 만물의 회복

Ω

오메가  
시대들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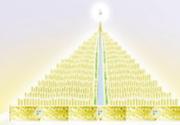
새 예루살렘



아돔의 사다리

창28:10-15; 요1:51

천년왕국의 땅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자들이  
이 도시의 빛 가운데서  
걸음(계21:24)

새 땅

땅의 정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이어야 하느니라(행3:19-21).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벧후3:12-13).

창세기는 죄와 사람의 타락을 보여 주며 계시록은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 준다. 위의 성경 말씀대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된다. 주님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는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열리며 이 기간에 구약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창12:2-3; 창15:18-21; 시2; 사11; 겔40-48; 속14 등)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때에 팔레스타인 땅은 지구의 중심이 되며 아브라함의 씨인 히브리 민족은 민족들 중에서 으뜸가는 민족이 된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기간을 '다시 태어나는 때'라고 말씀하셨다(마 19:28). 이 기간이 끝나고 신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이 옛 땅에서 성취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며(벧후3:10-13; 계21:1)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가오는 영원 안에서 이루어진다.

# 성경 연대기

본 연대기는 존스 박사가 저술한 「구약 성경의 연대기」(*The Chronology of the Old Testament*, F. N. Jones, March 2005, New Leaf Press Edition, Master Book)에서 인용하였다.

- AD(Anno Domini): 주후 525년 스키티아 출신의 연대사가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저술한 「부활제의 서(書)」에서 그리스도의 기원(Anno Domini)이 비롯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는 BC 4년에 출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시므로 AD는 보통 주후로 표기된다.
- AM(Anno Mundi): 창조가 시작된 해, 즉 아담의 출생을 기원으로 계산한 연도이다.
- BC(Before Christ): AD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이전을 뜻한다. BC는 보통 주전으로 표기된다.
- Co-rex: 공동 왕, 어떤 이유에 의해 두 왕이 공동으로 다스릴 경우에 쓰인다.
- Pro-rex: 대리 왕, 새 왕이 나이가 어린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다스릴 경우에 쓰인다.
- Sole-rex: 유일 왕, 어떤 왕이 공동 왕이나 대리 왕 이후에 홀로 다스릴 경우에 쓰인다.

AM	BC	사 건	AM	BC	사 건
	4004	아담과 이브, 우주의 창조	1757	2247	벨렉 출생
1	4003	가인 출생	1787	2217	르우 출생
129	3875	가인이 아벨을 죽임	1819	2185	스룩 출생
130	3874	셋 출생	1822	2182	니므롯의 왕국 시작
235	3769	에노스 출생	1849	2155	나홀 출생
325	3679	게난 출생	1878	2126	데라 출생
395	3609	마할랄레엘 출생	1996	2008	벨렉 사망
460	3544	야벳 출생	1997	2007	나홀 사망
622	3382	에녹 출생	2006	1998	노아 사망
687	3317	므두셀라 출생	2008	1996	아브라함 출생
874	3130	라멕 출생	2018	1986	사라 출생
930	3074	아담 사망	2026	1978	르우 사망
987	3017	에녹 승천	2049	1955	스룩 사망
1042	2962	셋 사망	2083	1921	데라 사망
1056	2948	노아 출생	2083	1921	아브라함 우르 출발(떠도는 일 시작)
1140	2864	에노스 사망	2094	1910	이스마엘 출생
1235	2769	게난 사망	2096	1908	아르박삿 사망
1290	2714	마할랄레엘 사망	2107	1897	할레 시작
1422	2582	야벳 사망	2107	1897	이삭의 약속
1556	2448	아벳 출생	2108	1896	이삭 출생
1558	2446	셈 출생	2113	1891	이삭의 젖을 땀
1651	2353	라멕 사망	2126	1878	살라 사망
1656	2348	므두셀라 사망	2141	1863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이삭을 바침
1656	2348	노아의 대홍수	2144	1860	사라 사망
1658	2346	아르박삿 출생	2148	1856	이삭과 리브가 결혼
1693	2311	살라 출생	2158	1846	셈 사망
1723	2281	에벨 출생	2168	1836	야곱과 에서 출생

AM	BC	사 건
2183	1821	아브라함 사망
2187	1817	에벨 사망
2208	1796	에서의 첫째 결혼
2231	1773	이스마엘 사망
2245	1759	야곱이 라반에게 도피함
2245	1759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함
2246	1758	르우벤 출생(레아)
2247	1757	시므온 출생(레아)
2248	1756	레위 출생(레아)
2249	1755	유다 출생(레아)
2249	1755	라헬이 야곱에게 빌하를 줌
2249	1755	단 출생(빌하)
2250	1754	납달리 출생(빌하)
2250	1754	레아가 야곱에게 실바를 줌
2251	1753	갓 출생(실바)
2252	1752	아셀 출생(실바)
2252	1752	잇사갈 출생(레아)
2253	1751	스블론 출생(레아)
2254	1750	디나 출생(레아)
2259	1745	요셉 출생(라헬)
2265	1739	베냐민 출생(라헬 사망)
2265	1739	야곱이 라반에게서 떠남
2272	1732	디나의 강간 사건
2276	1728	요셉이 종으로 팔림
2286	1718	요셉이 두 이집트 관리의 꿈을 해석함
2288	1716	이삭 사망
2289	1715	요셉의 승진(30세)
2296	1708	7년 흉년의 마감
2297	1707	족장들의 1차 이집트 방문
2298	1706	야곱과 족장들의 이집트 거주
2315	1689	야곱 사망
2369	1635	요셉 사망
2433	1571	모세 출생
2473	1531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주함
2475	1529	갈렙 출생
2513	1491	이집트 탈출(율법 수여)
2514	1490	성막을 세움
2552	1452	이스라엘이 가데스로 되돌아옴
2552	1452	미리암과 아론 사망
2552	1452	헤스본 왕 시혼 정복
2552	1452	모세 사망(여호수아 새 지도자)
2553	1451	이스라엘 요르단 통과
2559	1445	가나안 족속들과의 7년 전쟁 완료
2559	1445	12지파에게 가나안 땅 배분 시작
2560	1444	성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김
2560	1444	마지막 7지파에게 가나안 땅 배분 완료
2580	1424	여호수아 사망
2599	1405	미가의 제사장(삿17-18)
2601	1403	레위 사람 첩 사건(삿19-21)
2604	1400	구산리사다임의 압제
2612	1392	웃니엘의 구출
2644	1360	에글론의 압제

AM	BC	사 건
2662	1342	에훗의 구출
2724	1280	아빈의 압제
2744	1260	삼갈 재판관
2744	1260	바락과 드보라의 구출
2764	1240	미디안의 압제
2771	1233	기드온의 구출
2804	1200	아비멜렉의 권력 찬탈
2807	1197	돌라 재판관
2830	1174	야일 재판관
2834	1170	암몬의 압제
2842	1162	엘리 재판관
2852	1152	압다의 구출
2858	1146	입산 재판관
2863	1141	블레셋의 40년 통치 시작
2865	1139	엘론 재판관
2875	1129	압돈 재판관
2882	1122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음(엘리 사망)
2883	1121	삼손 재판관
2883	1121	언약 궤가 기럃여아림에 옴
2903	1101	삼손의 다곤 신전 파괴
2903	1101	사무엘의 40년 블레셋 통치 종료
2909	1095	사울의 등극
2909	1095	사울이 암몬을 패주시킴
2911	1093	사울과 블레셋의 싸움
2919	1085	다윗 출생
2934	1070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
2937	1067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
2939	1065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피함
2939	1065	다윗이 가드 등으로 피신
2944	1060	사무엘 사망
2945	1059	다윗이 사울을 두 번 살려 줌
2946	1058	다윗이 시글락에 머무름
2948	1056	사울과 요나단 사망
2949	1055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됨
2951	1053	다윗과 이스보셋의 싸움
2956	1048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됨
2956	1048	다윗이 예루살렘을 취함
2957	1047	다윗이 블레셋을 패주시킴
2957	1047	언약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옴
2964	1040	다윗이 브비보셋을 환대함
2967	1037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2968	1036	솔로몬 출생
2969	1035	암논이 다발을 강간함
2977	1027	압살롬의 반역
2988	1016	르호보암 출생
2989	1015	아도니아의 권력 찬탈
2989	1015	솔로몬 유다의 Pro-rex
2989	1015	다윗 사망(솔로몬 Sole-rex)
2992	1012	솔로몬이 성전 기초를 놓음
3000	1004	솔로몬 성전 봉헌
3029	975	르호보암 등극
3029	975	여로보암의 주도로 왕국이 분열됨

AM	BC	사 건
3033	971	시삭의 침공
3046	958	아비아 유다 왕 등극
3048	956	아사 유다 왕 등극
3050	954	나담 이스라엘 왕 등극
3051	953	비아사 이스라엘 왕 등극
3054	950	여호사밧 출생
3074	930	엘라 이스라엘 왕 등극
3075	929	시므리의 7일 통치
3075	929	오므리 이스라엘 왕 등극
3075	929	디브니와 오므리의 전쟁
3079	925	유다의 여호람 출생
3079	925	오므리의 이스라엘 통치(디브니 사망)
3086	918	아합 이스라엘 왕 등극
3087	917	아사의 발에 병이 생김
3090	914	여호사밧 유다 왕 등극
3096	908	유다의 아하시야 출생
3098	906	엘리사가 엘리야의 종이 됨
3106	898	여호람 유다의 Pro-rex
3107	897	아하시야 이스라엘 왕 등극
3107	897	요람 이스라엘 왕 등극
3107	897	엘리아 승천
3111	893	여호람 유다의 Co-rex
3115	889	여호람 유다의 Sole-rex
3115	889	엘리아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씀
3117	887	아하시야 유다의 Pro-rex
3118	886	아하시야 유다의 Sole-rex
3118	886	예후 이스라엘 왕 등극
3118	886	아달라의 유다 왕국 찬탈
3125	879	요아스 유다 왕 등극
3141	863	유다의 아마샤 출생
3147	857	여호아하스 이스라엘 왕 등극
3147	857	성전이 아직 보수되지 않음
3161	843	여호아스 이스라엘의 Pro-rex
3164	840	여호아스 이스라엘의 Sole-rex
3165	839	아마샤 유다 왕 등극
3167	837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Pro-rex
3177	827	유다의 웃시야 출생
3179	825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Sole-rex
3194	810	웃시야 유다 왕 등극
3218	786	대지진(암1:1)
3220	784	유다의 요담 출생
3220	784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망
3220	784	사가랴의 이스라엘 통치
3232	772	살롬의 이스라엘 통치(한 달)
3232	772	므나헴 이스라엘 왕 등극
3241	763	유다의 아하스 출생
3243	761	브기야 이스라엘 왕 등극
3245	759	베히아 이스라엘 왕 등극
3246	758	요담 유다의 Sole-rex
3252	752	히스기야 출생
3262	742	아하스 유다 왕 등극
3265	739	베히아 사망

AM	BC	사 건
3274	730	호세아 이스라엘 왕 등극
3278	726	히스기야 유다 왕 등극
3281	723	살만예셀 사마리아 포위
3283	721	아시리아의 이스라엘 정복(사르곤 즉위)
3291	713	산헤립(사르곤의 다르단)의 1차 침공
3291	713	히스기야의 생명 15년 연장
3291	713	사르곤의 아스돗 포위(사20:1)
3292	712	므로달발라단의 사절단
3293	711	사르곤에게 아스돗이 넘어감
3295	709	산헤립(사르곤의 Co-rex)의 2차 침공
3295	709	천사가 아시리아의 185,000명을 죽임
3295	709	유다의 므낫세 출생
3295	709	희년 주기의 15번째 해 시작(사37:30)
3307	697	므낫세 유다 왕 등극
3355	649	유다의 요시아 출생
3362	642	아몬 유다 왕 등극
3364	640	요시아 유다 왕 등극
3370	634	유다의 여호야김 출생
3371	633	요시아의 회심
3372	632	유다의 여호야하스 출생
3375	629	요시아의 1차 개혁
3376	628	에레미야 대언 시작
3381	623	요시아의 성전 보수(울림 발견)
3386	618	유다의 시드기야 출생
3388	616	여고니야(여호야김) 출생
3392	612	바빌론의 니느웨 정복
3394	610	바빌론의 하란 정복
3395	609	요시아가 여고니야에게 기름을 부음
3395	609	파라오느고가 요시아를 죽임
3395	609	아시리아의 반격 실패
3395	609	여호야하스 유다 왕 등극
3395	609	여호야김 유다 왕 등극
3398	606	느부갓네살(Co-rex)의 유다 침공
3398	606	1차 바빌론 포로 생활(단1)
3399	605	갈그미스 전투: 느고 사망
3399	605	느부갓네살의 등극
3400	604	느부갓네살(Sole-rex)의 첫째 해
3400	604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꿈 해석
3406	598	소규모 포로들(왕하24:2)
3406	598	여고니야 유다 왕 등극
3407	597	2차 바빌론 포로 생활
3407	597	시드기야 유다 왕 등극
3411	593	에스겔 대언 시작
3411	593	시드기야 바빌론 방문
3412	592	주의 영광이 성전을 떠남
3416	588	예루살렘 최종 포위 시작
3416	588	파라오의 개입
3418	586	바빌론 사람들의 약탈
3418	586	3차 바빌론 포로 생활
3422	582	소규모 포로들
3443	561	바빌론에서 여고니야가 석방됨
3465	539	매대 사람 다리오의 바빌론 정복

AM	BC	사 건
3468	536	고레스의 유대인 귀환 선포
3468	536	스플라벤의 인도로 유대인 귀환(1차)
3469	535	둘째 성전의 기초를 놓음
3484	520	성전 재건 시작
3485	519	아하수에로가 와스디와 이혼함
3488	516	둘째 성전 완공
3489	515	에스터가 왕비가 됨
3494	510	하만의 유대인 멸절 음모
3495	509	왕의 불면증
3495	509	하만의 교수형
3495	509	모르드개의 승진
3496	508	모르드개와 에스터의 유대인 구출
3537	457	성전 미화 법령 선포
3537	457	에스라의 예루살렘 도착
3537	457	유대인들이 이방인 아내들을 버림
3549	446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의 상태를 인지함
3550	445	아닥사스다의 칙령(제20년)
3550	445	다니엘의 70이레 시작
3550	445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에 옴
3550	445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및 봉헌
3562	433	느헤미아의 페르시아 귀환
3563	432	말라기(구약 성경의 끝)
3673	331	알렉산더 페르시아 정복
3681	323	알렉산더 사망
3833	171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성전 훼손
3836	168	안티오쿠스가 돼지를 제단에 드림
3836	168	마카비 반란
3839	165	성전 예배 복원
3941	63	폼페이아가 예루살렘을 취함
3964	40	로마의 헤롯 대왕 임명
3967	37	헤롯이 예루살렘을 취함
3984	20	헤롯의 성전 복원 시작
4000	4	헤롯 사망
4000	4	그리스도와 침례자 요한 출생
4004	AD 1	기독교 기원(AD) 시작
4012	9	예수님이 12세에 성전을 방문함
4015	12	티베리우스(Co-rex)의 첫째 해
4017	14	아우구스투스사망(티베리우스 Sole-rex)

AM	AD	사 건
4029	26	빌라도의 유대 총독 임명
4029	26	침례자 요한의 침례
4030	27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4032	29	헤롯 안디바가 침례자 요한을 죽임
4032	29	변화산 사건
4032	29	장막절(요7)
4033	30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4033	30	스태반의 순교
4035	32	바울의 회심
4040	37	칼리굴라 로마 황제 등극
4042	39	헤롯 안디바의 골 지방 유배
4044	41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 등극
4044	41	고넬로 회심(행15)
4047	44	야고보의 순교(행12)
4047	44	헤롯 아그립바의 사망(행12)
4048	45	1차 선교 여행(행13)
4049	46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음(행14)
4053	50	예루살렘 공회(행15): 할례 문제
4055	52	벨릭스 총독 부임
4056	53	2차 선교 여행(행15)
4057	54	네로 로마 황제 등극
4059	56	3차 선교 여행(행18)
4062	59	바울이 성전에서 붙잡힘
4062	59	바울이 벨릭스 앞에 섬
4063	60	베스도 총독 부임
4064	61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립바 앞에 섬
4065	62	바울이 로마에 도착함
4067	64	바울이 석방됨
4067	64	네로의 기독교 박해
4070	67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
4073	70	티투스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
4082	79	티투스 로마 황제 등극
4084	81	도미티안 로마 황제 등극
4099	96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됨
4099	96	네르바 로마 황제 등극
4099	96	사도 요한의 석방
4101	98	트라야나 로마 황제 등극

## 구원의 원리

### ♣ 필요성 ♣

모든 물건에는 그것들을 만든 존재, 즉 메이커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펜, 의자, 자동차, 책 등이 모두 메이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메이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을 판단하여 폐기 처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메이커가 있습니다. 물건도 메이커가 있는데 하물며 물건을 설계하는 고등 존재인 사람이 흠에서 그냥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만든 메이커가 그 사람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가 있습니다(행17:31; 히9:27). 이 같은 심판에서 부적격자로 드러난 사람은 메이커가 폐기시킵니다. 성경은 이 같은 메이커를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폐기 처분되는 것을 ‘유황 불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계20:10).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내게 메이커가 있는가, 없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 방해물 ♣

사람과 물건의 차이는 사람에게 자유 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적격자로 판정 내리는 근거가 죄라고 말하는데 근본적으로 죄란 ‘목표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며 사람이 자신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 의지를 이용하여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는 그분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롬3:23). 첫 사람 아담에게서 시작된 이 죄라는 독은 사람의 핏줄을 타고 전 인류에게 퍼졌습니다(창 5:3; 롬3:10).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따라 그 이후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인 사망이 임했고(롬6:23)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옥 불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티끌만큼의 죄도 차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합1:13).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과연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의 예화를 잘 읽어 보시면 죄와 죄인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죄는 논리적이지 않다: 수영을 못하는 전갈이 강을 건너기 위해 거북이에게 다가가서 등에 태워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는 “미쳤나?” 하고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수영하는 동안 네가 나를 쏘면 나는 물에 빠져 죽잖아.” 그러자 전갈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쏘 리가 있나? 네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게 되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런 논리적인 설득에 거북이는 “맞아. 그렇군.” 하고는 등에 전갈을 태우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강의 중간에 왔을 때 전갈은 강한 침으로 거북이를 쏘아 버렸고 둘은 같이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때 거북이가 가라앉으면서 전갈에게 힘없이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왜 쏘지?” 그러자 전갈은 다음과 같이 슬프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논리와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것이 내 본성이거든.”

(2) 죄인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다: 어느 목사가 클래스고우에서 열심히 옥외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설교의 결론을 내릴 즈음에 어떤 불신자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 양반, 나는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소. 하나님과 그리스도도 믿지 않소. 나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소이다.” 그러자 옆에 검은 안경을 낀 한 눈먼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근에 클라이드강이 있지만 나는 믿지 않소. 여기 사람들이 많이 서 있지만 나는 믿지 않소. 나는 그들을 본 적이 없소. 나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입니다.” 이 눈먼 사람이 말 한 바가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3) 죄인은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없다: 출랑거리는 한 청년이 목사에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 짐을 지고 다닌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도대체 아무 짐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죄 짐은 얼마나 됩니까? 10킬로그램쯤 됩니까? 아니면 80킬로그램쯤 됩니까?” 그러자 목사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죽은 사람 위예다 400킬로그램짜리 짐을 올려놓으면 그 시체가 무게를 느낄까요?” “아뇨, 죽은 사람은 무게를 못 느끼지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죄의 무게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알 수도 없으며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 ♣ 계획 ♣

철사 펜 공장에서 나오는 펜이 자기가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해도 자기 자신이 혹은 그 옆의 펜이 그 펜을 고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의 병은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 즉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등이 고칠 수 없습니다. 펜을 설계한 메이커가 펜을 고칠 수 있듯이 사람의 설계자인 하나님, 즉 사람과 차원이 다른 외부의 존재만 사람의 죄의 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행4:12).

### ♣ 확신 ♣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그 사람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곧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말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창조자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에 우리는 그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요14:6).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롬6:23).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은혜의 하나님이라 해도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거저 받을 수 있습니까? 저도 무엇인가를 조금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다 거저 주십니다. 공기, 물, 햇빛 등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 거저 주십니다. 부자나 학자나 귀족만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또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너무나 고귀하고

비싼 것이어서 사람이 값을 치르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거저 얻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 ♣ 초청 ♣

인생은 마치 기차역을 향해 달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단 몇 시간을 아끼려고 열차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역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이라는 무궁한 시간을 아끼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히3:13). 나이와 직업과 성별과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오늘 그 시간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방법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벧전1:23).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나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값없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러 하심이라(요3:16-17).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9-10).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히4:12-13).

# 구원의 원리

## 판정요청

모든 물건에는 그것들을 만든 존재 즉 메이커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펜, 의자, 자동차, 책 등이 모두 메이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메이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을 판단하여 폐기 처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메이커가 있습니다. 물건도 메이커가 있는데 하물며 물건을 설계하는 고등 존재인 사람이 흠에서 그냥 생길 수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만든 메이커가 그 사람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가 있습니다(행17:31; 히9:27). 이 같은 심판에서 부적격자로 드러난 사람은 메이커가 폐기시킵니다. 성경은 이 같은 메이커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폐기 처분되는 것을 '유황 불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계20:10).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내게 메이커가 있는가, 없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양해물

사람과 물건의 차이는 사람에게 자유 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적격자로 판정내리는 근거가 죄라고 말하는데 근본적으로 죄란 '목적에서 벗어나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며 사람이 자신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 의지를 이용하여 고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그분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롬3:23). 첫 사람 아담에게서 시작된 이 죄라는 독은 사람의 핏줄을 타고 전 인류에게 퍼졌습니다(창5:3; 롬3:10).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따라 그 이후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인 사망이 왔고(롬6:23)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옥 불속에서 자발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티끌만큼의 죄도 차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렘1:13).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과연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계획

철사 펜 공장에서 나오는 펜이 자기가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해도 자기 자신이나 혹은 그 옆의 펜이 그 펜을 고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의 병은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 즉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마리아, 마더 테레사 등이 고칠 수 없습니다. 펜을 설계한 메이커가 펜을 고칠 수 있듯이 사람의 설계자인 하나님 즉 사람과 차이가 다른 외부의 존재만이 사람의 죄의 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행4:12).

## 바탕

사람의 죄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 탄생을 통해 죄 없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어 단 한 번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 시키셨습니다(마1:23; 고후5:21; 히9:26).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지옥 불의 심판을 다 담당한 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몸으로 부활하셔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기가 햇빛같이 사람에게 필수불가결한 모든 것을 거저 주십니다. 이런 것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 역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집니다(롬5: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 사역을 믿기만 하면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습니다(엡2:8,9).

## 확신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그 사람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곧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말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창조 주이신 분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요14:6).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롬6:23).

## 초청

인생은 마치 기차역을 향해 달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단 몇 시간을 아끼려고 열차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역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이라는 무궁한 시간을 아끼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언제 도착할 모릅니다(히3:13). 나이와 직업과 성별과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오늘 그 시간이 도착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방법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태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벧전1:23).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나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값 없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 나오기 바랍니다!

#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함

원래의 기록  
(자필원본)

히브리어/그리스어 전통본문  
모든 사본 중 가장 신실한 것들

번역본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성경

킹제임스 성경의 선구자들

1611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קראשית ק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והארץ  
היתה תהו ובהו וחשך על  
ההום ורוח אלהים מרחפת

히브리어 구약성경

BIBLOS γενέσεως  
'Ιησου χριστού, υίου  
Δαβίδ, υίου' Αβραάμ.  
'Αβραάμ ἐγέννησεν

그리스어 신약성경

번역자들  
오직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

번역기술  
단어 대 단어의  
'축자 번역'  
'동적 일치 배제'

종교개혁의 정신과  
함께 중요 교리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  
위가 완전히 보존됨

위클리프 성경	1382
틴데일 성경	1525
커버데일 성경	1535
매튜 성경	1537
그레이트 성경	1539
제네바 성경	1560

















# 추천 참고도서

##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티디, 큰글자, 박사, 신약 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번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종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9.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1.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3.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희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3. 뉴에이지 운동 평가 박영호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사리즈6) 낮은울타리

##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사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대! 너희가 과부 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징조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저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저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 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 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 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저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 하였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 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 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팔로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목회자·신대원생  
무료 성경 증정



무료 설교  
강해 노트



9 788995 158784

ISBN 978-89-951587-8-4



03230

값 8,000원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http://www.lifeboo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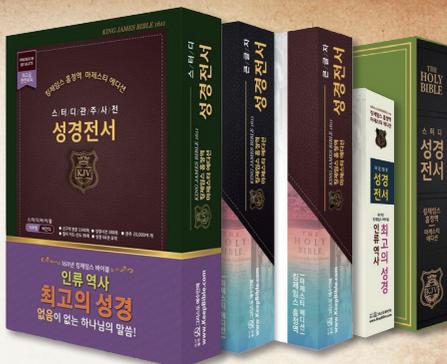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 킹제임스 흠정역

##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테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http://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NAVER

사랑침례교회

검색

#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류)에 관한 책 합본.

##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흥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천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짝슨 외/ 고정민 역

모든 것을 끝내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환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려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욱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배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빠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 킹제임스 흥정역

###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